연구총서 13-AA-06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uvenile felony crime

최수형 · 박현수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박현수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강사, 사회학 박사

▌이애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발간사

오늘날 청소년 사이의 따돌림, 괴롭힘, 폭력 등의 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 매일 보도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대전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청소년 범죄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범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두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관심의 부족으로 다양한 관점의 경험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의한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할 사회 구성원으로 소외와 배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적 관심으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청소년 강력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 역시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강력범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식 범죄 통계 자료 분석은 물론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 뿐 아니라 소년 강력범의 가정환경과 이들의 일상

생활, 친구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위해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 일반청소년을 비교 집단으로 두어 청소년 강력범을 청소년 절도범 및 일반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연구가 한국의 청소년 강력범죄를 이해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구를 맡아 수행한 최수형 부연구위원과 박현수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4년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박상옥

CONTENTS

국문요약 ····· 17

제1장 서론(최수형) ····· 33
제1절 문제제기 ····· 35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37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최수형) ····· 39
제1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 41
1. 강력범죄의 개념 및 범주 ····· 41
2.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 ····· 42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 ····· 43
1.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연구 ····· 43
2.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진행된 경험적 연구 ····· 46
제3절 종합적 검토 및 함의 ····· 63
1. 청소년 강력범죄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 63
2. 본 연구에 대한 함의 ····· 65

제3장 연구방법(최수형·박현수) ····· 67
제1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9
1.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위 ····· 69
2. 연구방법 ····· 70
제2절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측정 및 분석방법 ····· 75
1.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 75
2. 분석방법 ····· 93

제4장 공식통계를 통한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분석(최수형·박현수) ····· 97
제1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추세: 2002년 ~ 2011년 ····· 99
1. 청소년 강력범죄의 발생 및 추이 ····· 100
2.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 발생추세 ····· 102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특성 ····· 107
1. 여자청소년의 비율 ····· 107
2. 범행 당시 연령 ····· 110
3. 전과 정도 ····· 114
제3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내용 ····· 124
1. 단독범의 비율 ····· 124
2. 주취자 비율 ····· 129
3. 기소율 ····· 133
제4절 요약 ····· 137

제5장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 분석(최수형·박현수) ····· 139
제1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 141
1. 설문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 141
2.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144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발생 및 양상 ····· 146
1. 범행 내용 ····· 146
2. 범행 후 행동 ····· 176
제3절 청소년 강력범의 동기적 요인의 특성 ····· 180
1. 자아통제력 ····· 180
2. 사회적 유대(부모·친구) ····· 182
3. 비행친구 여부 및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 185
4. 비공식적 낙인 ····· 188
5. 일상적 긴장(목표실패·부모·학업·친구) ····· 190
제4절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기회 및 상황적 요인의 특성 ····· 194
1. 일상생활 ····· 194
2. 범행 당시 범죄발생 기회 및 상황적 특성 ····· 202

제5절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과정의 특성 ····· 217
1. 청소년 강력범, 청소년 절도범,
그리고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특성 비교 ····· 217
2. 범죄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생사건의 영향 ····· 240
3.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범죄 경력과 범행 내용 비교 ····· 251
제6절 청소년 강력범의 사회연결망 특성 ····· 260
1.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그리고 일반청소년의 사회연결망 특성 ····· 260
2. 강력범죄 유형별 사회연결망 특성 ····· 266
제7절 요약 및 함의 ····· 268

제6장 결론(최수형) ····· 277

참고문헌 ····· 283

Abstract ····· 295

부록

부록 1. 소년범용(교도소 수용자용) ····· 299
부록 2. 일반 청소년용 ····· 330

표 차례

〈표 3-1-1〉 강력범죄의 구체적 죄명 ····· 70
〈표 3-1-2〉 설문 조사인원 및 조사일정 ····· 72
〈표 3-1-3〉 일반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설계 ····· 74
〈표 3-2-3〉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 92
〈표 4-1-1〉 성인범죄자 내 강력범과 청소년 범죄자 내 강력범의 비율 추이 ····· 100
〈표 4-1-2〉 청소년 형법범죄자와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비율 추이 ····· 101
〈표 4-1-3〉 전체 범죄자 강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률 : 2002년~2011년 ····· 103
〈표 4-1-4〉 청소년 범죄자 강력범죄의 유형별 발생추이 ····· 104
〈표 4-1-5〉 성인 강력범죄 대비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구성비 ····· 106
〈표 4-2-1〉 여성 범죄자의 구성 비율 ····· 107
〈표 4-2-2〉 여자청소년 범죄자의 구성 비율 ····· 109
〈표 4-2-3〉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범행 당시 연령 ····· 111
〈표 4-2-4〉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연령 분포 ····· 113
〈표 4-2-5〉 전체 강력범죄자 재범자 비율 추이 ····· 115
〈표 4-2-6〉 전체 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4범 이상) ····· 116
〈표 4-2-7〉 청소년 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 ····· 120
〈표 4-2-8〉 청소년 강력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4범 이상) ····· 121
〈표 4-3-1〉 전체 범죄의 단독범 비율 추이 ····· 124
〈표 4-3-2〉 청소년 전체 범죄의 단독범 비율 추이 ····· 126
〈표 4-3-3〉 전체 범죄의 주취자 비율 ····· 130
〈표 4-3-4〉 청소년 강력범죄의 주취자 비율 ····· 132
〈표 4-3-5〉 전체 범죄의 기소율 추이 ····· 134
〈표 4-3-6〉 청소년 범죄의 기소율 추이 ····· 135
〈표 5-1-1〉 설문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 143
〈표 5-1-2〉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45

〈표 5-2-1〉 범행 당시 연령 ····· 146
〈표 5-2-2〉 범행 당시 평균 연령 ····· 147
〈표 5-2-3〉 교도소 수용 소년강력범의 범행 당시 연령 ····· 147
〈표 5-2-4〉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연령 ····· 148
〈표 5-2-5〉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평균 연령 ····· 148
〈표 5-2-6〉 범행 시간 ····· 149
〈표 5-2-7〉 청소년 강력범의 연령별 범행 시간 ····· 150
〈표 5-2-8〉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시간 ····· 150
〈표 5-2-9〉 범행 장소(중복응답) ····· 151
〈표 5-2-10〉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장소(중복응답) ····· 152
〈표 5-2-11〉 공범 여부 ····· 153
〈표 5-2-12〉 청소년 강력범의 연령별 공범여부 ····· 154
〈표 5-2-13〉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공범 여부 ····· 154
〈표 5-2-14〉 청소년 강도범 집단 내 연령별 공범 여부 ····· 155
〈표 5-2-15〉 공범과의 관계(중복응답) ····· 155
〈표 5-2-16〉 강력범죄 유형별 공범과의 관계(중복응답) ····· 156
〈표 5-2-17〉 범행 결심 시기 ····· 158
〈표 5-2-18〉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결심 시기 ····· 158
〈표 5-2-19〉 범행 계획 내용 ····· 159
〈표 5-2-20〉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계획내용 ····· 161
〈표 5-2-21〉 범행의 직접적 동기(중복응답) ····· 161
〈표 5-2-22〉 강력범 연령별 직접 동기(중복응답) ····· 162
〈표 5-2-23〉 강력범죄 유형별 직접 동기(중복응답) ····· 163
〈표 5-2-24〉 흉기 사용 여부 ····· 165
〈표 5-2-25〉 흉기 유형(중복응답) ····· 166
〈표 5-2-26〉 범행대상자와의 연령차이 ····· 167
〈표 5-2-27〉 교도소 수용 소년강력범의 범행대상자와의 연령 차이 ····· 168

〈표 5-2-28〉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대상자와의 연령차이 ····· 169
〈표 5-2-29〉 범행대상자와의 관계(중복응답) ····· 169
〈표 5-2-30〉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대상자와 관계(중복응답) ····· 170
〈표 5-2-31〉 평소 범행대상자와의 관계 ····· 171
〈표 5-2-32〉 강력범죄 유형별 평소 범행대상자와의 관계 ····· 172
〈표 5-2-33〉 범행 당시 체포와 처벌의 인지 ····· 173
〈표 5-2-34〉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체포와 처벌의 인지 ····· 174
〈표 5-2-35〉 범행 후 행동 ····· 177
〈표 5-2-36〉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후 행동 ····· 178
〈표 5-2-37〉 처분에 대한 생각 ····· 179
〈표 5-2-38〉 강력범죄 유형별 처분에 대한 생각 ····· 179
〈표 5-3-1〉 자아통제력 ····· 180
〈표 5-3-2〉 강력범죄 유형별 자아통제력 ····· 181
〈표 5-3-3〉 사회적 유대 ····· 183
〈표 5-3-4〉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사회적 유대 ····· 184
〈표 5-3-5〉 강력범죄 유형별 사회적 유대 ····· 185
〈표 5-3-6〉 비행친구나 선 · 후배 유무 ····· 186
〈표 5-3-7〉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비행 친구나 선 · 후배 ····· 186
〈표 5-3-8〉 강력범죄 유형별 비행친구나 선 · 후배 여부 ····· 187
〈표 5-3-9〉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 187
〈표 5-3-10〉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 188
〈표 5-3-11〉 강력범죄 유형별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 188
〈표 5-3-12〉 비공식적 낙인 ····· 189
〈표 5-3-13〉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비공식적 낙인 ····· 189
〈표 5-3-14〉 강력범죄 유형별 비공식적 낙인 ····· 190
〈표 5-3-15〉 일상적 긴장 ····· 191
〈표 5-3-16〉 강력범죄 유형별 일상적 긴장 ····· 191

〈표 5-4-1〉 부모(보호자)로부터의 자유로운 시간 ····· 194
〈표 5-4-2〉 강력범죄 유형별 자유로운 시간 ····· 195
〈표 5-4-3〉 늦은 밤 함께한 사람(중복응답) ····· 195
〈표 5-4-4〉 강력범죄 유형별 늦은 밤 함께 한 사람(중복응답) ····· 196
〈표 5-4-5〉 늦은 밤 있었던 장소(중복응답) ····· 197
〈표 5-4-6〉 강력범죄 유형별 늦은 밤 있었던 장소(중복응답) ····· 197
〈표 5-4-7〉 위험적 생활양식 ····· 198
〈표 5-4-8〉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위험적 생활양식 ····· 198
〈표 5-4-9〉 강력범죄 유형별 위험적 생활양식 ····· 199
〈표 5-4-10〉 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성 ····· 201
〈표 5-4-11〉 강력범죄 유형별 평소 자주 가는 장소의 특성 ····· 201
〈표 5-4-12〉 범행 장소의 지역적 특성 ····· 203
〈표 5-4-13〉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발생 장소의 지역적 특성 ····· 203
〈표 5-4-14〉 범행 당시 가출 여부 ····· 206
〈표 5-4-15〉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가출 여부 ····· 206
〈표 5-4-16〉 가출 시 머물렀던 곳 ····· 208
〈표 5-4-17〉 강력범죄 유형별 가출 시 머물렀던 곳 ····· 208
〈표 5-4-18〉 범행 당시 음주 상태 ····· 209
〈표 5-4-19〉 강력범죄 유형별 음주상태 ····· 210
〈표 5-4-20〉 범행 당시 함께 술 마신 사람(중복응답) ····· 210
〈표 5-4-21〉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함께 술 마신 사람(중복응답) ····· 211
〈표 5-4-22〉 범행 당시 상황 ····· 213
〈표 5-4-23〉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상황 ····· 214
〈표 5-4-24〉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중복응답) ····· 215
〈표 5-4-25〉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중복응답) ····· 216
〈표 5-5-1〉 비행경험에 따른 부모님(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변화 ····· 218
〈표 5-5-2〉 비행경험에 따른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와의 관계 변화 ····· 219

〈표 5-5-3〉 비행경험에 따른 친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 ····· 220
〈표 5-5-4〉 비행경험에 따른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변화 ····· 221
〈표 5-5-5〉 비행경험에 따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 222
〈표 5-5-6〉 비행경험에 따른 전반적인 관계의 변화 ····· 222
〈표 5-5-7〉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 ····· 224
〈표 5-5-8〉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 ····· 225
〈표 5-5-9〉 학교 징계에 따른 부모님(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변화 ····· 226
〈표 5-5-10〉 학교 징계에 따른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와의 관계 변화 ····· 227
〈표 5-5-11〉 학교 징계에 따른 친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 ····· 228
〈표 5-5-12〉 학교 징계에 따른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변화 ····· 229
〈표 5-5-13〉 학교 징계에 따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 230
〈표 5-5-14〉 학교 징계에 따른 전반적인 관계 변화 ····· 231
〈표 5-5-15〉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 간 학교징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 ·· 232
〈표 5-5-16〉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학교징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 ····· 232
〈표 5-5-17〉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부모님(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변화 ·· 234
〈표 5-5-18〉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학교 반 친구나 선 · 후배의 관계 변화 ····· 235
〈표 5-5-19〉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친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 ····· 236
〈표 5-5-20〉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변화 ····· 237
〈표 5-5-21〉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 238
〈표 5-5-22〉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전반적인 관계 변화 ····· 239
〈표 5-5-23〉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 ····· 240
〈표 5-5-24〉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 비교 ····· 241
〈표 5-5-25〉 구체적인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 경험 ····· 242

〈표 5-5-26〉 강력범죄 유형별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 경험 ····· 242
〈표 5-5-27〉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 비교 ····· 243
〈표 5-5-28〉 구체적인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 경험 ····· 244
〈표 5-5-29〉 강력범죄 유형별 구체적인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 경험 ····· 246
〈표 5-5-30〉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비행, 학교징계, 경찰 조사, 법정에 선 경험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사건 비교 ····· 248
〈표 5-5-31〉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학교징계, 경찰 조사, 법정에 선 경험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사건 비교 ····· 249
〈표 5-5-32〉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비행, 학교징계, 경찰 조사, 법정에 선 경험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사건 비교 ····· 250
〈표 5-5-33〉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학교징계, 경찰조사, 법정에 선 경험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사건 비교 ····· 251
〈표 5-5-34〉 소년 절도범과 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 ····· 252
〈표 5-5-35〉 소년 절도범과 소년 강력범의 범행 내용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 ····· 254
〈표 5-5-36〉 소년 절도범과 소년 강력범의 범행 내용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 ····· 257
〈표 5-6-1〉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의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 263
〈표 5-6-2〉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과 알게 된 계기(중복응답) ····· 263
〈표 5-6-3〉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과 알게 된 기간 ····· 265
〈표 5-6-4〉 강력범죄 유형별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 267

그림 차례

〈그림 2-2-1〉 비행청소년집단의 구조(출처: Snyder, 1999) ····· 44
〈그림 3-1-1〉 서울시 조사권역 ····· 73
〈그림 4-1-1〉 성인범죄자 내 강력범과 청소년 범죄자 내 강력범의 비율 추이 ····· 100
〈그림 4-1-2〉 청소년 형법범죄자와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비율 추이 ····· 102
〈그림 4-1-3〉 전체 강력범죄의 유형별 발생추이 ····· 103
〈그림 4-1-4〉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발생추이 ····· 105
〈그림 4-1-5〉 성년 강력범죄 대비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구성비 ····· 106
〈그림 4-2-1〉 여성 범죄자 구성 비율 추이 ····· 107
〈그림 4-2-2〉 여성 강력범죄자 구성 비율 추이 ····· 108
〈그림 4-2-3〉 여자청소년 강력범죄자 유형별 추이 ····· 110
〈그림 4-2-4〉 청소년 강력범죄자 범행 당시 연령별 비율 추이 ····· 112
〈그림 4-2-5〉 전체 강력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 ····· 114
〈그림 4-2-6〉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 ····· 116
〈그림 4-2-7〉 전체 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 (4범 이상) ····· 117
〈그림 4-2-8〉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 (4범 이상) ····· 118
〈그림 4-2-9〉 청소년 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 ····· 118
〈그림 4-2-10〉 전체 강력범죄 재범자 비율 추이 및 청소년 강력범죄 재범자 비율 추이 비교 ····· 119
〈그림 4-2-11〉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 ····· 120
〈그림 4-2-12〉 전체 강력범죄 재범자 비율 및 청소년 강력범죄 재범자 비율 추이 비교 (4범 이상) ····· 122
〈그림 4-2-13〉 청소년 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4범 이상) ····· 123
〈그림 4-2-14〉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4범 이상) ····· 123
〈그림 4-3-1〉 전체 범죄의 단독범 비율 ····· 125
〈그림 4-3-2〉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 단독범의 비율 추이 ····· 125

〈그림 4-3-3〉 청소년 전체 범죄의 단독범 비율 추이 ····· 127
〈그림 4-3-4〉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단독범 비율 추이 ····· 128
〈그림 4-3-5〉 전체 강력범죄의 단독범 및 청소년 강력범죄의 단독범 비율 비교 ····· 129
〈그림 4-3-6〉 전체 범죄의 주취자 비율 ····· 130
〈그림 4-3-7〉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 주취자 비율(단위:%) ····· 131
〈그림 4-3-8〉 전체 강력범죄 주취자 비율 및 청소년 강력범죄 주취자 비율 비교 ····· 132
〈그림 4-3-9〉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주취자의 비율 ····· 133
〈그림 4-3-10〉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 기소율 추이 ····· 134
〈그림 4-3-11〉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기소율 추이 ····· 136
〈그림 4-3-12〉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 및 청소년 강력범죄 기소율 비교 ····· 136
〈그림 5-5-1〉 소년 절도범과 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비교 ····· 253
〈그림 5-5-2〉 청소년 강력범과 청소년 절도범의 범행 내용 비교 ····· 256
〈그림 5-5-3〉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내용 비교 ····· 259
〈그림 5-6-1〉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의 사회연결망 ····· 261
〈그림 5-6-2〉 강력범죄 유형별 사회연결망 ····· 266
〈그림 6-1-1〉 소년 강력범의 장래 희망 ····· 282

국문요약

청소년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겨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활성화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는 성인 범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강간 그리고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범죄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다양한 양상과 고유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관련 내용 뿐 아니라 소년강력범의 환경적 요인, 생활 전반의 경험과 태도,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집중적 분석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강력범죄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개념 및 범주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들의 연구 관심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지고 있다. 즉, 강력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살인, 강도, 강간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폭력과 방화의 경우는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세부 유형별로 구체적인 특징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인범죄 가운데 폭력수반 범죄로 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강력범죄만의 공통된 특징을 일반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범죄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과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는 정신병리학적 접근이나 심리학적 접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보다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범죄유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범죄현상보다 특히나 청소년 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청소년의 정신적이거나 심리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년이 왜 그러한 문제를 지니게 되었는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먼저 필요하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개인적 차원의 치료적 접근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반쪽짜리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범죄학적 관점 등의 서로 다른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다양한 표본을 가지고 서로 다른 변수를 통한 반복적인 연구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범죄의 특성이 보다 분명해 지고 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Shumaker & Mckee, 2001). 그리고 풍부한 연구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작은 표본을 가지고 거친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고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카이스퀘어(Chi-square)이나 상관분석(ANOVA)와 같은 분석 방법이 현재 대부분인데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나 생존분석(Survival analyses)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Keelan & Fremouw 2013). 또한, 양적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없는 구체적 상황 이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네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교 집단과의 차이를 보여줘야 한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 간의 차이 뿐 아니라 강력범죄 내의 차이와 공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Heide, 2011; Shumaker & Mckee, 2001; DiCataldo & Everett, 2008). 다시 말해서, 청소년 강력범죄와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등의 다른 유형의 범죄간 뿐 아니라 청소년 강력범죄 내 세부 유형의 범죄간, 그리고 발달론적 특징을 고려한 가해자의 연령대별 구분을 통한 청소년 강력범죄 집단 내에서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국내연구가 국외연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 소년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 강력범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일 것이다. 국외에서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범율을 살펴보는 종단적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 데이터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경험적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심각성만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이는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인식에 따라 해당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논의에서는 부족했던 범죄사회학적 관점의 논의와 관련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 발생 특징 뿐 아니라 범죄사회학적 논의에서 제시되는 동기적 차원의 요인, 범죄 기회 및 상황에 대한 요인, 그리고 범죄 경력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등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최대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다양한 양적 분석방법 뿐 아니라 질적 분석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양적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을 여러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과 연령별 분석은 물론 죄질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교도소 수용 강력범과 비수용 강력범 간의 차이를 분석할 예정이며 절도와 같은 비강

력범죄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도범을 비교집단으로 두었고 소년범과 일반청소년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반청소년을 비교집단으로 두었다.

본 연구에서 강력범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이거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를 의미하며 세부 유형으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포함한다. 단, 방화는 사람이 현존하거나 주거로 사용하는 곳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강간의 경우 강제추행은 제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청소년 강력범죄는 만 10세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공식통계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면접조사이다. 범죄발생 관련 국가 공식통계는 암수범죄의 문제라는 근본적인 한계 외에도 범죄발생 관련 내용 작성과정에서의 오류와 같은 문제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전국규모의 범죄 발생 현황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발생 및 추이이다. 성인 범죄자 강력범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소년 범죄자 가운데 강력범의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7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성인 범죄 가운데 강력범의 비율에 비해 소년 범죄자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강력범에서의 소년범의 비율은 전체 형법범에서의 소년범의 비율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배가량 높아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해 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살인의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방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강도와 강간은 증감을 반복

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성인 강력범죄 대비 청소년 강력범죄의 구성비를 보면 강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특성으로 여자청소년의 비율과 범행 당시 연령, 그리고 전과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①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에서 여자청소년 비율은 급증하였으며 강력범죄에서 전체 여성범죄자의 구성 비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즉, 이는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 여자청소년의 가담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자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강력범죄 가운데 살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여자청소년 살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로 여자청소년의 구성 비율을 성인이 포함된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여성의 비율과 비교해보면 여자청소년은 여자 성인에 비해 살인과 강도 가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수 있다. ②청소년 강력범죄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17세'의 점유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8~19세', '14~15세', '14세 미만'의 순이었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방화의 경우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범행 당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③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재범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성인 포함 전체 강력범죄에서 재범자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로 재범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강도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재범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지난 10년간 강도의 재범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였다. 한편, 성인 포함 강력범죄에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는 달리 청소년 강력범에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은 증가추세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내용과 수법에 있어서 보다 심각하고 흉악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세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내용은 크게 단독범의 비율과 범행 당시 음주 수준, 그리고 기소율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①10년 전에는 단독

범의 비율이 재산범죄에서 높았으나 2011년 현재 강력범죄에서의 단독범 비율이 재산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단독범의 비율은 성인 포함 전체 강력범죄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청소년의 경우 공범과 함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로 단독범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강도인 경우에는 공범과 함께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소년 강력범죄에서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재산범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주취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살인과 강간의 경우 강도나 방화에 비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③지난 청소년 형법범죄의 기소율을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절도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청소년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 기소율을 살펴보면 살인의 기소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에 비해 청소년 강력범에 대한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이는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전체 강력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강력범에 대한 기소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통계자료 분석 이외에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양적분석 결과와 함께 면접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청소년 강력범의 구체적인 생활과 경험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강력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다. 소년 강력범은 남자가 대부분이었고 양육자는 '친부모'인 경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가정 형편에 있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간 못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한 달 용돈 수준에 있어서는 '한 달 용돈이 없다'는 응답이 25.6%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소년 강력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

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절도범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청소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친부모에 의해 길러진 비율이 일반청소년(94.4%)에 비해 소년 강력범은 64.8%로 적었고 부모님의 학력도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대졸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아 소년 강력범 집단의 부모님 학력이 일반청소년 집단의 부모님 학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형편의 경우 일반청소년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잘 사는 편'이었고 한 달 용돈의 경우도 '한 달 용돈 없다'는 응답 비율이 일반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이처럼 소년 강력범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발생 및 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을 크게 범행 내용과 범행 후 행동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범행 내용 관련 특성이다. ①범행 당시 연령을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의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15.9세였고 소년 절도범은 15.7세로 소년 강력범이 절도범에 비해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의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범행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가장 많았고 이는 소년 절도범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소년 강력범의 연령별로 범행 시간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새벽에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범행시간이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③소년 강력범의 범행 발생장소를 보면 '개인주거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야외', '유흥 및 위락업소' 등의 순이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야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강간과 방화, 살인은 '개인 주거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④소년 강력범의 공범의 유무 및 공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행을 혼자 저지르기 보다는 동성친구와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절도범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앞서 살펴본 공식통계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단독범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⑤소년 강력범의 범행 결정 시기는 '범행 직전'이라는 응답이 절도범에 비해서도 높아 소년 강력범은 절도범에 비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범행

바로 직전에 행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범행을 결심하는 시기가 빨라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계획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⑥범행의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강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미리 범행 대상을 선정하거나 범행에 쓰일 도구를 미리 준비하거나 범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생각해두거나 도주하는 방법을 미리 짜놓거나 전체적인 예행연습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⑦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결과, 강도는 '유흥비나 술값 마련', 강간은 '성적 충동이나 흥분', 방화와 살인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⑧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전체의 14.2%였고 그 가운데 소년강력범이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13.6%였으며 흉기의 종류는 '칼'이나 '몽둥이나 둔기'가 대부분이었다. ⑨범행대상자와 소년범간의 연령 차이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은 자신보다 어린 경우가 더 많았고 소년 절도범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더 많았다.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나 후배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⑩범행 당시 체포 및 처벌의 인지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강력범과 절도범을 비교해보면 청소년 강력범의 경우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경찰에 체포될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발생 및 양상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으로 범행 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행 후 현장에서 바로 도망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소년 절도범과 차이가 없었다.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현장에서 바로 도망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형량이나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은 소년 절도범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나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강력범은 경찰 조사와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행동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동기적 요인의 특징이다. ①소년 강력범의 경우

절도범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당장 즐겁고 재미있는 일부터 하고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하는 등의 낮은 자아통제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자아통제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사회적 유대 수준을 살펴보면 '부모애착', '부모감독', '친구애착' 모두 소년 절도범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비행청소년이나 비비행청소년인 일반청소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이는 소년범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교도소 수용 강력범과 비수용 강력범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감독의 수준이 비수용 강력범이 높게 나타났다. 즉,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때 부모 감독 요인이 범행의 심각성 수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비행친구 여부 및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경우 소년 강력범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행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역시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비행친구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간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어서 비행친구를 사귐으로 인해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갖게 된 것인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높은 아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비행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인지는 판단 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비행친구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간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예상 할 수는 있다. ④주변사람들로부터 문제아나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소년 강력범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년 강력범 집단 내에서도 교도소 수용 강력범이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비공식적 낙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소년강력범의 경우 일상적 긴장 가운데 자신이 처한 여건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일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목표 실패 인지 수준과 부모와의 갈등상황으로 인한 긴장수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긴장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 동기적 차원의 이론적 변수를 소년강력범과 비강력범, 일반청소년(비행청소년·비비행청소년)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행의 경험이 없는 비비행청소년의 동기적 차원의 모든 변수가 다 낮은 것은 아니었다. 가령, 자아통제력의 경우 일반청소년이 소년범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일반청소년 가운데 비행청소년이 비비행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적 긴장

가운데 학업긴장은 일반청소년이 높은 편이었고 친구와의 긴장 요인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범죄학적 논의에서 제시하는 동기적 차원의 변수의 영향이 청소년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일상적 긴장을 살펴본 결과, '부모 긴장'과 '목표 실패'에 대한 긴장수준은 방화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높았다.

네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기회 및 상황 요인에 대한 특징으로 일상생활과 범행당시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일상생활이다. ①소년 강력범의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평일과 주말 평균 시간이 각 12.21시간, 13.87시간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소년 강력범의 감독부재 시간이 긴 것으로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소년 강력범의 경우 늦은 시간에 동성 동네친구들과 피씨방이나 술집, 유흥지역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평소 위험적 생활양식은 소년 강력범이 절도범과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력범 가운데에서도 교도소 수용 강력범집단이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높았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평소 위험적 생활양식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③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징을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술 취한 사람이나 비행청소년이 많은 등의 사회적 무질서 정도가 높고 후미진 곳이나 유흥업소가 많은 등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은 장소에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죄 유형별로 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징을 살펴보면 강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지역에, 살인은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지역에 자주 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죄 기회 및 상황 요인에 대한 특징의 두 번째로 범행 당시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범행 장소의 지역적 특성 가운데 평소 자주 가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정도가 소년 강력범이 절도범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살인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범행 장소가 평소 자주 가는 장소로 범행 장소와의 친근한 정도가 가장 높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경우 가출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은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았다(절도범:40.1%). 하지만 강도의 경우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가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③범행 당시 음주 상태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술에 취한 수준은 다르지만 동성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응답이 절도범에 비해 높았고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더 높았다. ④범행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한 경우도 10% 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협박을 하고 때린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⑤소년 강력범죄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청소년 강력범의 경우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범죄에 취약한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먼저, 범죄경력에 따른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와,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 등과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이다. ①비행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소년 절도범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 경험으로 인한 부모님,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 학교선생님, 동네 사람들과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년범과 일반청소년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 가운데 부모님, 학교선생님, 동네 사람들과의 부정적 관계의 경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비행이 알려져서 부모님, 학교 선생님, 동네 사람들과 부정적 관계로 변화될수록 소년범에 속할 가능성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학교 징계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님,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과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일반청소년과 소년범 간 학교징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과 부정적 관계로 변할수록 소년범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학교징계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③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으로 인해 부모님과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과정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으로 범행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율과 부정적 인생사건의 영향이다. ①소년 강력범의 친구들로부터의 괴롭힘, 남에게 맞거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애인과의 이별 등의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율은 소년 절도범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소년 강력범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학대등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율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부모사업의 실패나 실직, 부모의 병상생활, 부모의 사망, 양육자 학대와 같은 사건의 경험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부정적 인생사건과 실제 비행 및 범죄 발생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정 내 부정적 사건이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된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고 비행을 제외한 학교징계나 경찰조사, 법정에 선 경험도 마찬 가지였다. 한편, 일생상활 상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우 비행을 제외한 학교징계나 경찰조사와 법정에 선 경험이 2년 이내에 발생한 비율이 소년강력범 집단에서 높기는 했지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비행이나 범죄를 지속 혹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과정에서 나타난 세 번째 특징으로 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과 범행 내용 관련이다. ①연관성 분석을 통해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범죄경력을 비교한 결과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이전에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년 강력범의 경우

에는 소년 절도범과 같이 절도, 폭행,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른 경험이 있었지만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소년 강력범의 범행내용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행결정시기는 '범행 직전', 피해자와의 관계는 '친구나 선·후배', 공범여부에 있어서는 '공범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강도의 경우는 범행결정시기(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의 관계(동네사람)가 강간의 범행내용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강간의 경우는 범행 결정시기가 범행 직전으로 주로 충동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구나 선후배로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개인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통해 소년 강력범의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①소년 강력범의 연결망을 보면 일반청소년에 비해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 비행을 저지른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별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우선 효과성을 비교해보면 비비행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일수록 응답자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년 절도범이나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응답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간에 서로 잘 알 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밀도의 경우는 소년 강력범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년 절도범, 비비행청소년, 비행청소년의 순이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만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한 강도를 비교해 보면 비비행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행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의 순으로 소년범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이는 정서적인 애착관계가 높지 않아서일 수 있다. 친구들과의 유대가 강하면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평소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거나 고민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등의 친구와의 애착 수준이 비비행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행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의 순으로 소년범의 친구와의 유대정도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즉, 자신과 비슷한 경험과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는 하지만 그 친구들과 강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는 형태로 굳이 만남을 자주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알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소년범의 경우 동네에서 알게 되었거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알게 된 기간을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오래 되었으며 이들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는 소년범의 경우 일반청소년과는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비행이나 범죄)을 가진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들만의 집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강력범죄 유형별로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 강도범과 강간범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를 저지른 동성친구, 비행을 저지른 동성친구, 일반 동성 친구 간의 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 방화범의 경우는 강도범이나 강간범과는 달리 다른 범주의 사람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효과성과 밀도, 강도를 중심으로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소년 살인범이 응답자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많았고 소년 강간범은 밀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한 달 평균 만나는 횟수를 통해 측정된 강도는 소년 살인범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평소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장에서는 소년 강력범의 범행 내용과 동기적 차원의 요인, 범죄 기회 및 상황적 요인, 범죄경력, 사회연결망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서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년간의 차이와 공통성도 찾아보았다. 소년 강력범죄는 절도범죄에 비해 범행을 저지른 연령이 높았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기 보다는 범행 직전에 범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발생 양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강력범죄 유형별로도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나 범행대상자와의 연령 차이 등에서 차

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 강력범은 소년 절도범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고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도 높은 편이었다. 한편, 소년 강력범의 범죄 기회 및 상황 요인에 있어서는 부모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 평소 위험적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었으며 범죄 경력과정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소년 강력범의 연결망분석 결과, 다른 집단에 비해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살인이나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에서 자라나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과 같은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지속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을 통제 할 수 없게 되면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비행과 범죄의 경험은 부모님이나 주변사람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늦은 밤까지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무질서한 장소에 몰려다니는 등의 생활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강력범죄는 청소년 개인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만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다양한 양상과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진행 한 것으로 탐색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강력범죄 유형별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살인과 방화의 경우 강도와 강간에 비해 표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청소년 살인과 청소년 방화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시작으로 강력범죄의 각 유형별 심층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소년 강력범의 비교집단인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년의 사

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연구결과가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효과 일 수 있다. 물론, 일반청소년을 비행청소년과 비행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비비행청소년으로 구분해 기초분석을 했고 사회연결망분석에서는 남자청소년만을 분석하여 최소한 성별 효과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이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변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청소년 강력범과 일반청소년간의 차이에 비해 청소년 강력범과 청소년 절도범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 절도범 집단 내에서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가 포함되어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집단의 영향일 수도 있다. 즉, 강력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처럼 범죄 유형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상습적인 범죄 경력과 같은 질적 개념의 강력범죄로의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청소년 강력범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많은 변수를 포함시킨 본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를 위한 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또한, 일반 비행이나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내용에 있어 심각성을 보이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특징 분석 내용은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성 및 청소년 강력범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최 수 형

01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청소년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겨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활성화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는 성인 범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강간 그리고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오늘날 발생하는 강력범죄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에서 소년 강력범죄자의 비율은 13%가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전체 형법범죄에서 소년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6.9%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대검찰청, 2012). 또한, 지난 10년 간 청소년 범죄 가운데 강력범죄 발생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 범죄 가운데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보다 높았다(대검찰청, 2012). 물론, 이러한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양적 수치의 위험성만이 청소년 강력범죄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시기의 범죄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소년범은 이후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험은 다른 수준의 비행이나 범죄에 비해 경험하는 사회적 비난과 처벌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사회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라는 일방적인 사회적 비난과 처벌 이전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성인범죄자로의 전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전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등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심각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정작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관심은 크지 못하다. 현 시점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차별화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범죄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다양한 양상과 고유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접근의 청소년 범죄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현 시점에서 청소년 범죄연구 기초자료 축적이라는 차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관련 내용 뿐 아니라 범죄사회학적 논의에서 제시하는 주요 이론적 변수를 통한 특징 분석과 연관성 분석, 그리고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강력범죄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를 통해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실태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장의 서론과 6장의 결론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본 연구의 문제제기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였고 앞으로의 연구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2장은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로 크게 3개의 절로 구분되는데 1절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3절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를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진행 및 연구 내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3장은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1절에 정리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통계분석, 설문조사, 면접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내용들을 포함한다. 2절의 내용은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측정 및 분석방법에 대한 것이다.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측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이론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론적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4장은 공식통계를 통한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분석으로 총 3절로 구성된다. 먼저, 1절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청소년 강력범죄 전체와 각 유형별 추세를 살펴보고 2절에서는 성별, 범행 당시 연령, 전과 등의 청소년 강력범죄자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고 3절에서는 단독범과 주취자의 비율 등의 청소년 강력범죄 내용의 특성을 살펴본다.

5장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와 같은 경험적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크게 6개의 절로 구성된다. 먼저, 1절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집단인 소년절도범과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였고 2절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다양한 발생 양상과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절도범과 비교

해 보면서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3절과 4절에서는 범죄사회학적 논의의 이론적 변수를 사용하여 청소년 강력범의 동기적 요인과 범죄 기회 및 상황적 요인의 특성을 정리한다. 5절은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부정적 인생사건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 경력과 범행 내용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6절은 청소년 강력범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의 유형이 일반 청소년이나 소년 절도범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최 수 형

0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1. 강력범죄의 개념 및 범주

강력범죄라는 용어는 실정법상 또는 이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강력범죄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자나 형사사법기관별로 그 입장이 다양하다(박행렬, 2010: 52-53).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경찰청의 「2012 범죄통계」에서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로 보았고 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는 강력범죄를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로 구분하여 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으로 폭력범죄는 폭행을 포함한 상해, 협박, 공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에 비해 검찰이 보다 강력범죄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원배(2009:169)는 강력범죄를 전통적이며 대인적(對人的) 범죄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함으로서 신체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로 이해해야 하며 살인, 강도, 강간(특별법포함)과 방화를 포함시켜 강력범죄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일본 警察白書(警察庁)의 경우 형법범을 흉악범, 조폭범, 절도범, 지능범,

풍속범과 기타 형법범으로 구분하고 이 중 흉악범을 살인, 강도, 강간, 방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犯罪白書(法務省)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형사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다(박원배, 2009:169). 또한, 미국의 공식범죄통계인 UCR(uniform report crime)에서 강력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가중폭행으로 구분되며 방화는 재산범죄에 포함된다[1]. 반면, 박행렬(2010:53)은 강력범죄 개념의 독자성과 유용성을 위해서 강력범죄는 일반 폭력범죄와 구분되어야 하고 방화와 같은 폭력적이지 않은 범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살인, 강도, 강간 세 종류의 범죄만이 강력범죄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방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박형민(2004)은 방화 범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한 결과 방화는 재산적인 이득이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재산 침해적 범죄라기보다는 표출적이고 폭력성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2.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력범죄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Fagan과 Piquero(2007), Ikomi(2010)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모두를 강력범죄로 보았고 Farrington과 Loeber(1998)은 아동의 강력범죄를 살인, 강도, 강간, 심각한 수준의 방화만 포함하고 있다(Loeber & Farrington, 2001). 한편, Loeber와 동료들(1998)는 살인과 폭행, 강간, 강도(무장강도 포함), 유괴, 강간, 방화를 강력범죄로 보고 있지만 방화의 경우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인 경우만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Snyder(1999)와 Loeber와 Slot(2007)는 살인, 유괴, 강간, 강도, 폭행을 강력범죄의 범주로 이해하고 방화는 절도와 같은 비폭력범죄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강력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해당 관련 기관이나 학자들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은 강력범죄에 포함된다. 즉, 강

1) http://www.fbi.gov

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피해 뿐 아니라 물질적 피해까지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 수반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강력범죄에 일반 폭력성 범죄와 방화범죄에 대한 포함 여부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지는 것이다.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

1.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연구

청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사회현상이다(Loeber & Farrington, 2001). 청소년 범죄 가운데 소년 강력범들은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다(Loeber & Slot, 2007). Snyder(1999)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소년범 151,209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만성적이지 않고 사소한 절도와 같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비행성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전체의 63.0%로 가장 많았고 만성적이지 않고 자동차 절도나 방화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소년범들은 17.7%, 만성적이고 비폭력적 범죄를 저지른 집단은 7.9%, 만성적이고 비폭력적인 범죄와 강력범죄 모두 저지른 경우가 3.3%, 비만성적이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소년 범죄자는 3.2%, 만성적이면서 비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5%, 만성적이면서 강력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0.9%, 만성적이지 않으면서 비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강력범죄도 저지른 경우가 0.7%를 차지하였다. 아래의 〈그림 2-2-1〉은 이러한 비행청소년집단의 분포를 구조화한 것이다. 즉,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소년 강력범이라고 해서 만성범죄자는 아니었다(Snyder, 1999). 한편,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의 문제적 행동이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로를 살펴본 Loeber와 Hay(1994)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이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하고 이것은 강간이나 심각한 폭행 등의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Tolan & Gorman-Smith,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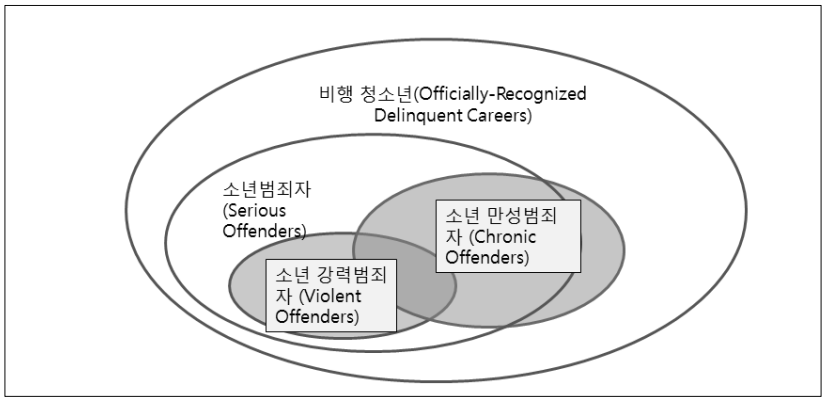


그림 2-2-1 비행청소년집단의 구조(출처: Snyder, 1999)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는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초기에는 생물학적 관점의 논의가 많았으나 점차 사회학적이거나 심리학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Corbitt, 2000).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요인은 충동성이나 위험추구 경향, 공격성 등의 심리적 요인과 부모의 범죄성향, 가정폭력 피해 경험, 부모와 자녀 간 관계 등의 가족 요인, 학업실패나 학교생활 적응 등의 학교 요인, 비행친구 여부 등의 친구 요인, 이웃 간 유대나 일상적 폭력에 대한 노출 정도 등의 지역적 요인, 범행 당시의 무기사용 가능여부, 음주여부 등의 상황적 요인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Hawkins, Herrenkohl, Farrington, Brewer, Catalano, & Harachi, 1999). 대개, 청소년 강력범죄자는 술이나 마리화나 등의 약물 사용이나 학업 문제, 범죄 피해 경험이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Huizinga & Jakob-chien, 1999; Corbitt, 2000). 또한, 강력범죄와 관련 요인간의 관계는 강력범죄자 내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학교중단율과 강력범죄간의관계를 살펴보면 Ikomi(2010)에 의하면 살인, 강도, 강간을 포함한 폭력성 범죄율과 고등학교 중단율 간의 관계가 나타났고 그 관계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여부에 따라 그 관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결국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고 그 위험성은 인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 현상을 중심으로 기존의 범죄학적 이론 검증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Baron(2009)은 길거리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차별적 강압이론(Differential Coercion Theory)을 검증한 결과, 강압 요인은 이후 만성적이면서 강도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강력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Fagan과 Piquero(2007)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등의 심각한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행위에 있어서 처벌에 대한 인지와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과 보상에 대한 판단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이들 변수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효과가 발견됨에 따라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뿐 아니라 강력범죄에 있어서도 합리적 선택이론의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 간의 특성 차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와 사소한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사이에 범죄자의 개인적 특징이나 사회환경적 특징, 범행 관련 요인 등이 차이를 보이는지, 동일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범죄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요인으로 모든 범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Caspi, Elder, & Bem 1987; Gottfredson & Hirschi 1990; Sampson & Laub, 1993; MacDonald, Haviland, & Morral, 2009에서 재인용:555)과 범죄유형의 서로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여 강력범죄만의 특성이 있다는 관점(Blumstein et al., 1986, 1988; Loeber & Farrington 1998; Piquero et al., 2007: MacDonald, Haviland, & Morral에서 2009, 재인용:556; Reingle, Jennings, & Maldonado-Molina, 2012)이 있다. 한편, 발달 이론적 접근의 논의가 소년 강력범죄에 적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소년 강력범의 연령이 낮은 아동 강력범 집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가 청소년기에 주목하고 있어 초등학교 시기나 취학 전 시기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아동 범죄자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인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enedek & Cornell, 1989; Ewing, 1990; Hardwic & Rowton-Lee, 1996; Heide, 1998; Loeber & Farrington, 2001에서 재인용:7 ; Heide, 2011). 실제로 Loeber와 Farrington(1998)에 의하면 대부분의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14세 이전의 비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eber & Farrington, 2001). 또한 Lipsey와 Derzon(1998)은 청소년의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범죄 예측변수들이 연령별로 다른지 살펴본 결과 6-11세까지는 약물 사용이, 12-14세의 청소년은 사회유대 약화, 또래집단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범죄에 대한 위험요인이 달랐다(Ikomi, 2010). 즉, 연령에 따른 발달론적 접근의 시각의 필요성을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2.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진행된 경험적 연구

여기서는 강력범죄의 유형별-살인, 강도, 강간, 방화-로 진행된 경험적 연구들을 중심으로 각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가. 살인

최근 청소년 살인관련 연구는 특정시기의 청소년 살인 증가현상에 대한 원인보다는 근본적인 청소년 살인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Lauikkaka, 2011).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는 대부분 남자청소년이 대상이다. 특히, 청소년 살인의 경우 남자청소년 중심의 연구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Heide, 2003). 또한, 청소년 살인 관련 연구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에 주목하여 상대적으로 아동살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Heide, 2003, 2011; Shumaker & Prinz, 2000; Shumaker & Mckee, 2001).

1) 청소년 살인의 유형

소년 살인범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의 특성에 따라 유형적 특성을 찾아낸 Cornell과 동료들(1989)에 의하면 소년 살인범은 강도나 강간과 같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와의 논쟁이나 갈등적 상황으로 인한 경우,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한 경우인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고 실제

소년 살인범의 경우, 절도범에 비해 강도나 강간 등의 다른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Heide, 2003).

한편, 청소년 살인 유형구분에 있어 연령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고 아동기(13세 미만)과 13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의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Heide, 2011; Shumaker & Prinz, 2000). 기존의 FBI 범죄 분류 매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 CCM)에서 범죄동기별로 구분된 유형들을 가지고 청소년 살인에 적용하여 살펴본 Myers와 그의 동료들(1995)의 유형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형화를 나눈 Ewing(1997) 모두 청소년기의 연령에 따른 발달론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Shumaker & Prinz, 2000). 이에 Shumaker와 Prinz(2000)는 소년 살인범 집단을 10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어린 청소년들은 나이 많은 청소년에 비해 가정폭력 등으로 남성 보호자와 부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짓말을 잘하고 불을 지른 경험이 있고 피해자를 익사시켰거나 불을 질러 살해하였다 한편, 나이 많은 청소년은 건전하지 않은 성관계 경험이 있고 무단결석 등의 비행경험이 있었고 살인 당시 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umaker & Prinz, 2000).

2) 청소년 살인의 특성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

청소년 살인의 90%이상이 남자아이들에 의해 저질러지며 살인을 저지른 나이는 평균 17세로 나타났다(Heide, 2011; Anne, Vries, & Marieke, 2011). 한편, 소년 살인의 경우 정신적인 문제나 정신의학적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 단정 지어 얘기할 수 없다(DiCataldo & Everett, 2008). 즉, 소년 살인범의 경우 정신적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Anne et al., 2011)도 있고 다른 소년 강력범에 비해 인지불안, 기분 장애 등의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가 덜했고(Shumaker & Mckee, 2001; Dolan & Smith, 2001) 지능지수 역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는 연구결과(Shumaker & Mckee, 2001)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년 살인범의 경우, 약물사용의 경험이 다른 유형의 소년범에 비해 높았고 총기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Shumaker & Prinz,. 2000; Dolan & Smith, 2001; Kelly & Totten, 2002; DiCataldo & Everett, 2008).

② 사회적 환경

소년 살인범의 상당부분이 해체된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과로 소년 살인범은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나 부모의 정신적 문제, 가정폭력 등으로 제대로 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했다(Heide, 2003; Kelly & Totten, 2002; Shumaker & Prinz, 2000; Anne et al., 2011). 특히, 소년 살인범의 경우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방임 등의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Shumaker & Mckee, 2001; Dolan & Smith, 2001).

한편, 청소년 살인을 중심으로 사회해체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사회구조에 따라 청소년 살인의 발생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실직이나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의 가족의 분열(해체)현상은 범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준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Lauikkaka, 2011; Ousey, 2000). 실제, 한부모 가정의 증가율과 살인율 간의 관계가 나타나면서 한부모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그들 부모로부터의 감독을 덜 받게 되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Bursik & Grasmick, 1993; Lauikkaka, 2011에서 재인용:146; Ousey, 2000). 즉, 범죄는 모든 지역에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가난이나 실직율, 한부모 가족율 등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범죄 발생율이 다르며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살인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준 것이다(Lauikkaka, 2011). 특히, 흑인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가족 해체율이 높아지면 살인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Ousey, Campbell, & Augustine, 2001; Sampson, 1987). 또한 사회구조적 차이가 성별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른지 살펴본 결과 성인살인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구조적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의 경우 남자아이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조적 변수의 영향이 크지만 여자아이들에게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Steffensmeier & Haynie, 2000).

이 외에도 무단결석이나 학업 포기 등의 학교 관련 요인이나, 친구관련 요인들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 연구가 있다(Ewing, 1990; Bailey, 1994, 1996a; Dolan & Smith, 2001; Myers et al., 1998; Shumaker & McGee, 2001; Smith, 1965; Cornell et al., 1987a; Myers et al., 1998; Shumaker & McGee, 2001; Heide, 1992; Sadoff, 1971; Scherl & Mack, 1966; Tanay, 1976; Corder et al., 1976; Marten, 1965; Zenoff & Zients, 1979; Heider, 2003에서 재인용 :15; Shumaker & Mckee, 2001; Kelly & Totten, 2002). 즉, 소년 살인범의 경우 무단결석과 같은 비행을 저지르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친구와의 관계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③ 범행 관련 특성

청소년 살인연구 가운데 범행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다른 유형의 강력범이나 성인 살인과 같은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청소년 살인의 범행관련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데 주목하였다. 먼저, 소년 살인범과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간의 비교를 실시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자. Dolan과 Smith(2001)는 46명의 소년 살인범(남자 30명, 여자 18명)과 106명의 소년 방화범을 비교해본 결과 피해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은 아닌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족을 죽인 경우에는 어머니나 형제를 살해한 경우가 많았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고 범행 후 현장에서 도망간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Shumaker와 Mckee (2001)에 의하면 청소년 살인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단독범인 경우와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더 많았다.

두 번째, 청소년에 의해 발생한 살인과 성인에 의해 발생한 살인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Snyder과 Sickmund(2006)는 청소년 살인은 성인과 비교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고 1990년과 1994년 사이의 살인관련 통계를 가지고 분석한 Brewer와 동료들은(1998)는 청소년의 경우 성인의 비해 남성에 의해 공공장소에 발생하며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와는 다른 인종인 경우가 많았고 긴 총을 사용하고 강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 많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Lauikkaka, 2011).

한편, 청소년 살인 관련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청소년 살인 집단 내 차이에 주목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Heide(2011)는 1976년부터 2007까지의 Supplementary Homicide Research(SHR)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 살인범 성별에 따라 '6세에서 12세(13세미만)'과 '13세-17세 이하'의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피해자의 연령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해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고 피해자의 성별에서도 모든 연령에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해 여자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Heide, 2011). 그리고 Heide(2011)에 의하면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에 비해 자신과 가까운 가족들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았고, 범행 시 사용한 무기유형은 총과 칼이 대부분인데 남자아이들은 총을, 여자아이들은 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자아이들은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 등과 같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상황이 많았고 여자아이들은 술이나 약물, 이성과의 삼각관계 등의 갈등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무기유형, 당시 상황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범죄 특성은 범행발생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청소년 살인 가운데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살인 특성을 분석한 Kaufman과 그의 동료들(2012)은 살인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성인 경우가 70%까지 차지하였고 범행동기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청소년 살인 관련 연구 가운데 소년 살인범의 재범율에 주목하기도 하는데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일관적이지는 못하다. 137명의 소년 살인범을 대상으로 조사한 Anne와 그의 동료들(2011)에 의하면 소년 살인범이 재범을 한 경우가 약 60%까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살인범(30명)과 비살인범(20명)간의 재범율을 살펴본 Hagan(1997)연구에 따르면 살인범(미수포함)이라고 해서 다시 재범을 할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청소년 살인관련 연구는 개인 성향에서부터 가족환경 변인, 그리고 총기나 무기사용 경험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Heide(1998)는 개인적 수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차원 요인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청소년 살인은 폭력이 허용적인 사회라는 차원의 요인이 가정 내 학대 등의 가정 폭력을 발생시키고 이에 어릴 적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해 개인의 부정적 감정 조절 부족, 판단력 결여 등의 개인적 관련 요인, 총기 사용이나 음주 등의 범행당시 상황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나타난 것이라 주장한다(DiCataldo & Everett, 2008에서 재인용:161).

나. 강도

강도의 경우,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에 비해 청소년에 주목하여 진행된 연구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강도관련 연구 가운데 여성학적 시각의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전형적인 남성성 범죄유형에 있어서의 여성의 행위를 이해할 필요성과 남성과 여성의 범죄 관련 특성의 차이를 밝히려는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Miller, 1998). 즉, 여성학자들은 범죄의 성 차이를 설명하는데 집중하면서 그 원인을 사회적 성역할화로 이해하는데 특히, 강도와 같은 전형적인 남성범죄에서 여성의 가담은 남성과는 다른 원인을 가지며 범행 관련 특성에 있어서 그 차이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Sommers & Baskin, 1993).

1) 청소년 강도의 유형

앞서 언급했듯이 강도관련 논의에서 청소년에 집중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청소년 강도 유형에 대한 논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기서는 전반적인 강도 유형에 대한 논의로 대신하고자 한다. Smith(2003)은 피해자 접근 방식에 따라 강도를 5가지의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기습공격(Blitz)’, ‘대치(Confrontation)’, ‘속임수(Con)’, ‘강탈(Snatch)’, ‘피해자화(Victim initiated)’ 가 그것이다. 첫 번째, 기습 공격(Blitz)은 물리력을 먼저 사용해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빼앗는 경우이고 두 번째, 대치상황(Confrontation)의 경우는 돈이나 물건을 내놓으라는 위협을 가하는 형태로 대인 강도에서 가장 많다. 세 번째, 속임수(Con)는 시간을 묻는 다거나 담배나 라이터를 빌릴 수 있냐고 접근한 뒤 물건이나 돈

을 빼앗는 것이고 네 번째, 강탈(Snatch)은 가방이나 지갑, 최근에는 핸드폰 등을 가지고 낚아채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화(Victim initiated)는 약물공급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과정에서 강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강도의 형태가 달라지는 데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의 경우는 대치나 속임수가 많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의 경우는 강탈이 가장 많은 편이다(Smith, 2003).

2) 청소년 강도의 특성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강도는 17-18세의 후기 청소년기와 20대 초반에 많이 저지르는 범죄유형으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Miller, Dinitz, & Conrad 1982; Katz 1991에서 재인용: 279; Steffeneier & Allan, 1995; Research & Statistics Branch. 1999에서 재인용). 실제로 강력범죄 가운데 강도의 경우 살인이나 강간에 비해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Goodwill, Stephens, Oziel, Yapp, & Bowes, 2012). 또한 강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남자 아이들이었다(Niller, 1998; Chesney-Lind & Paramore, 2001).

② 주변 환경

1980년도 미국 171개 도시의 청소년과 성인의 강도 발생율을 살펴본 Sampson(1987)은 흑인 청소년의 경우, 흑인 성인이 비해 가족의 해체율이 높아지면 강도 발생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청소년시기의 가족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흑인의 범죄율이 백인에 비해 높은 것은 흑인의 범죄친화적 문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흑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실직,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해체 등의 결과로 설명하면서 기존의 가족해체 관련 논의가 미시적 수준의 개인적 수준에서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면 이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가족해체율과 살인과 강도와 같은 범죄 발생율간의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인종에 따른 사회적 차별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Sampson, 1987). 이처럼 소득의 불균형은 가족의 분열현상을 가지고 오고 이는 성인보다

는 청소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줄 것이다(Lauikkaka, 2011).

③ 범행 관련 특성

청소년 강도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강도의 경우는 치밀한 계획적인 범죄라기 보다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며 또래 집단이나 나이가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두 명이나 그 이상이 모여 범행을 저지르며 청소년 강도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이름 있는 브랜드의 옷이나 비싼 전자기계와 같은 또래 집단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지지 못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이를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강도를 하거나 혹은 재미나 호기심, 자기과시를 위한 행동의 하나로 이해하였다(Smith, 2003; Chesney-Lind & Paramore, 2001; Research & Statistics Branch. 1999; Miller, 1998). 한편, 청소년 강도는 학교와 학교 주변의 골목길이나 공원, 놀이터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발생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대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Research & Statistics Branch. 1999). 이는 총기사용 소년범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있는 Sheley와 Wright(1993)의 연구에서도 총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또래집단 내에서의 과시욕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 청소년 강도에서 사용한 무기는 피해자를 해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 강도 관련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눈에 띄는데 Chesney-Lind와 Paramore(2001)는 1991년과 1997년의 City and County of Honolulu Police Department(HPD)의 청소년 강도 사건관련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남·여 모두 피해자는 대부분 같은 또래인 청소년들로 상당 부분이 같은 학교친구나 이웃, 친구, 공원에서 한번이라도 본 적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혼자 저지르는 경우는 적었다고 한다. 또한, 여성 강도는 남성 강도에 비해 같은 노상강도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밀거나 때리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할 수는 있지만 신

체적인 폭력이 덜하고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범행동기에 있어서는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Chesney-Lind & Paramore, 2001). 그리고 강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역할 차이 관련 연구를 시도한 Miller(1998)는 강도의 목적이 남·여 모두 돈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갖기 위함이 가장 많았지만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는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용돈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돈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강도가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iller, 1998).

다.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성범죄라는 행동은 다른 문제의 결과로 이해하기도 하고 성인 성범죄를 이해하기 위한 범죄 발전 경로의 하나로 청소년 성범죄를 설명하기도 한다(McNamara et al., 2012). 실제로 성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성범죄를 저지른 나이가 18세 이전인 경우가 많았다(Abel, Osborn, & Twigg, 1993; Seto & Martin, 2010에서 재인용:527). 여기서는 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에 집중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1) 청소년 성범죄의 유형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성범죄의 유형은 범행관련 특성에 따라서 구분되거나 발달단계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한다. 먼저, 범행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구분한 폭력형, 관음증, 소아성애자로 3가지 유형이 있다(McNamara et al., 2012:27). 첫 번째, 강간과 같은 형태의 폭력형의 경우는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유형의 비행이나 폭력적 행위 경험이 많다. 두 번째, 관음증의 경우는 충동적이기는 하나 폭력적이지는 않고 이전 성관계의 경험이 없다. 세 번째, 소아성애자는 비행경험이 많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발달단계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자가 6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Bauman, 2002; McNamara et al., 2012 에서 재인용:28). 첫 번째, 순진한 실

험형(naive experimenter)은 11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 범죄자들로 2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물리적 힘이나 위협 등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 유형은 자신의 성적 느낌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반사회적 아동 착취형(the under-socialized child exploiter)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유형은 자신이 혼자 있다고 생각되거나 자아정체성에 대한 욕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 피해자를 착취하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 번째, 가짜 사회적 아동 착취형(the pseudo-socialized child exploiter)은 청소년기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정상이다. 하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피해자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성적 공격형(sexually aggressive)은 가정폭력 가정에서 태어나 범행 당시 물리력이나 위협을 가한다. 즉, 피해자를 통제하고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다.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매력적이고 사회성이 좋다. 다섯 번째, 성적 강박형(sexually compulsive)은 노출증(exhibitionism)이나 관음증(voyeurism)과 같은 수동적인 행동을 보이며 그들이 자라난 가정 내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강박 증세를 보인다. 이들 유형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동기는 위험한 행동을 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흥분을 위해서이고 그들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믿는다. 여섯 번째, 집단적 압력형(group influence offender)은 또래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그 집단의 지위 확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다. 집단의 또래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Bauman, 2002; McNamara et al., 2012 에서 재인용:28).

한편, Worling(2001)은 12세부터 19세까지의 남자청소년 성범죄자 112명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반사회적이며 충동형(Antisocial/Impulsive), 두 번째, 비정상적이며 소외형(Unusual/isolated), 세 번째, 과잉통제형(Overcontrolled/reserved), 네 번째, 공격형(Confident/aggressive)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소년 성범죄자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와 또래집단인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Keelan & Fremouw, 2013).

2) 청소년 성범죄의 특성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

미국 12개주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분석한 연구결과 성범죄자 전체의 96%가 남성이고 여성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6세 미만 아동이었다(Gibson & Vandiver, 2008). 그리고 성범죄자 집단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친어머니와 살고 있는 비율이 더 낮았고 형제나 자매와 살고 있는 경우도 더 적었다(van der Put, van Vugt, Stams, Dekovic, & van der Laan, 2012). 한편, 청소년 성범죄의 개인적 특성 관련 연구는 일부 생물학적 논의에서 남성호르몬 등의 문제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심리적 문제나 정신적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둘러싼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일관되지 못하다. 최근 소년성범죄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심리적 문제나 정신병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van der Put et al., 2012). 또한 성범죄자들은 비이성적이고 자아통제력이 약한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었다(Pithers 1990; Simon & Zgoba 2006; Beauregard & Leclerc, 2007에서 재인용:126). 하지만 성범죄자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행동에 대해 계획적이며 상황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auregard & Leclerc, 2007).

② 주변 환경

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어릴 적 성적 학대 경험이 주요 변수이다. 즉,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성적 학대를 하기 쉽다는 것이다(McNamara et al., 2012). 실제로, 청소년 성범죄자는 성범죄가 아닌 다른 유형의 범죄자에 비해 어릴 적 성적 경험이나 아동학대 등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ussier et al., 2007; Seto & Lalumiere, 2010; Simon et al., 2008; Jespersen, Lalumiere, & Seto, 2009; Wanklyn, Ward, Cormier, Day, & Newman 2012에서 재인용:2130). 특히, 중한 수준의 성범죄자 집단이 경한 수준의 성범죄자에 비해 성적 학대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van der Put et al., 2012). 또한 청소년 성범죄의 사회환경적 요인 가운데 학교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폭력적 행동을

수반한 성범죄자는 단순폭력범에 비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다(Wanklyn et al., 2012). 이처럼, 청소년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는 특징의 차이를 보여 다른 유형의 소년범죄와는 달리 이해해야 한다(Harris, Mazerolle, & Knight, 2009; Simon, 1997; Wanklyn et al., 2012에서 재인용: 2130). 즉, 다른 범죄와 비행을 설명하는 위험요인으로 성범죄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성범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정 요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van der Put et al., 2012). 반면, 청소년 성범죄 관련 연구들 가운데 청소년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자와 구별되는 일부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특성을 다른 범죄자와 공유한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전영실, 2001). 즉, 청소년 성관련 범죄자와 다른 범죄자간의 어릴 적 가정폭력의 경험이나 학업성적, 집단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van Wijk et al., 2006; Wanklyn et al., 2012에서 재인용: 2130) 아직까지 청소년 성범죄 관련 위험요인과 다른 유형의 청소년 범죄과련 위험요인이 다르다고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청소년 성범죄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과는 다른 성범죄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환경의 차이도 있었다(McNamara, et al., 2012). 즉, 남자청소년 성범죄자에 비해 여자청소년 성범죄자는 어릴 적 성적 학대의 경험이 더 많고 그 지속기간이 더 길었다(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Center for Sex Offender Management. 2007).

③ 범행 관련 특성

청소년 성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어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보통 친척이거나 안면이 있다(Righthand & Welch, 2001; Gibson & Vandiver, 2008에서 재인용:12). 또한 청소년 성범죄가 다른 유형의 범죄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성범죄자는 폭력적 행동의 성범죄자에 비해 이른 시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Wanklyn et al., 2012). 한편, 대부분의 청소년 성범죄자는 자신이 했던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율은 대략 5~14%이다(National Center of Sexual

Behavior of Youth, 2007; Gibson & Vandiver, 2008에서 재인용: 25).

범죄학에서 성범죄는 주로 남성이 가해자로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의 형태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여자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이해하려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여자청소년의 성범죄 관련 범행 특성이 남자청소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 대부분은 반대의 성. 이성을 상대로 범행을 지르는 반면 여자청소년 성범죄자들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를 피해자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Center for Sex Offender Management. 2007).

라. 방화

방화는 방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청소년 방화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불 지르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위와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불로 인한 그 피해의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불을 사용한 행위에서 폭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화는 강력범죄로써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2009년도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보고에 따르면 59,962건의 방화사건으로 900달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지난 15년간 발생한 방화 사건의 절반 정도는 18세 이하의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이다(McNamara & Bucher, 2012). 국외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 방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된 방화관련 연구는 심리학적이거나 정신의학적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Purnam & Kirkpatrick, 2005). 여기서는 청소년 방화 관련 연구 가운데 연구 관점의 구분보다는 구체적인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1) 청소년 방화의 유형

McNamara와 Bucher(2012)는 소년 방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기심의 불장난(fire play)과 복수나 주위관심 등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 지르기(fire setting)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불장난(fire play)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태우려고 하기 보다는 단순히 불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불 지르는 것과 같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이 불에 타는 등의 결과가 똑같을지라도 이를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성인 방화범과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하다(McNamara & Bucher 2012). 실제로, 청소년 방화의 40%가 불장난의 수준이다(U.S. Fire Administration, 1998).

한편, Stadolnik(2000)는 불을 지르게 된 동기에 따라 불 지르는 형태를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의 불 지르기(Curiosity motivated Fire Setters)'로 청소년 시기의 불 지르는 이유 가운데 가장 주된 것으로 불의 위험성이나 인지 정도가 낮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면서 불이라는 것에 대해 배운다. 이들은 3세에서 7세로 90%가 남자아이, 높은 충동성(ADHD),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학습, 불의 위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이고 가족환경은 부모의 흡연, 가정에서의 감독 부재, 불에 대한 부모의 위험도 인지가 낮은 편이고 범행특성에 있어서는 집에서나 그 주변에서 불을 지르는 경향이 있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지르는 등의 전형적인 방화 수법을 사용하며 단 한번의 사건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위기모면의 불 지르기(Crisis motivated Fire Setters)'는 임파워링(empowering) 수단으로 불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유형의 아이들은 불을 지름으로 해서 자신의 또래 집단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존경이나 인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로 75-85%가 남자아이이고 신체적이나 성적, 정서적인 학대 경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또래 집단과의 갈등을 겪고 있고 불 지른 것에 대한 후회가 적다. 또한 그들의 가족환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인을 지니고 있을 수 있고 범행이 한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지를 수도 있다. 한편, 주변에서의 개입이나 변화를 거부하며 불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시간대와 장소,

범행의 목표물 모두 상징적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한 요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

세 번째, '비행으로써 불 지르기(Delinquency motivated fire setters)'는 10세에서 17세 사이로 25-30%는 여자아이들이며 어릴 적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경험과 행동장애를 지니고 있고 사회성 발달이 늦은 편이다. 이들은 불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며 복수나 분노, 물건을 부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다. 가족환경을 살펴보면 가족 내 폭력이나 약물 중독, 전과가 있는 부모, 지나친 강압적인 훈육방식 등의 특징이 있고 범행특성으로는 집 밖의 건물이나, 숲, 버려진 물건에 불을 지르며 반달리즘이나 복수가 동기가 되거나 또래집단에 들어가기 위해 불을 지르기도 한다. 이들은 불지를 때 화학물질 폭발성의 물질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네 번째, '병적인 불 지르기(Pathological motivated fire setters)'는 방화벽으로 인한 불 지르기로 13세에서 17세 사이이다. 이들 집단의 개인적 특성은 대부분 남자아이이며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와 편집증이나 망상 등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을 보인다. 또한 이미 어릴 적 대응기제로서 불의 매력을 알고 있다. 가족환경은 폭력적인 가정과 학대. 부모 가운데 인지장애나 정신장애 등의 다양한 장애를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가족 가운데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범행특성은 불 지르는 횟수가 잦은 편이고 혼자 아무도 몰래 불을 지르며 불이 타는 것을 보면 사람의 춤추는 모습 혹은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한편, Gaynor(2002)는 불 지르는 행동을 '불에 대한 흥미(fire interest)', '불장난(firestaring)', '불 지르기(fire-setting)', '방화(arson)'으로 구분하면서 연령에 따라 불을 접하는 빈도와 목적 등이 다르며 각 단계별 심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위험 요인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청소년 방화의 특성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

청소년 방화범의 80%이상이 남성이고(Dolan, McEwan, Doley, & Fritzon, 2011), 일반청소년에 비해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고 소년 방화범의 평균연령은 14세 정도였다(McCardle, Lambie, & Barker-Collo, 2004).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과 청소년 방화와의 관계는 경험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Kolko & Kazdin, 1990; Dolan et al.. 2011에서 재인용:381). 소년 방화범들은 일반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성향이며 또래 집단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가지기 힘드는 등의 행동장애(conduct disorder)나 공격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감정에 대한 적절한 표현력이 부족하였으며 몇몇 소년의 경우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보이기도 하였다(U.S. Fire Administration, 1998; McCardle et al., 2004). 이처럼 방화와 행동장애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후 소년 방화범들과 행동장애를 가진 아이들 간의 유사한 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Kolko & Meyer, 1985). 이에 피츠버그 대학병원의 Kolko 박사는 아동 입원 환자 가운데 불 지른 경험이 있는 아이들과 불 지른 경험이 없는 아이들 간의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소년 방화범 집단의 아이들이 다른 집단의 아이들에 비해 공격적인 성향과 다른 일탈 행동 경험이 더 많았고 사회성이 약하였다(U.S. Fire Administration, 1998).

한편, 소년 방화범의 과거 비행경험이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불을 지르는 아이들의 경우 단 한번 불을 저지른 아이들과 분명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rdle et al., 2004). 즉, 만성적으로 불을 지르는 소년범의 경우 그렇지 않은 소년범에 비해 가출과 음주, 집단패싸움과 같은 비행 뿐 아니라 물건 훔치기, 물건 부수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ackay, Paglia-Boak, Henderson, Marton, & Adlaf, 2009).

② 주변 환경

청소년 방화 연구의 초기 대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Yarnell(1940)은 청소년

방화의 일반적인 가정환경의 특징으로 부모의 방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청소년 방화관련 연구에서는 가정 내의 경험 변인이 중요해지고 그 가운데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의 경험이 청소년 방화범 집단의 특징으로 나타났다(Root, MacKay, Henderson, Bove, & Warling, 2008). 이에 학대와 방화간의 관련 연구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방화와 성적 학대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McNamara와 Bucher(2012)는 성적 학대를 경험하는 아이들의 경우,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긴장으로 그들은 해당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탈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고 그저 불을 저지르는 것만이 그들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응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Root와 그의 동료들(2008)에 의하면 소년 방화범이 모두 학대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학대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불을 지를 가능성이 더 높았고 또 다시 불을 저지를 위험성 역시 학대경험이 있는 집단의 아이들이 더 컸으며 불을 지르는 아이들은 그들의 가정 내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같은 긴장요인이 있었다. 즉, 아동학대나 가족 간 문제는 두려움이나 분노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들 감정에 대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급감시킴에 따라 불을 지르게 되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Root et al., 2008).

그리고 소년 방화범의 대부분이 부모의 지속적인 냉담이나 방임, 학대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인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가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실직이나 가난, 가족 간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S. Fire Administration, 1998).

한편,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적 관점에서 불을 지르는데 필요한 환경적 요인들에 주목하여 청소년 방화를 설명하기도 한다. 즉, 부모님의 부재중인 친구의 집이라던지 유흥지역과 같은 곳에서 친구들과의 몰려 다니다는 등의 일상생활로 부모나 다른 성인의 감독이 부재한 상황은 불을 지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Raines & Weigel, 1994; McNamara & Bucher, 2012에서 재인용:89). 실제로, 다양한 학년의 청소년 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불 지른 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ackay et al.. 2009).

제3절 종합적 검토 및 함의

1. 청소년 강력범죄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개념 및 범주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들의 연구 관심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지고 있다. 즉, 강력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살인, 강도, 강간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폭력과 방화의 경우는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세부 유형별로 구체적인 특징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인범죄 가운데 폭력수반 범죄로 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강력범죄만의 공통된 특징을 일반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범죄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과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는 정신병리학적 접근이나 심리학적 접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보다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범죄유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범죄현상보다 특히나 청소년 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청소년의 정신적이거나 심리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년이 왜 그러한 문제를 지니게 되었는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먼저 필요하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개인적 차원의 치료적 접근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반쪽짜리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범죄학적 관점 등의 서로 다른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다양한 표본을 가지고 서로 다른 변수를 통한 반복적인 연구의 과정을 통해 소년범죄의 특성이 보다 분명해 지고 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야 한다(Shumaker & Mckee, 2001). 그리고 풍부한 연구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작은 표본을 가지고 거친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고 분석 방법에 있어서 카이스퀘어(Chi-square)이나 분산분석(ANOVA)와 같은 분석 방법이 현재 대부분인데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나 생존분석(Survival analyses)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Keelan & Fremouw 2013). 또한, 양적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없는 구체적 상황 이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네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교 집단과의 차이를 보여줘야 한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 간의 차이 뿐 아니라 강력범죄 내의 차이와 공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Heide, 2011; Shumaker & Mckee, 2001; DiCataldo & Everett, 2008). 다시 말해서, 청소년 강력범죄와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등의 다른 유형의 범죄간 뿐 아니라 청소년 강력범죄 내 세부 유형의 범죄간, 그리고 발달론적 특징을 고려한 가해자의 연령대별 구분을 통한 청소년 강력범죄 집단 내 안에서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국내연구가 국외연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 소년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 강력범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일 것이다. 국외에서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범율을 살펴보는 종단적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 데이터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경험적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심각성만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이는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인식에 따라 해당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에 대한 함의

청소년 강력범죄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인 강력범죄에 비해 관심이 부족하고 연구 대상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진행 및 연구 내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나타나듯이 아직까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개념과 범주가 불명확하고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부족하며 제한적인 연구방법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논의에서는 부족했던 범죄사회학적 관점의 논의와 관련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 발생 특징 뿐 아니라 범죄사회학적 논의에서 제시되는 동기적 차원의 요인, 범죄 기회 및 상황에 대한 요인, 그리고 범죄 경력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등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진은 최대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연관성 분석이나 사회연결망 분석 등의 다양한 양적 분석방법 뿐 아니라 질적 분석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양적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을 여러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과 연령별 분석은 물론 강력범죄 내에서도 죄질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교도소 수용 강력범과 비수용 강력범 간의 차이를 분석할 예정이며 절도와 같은 비강력범죄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도범을 비교집단으로 두었고 소년범과 일반청소년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반청소년을 비교집단으로 두었다.

제3장
연구방법

최수형 · 박현수

03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위

앞서 2장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 대로 학자들이나 해당 관련 기관에 따라 청소년 강력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 강력범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이거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를 의미하며 세부 유형으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포함한다. 단, 방화는 사람이 현존하거나 주거로 사용하는 곳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강간의 경우 강제추행은 제외한다. 보다 자세한 죄명별 세부 유형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3-1-1 참고). 일반 폭력성 범죄를 제외한 이유는 앞서 개념적 정의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는 폭력을 수반한 범죄이지 단순 폭행과 같은 범죄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방화는 기존의 논의에서 비폭력성 범죄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로 제한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불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폭력성 범죄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청소년 강력범죄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1 강력범죄의 구체적 죄명

범죄의 범주		범죄명
강력범죄	살인	살인
	강도	강도, 강도상해, 특수강도, 강도치사상, 강도살인, 강도강간, 준강도
	강간	강간,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강간치사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방화	현주(존)건조물등에의 방화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공식통계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면접조사이다.

가. 공식통계자료 분석

범죄 관련 국가 공식통계는 범죄 발생 현황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 추세와 범죄내용 및 범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강력범죄와 절도범죄와의 차이와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차이 등을 분석한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분석통계시스템에서 「범죄분석」 기반으로 구축된 '공식범죄 통계 시스템(http://crimestats.aimudk.com)'을 사용하였고 2011년도의 자료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책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내용과 범행 당시 상황 뿐 아니라 범행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동기요인, 범죄경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소

년 강력범죄의 특성은 비교집단과의 차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소년 강력범죄자 외에도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일반청소년으로 구분되지만 설문지는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경우 수용 및 보호 기관에 따라 설문 내용의 차이로 인해 교도소용, 소년원용, 보호관찰소용, 사랑의 교실용으로 구분되고 일반청소년은 별도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5개 유형의 조사표가 있다.[2] 조사대상별 설문조사의 조사 설계 및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강력범 및 청소년 절도범 대상 설문조사

소년 강력범 및 소년 절도범 대상 조사는 소년범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저지른 소년과 절도를 저지른 소년에게 진행하였다. 소년범의 표본 확보 및 다양한 범죄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소년교도소 뿐 아니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 수련관의 사랑의 교실[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본 조사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및 보호기관의 다양성 확보로 실제 형량을 선고받은 소년범에서부터 경찰 훈방을 받은 소년범까지 다양한 수준의 범죄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조사방법은 해당 관련 기관에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송하고 조사 완료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4] 다만, 김천소년교도소의 경우는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진이 직접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각 기관별 조사 실시 기간과 조사인원은 다음의 〈표 3-1-2〉와 같다.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 가운데 조사응답의 불성실성이나 해당 조사자의 죄명이 본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살인은 10명, 방화는 12명, 강도는 116명, 강간은 209명으로 전체 소년 강력범의 수는 347명이었다. 소년 절도범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354명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강력범죄

2) 부록에는 소년교도소용 설문지와 일반청소년용 설문지만을 첨부하도록 하겠다.
3) 청소년수련관의 사랑의 교실은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4) 설문조사 응답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의 설문조사 협조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목적과 조사 진행과정에서의 유의할 점, 그리고 주요변수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를 저지르지 않은 절도범만을 강력범의 비교집단으로 두었기 때문에 313명이 실제 분석 인원이다. 살인의 경우 워낙 실제 발생 건수가 적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본 확보가 불가능했고 방화의 경우 역시 발생 건수가 적기도 하지만 본 조사 기간 동안 조사협조 기관에서 접할 수 있는 표본의 한계가 있었다.

표 3-1-2 설문 조사인원 및 조사일정

조사기관		설문 조사 인원					조사일정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절도	
김천 소년 교도소		7	11	–	57	29	7.1~5
소년원	서울원	–	20	–	41	94	7.10~8.2
	부산원	–	6	–	10	4	
	대구원	–	3	–	9	6	
	광주원	–	7	–	6	9	
	전주원	–	2	–	4	1	
	대전원	–	–	–	10	–	
	청주원	–	–	–	–	9	
	안양원	–	2	–	1	10	
	춘천원	–	2	–	7	5	
	제주원	–	–	–	2	13	
보호 관찰소	고양	–	3	–	10	8	7.1 ~31
	구미	1	3	–	2	3	
	군산	–	3	–	3	6	
	대구서부	–	–	–	7	15	
	목포	1	1	–	2	3	
	부산동부	–	8	3	9	11	
	부천	–	4	–	9	7	
	서울동부	–	5	–	8	11	
	서울북부	–	3	2	8	8	
	성남	1	5	–	8	8	
	순천	–	–	–	2	6	
	안양	–	2	3	8	8	
	울산	–	–	–	3	6	
	원주	–	2	–	3	3	
	제주	–	1	–	3	6	
	천안	–	7	2	4	7	
	평택	–	8	–	3	2	

조사기관		설문 조사 인원					조사일정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절도	
청소년 수련관	서울	–	3	2	–	28	7.1 ~31
	구로	–	–	–	–	7	
	도봉	–	–	–	–	10	
	강남	–	–	–	1	11	

2) 일반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일반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소년 강력범의 주요 연령층과 비교 가능하도록 서울 지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제한된 예산과 조사기간의 한계로 서울을 3개 권역(강북, 강남서, 강남동)으로 구분하여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서울시의 조사권역은 다음의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서울시 조사권역

표본 설계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1단계는 표본 추출의 단계로 3개 권역별로 5개 학교씩 배분하고 권역별로 규모비례 확률표집법(PPS)을 통해 학교를 추출한다. 그리고 학교 및 학급에 대한 집락표집을 실시한다. 중학교의 경우 남녀공

학 학교의 수가 75%에 달하므로 남녀공학을 표집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남녀공학 학교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급이 남녀학급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랜덤하게 추출하되 학급(남자반 • 여자반)을 기준으로 학교를 추출하여 남녀 성비를 맞추도록 하였다. 한편,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는 권역에 관계없이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1개씩 추출하였다. 2단계는 규모비례 확률표집법(PPS)에 의한 학교 추출이다. 즉, 3개 권역별로 각각 할당된 학교 추출로 학교별 조사대상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 확률표집법(PPS)을 적용한다. 3단계는 학급을 추출하는 것으로 추출된 학교 내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조사대상 학년별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다. 실사는 사회조사 전문업체인 밀워드 브라운 미디어리서치에 의해 진행되었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일반청소년의 수는 555명이다.

표 3-1-3 일반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설계

모집단	·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중1 ~ 고2학년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조사 지역	· 서울을 3개 권역으로 구분 – 강북(종로, 중,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강남서(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 강남동(서초, 강남, 송파, 강동)
조사 학교 수	· 일반 중고등학교: 15개 학교 · 특성화 고등학교: 2개 학교 ⇒ 총 17개 학교
조사 대상	· 학교별 무작위 추출된 1개 학급(한 학급당 35명)
유효 표본 수	– 중학교 : 35명(학급당 평균 학생 수) * 3개 권역 * 3개 학교 = 315명 – 일반계 고등학교 : 35명(학급당 평균 학생 수) * 3개 권역 * 2개 학교 = 210명 – 특성화 고등학교 : 35명(학급당 평균 학생 수) * 2개 학교 = 70명 – 최종 목표 표본 수 : 595명
표본추출방법	·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조사 방법	· 학교 방문 후 학급 집단면접조사
조사 기간	· 2013년 6월 ~ 7월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실사수행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다.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는 설문조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면접자의 구체적인 범행 관련 경험이나 일상생활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년 강력범의 수용현황을 파악하여 면접조사에 동의한 소년 강력범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가 완료 된 시점에서는 살인 3명, 강도 11명, 방화 9명, 강간 7명으로 총 30명의 면접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면접내용의 일관성 등의 문제로 강도 1명과 방화 2명, 강도 1명의 총 4명을 제외하고 총 26명(살인:3명, 강도:10명, 강간:6명, 방화:7)에 대한 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강력범죄 죄명별로 면접대상자가 분포되어 있는 기관별 현황 및 조사일정은 면접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는다.

면접조사는 소년 강력범을 수용 혹은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제공해 준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평균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범행관련 내용', '가족상황이나 주위사람과의 관계', '일상생활', '어린 시절 양육 경험', '비행 및 범죄 경력' 관련 등의 질문으로 비구조화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에 면접 내용을 직접 기록하였다.

제2절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측정 및 분석방법

1.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본 설문조사에서는 소년 강력범의 범행내용은 물론 소년 강력범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범죄학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변수들을 추가하여 소년절도범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학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범죄사건과 범죄행동 대신에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자 개인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관심을 두는 접근 방식으로 지금까지 범죄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Kleemans, Soudijn, & Weenink, 2012). 즉, 이러한 관점은 범죄 및 비행의 발생 원인에 대한 관심으로

동기적 차원의 변수들을 제시하고 있다.[5] 두 번째 관점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것으로 범죄행위는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상황이나 주위 여건에 의해 유인될 수도 있고 억제 될 수도 있다고 보는 범죄기회이론(Criminal Opportunity Theory) 혹은 범죄상황이론적 시각이다(이성식, 1996). 즉, 이는 범죄기회 및 상황적 차원의 변수들을 제시하면서 범죄발생은 상황요인에 따라 순간적으로 유인 혹은 억제 된다고 보았다(Clarke, 1992; 이성식, 1996에서 재인용:14). 특히, 청소년 범죄의 경우는 성인범죄에 비해 범죄의 기회나 상황적 변인의 영향을 더 클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에서 범죄사회학적 관점의 연구가 부족했던 만큼 본 연구에서는 동기적 차원의 변수와 범죄기회 및 상황적 차원의 변수를 통해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의 단초가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기존의 범죄사회학적 논의에서 제안하는 가능한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의 다양한 양상들을 살펴보기 위해 범죄학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변수 이외에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범행 내용 관련 변인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동기적 차원의 요인

1) 자아통제력

1990년 Gottfredson과 Hirschi는 「범죄의 일반이론」을 통해 일반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일반이론은 기존의 통제이론에서와 같이 모든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자아통제(self-control)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통제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해 억제하는 성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높은 자아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

5) 물론, 자아통제이론이나 사회유대이론의 경우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 동기적 차원의 이론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아통제이론과 사회유대이론에서 주목하는 자아통제력이나 사회유대라는 요인이 범죄 기회 및 상황이라는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범죄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에 주목하여 구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범죄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성향이 낮기 때문에 쉽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비행 청소년과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 간의 자아통제력의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Grasmick et al., 1993; Gibbs & Giever, 1995; Gibbs et al., 1998).

또한 일반 이론에서 주장하는 낮은 자아통제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의 설명력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Pratt & Cullen, 2000). 부모의 감독이 소홀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과 제재를 해줄 사람이 없으면 자아통제력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아통제력은 조기사회화 과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통제력은 대략 8~10세 정도에 그 수준이 결정되고, 한번 형성된 자아통제력은 거의 일생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개인의 비행이나 범죄는 가정이나 학교, 친구와의 사회적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교제, 낙인 등의 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낮은 자아통제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Nagin & Paternoster, 1993; Gottfredson & Hirschi, 2003; Chapple, 2005; Piquero & Bouffard, 2007).

일반이론에서는 자아통제력과 같은 개인의 성향을 통해 범죄와 비행의 원인을 설명한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통제력의 차이를 통해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강력범의 자아통제력 수준이 일반청소년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수로 포함하였다. 자아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재미있는 일은 하고 본다',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면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도 한다',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자아통제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587).

2) 사회적 유대

사회통제이론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유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사회통제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억제되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통제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통제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Hirschi(1969)는 사회통제기제로 사회적 유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의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애착(attachment)'는 '부모와의 애착', '학교와의 애착', 그리고 '동년배와의 애착' 등을 통해 범죄나 비행을 설명한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클수록, 학교에의 애착이 클수록 자신이 비행을 저지를 경우에 그들과의 유대가 끊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Hirschi(1969)에 따르면 부모, 학교(선생님), 친구에 대한 애착 가운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범죄와 일탈을 억제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 부모에 대한 애착도 다시 세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과 부모의 감독 그리고 대화의 친밀성,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갖는 애정으로 구분된다(김상원, 2007:330). 두 번째 원인인 '관여(commitment)'는 업적성취(achieve)나 전통적 목적에 일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성인 지위로의 이행, 교육에 관여, 높은 지위로의 관여가 높을수록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높은 지위를 얻고 싶거나, 높은 교육열망이 있는 경우에 범죄나 비행은 이러한 업적을 성취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인으로 '참여(involvement)'는 '관여'의 결과로, 일상적 활동에 대한 관여가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목적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그에 투자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므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으로 '신념(belief)'는 법, 규범에 대해 준수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Hirschi, 1969).

본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이론에서 주요변수로 제시되는 부모와의 유대를 두 가지 차원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의 감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친구와의 애착을 포함하였다. 먼저 부모(길러주신 분)와의 애착은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었다',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었다',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셨다', '부모님(길러주신 분)께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었다'의 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이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이 문항을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부모(길러주신 분)와의 애착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907). 두 번째, 부모의 감독은 부모의 심리적 존재를 의식(virtual supervision)하는 것이다(김상원, 2007:340). 즉, 부모님(길러주신 분)이 응답자가 외출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부모의 심리적 존재를 의식하는 정도다.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외출했을 때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셨다',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외출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셨다',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외출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셨다',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외출했을 때 언제 돌아올지는 대부분 알고 계셨다'의 4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이 문항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이다. 이 문항을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부모(길러주신 분)의 감독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899). 세 번째, 친구와의 애착은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는 나의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었다', '나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거웠다', '나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나는 나의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었다'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친구와의 애착이라는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846).

3) 비행친구 및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나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비행친구의 영향은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검증되어왔다.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Sutherland(1974)의 차등적 교제이론이라 할 수 있다. 차등적 교제이론에서는 범죄행동은 규범행동과 같이 학습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범죄의 학습은 친밀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범죄와 관련된 기술들뿐만 아니라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definition)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utherland & Cressey, 1974). 차등적 교제이론에서는 법이나 규범을 준수하는 친구들보다 비행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그들과의 교제와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비행적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바로 자신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행친구를 통해 비행과 관련된 동기, 충동 등과 함께 비행적 가치를 학습하게 되어 법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규정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법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규정이 있다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자신의 법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규정이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규정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Sutherland & Cressey, 1978). 즉, 친구들 중 비행친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비행가치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법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규정이 우호적 규정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비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범적인 친구들 혹은 비행친구들과의 기간, 강도, 빈도, 그리고 우선성에 따라 비행적 가치를 습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일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자신의 범죄적 기질에 의해 그러한 행동을 저지른다기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가 가장 밀접한 타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kers와 동료들(1979)은 비행과 일반적 행위에 따른 보상, 처벌의 상대적 빈도인 차별적 강화와 대리 보강을 통한 학습 혹은 모델화가 비행에 영향을 준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습 혹은 모델화는 비행친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민수홍 외, 2005). 즉, 비행청소년과 교제하는 청소년은 비행에 대한 역할모델이 되는 친구를 따르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친구와의 교제는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Warr와 Stafford(1991)는 자신과 친구의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친구의 비행이 자신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신의 비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의 비행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신의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친구의 비행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들은 비행친구의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 강력범의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비행친구 변인을 통해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년과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규범이나 법은 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야단을 맞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급한 경우에는 새치기를 할 수 있다',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발각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의 문항에 대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670).

비행친구는 주변에 '음주', '흡연', '무단결석', '술집 출입', '가출',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위협이나 협박하기', '친구 따돌림', '돈이나 물건 뺏기', '불 지르기',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인용 음란물이나 포르노물 시청', '채팅과 메일을 통함 음란대화',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더듬기', '강제적 성관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가 몇 명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동성, 이성을 구분하고 친구, 선배, 후배 각 몇 명 있는지 기입하도록 하였다.

4) 비공식적 낙인

Lemert(1951)는 범죄나 일탈을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일차적 일탈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낙인이론가들은 최초의 일탈행동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 가정하여 일차적 일탈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오히려 낙인이론가들은 이차적 일탈에 대해 중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은 범죄자에 대한 낙인과 같은 사회적 반응을 통해 경력범죄로 이어져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정 개인이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범죄자라는 낙인을 부여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도 범죄행동을 저지를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낙인을 부여받은 범죄자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범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처럼 낙인은 자신의 이전 문제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여받은 결과이지만, 다시 이후의 비행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부모, 선생님, 친구들로부터의 낙인으로 인해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Matsueda, 1992; Adams et al., 2003). 혹은 낙인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비행친구들과 만나게 되면서 서로 의지하고, 지속적인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Bernburg et al., 2006). 지금까지 진행된 낙인이론을 진행된 연구를 보면 '낙인'은 낙인을 부여하는 주체에 따라 사법처벌과 같은 공식낙인과 주위사람들에 의한 비난과 같은 비공식적 낙인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법제도의 처벌로 인한 공식낙인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부모나 학교 선생님 등의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비공식적 낙인이 비행의 원인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최수형, 2008:53).

이에 본 연구에서도 주위사람들에게 낙인을 찍혔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비공식 낙인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 한다',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 라고 생각 한다'의 두 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된다. 즉, 이 연구에서 비공식 낙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비공식 낙인 경

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각 문항은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비공식 낙인의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944).

5) 일상적 긴장(목표실패, 부모긴장, 학업긴장, 친구긴장)

Agnew(1992)는 청소년의 경우 아노미이론에서 제안하는 문화적 목표가 아직 내면화되지 않아 이로 인한 긴장은 크지 않고 일생생활에서의 긴장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하면서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주장하였다(이순래 · 이경상, 2010:16).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주요 긴장 요인으로 목표실패, 경제적 어려움이나 애인과의 결별 등의 긍정적 자극의 손실, 부모의 정서적 언어적 학대 등의 부정적 자극의 출현이라는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Agnew,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여 긴장의 요인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목표실패, 부모긴장, 학업긴장, 친구긴장을 측정하도록 한다. 먼저, 목표실패는 단일문항으로 '내 여건상 내가 추구하는 목표나 일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았다'로 '그런 적 없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긴장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 '부모님과 나는 마음이 잘 맞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는 받았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힘들었다.'에 대해 '그런 적 없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부모긴장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773).[6] 학업긴장은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았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 받았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짜증났었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이 역시 '그런 적 없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학업긴장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827). 친구긴장은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힘들었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했다'의 3문항으로 '그런 적 없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3문항을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친구긴장 변

6) 부모긴장 측정 문항 가운데 '부모님과 나는 마음이 잘 맞는다'의 문항은 재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600).[7)]

나. 범죄기회 및 상황적 요인

1) 일상생활의 범죄기회 및 상황적 요인

① 자유로운 시간 및 위험적 생활양식

범죄기회이론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초점을 두고 그 상황요건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양식이론과 일상행위이론이 있는데 이들은 개인의 생활양식과 일상행위에 따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르다는 것이다(이성식, 1996:18). 물론, 이 시각은 범죄발생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 보다는 범죄피해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발생의 상황적 요인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기회적 요인으로 일상활동적 변수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평소 일상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 그리고 시간대를 구분하여 부모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위험적 생활양식은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는 밤에 주로 집밖에 많이 있는 편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자주 몰려 다니는 편이었다', '내 일상생활과 주위를 보면 나쁜 일 할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의 세 문항으로 '그런적 없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위험적 생활양식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737).

② 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징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중요한 시각으로 무질서 모델이 제시되는데 이는 사회해체이론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역의 쇠퇴가 무질서를 낳고 이것이 범죄나 범죄의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박철현, 2012:147). 무질서 모델은 개념적으로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 두 차원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무질서는 노숙자, 비행청소년,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은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의 특징을 의

7) 친구긴장을 측정하는 문항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했다'는 문항은 재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미하고 물리적 무질서는 빈집이나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후미진 곳 등의 환경적 특성을 의미한다(LaGrage, Ferraro, & Supancic, 1992; 최수형, 2009에서 재인용: 342). 개인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은 범죄기회에 주목한 범죄기회이론가들 역시 관심을 두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 무질서 변수를 통해 소년 강력범의 범죄상황이나 기회적 요인으로 이해하여 평소 자주 가는 장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소 자주 가는 장소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8]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범죄유발성, 감시통제이다. 먼저 사회적 무질서는 '비행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 '취한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의 세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하여 문항의 수로 나누어 사회적 무질서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777). 즉,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은 것이다. 두 번째, 물리적 무질서는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가로등이 없거나 햇빛이 들지 않아 항상 어두웠다', '전자오락실, 피씨방, 노래방, 당구장, 술집, 여관 등이 많이 있었다'의 세 문항으로 이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하여 문항의 수로 나누어 물리적 무질서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634). 세 번째, 범죄유발성은 '밤이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가까운 곳에 공원이나 야산이 있었다', '작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의 네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하여 문항의 수로 나누어 범죄유발성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659). 네 번째, 감시통제는 '근처에는 CCTV나 경찰지구대, 경찰서가 있었다', '주변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나 경찰차가 자주 보였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하여 문항의 수로 나누어 감시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611). 즉,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

8) 소년범의 경우는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전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청소년은 최근 6개월간 자주 다닌 장소에 대한 것으로 조사표에 따라 지시문의 차이가 있다.

자주 가는 지역이 감시통제가 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범행 당시 범죄 기회 및 상황적 요인

① 범행 당시 지역적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범죄학적 논의에서는 평소 자주 가는 장소의 범죄친화적 성격에 집중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는 연구대상이 이미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으로 범행 당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범행 당시 장소적 특성을 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성과 동일한 문항들로 질문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범행 장소의 친밀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발생 장소는 평소 자주 가는 장소이다'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범행 당시 장소적 특성으로 먼저 사회적 무질서 변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82이고 물리적 무질서 변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22이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도주가 용이할 수 있는 주변에 야산이나 도주로가 많아 범죄유발적 특성 변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58이고 범행 당시 지역의 CCTV나 경찰차가 순찰하는 정도가 높은 수준을 측정하는 감시통제변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14이다.

② 가출 여부

가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청소년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지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가출한 상태였는지를 물어보고 만일, 가출을 한 상태였다면 그 당시 머물렀던 곳은 어디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보호자가 안계시는 친구나 선배 집', '찜질방', '여관이나 모텔등의 숙박업소', 'PC방',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나 공사장', '쉼터', '독서실 혹은 고시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숙식제공자' 가운데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장소가 없다면 기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③ 음주 정도

청소년의 경우 술을 먹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 기회 및 상황적 요인으로 범행 당시 음주 정도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즉, '귀하는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습니까?'로 질문을 한 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술을 마시고 취한 느낌이 들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취했다'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술을 마셨다면 동성친구, 동성 선·후배, 이성 친구, 이성 선·후배, 모르는 동성, 모르는 이성 가운데 누구와 마셨는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만일 보기 가운데 없다면 기타를 선택해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④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행동

상징적 상황이론적가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 즉, 범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행위에 주목하면서 범죄에 대한 상황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이성식,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도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범행 당시 상황 변수는 7개의 구체적 상황들을 제시하였고 해당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나에게 시비를 먼저 걸었다', '피해자가 나에게 먼저 협박을 했다', '나를 먼저 때렸다', '피해자에게 시비와 욕설을 먼저 했다', '피해자에게 먼저 위협이나 협박을 했다', '피해자를 먼저 때렸다', '피해자를 끈이나 테이프로 묶거나 감금했다'이다. 한편, 범행 당시 피해자의 행동변수는 '피해자는 취침중이었다', '피해자는 일하는 중이었다', '피해자는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 '피해자는 비싼 옷이나 가방 등을 가지고 있었다'의 6개의 문항들을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하는 중복응답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다. 비행 및 범죄경력

발전범죄학에서는 기존 범죄이론에서 주장하는 비행의 원인을 통해 비행의 발생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행을 저지른 이후의 상황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비행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화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차등적 교제이론 혹은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비행친구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Smith & Brame, 1994; Moffit, 1994; 노성호, 2007; 이동원, 2003; 이성식, 2001). 두 번째, 사회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유대의 약화이다. Sampson과 Laub(1993)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바로 그 범죄나 비행으로 인해 가정, 학교, 그리고 친구와의 사회적 유대가 다시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시 약화된 사회적 유대로 인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행동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들은 과거의 비행과 미래의 비행 간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로 설명하기보다는 사회적 유대를 통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비행으로 인해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고,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해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현상을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으로 설명하였다. 세 번째, 낙인이론에서 주장하는 부정적 낙인의 부여와 같은 상황의 변화이다. 낙인이론은 앞서 설명했듯이 지속적인 범죄와 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식처벌로 인한 낙인 뿐 아니라 주변인들에 의한 자신의 자각된 비공식적 낙인으로 2차적인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발전범죄학적 관점은 자신의 범죄나 비행은 단지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년 강력범의 경우 과거 비행경험에서 강력범죄로의 발전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첫 비행 및 범죄 경험을 물어보고 이후 해당 행동으로 인해 혹은 처벌 이후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즉, 범죄와 비행행동의 경험이 있다면 부모님(혹은 길러주신분),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 평소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 동네 사람들, 전반적인 관계로 구분해서 자신의 문재행동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알고 난 뒤 알고 있었다면 그들과의 관

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물어보았다. 응답척도는 '매우 많이 나빠졌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좋아졌다'의 5점까지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학교 징계나 교내·외 봉사나 벌점 경험 이후와 경찰에 잡혔거나 법정에 선 경험 이후로 구분하여 동일한 질문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라.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행동

범행내용 및 범행 후 행동에 대한 특성으로 이 문항들은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에 한해서만 질문할 수 있는 문항들이다. 즉, 소년범의 이번 범행[9]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건발생 당시 연령, 범행시간, 범행의 구체적 장소, 공범여부 및 관계, 범행사전 계획 여부 및 계획내용, 범행의 직접적 동기, 범행대상자 연령과 범행대상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 처벌 인지수준, 범행 후 행동, 처분에 대한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범행 내용

① 사건발생 당시 연령 및 범행 시간, 범행 장소

이번 사건을 저지른 당시 나이가 만으로 몇 살이었는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범행 당시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이전',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이전',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 이전',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이전',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 이전', '저녁 9시부터 밤 12시이전' 가운데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범행장소는 크게 개인주거지와 개인상점, 유흥 및 위락업소, 중·대형 사업체, 공공기관, 야외, 대중교통, 기타 장소로 구분되고 기타 장소는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② 공범 여부 및 공범과의 관계

이번 사건을 했던 당시 같이 참여한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공범과의 관계는 '동성학교친구', '동성선배', '동성후

9) 이번 형량이나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을 의미한다.

배', '동성동네친구', '이성선배', '이성후배', '이성학교친구', '이성동네친구', '가족, 친적', '애인', '모르는 동성', '모르는 이성'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고 해당되는 관계가 없으면 '기타'에 표시하고 직접 쓰도록 하였다. 단, 공범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기입하도록 하였다.

③ 범행의 계획성 여부 및 계획 내용

청소년 강력범죄 특징에 있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는지를 살펴본 것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범행 계획성 여부를 물어보았다. 즉, 먼저 범행을 결정했던 시기를 물어보았다. 1번 '범행 한달 전 이상' 2'번 범행 일주일전 이상', 3번 '범행 몇일 전', 4번 '범행 몇 시간전', 5번'범행 직전'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5가지의 제시문을 보여주고 해당 제시문의 계획을 세웠었는지 세우지 않았는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계획 내용에 대한 제시문은 '미리 범행 대상(장소)를 선정하였다', '범행에 쓰일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범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생각해두었다', '도주하는 방법을 미리 짜놓았다', '전체적인 예행연습을 해보았다'이다.

④ 흉기 사용 여부 및 형태

청소년 강력범행 과정에서 흉기가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나 혹은 우리만 흉기를 사용하였다'의 1번, '피해자만 흉기를 사용하였다'의 2번, '나 혹은 우리와 피해자 모두 흉기를 사용하였다'의 3번, '흉기는 사용되지 않았다'의 4번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고 흉기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흉기의 형태가 무엇이었지 물어보았다. 즉, 흉기로 사용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칼(낫), 몽둥이, 끈(줄), 총기류, 독극물(약물), 손발 등 신체, 자동차 등 운송수단, 기타의 물건 가운데 응답하도록 하였다.

⑤ 범행 동기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생활비나 빚

을 갚기 위해서', '유흥비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호기심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로', '친구나 선배에게 자랑하려고', '술 취해서', '부모와 가족에 대한 반발심', '사회에 대한 불만', '단순히 화가 나서', '친구나 선배의 권유나 부추김으로', '피해자에 대한 복수', '성적 충동이나 흥분',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고 만일 해당 이유가 없다면 기타를 선택하고 직접 이유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⑥ 범행대상자의 연령 및 범행대상자와의 관계

소년 강력범죄의 피해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연령이 귀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물어보고 '나보다 나이가 많다', '나보다 어리다', '나와 동갑이다', '모르겠다' 가운데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범행대상자가 2명 이상이라면 피해자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인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입니까?"라고 물어보고 8가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친구, 선후배', '친척', '부모나 형제자매', '애인',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 '동네사람', '사건 있기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 '사건이 있기 바로 전까지도 몰랐던 사람'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고 만일 해당 관계가 없다면 기타에 선택하고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일, 범행대상자와 아는 관계일 경우 평소 관계가 친한 관계였는지, 친하지 않지만 나쁜 관계도 아닌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지 응답토록 하였다.

⑦ 범행 당시 체포 및 처벌에 대한 인지

소년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처벌에 대한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찰에게 분명히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 '이번 행동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토록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범행 당시 체포 및 처벌의 인지 수준이 낮은 것이다.

2) 범행 후 행동

① 범행 후 행동

범행 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번 사건을 저지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한 뒤 5가지의 행동을 제시하였다. ‘바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다른 사람 혹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 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있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주 했다’, ‘피해자가 다쳐 병원 데려다 주었거나 불을 끄는 등 상황수습을 하고 도주했다’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고 만일 해당 상황이 없었다면 기타를 선택하여 범행 후 한 행동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② 형량이나 처분에 대한 생각

소년범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공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여러분이 저지른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무겁다’, ‘내가 저지른 죄에 적당한 처분이다’,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가볍다’ 가운데 응답하도록 하였고 만일 자신의 생각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기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 이외에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가정형편, 부모님의 학력 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대상별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2-3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구분	측정변수	조사대상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일반 청소년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성별	○	○	○
	연령	○	○	○
	양육자 형태	○	○	○
	가정형편	○	○	○
	부모님(길러주신분)의 학력	○	○	○
	한달 용돈	○	○	○

구분	측정변수		조사대상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일반 청소년
동기적 차원의 특성	자아통제력		○	○	○
	부모·친구와의 유대		○	○	○
	비행친구 여부 및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	○	○
	비공식적 낙인		○	○	○
	일상적 긴장(목표실패·부모·학업·친구긴장)		○	○	○
범죄기회 및 상황 차원의 특성	일상생활	부모감독으로부터 자유시간	○	○	○
		위험적 생활양식	○	○	○
		지역적 특성(사회적·물리적무질서, 감시통제, 범죄유발성)	○	○	○
	범행당시	지역적 특성(친근성, 사회적·물리적무질서, 감시통제, 범죄유발성)	○	○	
		가출여부	○	○	
		음주 정도	○	○	
		범행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행동	○	○	
비행 및 범죄경력	첫 비행에서부터 범죄경력		○	○	○
	범죄행위에 대한 주변의 인지 여부		○	○	○
	가족, 친구 등의 주변인들과의 관계 변화		○	○	○
범행내용 및 범행 후 행동	범행내용	범행당시 연령	○	○	
		범행시간 및 범행 장소	○	○	
		공범여부 및 공범과의 관계	○	○	
		범행사전 계획여부 및 계획내용	○	○	
		흉기 사용 여부 및 형태	○	○	
		범행동기	○	○	
		범행대상자 연령 및 관계	○	○	
		범행 당시 처벌에 대한 인지	○	○	
	범행 후 행동	범행 후 행동	○	○	
		처분에 대한 생각	○	○	

2. 분석방법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ver. 18.0)을 통해 카이스퀘어(Chi-square), t-test, 그리고 분산분석 등을 사용하여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의 다양한 양상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년 강력범의 범죄 경력과 범행 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관성 분석(Association Rules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연관성 분석은 하나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둘 이상의 항목들로 구성된 연관성 규칙을 도출하는 자료 분석 방법이다. 연관성 분석에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각 항목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지도(Support)는 전체 항목 중에서 항목 A와 항목 B가 동시에 나타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지도는 높을수록 전체 항목들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전체 범죄자가 10명인 경우에 전과가 절도이고, 현재의 범죄는 강도인 사람이 4명이라면 지지도는 0.4가 된다.

$$\text{지지도}(A \Rightarrow B) = \Pr(A \cap B)$$

두 번째로 신뢰도(Confidence)는 항목 A 중에서 항목 B가 포함된 비율로 신뢰도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두 항목 간의 연관성이 높다. 만약 전과가 절도인 사람이 전체 5명이고, 전과가 절도이고, 현재의 범죄가 강도인 사람이 4명이라면 신뢰도는 0.8이 된다.

$$\text{신뢰도}(A \Rightarrow B) = \frac{\Pr(A \cap B)}{\Pr(A)}$$

세 번째로 향상도(Lift)는 항목 B가 항목 A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신뢰도)와 B 자체만 발생하는 경우의 비율이다. 만약 항목 A와 항목 B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라면 향상도는 1이 되고, 두 항목의 향상도가 1보다 높으면 정적(positive)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두 항목의 향상도가 1보다 낮으면 두 항목 간에는 부적(negative)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관성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R의 패키지인 'arules'를 사용하였다.

$$\text{향상도}(A \Rightarrow B) = \frac{\text{신뢰도}(A \Rightarrow B)}{\Pr(B)} = \frac{\Pr(A \cap B)}{\Pr(A) \cdot \Pr(B)}$$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년 강력범의 친구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자기중심

적 사회연결망 분석(Egocentric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사회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각각의 사람들의 합을 통해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개인의 행위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맥락을 통해 개인들의 행위나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방법이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누어 시행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체 사회의 연결망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사회 내의 구조를 파악하고, 사회 내의 집단들로 분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완전 연결망(Complete Network)이다. 이 방법은 특정 집단 내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각 응답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관계를 보여 줄 수 있으므로 한 집단의 관계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 연결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응답자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때 응답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의 정보는 응답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응답자로부터 응답자 자신의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응답자가 지목한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도 응답자에게서 정보를 얻어낸다. 자기중심적 연결망은 특정 집단 내의 모든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응답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연결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특정 집단의 친구관계를 완전 연결망과 같이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응답자가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프로그램인 R에서 자기중심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한 패키지인 'egonet'을 통해 분석하였다.

제4장

공식통계를 통한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분석

최수형 · 박현수

04

공식통계를 통한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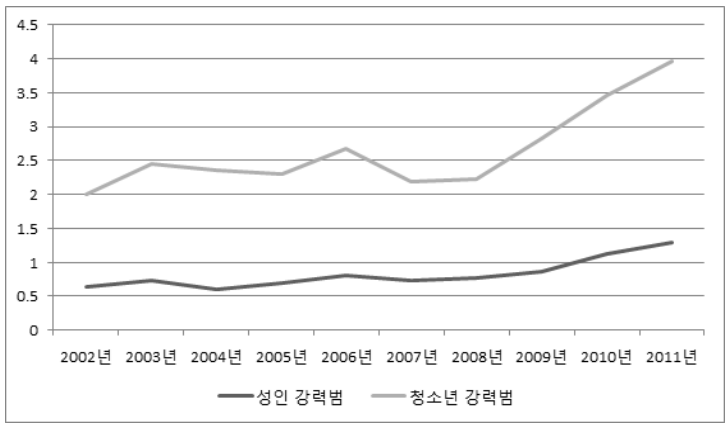
범죄발생 관련 국가 공식통계는 암수범죄의 문제라는 근본적인 한계 외에도 범죄발생 관련 내용 작성과정에서의 오류와 같은 문제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전국규모의 범죄 발생 현황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본 장에서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추세:2002년 ~ 2011년

2008년부터 소년법 적용 대상 상·하한 연령이 낮아지면서 소년범의 나이가 2008년까지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이지만 2009년부터는 10세 이상 19세미만 소년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2008년부터는 강간범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강간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1. 청소년 강력범죄의 발생 및 추이

성인 범죄자 가운데 강력범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년 범죄자 가운데 강력범의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2007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성인 범죄자 가운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과 비교해 보면 소년 범죄자 가운데 강력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즉, 성인 범죄자 가운데 강력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에는 0.63%에서 계속적인 증가로 2011년에는 1.30%로 1,712,041명 가운데 22,328명이었다. 소년 범죄자 가운데 강력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에 2.01%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전체 83,068명 가운데 3,289명이 청소년 강력범으로 3.96% 차지하였다.



(단위:%)

그림 4-1-1 성인범죄자 내 강력범과 청소년 범죄자 내 강력범의 비율 추이

표 4-1-1 성인범죄자 내 강력범과 청소년 범죄자 내 강력범의 비율 추이

	성인 범죄자 내 강력범		소년 범죄자 내 강력범	
	건수	%	건수	%
2002년	11,939	0.63	2,323	2.01
2003년	13,628	0.73	2,359	2.46
2004년	11,716	0.61	1,708	2.35

	성인 범죄자 내 강력범		소년 범죄자 내 강력범	
	건수	%	건수	%
2005년	11,222	0.69	1,549	2.30
2006년	12,625	0.80	1,857	2.68
2007년	11,954	0.73	1,928	2.19
2008년	15,785	0.77	3,016	2.23
2009년	18,206	0.87	3,182	2.82
2010년	19,616	1.13	3,106	3.46
2011년	22,328	1.30	3,289	3.96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 =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포함)+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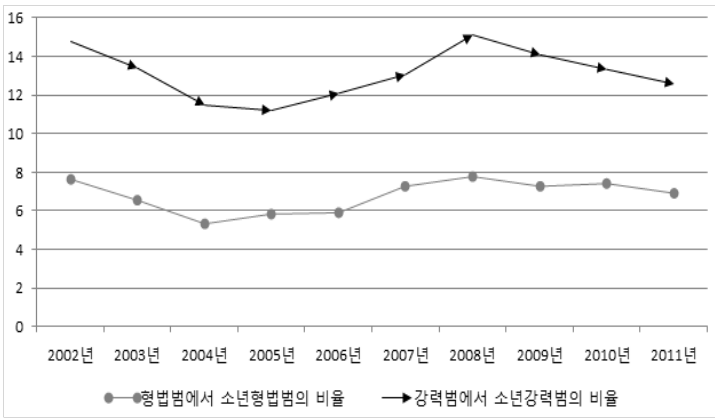
한편, 지난 10년간 전체 형법범 가운데 청소년 형법범의 비율과 전체 강력범에서의 소년 강력범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범죄자 가운데 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2006년 15.4%에서 2010년 12.5%로 감소하고 있고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폭행)의 비율도 16.4%에서 13.7%로 감소하고 있다(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3).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강력범에서의 소년범의 비율은 형법범에서의 소년범 비율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배가량 높았다. 2011년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강력범에서 소년범의 비율은 12.56%로 형법범에서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6.94%)에 비해 약 1.8배이다. 이처럼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서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형법범 전체에서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높다는 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해 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4-1-2 청소년 형법범죄자와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비율 추이

	형법범에서 청소년 형법범죄자의 비율		강력범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비율	
	건수	%	건수	%
2002년	75,982	7.64	2,323	14.82
2003년	67,135	6.55	2,359	13.42
2004년	51,298	5.40	1,708	11.45
2005년	50,652	5.85	1,549	11.26

	형법범에서 청소년 형법범죄자의 비율		강력범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비율	
	건수	%	건수	%
2006년	50,846	5.95	1,857	12.05
2007년	60,426	7.25	1,928	13.09
2008년	79,766	7.79	3,016	15.20
2009년	81,378	7.28	3,182	14.10
2010년	70,045	7.41	3,106	13.31
2011년	66,240	6.94	3,289	12.56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 =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포함)+방화



(단위:10만 명당 발생 비율)

그림 4-1-2 **청소년 형법범죄자와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비율 추이**

2.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 발생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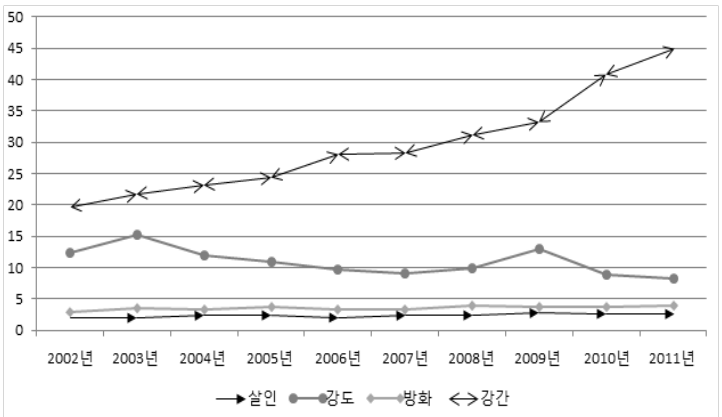
청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발생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 발생율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에는 살인이 2.06건, 강도가 12.50건, 방화가 2.91건, 그리고 강간이 19.81건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살인과 방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큰 폭의 증가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살인: 2003년 2.11건 → 2011년 2.49건, 방화: 2003

년 3.58건 → 2011년 4.03건). 강도는 2003년(15.31건)과 2009(13.09건)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1년 8.21건). 이에 반해 강간은 200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03년 21.66건 → 2011년 44.98건).

표 4-1-3 전체 범죄자 강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률 : 2002년~2011년

연도	살인		강도		방화		강간등	
	발생건수	발생율	발생건수	발생율	발생건수	발생율	발생건수	발생율
2002년	983	2.06	5,953	12.50	1,388	2.91	9,435	19.81
2003년	1,011	2.11	7,327	15.31	1,713	3.58	10,365	21.66
2004년	1,082	2.25	5,762	11.99	1,590	3.31	11,105	23.12
2005년	1,091	2.27	5,266	10.94	1,827	3.80	11,757	24.42
2006년	1,064	2.2	4,684	9.70	1,685	3.49	13,573	28.10
2007년	1,124	2.32	4,470	9.22	1,694	3.50	13,634	28.14
2008년	1,120	2.30	4,827	9.93	1,946	4.00	15,094	31.05
2009년	1,390	2.85	6,379	13.09	1,866	3.83	16,156	33.14
2010년	1,262	2.58	4,395	8.99	1,886	3.86	19,939	40.80
2011년	1,221	2.49	4,021	8.21	1,972	4.03	22,034	44.98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발생율(인구10만명당 범죄발생 비율)



(단위:10만 명당 발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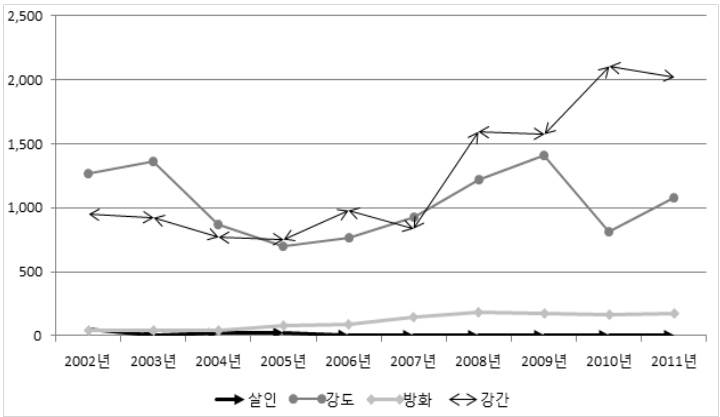
그림 4-1-3 전체 강력범죄의 유형별 발생추이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살인은 2002년에 58건이었고,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 발생한 살인범죄 발생건수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살인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방화는 2002년에 50건이었고, 이후에는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03년 56건 → 2011년 174건). 강도는 2002년에 1,270건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해인 2003년에 1,371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04년에는 급격하게 감소(871건)하였고, 2005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09년에는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강도범죄(1,414건)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다시 강도범죄가 819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1,082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강간은 2002년에 945건이었고,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6년에는 97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듬해인 2007년에는 다시 834건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에는 강간범죄가 1,589건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1-4 청소년 범죄자 강력범죄의 유형별 발생추이

연도	강력범죄발생건수				
	살인	강도	방화	강간등	합계
2002년	58	1,270	50	945	2,323
2003년	17	1,371	56	915	2,359
2004년	22	871	50	765	1,708
2005년	24	696	77	752	1,549
2006년	20	766	92	979	1,857
2007년	19	929	146	834	1,928
2008년	12	1,226	189	1,589	3,016
2009년	18	1,414	176	1,574	3,182
2010년	19	819	161	2,107	3,106
2011년	12	1,082	174	2,021	3,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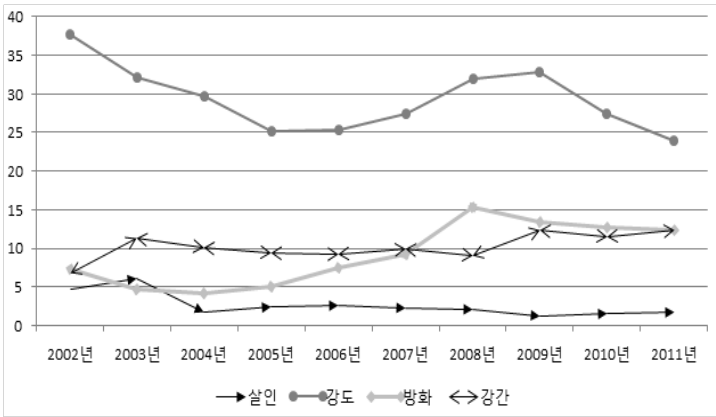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단위: 건)

그림 4-1-4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발생추이

성인 강력범죄 대비 청소년 강력범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살인은 2002년에 성인 강력범죄의 4.6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에는 6.18%로 구성비가 증가하였으나 2004년에 다시 1.81%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후에는 전년도 대비 구성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방화는 2002년에 7.42%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2002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에는 7.63%로 2002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은 2002년의 구성비가 6.88%였으나 2003년에는 11.3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에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구성비가 12.45%로 급격하게 높아졌고, 이후에는 구성비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강도는 2002년에 37.79%로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성인의 강도범죄 대비 청소년의 강도범죄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고 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다시 청소년 강도범죄의 구성비가 높아져서 2009년까지 구성비의 증가추세가 지속되었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는 청소년의 강도범죄 구성비는 전년도 대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단위: %)

그림 4-1-5 성년 강력범죄 대비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구성비

표 4-1-5 성인 강력범죄 대비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구성비

연도	강력범죄 발생 비율			
	살인	강도	방화	강간등
2002년	4.69	37.79	7.42	6.88
2003년	6.18	32.19	4.80	11.34
2004년	1.81	29.77	4.23	10.03
2005년	2.43	25.25	5.11	9.46
2006년	2.67	25.38	7.63	9.26
2007년	2.29	27.54	9.22	9.96
2008년	2.16	32.11	15.48	9.10
2009년	1.31	32.87	13.55	12.45
2010년	1.61	27.55	12.77	11.44
2011년	1.78	23.93	12.40	12.44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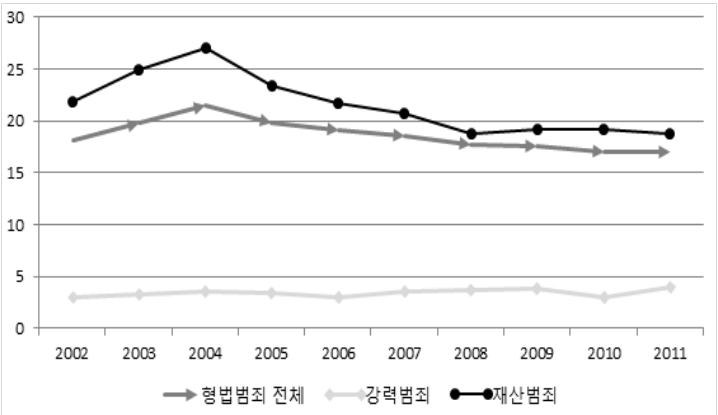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 5년간 강력범죄의 소년범 비율은 살인의 경우 9.5%에서 9.0%, 강간의 경우는 14.7%에서 14.3%, 강도는 27.7%에서 24.2%로 감소추세이다(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3).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특성

1. 여자청소년의 비율

가. 전체 강력범죄의 여성 범죄의 비율

형법범죄에서 여성의 비율은 2002년 18.2%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17.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강력범죄에서 여성의 비율은 2002년 3.2%에서 2011년 4.1%로 다소 증가하였다. 강력범죄의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모두 지난 10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강도의 경우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2002년에는 4.3%에서 2011년에는 9.6%로 급증하였다(그림 4-2-2 참고).



(단위: %)

그림 4-2-1 여성 범죄자 구성 비율 추이

표 4-2-1 여성 범죄자의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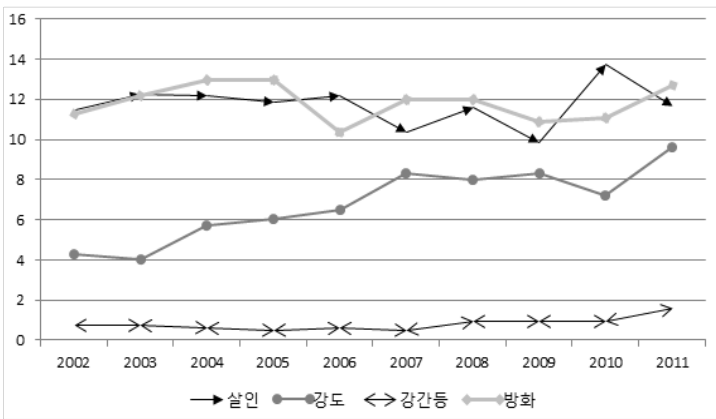
(단위 : %)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18.2	3.2	11.5	4.3	0.7	11.3	21.8	13.1	25.2	13.3
2003년	19.9	3.3	12.3	4.0	0.7	12.2	24.9	14.8	28.2	14.6
2004년	21.6	3.6	12.2	5.7	0.6	13.0	27.0	15.5	30.7	15.8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5년	19.9	3.5	11.9	6.0	0.5	13.0	23.4	14.9	26.5	15.4
2006년	19.2	3.2	12.2	6.5	0.6	10.4	21.7	16.1	24.7	13.5
2007년	18.6	3.6	10.4	8.3	0.5	12.0	20.7	16.7	23.8	13.0
2008년	17.7	3.7	11.6	8.0	0.9	12.0	18.9	16.2	21.4	13.6
2009년	17.6	3.9	9.9	8.3	0.9	10.9	19.2	17.3	21.3	14.3
2010년	17.2	3.1	13.8	7.2	0.9	11.1	19.1	18.4	20.7	14.6
2011년	17.1	4.1	11.7	9.6	1.6	12.7	18.8	19.1	19.7	14.8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에서 여성 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비교해보면 절도. 사기와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여성의 비율은 지난 10년 전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지만 2011년 기준 18.8%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강력범죄(2011년 기준 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강력범죄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 강력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유형은 살인(2011년 기준 11.7%)과 방화(2011년 기준 11.7%)였다.



(단위: %)

그림 4-2-2 여성 강력범죄자 구성 비율 추이

나.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여자청소년의 비율

청소년 형법범에서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2002년 17.0%에서 2011년 18.8%로 약간 증가하였지만 청소년 강력범에서 여자청소년 비율은 2002년 4.8%에서 2011년 9.3%로 약 두배 가량 급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표 4-2-2〉에서 나타나듯이 강력범죄에서 전체 여성범죄자의 구성 비율(2001년 기준 4.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한편, 형범범죄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2011년 기준 17.1%)과 여자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18.8%)의 차이는 강력범죄에서의 구성 비율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즉, 살인, 강도, 강간 등,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 여자청소년의 가담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자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강력범죄 가운데 살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즉, 살인에서 여자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약 20%대를 유지하는데 2008년과 2010년은 절반정도가 여자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로 앞서 성인이 포함된 전체 살인에서 나타난 여성의 비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여자청소년 살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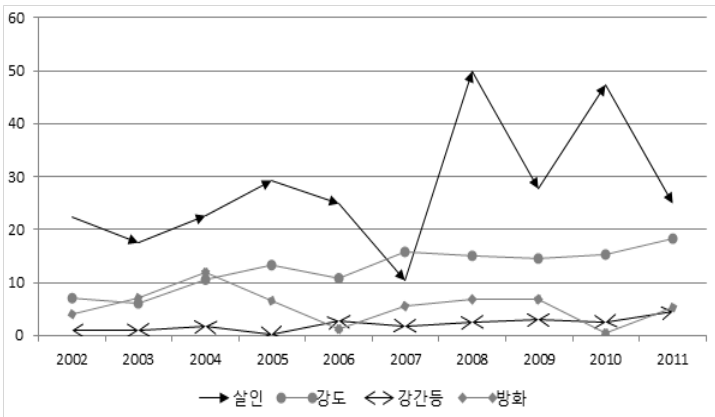
표 4-2-2 여자청소년 범죄자의 구성 비율

(단위 : %)

	형법범죄	강력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17.0	4.8	22.4	6.9	1.1	4.0	15.9	7.5	42.1	13.3
2003년	18.3	4.2	17.6	6.1	1.1	7.1	16.6	8.2	40.2	16.2
2004년	18.4	6.7	22.7	10.4	1.7	12.0	15.7	8.7	40.0	15.8
2005년	16.6	7.0	29.2	13.4	0.4	6.5	11.0	8.0	27.2	13.2
2006년	18.0	6.1	25.0	10.7	2.7	1.1	11.9	9.8	27.0	12.4
2007년	18.3	9.0	10.5	15.9	1.8	5.5	11.6	10.2	22.1	14.1
2008년	19.6	8.1	50.0	15.1	2.5	6.9	12.7	11.5	20.6	15.1
2009년	18.3	8.5	27.8	14.5	3.0	6.8	12.6	11.9	17.3	14.3
2010년	18.0	6.1	47.4	15.3	2.6	0.6	13.1	12.4	17.4	14.7
2011년	18.8	9.3	25.0	18.5	4.7	5.2	13.6	12.5	19.3	17.6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한편,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로 여자청소년의 구성 비율을 비교해보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살인의 경우 2007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도의 경우는 2003년, 2004년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앞서 성인이 포함된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여성의 비율에서는 살인과 방화가 11% 전후로 비슷한 수치를 차지하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살인이 20%대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도가 높게 나타나 여자청소년은 여자 성인에 비해 살인과 강도 가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단위:%)

그림 4-2-3 **여자청소년 강력범죄자 유형별 추이**

2. 범행 당시 연령

가.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 당시 연령 분포

지난 10년간의 청소년 강력범죄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17세'의 점유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8~19세', '14~15세', '14세 미만'의 순이었다. 다만, 2007년 2008년의 경우 '14~15세'의 점유율이 '18~19세'보

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재산범의 경우는 강력범에 비해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14~15세'의 점유율이 '18~19세'에 비해 높았고 2005년부터 3년 동안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10)]

표 4-2-3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범행 당시 연령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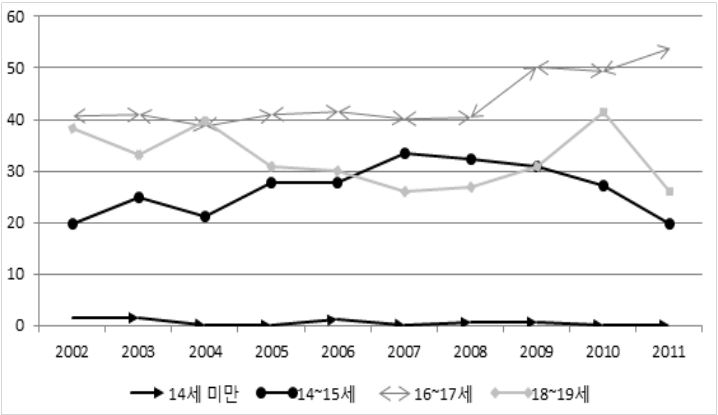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강력범	재산범	강력범	재산범	강력범	재산범	강력범	재산범
2002년	1.5	2.0	19.8	33.7	40.4	36.3	38.4	28.0
2003년	1.4	1.4	24.9	35.1	40.7	35.9	33.1	27.6
2004년	0.4	1.3	21.2	34.2	38.7	35.1	39.7	29.4
2005년	0.5	0.5	27.9	39.2	40.7	36.2	30.9	24.1
2006년	1.1	0.4	27.8	41.3	41.2	36.1	29.9	22.2
2007년	0.5	0.3	33.5	42.9	39.9	36.4	26.1	20.4
2008년	0.6	0.4	32.3	41.1	40.1	37.7	27.0	20.9
2009년	0.6	0.2	30.9	40.9	50.0	43.8	30.9	25.9
2010년	0.4	0.2	27.1	37.4	49.1	45.1	41.4	31.4
2011년	0.2	0.1	19.7	31.4	53.9	50.3	26.2	18.3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 소년법개정으로 인하여 2009년부터는 18세~19세는 18세 연령만이 포함됨

소년강력범의 연령별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16~17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8~19세'가 38.4%, '14~15세'가 19.8%, '14세 미만'이 1.5%이었다. 이러한 연령별 구성비가 유지되다가 2004년 '18~19세'의 비율이 '16~17세'의 비율보다 높아졌으나 이후 다시 '16~17세'의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이전 연령별 구성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4~15세'의 비율이 '18~19세'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이후 '14~15세'의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 연령별 구성 분포를 유지하였다. 한편, 다른 연령층이 지난

10)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2 범죄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자 처리 규정상 촉법소년의 경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피의자원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수는 일부만 집계 된 것이다.

10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16~17세’의 비율이 2002년(40.4%)에 비해 20011년(53.9%)에 증가하여 소년 강력범죄의 절반 이상이 ‘16~17세’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4-2-4 **청소년 강력범죄자 범행 당시 연령별 비율 추이**

나.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범행 당시 연령 분포

청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자. 먼저, 살인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18~19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6~17세’, ‘14~15세’, ‘14세 미만’의 순이었다가 2009년부터 ‘16~17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8~19세’, ‘14~15세’, ‘14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소년법으로 인하여 2009년부터 ‘18~19세’의 연령층에 18세만 포함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소년 살인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짓기는 어렵다.

두 번째, 강도의 경우 2002년에는 ‘16~17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18~19세’, ‘14~15세’, ‘14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연령층의 분포는 2006년까지 유지되다가 2007년에는 ‘14~15세’의 비율이 ‘18~19세’보다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연령층의 분포가 ‘16~17세’, ‘14~15세’, ‘18~19세’, ‘14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에는 ‘18~19세’의 연령층이 ‘14~15세’의 연령층보다 많아지면서 다시 10년 전의 연령층 분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16~17세’의 연령

층이 소년강도범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8~19세', '14~15세', '14세 미만' 순이었다.

세 번째, 강간의 경우 범행 당시 연령층 비율을 비교해보면 2002년에는 '16~17세', '18~19세', '14~15세', '14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고 2003년에는 '18~19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6~17세', '14~15세', '14세 미만'이었다. 2005년에는 다시 '16~17세'의 연령층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고 '18~19세', '14~15세', '14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방화의 경우 2002년에는 '18~19세'〉 '16~17세'〉 '14~15세'〉 '14세 미만'의 연령층 분포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16~17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8~19세', '14~15세', '14세 미만'의 순이었다. 2004년에는 연령층의 연령이 더 어려지면서 '14~15세'가 4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6~17세'(32.0), '18~19세'(22.0%), '14세 미만'(6.0%)의 순이었다. 이러한 연령층 분포가 유지되다가 2011년에 '16~17세'의 연령층이 소년 방화범의 58%를 차지하면서 '14~15세'의 연령층을 앞질렀다. 이처럼,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방화의 경우 범행 당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4-2-4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연령 분포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4세 미만	살인	–	5.9	–	–	–	–	–	–	–	–
	강도	0.3	0.9	0.1	0.3	0.1	0.2	–	0.3	–	–
	강간등	2.8	1.5	0.4	0.5	1.2	0.7	0.9	0.9	0.4	0.3
	방화	8.0	8.9	6.0	1.3	7.6	1.4	1.6	1.1	2.5	–
14~15세	살인	15.5	11.8	13.6	12.5	15.0	5.3	8.3	16.7	21.1	8.3
	강도	19.3	24.1	23.4	29.5	25.7	34.1	31.6	29.5	25.4	17.8
	강간등	20.3	26.3	17.6	25.5	28.6	30.1	29.5	28.9	26.4	19.7
	방화	26.0	25.0	40.0	41.6	39.1	52.7	61.9	60.8	44.7	32.2
16~17세	살인	31.0	29.4	22.7	33.3	30.0	31.6	33.3	66.7	52.6	50.0
	강도	41.3	44.4	40.0	40.4	46.0	40.4	44.0	52.4	50.1	54.1
	강간등	40.2	35.7	38.2	42.0	37.9	40.4	38.6	50.1	49.5	53.5
	방화	32.0	33.9	32.0	33.8	39.1	34.9	28.0	27.8	38.5	58.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8~19세	살인	53.4	52.9	63.6	54.2	55.0	63.2	58.3	44.4	68.4	41.7
	강도	39.1	30.6	36.5	29.9	28.2	25.3	24.4	29.0	42.0	28.1
	강간등	36.7	36.4	43.8	31.9	32.3	28.8	31.0	34.0	42.5	26.5
	방화	34.0	32.1	22.0	23.4	14.1	11.0	8.5	17.0	20.5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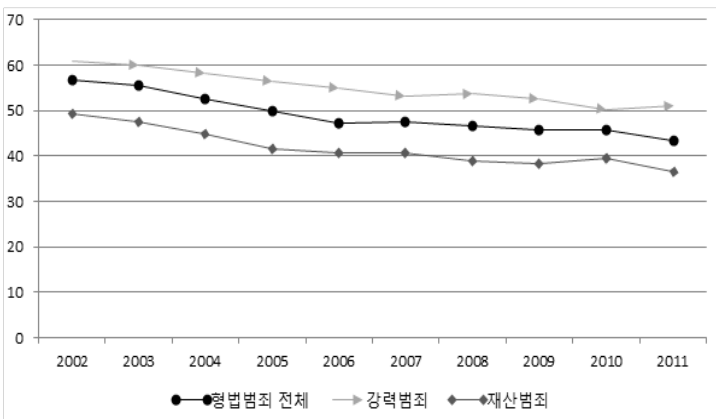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3. 전과 정도

가. 전체 강력범죄의 재범자 비율

1) 전체 재범자의 비율

지난 10년간 전체 강력범죄자의 재범자 비율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재산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강력범죄의 경우 2002년에는 61,1%로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51.5를 차지하였고 재산범죄는 49.4%(2002년)에서 36.7%(2011년)로 감소하였다. 한편, 강력범죄에서 재범자의 비율은 재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단위:%)

그림 4-2-5 전체 강력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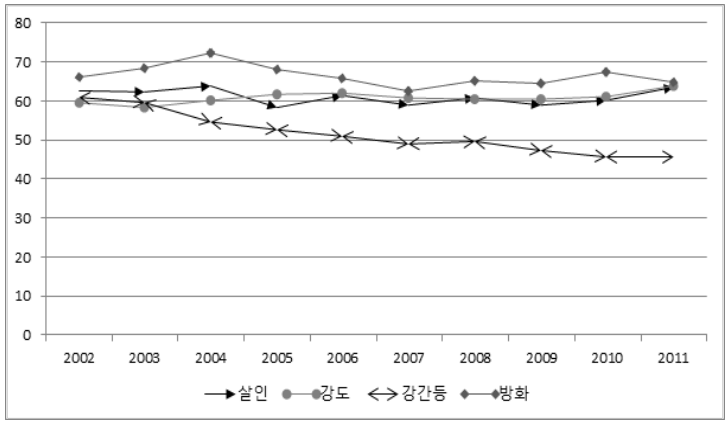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로 재범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방화가 재범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고 강간(강제추행 포함)이 재범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로 재범자의 비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의 경우 2002년 62.8%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63.6%를 차지하였고 강도의 경우 2002년 59.4%로 다른 강력범죄 유형에 비해 재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2011년에는 64.2%로 방화 다음으로 재범자의 비율이 높았다. 강간(강제추행포함)의 경우는 2002년 61.2%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46.0%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재범자의 비율이 낮았고 방화의 경우는 2002년 66.3%로 재범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2011년 64.7%로 여전히 재범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2-5 전체 강력범죄자 재범자 비율 추이

(단위:%)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56.8	61.1	62.8	59.4	61.2	66.3	49.4	45.7	49.6	53.9
2003년	55.5	60.2	62.4	58.5	59.7	68.3	47.5	47.6	46.8	52.0
2004년	52.5	58.2	64.2	60.2	55.0	72.5	44.7	47.3	43.8	47.9
2005년	49.8	56.4	58.5	61.9	52.8	68.1	41.6	47.6	39.9	44.4
2006년	47.2	55.1	61.4	62.0	51.4	65.9	40.5	46.2	37.4	49.4
2007년	47.4	53.2	58.8	60.7	49.2	62.8	40.5	46.3	35.6	52.9
2008년	46.5	53.8	60.9	60.6	50.0	65.1	38.9	48.5	32.4	50.7
2009년	45.6	52.5	58.9	60.3	47.7	64.4	38.3	48.3	31.2	49.3
2010년	45.8	50.4	60.1	61.0	46.3	67.4	39.4	49.6	32.0	49.0
2011년	43.6	51.1	63.6	64.2	46.0	64.7	36.7	50.7	28.1	49.4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단위:%)

그림 4-2-6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

2) 4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

전체 강력범죄의 재범자의 비율에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 분포는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이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앞서 살펴본 전체 재범자의 감소폭에 비해서 4범 이상 재범자 비율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즉, 강력범죄의 경우 2002년 29.6%에서 2011년 26.0%로 감소하였다. 이는 형법범죄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재산범죄만 살펴보더라도 4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은 전체 재범자 비율에 비해 감소폭이 적다. 즉,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에서 4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있지만 강력범죄에서 4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잔인하고 흉악한 범행내용이나 범행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위험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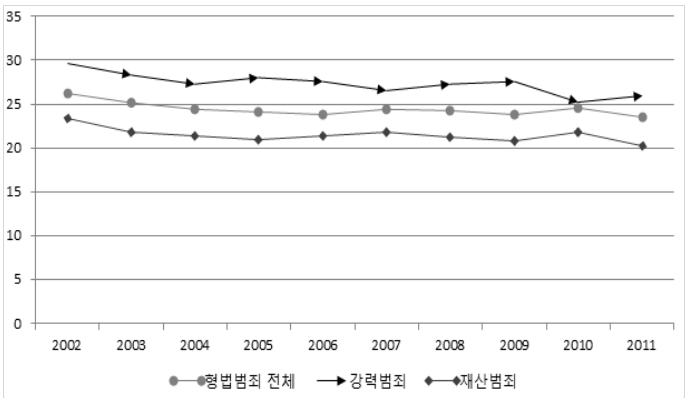
표 4-2-6 전체 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4범 이상)

(단위 : %)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26.2	29.6	31.2	32.0	27.9	32.2	23.4	19.8	24.1	24.2
2003년	25.2	28.3	31.4	29.9	26.3	34.2	21.8	20.4	22.0	23.0
2004년	24.4	27.2	33.5	32.6	23.2	34.4	21.4	20.4	21.5	21.5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5년	24.2	27.9	31.8	35.7	24.0	34.6	20.9	21.2	20.9	20.7
2006년	23.9	27.5	36.2	36.3	23.2	36.5	21.4	21.3	20.7	25.0
2007년	24.4	26.6	37.7	34.8	22.1	33.6	21.7	21.1	20.3	27.9
2008년	24.3	27.3	35.9	33.5	23.7	37.0	21.2	22.9	19.1	27.0
2009년	23.9	27.6	34.7	35.6	23.0	35.9	20.8	22.6	18.6	26.4
2010년	24.6	25.3	33.6	36.4	21.6	37.5	21.8	23.7	19.8	26.0
2011년	23.6	26.0	39.2	39.3	21.0	37.6	20.3	24.5	17.4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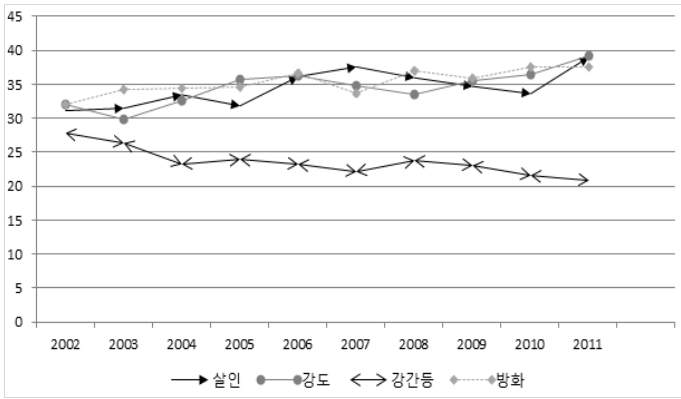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단위:%)

그림 4-2-7 **전체 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 (4범 이상)**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4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의 경우 2002년 31.2%에서 2011년에 39.2%로 다소 증가하였고, 강도 역시 32.0%에서 39.3%로 증가하였으며 방화의 경우도 다소 증가하였다(32.2%→37.6%). 한편, 강간(강제추행포함)의 경우는 27.9%에서 21.0%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전제 재범자의 비율 추이에 비해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 가운데 살인, 강도, 방화의 증가폭이 큼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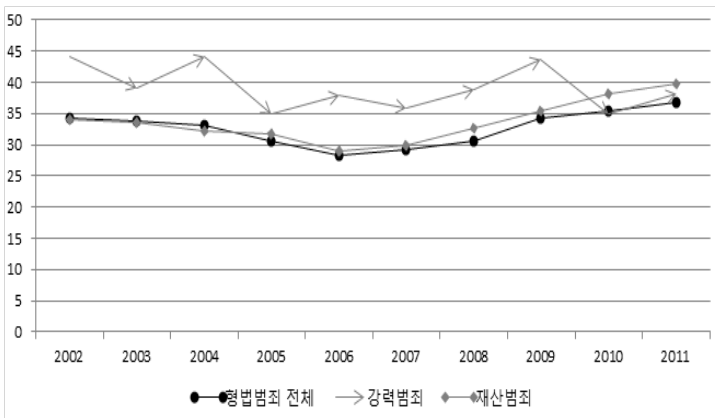
(단위:%)

그림 4-2-8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 (4범 이상)**

나. 청소년 강력범죄의 재범자 비율

1) 전체 재범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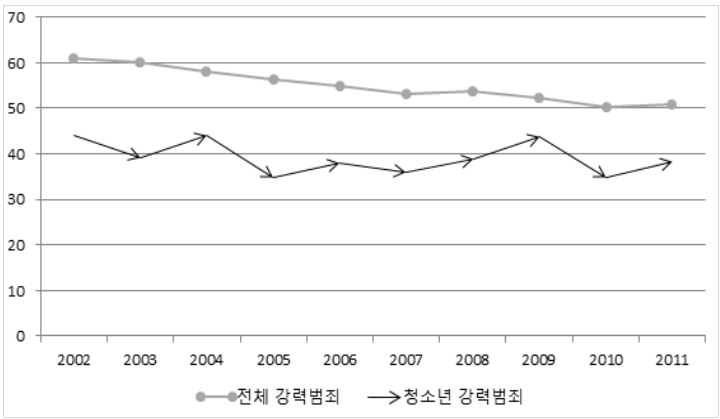
청소년 형법범죄 전체에서 재범자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34.4%에서 37.0%로 다소 증가하였다.



(단위:%)

그림 4-2-9 **청소년 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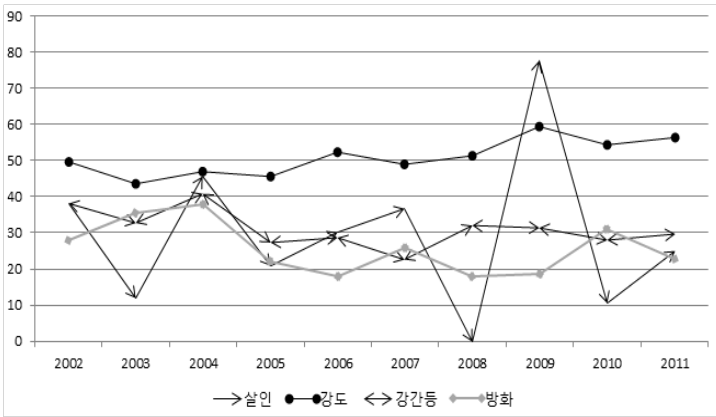
한편, 형법범죄 가운데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세부 유형별로 재범자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강력범죄의 재범죄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44.2%→38.2%)를 보이고 있으며 재산범죄의 경우는 증가추세(33.9%→39.8%)이다.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에서 재범자의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2009년까지는 강력범에서의 재범율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10년부터는 재산범의 재범자의 비율이 강력범을 앞섰다.



(단위:%)

그림 4-2-10 **전체 강력범죄 재범자 비율 추이 및 청소년 강력범죄 재범자 비율 추이 비교**

이처럼, 소년 강력범 가운데 초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앞서 살펴본 지난 10년간 성인 포함 전체 강력범죄에서 재범자의 감소 비율이 소년 강력범죄의 재범자 비율에 비해 크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감소 추세는 동일하다(그림 4-2-10 참고).



(단위: %)

그림 4-2-11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

한편, 소년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로 재범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강도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재범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지난 10년간 다른 유형의 경우 재범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강도는 2002년 49.5%에서 2011년 56.6%로 증가하였고 살인의 경우는 37.9%에서 25.0%로 즉, 강간 등은 38.2%에서 29.8%로 방화는 28.0%에서 23.0%로 감소하였다.

표 4-2-7 청소년 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

(단위:%)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34.4	44.2	37.9	49.5	38.2	28.0	33.9	32.0	39.8	35.4
2003년	33.8	39.0	11.8	43.8	32.7	35.7	33.6	31.0	41.4	31.8
2004년	33.3	44.1	45.5	47.0	41.2	38.0	32.2	30.3	38.9	31.7
2005년	30.8	35.1	20.8	45.5	27.3	22.1	31.6	30.3	39.6	26.5
2006년	28.5	37.9	30.0	52.3	28.6	18.5	29.1	28.5	33.5	28.1
2007년	29.3	35.9	36.8	49.1	22.9	26.0	29.8	29.6	31.3	29.1
2008년	30.6	38.9	0.0	51.5	31.9	18.0	32.6	32.8	31.3	31.4
2009년	34.3	43.7	77.8	59.8	31.5	18.8	35.4	35.5	34.7	35.0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10년	35.6	35.0	10.5	54.3	28.0	31.1	38.1	38.1	39.4	35.5
2011년	37.0	38.2	25.0	56.6	29.8	23.0	39.8	40.0	41.4	32.8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2) 4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

청소년 강력범죄의 4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을 살펴보면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재산범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강력범죄에 비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즉, 강력범죄는 2002년 12.1%에서 2011년에는 13.2%였고 재산범죄는 7.3%이었다가 13.0%로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전체 재범자의 비율 추이에서는 감소 경향(2008년 44.2%→2011년 38.2%)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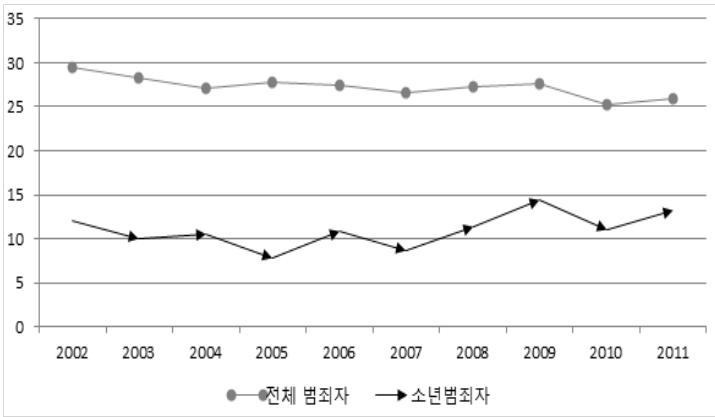
표 4-2-8 청소년 강력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4범 이상)

(단위:%)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7.3	12.1	13.8	14.2	9.6	2.0	7.3	6.6	9.2	9.7
2003년	7.1	10.1	0.0	12.2	7.2	8.9	7.1	5.9	10.3	8.5
2004년	6.8	10.5	4.5	13.0	7.7	12.0	7.0	5.7	11.5	7.5
2005년	6.5	7.9	12.5	12.2	4.3	2.6	7.1	5.8	14.7	6.5
2006년	6.2	10.9	5.0	18.4	5.9	2.2	6.8	6.0	13.0	5.4
2007년	6.7	8.7	15.8	14.3	3.4	2.1	7.5	6.8	12.9	6.9
2008년	7.3	11.4	0.0	17.9	7.5	3.2	8.6	8.2	12.3	6.6
2009년	8.6	14.5	27.8	24.4	6.9	1.7	9.5	9.1	13.3	8.5
2010년	10.3	11.1	5.3	20.5	7.9	6.2	11.8	11.2	16.8	9.9
2011년	11.2	13.2	8.3	25.0	7.7	4.0	13.0	12.6	17.9	8.3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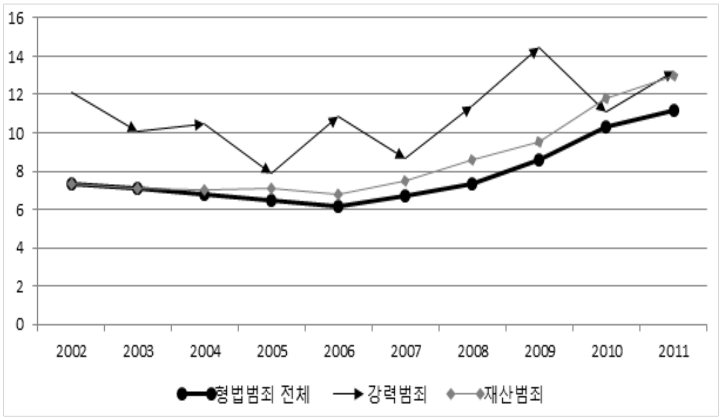
이는 앞서 살펴본 성인 포함 강력범죄에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는 달리 소년 강력범에서 4범 이상의 재범자의 비율은 증가추세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내용과 수법에 있어서 보다 심각하고 흉악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4-2-12 참고).



(단위:%)

그림 4-2-12 **전체 강력범죄 재범자 비율 및 청소년 강력범죄 재범자 비율 추이 비교(4범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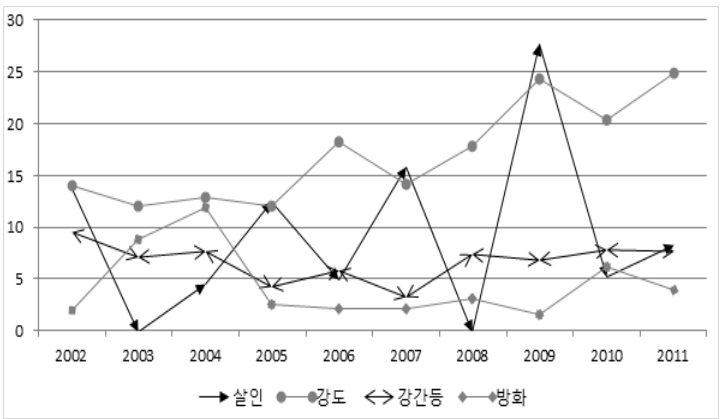
한편,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에서 4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은 소년 전체 형법범에서의 4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에 비해 항상 높았으며 재산범과 비교해 보더라도 2010년을 제외하고는 강력범에서 4범 이상의 재범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었다.



(단위:%)

그림 4-2-13 **청소년 범죄의 재범자 비율 추이(4범 이상)**

청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고 2002년 14.2%에서 2011년 25.0%로 그 증가폭도 크다. 살인은 13.8%에서 8.3%로 강간(강제추행포함)은 9.6%에서 7.7%로 감소하였고 방화는 2.0%에서 4.0%로 다소 증가하였다.



(단위:%)

그림 4-2-14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4범 이상)**

제3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내용

1. 단독범의 비율

가. 전체 강력범죄의 단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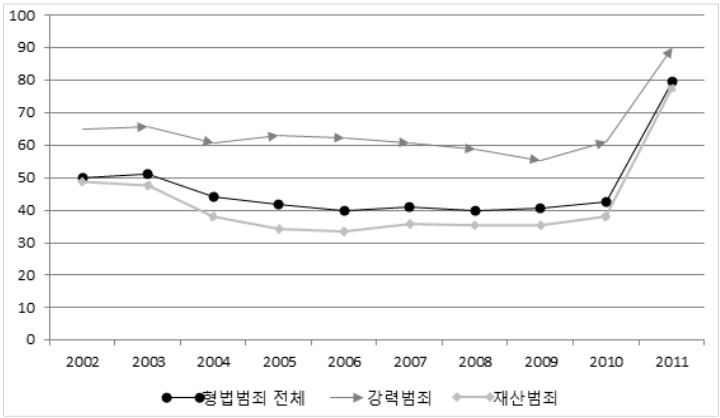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형법범죄 전체에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절반정도를 차지하였다가 2011년에는 약 80%로 급증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진 형법범죄가 급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법범죄 가운데 강력범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2002년 65.1%에서 2011년 90.3%로 급증한 것이다.

표 4-3-1 전체 범죄의 단독범 비율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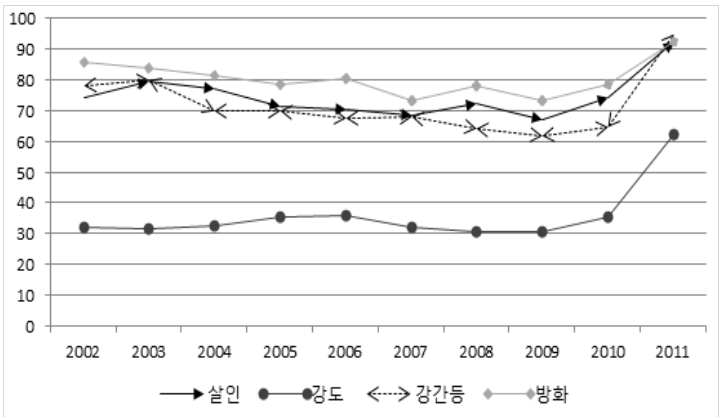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49.9	65.1	74.3	32.1	78.2	85.9	48.5	47.2	47.5	57.3
2003년	51.1	65.6	79.4	31.5	79.9	83.7	47.5	50.1	45.8	55.6
2004년	44.0	60.9	76.9	32.6	69.7	81.5	37.9	47.8	34.9	46.9
2005년	41.9	63.1	71.4	35.4	70.0	78.5	34.0	48.3	29.4	43.9
2006년	39.9	62.4	70.2	35.8	67.7	80.5	33.2	48.4	25.7	52.2
2007년	40.9	60.8	68.3	32.2	67.9	73.6	35.4	48.8	25.4	58.7
2008년	40.3	59.0	72.5	31.3	64.3	78.0	34.9	48.1	24.3	56.1
2009년	40.7	55.5	67.5	31.0	62.2	73.9	35.2	49.1	24.1	54.9
2010년	42.5	61.3	74.0	35.4	64.6	78.7	37.6	52.1	25.7	56.4
2011년	79.5	90.3	92.7	62.5	95.1	92.8	77.5	75.2	76.1	86.5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단위:%)

그림 4-3-1 전체 범죄의 단독범 비율



(단위:%)

그림 4-3-2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 단독범의 비율 추이

한편,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단독범의 비율을 살펴보면 방화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단독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강도는 지난 10년 동안 단독범의 비율이 가장 낮아 범행에서 공범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강력범죄의 세부유형별 단독범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의 경우 2002년에는 74.3%에서 2011년에는 92.7%로, 강도는

32.1%에서 62.5%로, 강간 등은 78.2%에서 95.1%로 방화는 85.9%에서 92.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강력범죄의 단독범의 비율은 재산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은 절도와 사기등과 같은 재산범죄에 비해 살인이나 강도 등의 강력범죄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청소년 강력범죄의 단독범 비율

먼저, 형법범 전체에서 나타난 단독범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의 단독범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단독범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1년에는 26.6%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2002년 단독범의 비율이 34.9%로 다른 유형의 형법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2004년에는 단독범 비율이 28.2%로 급감하였고, 2009년까지 감소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재산범죄의 단독범 비율이 각각 26.3%와 26.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 경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 강력범죄의 단독범 비율은 2002년에 29.6%로 나타났다. 이후 강력범죄의 단독범 비율은 2004년과 2009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 두 시기 모두 다음해에는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의 단독범 비율은 각각 31.4%와 31.1%로 다른 형법범죄유형의 단독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청소년 전체 범죄의 단독범 비율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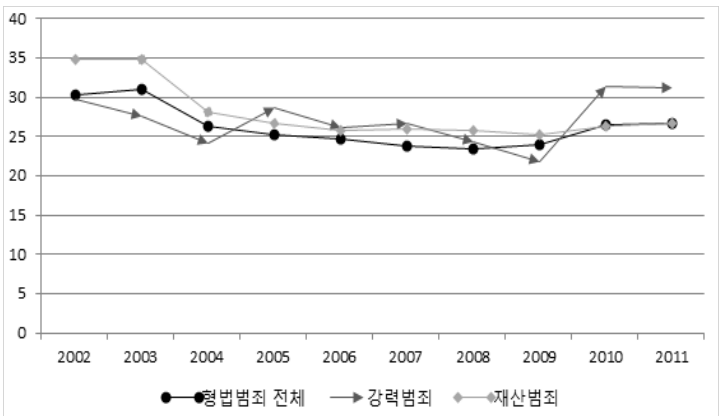
	형법범죄	강력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30.3	29.6	50.0	14.8	46.7	58.0	34.9	26.1	59.1	57.2
2003년	31.1	27.5	88.2	13.1	46.6	48.2	34.9	25.6	58.4	56.5
2004년	26.4	24.1	68.2	13.1	34.1	42.0	28.2	23.5	40.5	54.3
2005년	25.2	28.6	54.2	14.5	40.8	28.6	26.7	23.2	40.6	51.0
2006년	24.6	26.1	60.0	9.5	38.2	27.2	25.7	23.0	34.3	57.3
2007년	23.8	26.6	47.4	9.1	44.7	30.8	25.9	23.1	36.4	57.7
2008년	23.5	24.2	58.3	9.1	35.1	28.6	25.8	21.8	41.3	53.4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9년	24.0	21.8	55.6	9.2	32.3	26.1	25.3	21.1	46.1	51.1
2010년	26.5	31.4	63.2	9.9	39.4	31.7	26.3	22.2	42.7	53.9
2011년	26.6	31.1	66.7	8.8	42.3	38.5	26.7	22.3	44.1	55.7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이처럼 청소년 강력범죄의 단독범 비율을 청소년 재산범죄와 비교해 본다면 10년 전에는 재산범죄의 단독범이 강력범죄에 비해 많았으나 2011년 현재 재산범죄에 비해 강력범죄에서의 단독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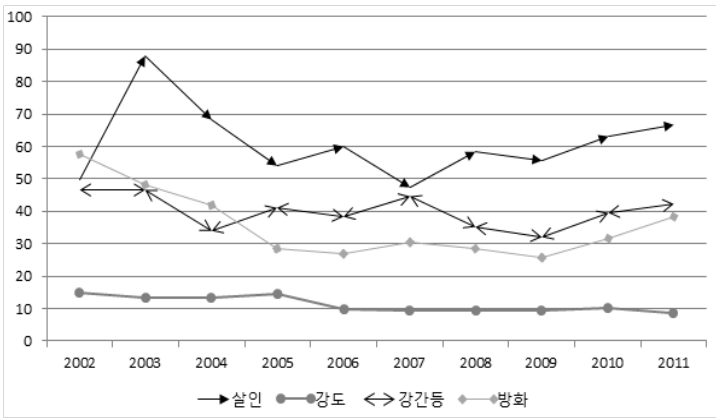
한편, 전체 강력범죄자의 경우에는 2002년에 단독범의 비율이 65.1%로 나타나고 있고 2003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최소 55.5%(2009년)에서 65.1%(2002년) 사이에서 단독범의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3-1 참고). 이에 비해 소년 강력범죄자는 단독범의 비율이 2002년 기준으로 29.6%로 전체 강력범죄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도 최대 31.4%(2010년)에서 최소 21.8%(2009년) 사이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단독범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표 4-3-2 참고).



(단위:%)

그림 4-3-3 청소년 전체 범죄의 단독범 비율 추이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에 따른 단독범의 비율을 살펴보자. 우선 살인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2년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50.0%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88.2%까지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감소하였고, 2007년을 제외하고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9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방화범죄는 2002년에 단독범의 비율이 58.0%였으나 2006년까지 단독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는 단독범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 강간범죄는 2002년에 단독범의 비율이 46.7%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지만 최소 32.3%(2009년)에서 최대 46.7%(2002년) 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강도범죄는 2002년에 단독범의 비율이 14.8%로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의 단독범 비율은 2005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1년에는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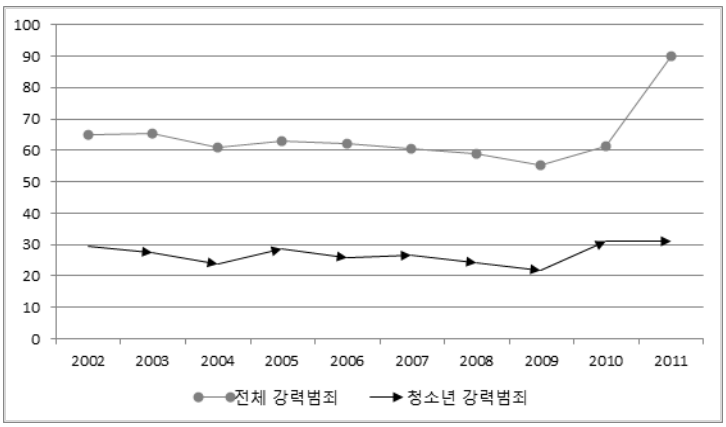


(단위:%)

그림 4-3-4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단독범 비율 추이

즉, 청소년 강력범죄는 〈그림 4-3-5〉에서 나타나듯이 성인 포함 전체 강력범죄에서 나타난 단독범의 비율에 비해 낮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의 경우 공범과 함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로

단독범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강도인 경우에는 공범과 함께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성인 강력범죄에 비해 단독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 경우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 보다는 친구들이나 선·후배 등과 어울려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강력범죄 가운데 강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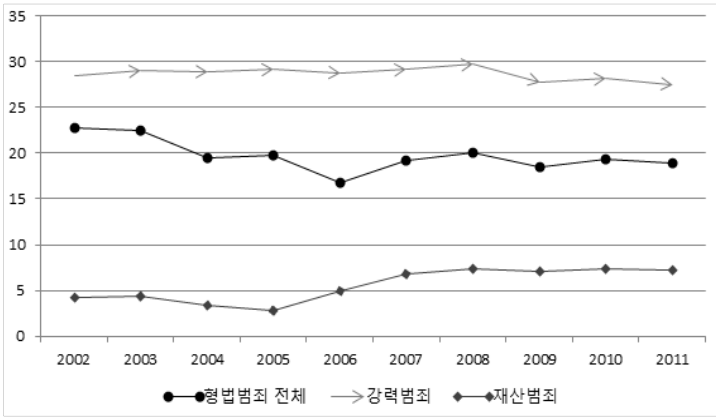
(단위:%)

그림 4-3-5 **전체 강력범죄의 단독범 및 청소년 강력범죄의 단독범 비율 비교**

2. 주취자 비율

가. 전체 범죄의 주취자 비율

형법범죄 전체에서 주취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22.9%에서 2011년 19.0%로 다소 감소하였고, 형법범죄 가운데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2002년 28.4%에서 2011년 27.5%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강력범죄의 주취자의 비율이 절도나 사기 등과 재산범죄에 비해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범죄와는 다른 강력범죄 발생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그림 4-3-6 전체 범죄의 주취자 비율

전체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 주취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방화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범행 당시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도의 경우는 주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범행 당시 술을 먹는 경우가 적으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살인의 경우 다른 유형과는 달리 지난 10년간 주취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 26.8%→2011년 38.0%). 즉, 강도의 경우는 2002년 15.3%에서 2011년 14.4%로 강간 등은 2002년 32.9%에서 2011년 28.8%로 방화는 2002년 44.7%에서 2011년 42.0%로 감소하였다.

표 4-3-3 전체 범죄의 주취자 비율

(단위:%)

	형법범죄	강력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22.9	28.4	26.8	15.3	32.9	44.7	4.2	6.4	3.5	5.0
2003년	22.5	29.0	34.6	13.8	33.8	46.4	4.3	6.5	3.7	5.4
2004년	19.6	28.9	33.6	15.3	32.3	45.6	3.3	6.2	2.6	5.1
2005년	19.8	29.1	30.9	14.2	31.7	46.6	2.8	5.8	1.7	5.3
2006년	16.9	28.7	32.1	16.0	30.3	44.8	4.9	5.5	1.5	19.9
2007년	19.3	29.1	33.9	14.9	31.9	39.7	6.7	5.3	1.9	27.0
2008년	20.1	29.8	36.6	15.0	31.6	48.6	7.4	6.1	2.4	25.0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9년	18.6	27.8	37.7	15.1	29.9	45.0	7.1	6.6	2.5	22.9
2010년	19.4	28.1	36.7	16.6	28.4	46.3	7.4	7.1	2.9	22.3
2011년	19.0	27.5	38.0	14.4	28.8	42.0	7.2	7.0	2.7	22.5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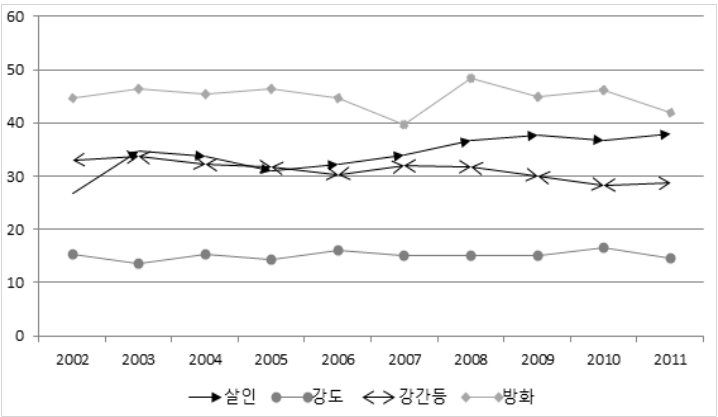


그림 4-3-7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 주취자 비율(단위:%)

나. 청소년 강력범죄의 주취자 비율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지난 5년간 약 11%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소년 전체 형법범죄에서 주취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고 소년 형법범 가운데 재산범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소년 형법범에서 주취자의 비율이 지난 5년간 감수추세(2007년 6.0%→2011년 3.4%)인 반면, 소년 강력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2007년 11.3%→2011년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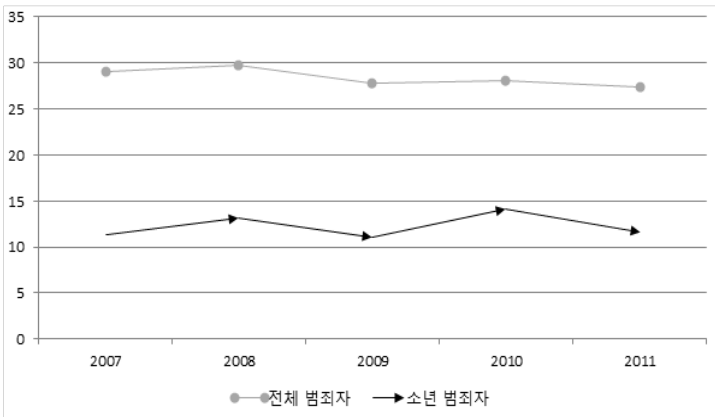
표 4-3-4 청소년 강력범죄의 주취자 비율

(단위:%)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7년	6.0	11.3	11.1	5.6	19.0	2.8	1.5	1.1	1.0	12.2
2008년	6.1	13.2	0.0	4.2	20.7	8.5	1.8	1.1	0.9	12.4
2009년	3.9	11.1	23.5	5.1	17.3	2.3	1.3	1.0	0.8	7.1
2010년	3.9	14.2	21.1	6.9	17.9	2.5	1.1	0.8	0.8	5.3
2011년	3.4	11.6	16.7	3.2	16.7	4.6	1.1	0.7	1.1	0.5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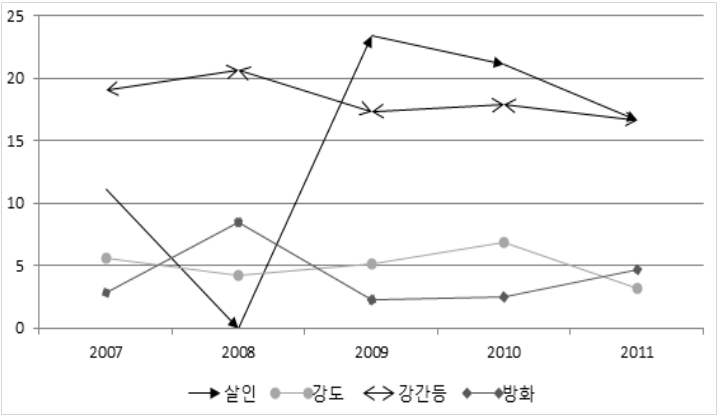
한편, 앞서 살펴본 성인 포함 강력범죄에서 주취자의 비율에 비해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주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는 특성상 술을 접할 기회가 성인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성인포함 전체 강력범죄에서 주취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 강력범죄에서는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그림 4-3-8 전체 강력범죄 주취자 비율 및 청소년 강력범죄 주취자 비율 비교

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주취자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2008년까지는 강간이 가장 높았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살인이 가장 높았고, 2011년에는 살인과 강간(강제추행 포함)이 16.7%로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살인과 강간의 경우 강도나 방화에 비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는 전체 강력범죄에서 방화가 주취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그림 4-3-7, 그림 4-3-9 참고).



(단위:%)

그림 4-3-9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주취자의 비율**

3. 기소율

가. 전체 강력범죄의 기소율

형법범죄 전체에서 기소율은 2002년 38.2%에서 2011년 30.0%로 감소추세이며 이는 강력법죄에서도 재산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강력범죄의 경우 2002년 전체 범죄의 약 60%가 기소되다가 2011년에는 절반이 채 안 되는 48.0%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고 재산범죄의 경우는 2002년 26.4%애서 2011년 24.5%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절도와 사기등과 같은 재산범죄는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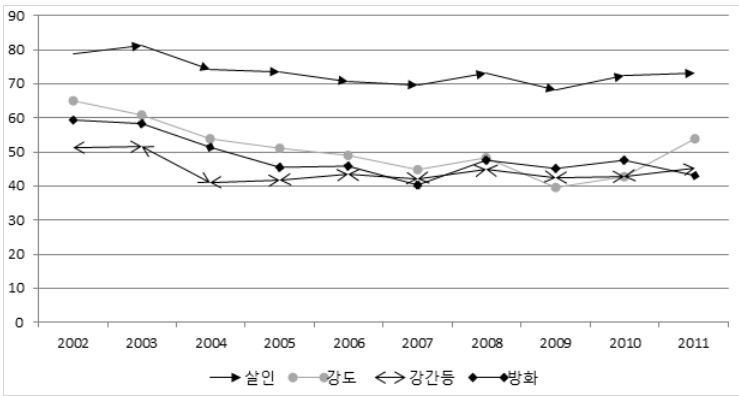
표 4-3-5 전체 범죄의 기소율 추이

(단위:%)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38.2	57.7	78.7	65.1	51.4	59.5	26.4	36.2	22.9	33.8
2003년	35.8	56.8	81.5	60.7	51.9	58.4	25.5	37.4	22.2	32.6
2004년	32.0	47.4	74.1	53.6	41.3	51.2	18.6	0.0	20.4	29.8
2005년	31.5	46.4	73.6	50.9	41.9	45.2	23.4	33.6	20.3	29.6
2006년	30.9	46.5	70.9	48.8	43.7	45.6	23.9	32.4	19.6	34.6
2007년	32.3	44.3	69.6	44.6	42.1	40.3	26.6	31.2	22.3	38.0
2008년	32.8	47.2	73.3	48.0	45.0	47.4	27.5	32.1	22.9	38.2
2009년	32.0	43.4	68.3	39.6	42.7	45.0	27.7	29.4	24.6	36.1
2010년	30.4	44.4	72.4	42.5	42.9	47.3	25.9	28.3	22.7	33.1
2011년	30.0	48.0	73.1	53.6	45.4	42.9	24.5	29.3	20.5	31.9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한편,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로 기소율을 살펴보면 범행의 특성상 살인의 경우 기소율이 가장 높았다. 강간의 경우는 2006년까지는 기소율이 가장 낮았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강도가 가장 낮았고 2011년에는 방화의 기소율이 가장 낮았다.



(단위:%)

그림 4-3-10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 기소율 추이

나. 청소년 강력범죄의 기소율

지난 청소년 형법범죄의 기소율을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을 알 수 있다. 소년 형법범죄 전체에서 2002년 기소율은 20.3%였으나 지속적인 감소로 2011년에는 5.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기소율의 급감 현상은 절도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보다 강력범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즉, 강력범죄에서는 2002년 47.8%에서 소폭 증감현상을 반복하다가 2010년 23.0%로 최저치를 나타냈다가 2011년 소폭 증가하여 26.4%이기는 하지만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약 20%이상이 감소한 것이다. 재산범죄는 2002년 16.0%에서 2011년 5.3%로 약 1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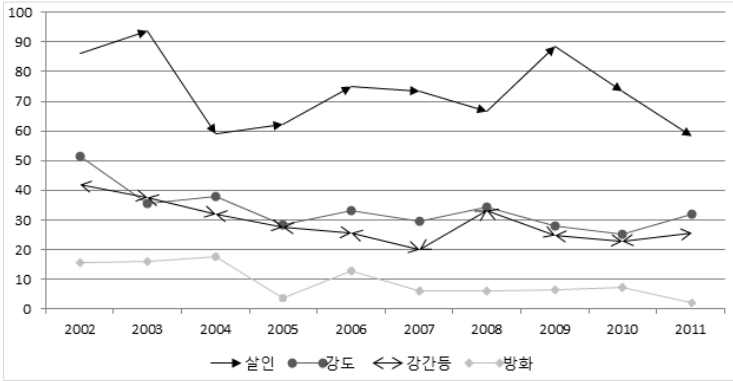
표 4-3-6 청소년 범죄의 기소율 추이

(단위:%)

	형법범죄	강력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20.3	47.8	86.2	51.5	42.1	16.0	16.0	12.7	25.6	19.6
2003년	17.3	36.2	94.1	35.4	37.7	16.1	13.6	10.1	23.1	18.6
2004년	15.1	34.8	59.1	37.7	32.0	18.0	11.9	9.0	21.4	14.4
2005년	11.3	27.3	62.5	28.3	27.7	3.9	9.5	7.1	22.7	10.3
2006년	9.4	28.4	75.0	32.9	25.4	13.0	7.9	6.0	20.4	11.1
2007년	8.3	24.1	73.7	29.4	20.1	6.2	7.4	5.7	19.8	11.3
2008년	9.5	31.9	66.7	34.1	33.0	6.3	8.8	7.0	21.1	11.6
2009년	6.2	25.4	88.9	27.6	24.8	6.8	6.0	4.9	14.6	5.8
2010년	5.4	23.0	73.7	25.4	22.8	7.5	5.0	4.2	11.1	3.9
2011년	5.6	26.4	58.3	31.9	25.4	2.3	5.3	4.8	9.7	2.7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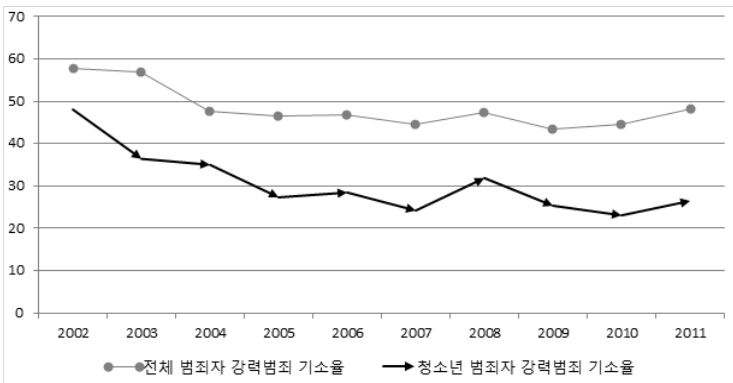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 기소율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살인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으로 강도, 강간 등, 방화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분포층이 유지되었다(2008년의 경우는 살인〉강간등〉강도〉방화의 순). 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기소율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의 경우 2002년 86.2%에서 2011년 58.3%로 강도는 51.5%에서 31.9%로, 강간은 42.1%에서 25.4%로, 방화는 16.0%에서 2.3%로 살인의 기소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단위:%)

그림 4-3-11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기소율 추이

이처럼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에 비해 청소년 강력범에 대한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이는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전체 강력범죄에 대한 기소율와 청소년 강력범죄에 기소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강력범에 대한 기소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3-12참고).



(단위:%)

그림 4-3-12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 및 청소년 강력범죄 기소율 비교

제4절 요약

4장에서는 범죄발생 관련 국가 공식통계인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발생 및 추이이다. 성인 범죄자 강력범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년 범죄자 가운데 강력범의 비율은 증갑을 반복하다가 2007년 이후 증가하였고 성인 범죄자 가운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소년 범죄자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강력범에서 소년범의 비율은 전체 형법범에서 소년범의 비율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배가량 높아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해 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살인의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방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강도와 강간은 증감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성인 강력범죄 대비 청소년 강력범죄의 구성비를 보면 강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특성으로 여자청소년의 비율과 범행 당시 연령, 그리고 전과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①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에서 여자청소년 비율은 급증하였으며 강력범죄에서 전체 여성범죄자의 구성 비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즉, 이는 살인, 강도, 강간 등,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 여자청소년의 가담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자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강력범죄 가운데 살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여자청소년 살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로 여자청소년의 구성 비율을 성인이 포함된 전체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여성의 비율과 비교해보면 여자청소년은 여자 성인에 비해 살인과 강도 가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②청소년 강력범죄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17세'의 점유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8~19세', '14~15세', '14세 미

만'의 순이었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방화의 경우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범행 당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③ 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재범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성인 포함 전체 강력범죄에서 재범자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로 재범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강도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재범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지난 10년간 강도의 재범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한편, 성인 포함 강력범죄에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는 달리 청소년 강력범에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은 증가추세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내용과 수법에 있어서 보다 심각하고 흉악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로 4범 이상 재범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세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내용은 크게 단독범의 비율과 범행 당시 음주 수준, 그리고 기소율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①10년 전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재산범죄에서 높았으나 2011년 현재 강력범죄에서의 단독범 비율이 재산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단독범의 비율은 성인 포함 전체 강력범죄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청소년의 경우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로 단독범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강도인 경우에는 공범과 함께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소년 강력범죄에서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재산범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주취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살인과 강간의 경우 강도나 방화에 비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③지난 청소년 형법범죄의 기소율을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절도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청소년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 기소율을 살펴보면 살인의 기소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에 비해 청소년 강력범에 대한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이는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전체 강력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강력범에 대한 기소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 분석

최수형 · 박현수

05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 분석

제1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1. 설문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인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일반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년은 소년 강력범의 비교집단으로 조사가 완료된 조사 대상 가운데 과거 강력범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년 강력범과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소년 강력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가 대부분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하고 있고 '18세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47.8%, '16세에서 17세'는 40.1%, '14세에서 15세'는 12.1%의 순이었다. 지금까지 길러주신 양육자의 유형을 보면 '친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6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편부모'(16.3%),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친부와 계모 혹은 계부와 친모'에 의해 길러진 경우(9.9%)등의 순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신의 가정형편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한 달 용돈을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한 달 용돈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가 20.5%,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8.4%,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7.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년 강력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집단인 절도범과 일반청소년과 비교해 보자. 먼저, 성별 비율이다.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강력범이 높기는 하지만 절도범 역시 조사대상의 상당 부분이 남자청소년이었고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조사 설계에서 부터 성별을 고려한 결과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다음 절에서 진행할 일반청소년과 소년범간의 특성 차이 분석 결과가 성별 효과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분석의 경우 일반청소년을 비행청소년과 비행도 저지르지 않은 비비행청소년으로 구분하였고[11] 사회연결망 분석의 경우는 남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세부 분석을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성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 번째, 현재 연령에 있어서는 절도범은 '16세와 17세'인 경우가 전체의 42.2%로 가장 많아 강력범 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연령 보다는 범행당시 연령이 지니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2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1) 일반청소년 집단 가운데 비행청소년집단은 일반청소년 가운데 술이나 담배, 가출 등의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집단으로 남자청소년의 비율은 71.8%이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집단의 현재연령은 '16세, 17세'가 60.9%, '14세와 15세'가 26.9%, '14세 미만'이 1.5%, '18세 이상'이 0.6%이다. 비행청소년집단의 길러 주신 분은 친부모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비행청소년집단의 가정형편의 경우는 '보통'이 전체의 60.3%, '잘사는 편'이 16.0%, '약간 못 사는편'이 17.9%등의 순이었으며 한 달 용돈의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4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9.5%, '용돈이 없다'는 14.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위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비비행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61.2%로 더 높았고 현재연령은 '14세~15세'가 전체의 40.9%, '16세~17세'가 30.1%, '14세 미만'이 27.8% 등의 순이었다.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은 '친부모'의 경우가 전체의 97.2%로 대부분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이하'인 경우가 57%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정형편은 '보통이다'는 응답이 전체의 59.8%였고 '잘 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28.8%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 달 용돈은 '1만원에서 5만원 미만'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용돈이 없다'는 응답이 25.6%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세 번째, 강력범의 경우 '친부모'에 의해 길러지는 경우가 절도범(59.4%)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일반청소년(94.4%)에 비해서는 낮았다.

네 번째, 부모님 학력의 경우 절도범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강력범과 일반청소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년 강력범 집단의 부모님 학력이 일반청소년 집단의 부모님 학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가정형편의 경우 조사대상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소년범집단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강력범:55.6%, 절도범:58.8%) 다음으로 '약간 못사는 편'이라는 응답(강력범:28.2%, 절도범:24.9%)이 가장 많았으나 일반청소년도 59.6%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잘 사는 편'(24.5%)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별로 보면 한 달 용돈의 경우 '한 달 용돈이 없다'는 응답이 강력범은 25.6%, 절도범은 23.0%, 일반청소년은 22.0%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님의 학력과 가정형편, 한 달 용돈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년 강력범과 절도범 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일반청소년과의 차이가 크며 소년범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의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소년 강력범과 이들 비교집단 간의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5-1-1 설문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조사대상자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일반청소년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31	(95.4)	276	(88.2)	283	(51.0)	262.745***
	여자	16	(4.6)	37	(11.8)	272	(49.0)	
현재 연령	14세 미만	–	–	11	(3.5)	120	(21.6)	397.404***
	14~15세	42	(12.1)	76	(24.3)	199	(35.9)	
	16~17세	139	(40.1)	132	(42.2)	234	(42.2)	
	18세 이상	166	(47.8)	94	(30.0)	2	(.4)	
길러주 신분	친부모	223	(64.8)	183	(59.4)	524	(94.4)	190.107***
	한부모	56	(16.3)	61	(19.8)	17	(3.1)	
	조부모	22	(6.4)	27	(8.8)	2	(.4)	

		조사대상자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일반청소년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친부+계모(계부+친모)	34	(9.9)	25	(8.1)	2	(.4)	
	기타	9	(2.6)	12	(3.9)	10	(1.8)	
부 학력	중졸이하	38	(12.7)	26	(10.1)	11	(2.0)	137.343***
	고졸 이하	133	(44.3)	117	(45.3)	124	(22.5)	
	대졸 이하	104	(34.7)	100	(38.8)	301	(54.6)	
	대학원 이상	25	(8.3)	15	(5.8)	115	(20.9)	
모 학력	중졸이하	20	(7.2)	21	(9.1)	6	(1.1)	94.079***
	고졸 이하	139	(50.4)	114	(49.4)	165	(30.1)	
	대졸 이하	102	(37.0)	84	(36.4)	305	(55.6)	
	대학원 이상	15	(5.4)	12	(5.2)	73	(13.3)	
가정 형편	아주 못사는 편	24	(6.9)	23	(7.3)	13	(2.3)	106.468***
	약간 못 사는 편	98	(28.2)	78	(24.9)	63	(11.4)	
	보통	193	(55.6)	184	(58.8)	331	(59.6)	
	잘 사는 편	28	(8.1)	25	(8.0)	136	(24.5)	
	아주 잘 사는 편	4	(1.2)	3	(1.0)	12	(2.2)	
한달 용돈	용돈 없다	89	(25.6)	72	(23.0)	122	(22.0)	190.319***
	1–5만원 미만	71	(20.5)	64	(20.4)	280	(50.5)	
	5–10만원 미만	64	(18.4)	72	(23.0)	112	(20.2)	
	10–20만원 미만	61	(17.6)	51	(16.3)	26	(4.7)	
	20–30만원 미만	32	(9.2)	37	(11.8)	10	(1.8)	
	30만원 이상	30	(8.6)	17	(5.4)	5	(.9)	
합계		347	(100.0)	313	(100.0)	555	(100.0)	

***p<.001

2.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성별과 현재 연령, 범행당시 연령, 주 양육자, 전과여부 및 유형, 범행 당시 학업중단 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은 3명, 강도 10명, 강간 6명, 방화 7명이다. 심층면접대상자 총 26명 가운데 방화를 저지른 여자청소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청소년이었고 주 양육자가 친부모인 경우는 26명 가운데 18명이었고 전과가 없는 경우는 7명이었다. 한편, 전과가 있는 강력범 가운데 과거 강도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3명이 포함되어 있다.

범행 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15세인 경우가 4명(강간 2명, 방화 2명)이고 16세인 경우는 6명(살인 1명, 강도 2명, 강간 2명, 방화 1명)이었다. 그리고 17세인 경우는 5명으로 살인 1명, 강도 2명, 강간 1명, 방화 1명이었다.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의 마지막으로 범행 당시 학생 여부를 살펴보면 26명 가운데 18명이 범행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신분이었다.

표 5-1-2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죄 유형	사례	성별	현재 연령	범행 당시 연령	주 양육자	전과여부 및 유형	범행당시 학업중단 여부
살인	1	남	17	16	누나	특수절도	학생
	2	남	20	17	조부모	특수절도, 갈취, 폭행	학업중단
	3	남	19	18	친부모	–	학생
강도	1	남	19	18	친부, 계모	절도, 무면허, 폭행	학업중단
	2	남	16	17	친부, 조모	절도	학업중단
	3	남	17	18	친모	폭행	학생
	4	남	17	16	친부모	강도, 공갈, 특수절도	학생(대안학교)
	5	남	18	16	친부모	절도	학업중단
	6	남	19	18	친부모	공갈, 폭행, 특수절도, 사기, 무면허	학생
	7	남	19	18	친부모	절도, 강도	학생
	8	남	19	18	친부	절도	학업중단
	9	남	19	18	친부모	–	학생
	10	남	17	17	편부	특수절도, 절도미수, 유해화학물질	학업중단
강간	1	남	16	15	친부모	절도	학생
	2	남	19	17	친부모	–	학생
	3	남	17	16	친부모	폭행, 절도	학생
	4	남	19	18	친부모	–	학생
	5	남	18	16	친부모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절도	학생
	6	남	17	15	친부모	폭행, 절도, 강도	학생
방화	1	남	19	18	친부모	폭행, 유해화학물질(본드)	학업중단
	2	남	16	15	친부모	특수절도	학생
	3	남	19	17	조부모	절도	학업중단
	4	여	19	18	친부모	–	학생
	5	남	19	18	친부모	–	학생
	6	남	16	15	친부모	–	학생
	7	남	18	16	친부모	절도	학생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발생 및 양상

1. 범행 내용

가. 범행 당시 연령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 당시 연령은 '16세부터 17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4세에서 15세'인 경우는 31.7%, '18세'가 9.7% 등의 순이었으며 소년 절도범의 경우 연령별 순은 동일하였으나 해당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차이를 보였다(Chi-square=13.579**). 즉, 소년 절도범은 '16세에서 17세'까지는 47.7%, '14세에서 15세'인 경우는 35.0%, '18세'가 9.2% 등의 순으로 소년 강력범이 절도범에 비해 범행 당시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범행 당시 연령

		구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빈도	%	빈도	%
범행 당시 연령	14세미만	8	(2.3)	25	(8.2)
	14~15세	108	(31.7)	107	(35.0)
	16~17세	192	(56.3)	146	(47.7)
	18세	33	(9.7)	28	(9.2)
합계		341	(100.0)	306	(100.0)

(df=3) χ^2=13.579**
**p<.01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15.9세이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는 15.7세로 소년 강력범의 범행 당시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08**).

표 5-2-2 범행 당시 평균 연령

	구분				t 값
	소년 강력범(n=341)		소년 절도범(n=306)		
범행 연령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308**
	15.9	1.3	15.7	1.5	

**p<.01

한편, 현재 교도소에 생활하고 있는 강력범과 그렇지 않은 강력범을 비교해 보았을 때 범행 당시 연령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교도소 수용 소년 강력범의 경우 '16~17세'가 67.1%, '14~15세'는 27.8%, '14세 미만'은 3.8%, '18세'는 1.3%인 반면, 비수용 소년 강력범의 경우는 '16~17세'가 53.1%, '14~15세'는 32.8%, '18세'는 12.2%, '14세 미만'은 1.9%의 순으로 나타나 교도소 수용 소년 강력범의 범행 당시 연령이 그렇지 않은 강력범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5-2-3 교도소 수용 소년강력범의 범행 당시 연령

		구분				합계	
		교도소 수용 소년 강력범		비수용 소년 강력범		빈도	%
		빈도	%	빈도	%		
범행당시 연령	14세미만	3	(3.8)	5	(1.9)	8	(2.3)
	14~15세	22	(27.8)	86	(32.8)	108	(31.7)
	16~17세	53	(67.1)	139	(53.1)	192	(56.3)
	18세	1	(1.3)	32	(12.2)	33	(9.7)
합계		79	(100.0)	262	(100.0)	341	(100.0)

(df=3) χ^2=11.039*
*p<.05

강력범죄 유형별로 범행 당시 연령을 보면 강도와 강간, 방화는 '16세이상 17세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살인은 '14세이상 15세이하'인 경우가 10건 가운데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즉, 강도의 경우는 '16세~17세'가 67.8%, '14세~15세'가 21.7%, '18세'가 10.4%였고 강간은 '16세~17세'가 52.0%, '14세~15세'가 35.8%, '18세'가 8.8% 등의 순이었다. 방화는 '16세~17세'가 41.7%, '14세~15세'가 33.3%, '18세'가

16.7%였고 살인은 '14세~15세'가 60.0%, '16세~17세'가 30.0% '18세'가 10.0%였다.

표 5-2-4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연령

		소년 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범행당시 연령	14세미만	–	–	7	(3.4)	1	(8.3)	–	–
	14~15세	25	(21.7)	73	(35.8)	4	(33.3)	6	(60.0)
	16~17세	78	(67.8)	106	(52.0)	5	(41.7)	3	(30.0)
	18세	12	(10.4)	18	(8.8)	2	(16.7)	1	(10.0)
합계		115	(100.0)	204	(100.0)	12	(100.0)	10	(100.0)

(df=9) χ^2=18.915*
*p<.05

소년 강력범죄 유형별로 범행 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강도의 경우 16.25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간(15.78세), 방화(15.58세), 살인(15.40세)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나 유형별 범행당시 연령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소년 강력범의 평균 연령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만, 방화만이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해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높았다. 즉, 청소년시기에 살인을 저지른 나이는 평균 17세였고(Heide, 2011; Anne et al., 2011). 강도는 17~18세의 후기 청소년기가 대부분이며(Katz 1991; Research & Statistics Branch. 1999) 소년 방화범은 평균 14세 정도였다(McCardle et al., 2004). 한편, 성범죄자 집단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연령이 낮다는 연구결과(van der Put et al., 2012)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강도에 비해서 강간범의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5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평균 연령

	구분								F
	강도(n=115)		강간(n=204)		방화(n=12)		살인(n=10)		
범행 연령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207**
	16.25	1.075	15.78	1.336	15.58	1.832	15.40	1.350	

**p<.01

나. 범행 시간

범행 시간을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는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이전'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3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 이전'(15.0%),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전'(13.8%), '저녁 9시부터 밤 12시 이전'(13.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절도범의 경우는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이전'가 전체의 4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전'(14.3%),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 이전'(11.0%)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 절도범죄의 경우 강력범죄에 비해 새벽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5-2-6 범행 시간

		구분				합계	
		소년강력범		소년절도범		빈도	%
		빈도	%	빈도	%		
범행을 한 시간	밤 12시(00:00)부터 새벽 3시 이전	110	(32.3)	122	(40.7)	232	(36.2)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전	47	(13.8)	43	(14.3)	90	(14.0)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 이전	9	(2.6)	8	(2.7)	17	(2.7)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 이전	14	(4.1)	10	(3.3)	24	(3.7)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 이전	24	(7.0)	29	(9.7)	53	(8.3)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이전	40	(11.7)	30	(10.0)	70	(10.9)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 이전	51	(15.0)	33	(11.0)	84	(13.1)
	저녁 9시부터 밤 12시 이전	46	(13.5)	25	(8.3)	71	(11.1)
합계		341	(100.0)	300	(100.0)	641	(100.0)

(df=7) χ^2=10.915

한편, 강력범 내 연령별로 범행시간이 다른지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이전'이라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그 비율의 차이는 .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Chi-square=43.158**). 즉, 청소년 강력범의 범행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이전'인 경우가 14세 미만은 12.5%, 14세에서 15세는 25.2%, 16세에서 17세는 34.2%, 18세는 48.5%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새벽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표 5-2-7 청소년 강력범의 연령별 범행 시간

		소년 강력범의 연령별 구분								합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범행 시간	0:00~3:00	1	12.5	27	25.2	65	34.2	16	48.5	109	32.2
	3:00~6:00	–	–	8	7.5	33	17.4	5	15.2	46	13.6
	6:00~9:00	–	–	1	0.9	6	3.2	2	6.1	9	2.7
	9:00~12:00	2	25.0	7	6.5	4	2.1	1	3.0	14	4.1
	12:00~15:00	–	–	12	11.2	12	6.3	–	–	24	7.1
	15:00~18:00	2	25.0	20	18.7	15	7.9	3	9.1	40	11.8
	18:00~21:00	1	12.5	15	14.0	31	16.3	3	9.1	50	14.8
	21:00~0:00	2	25.0	17	15.9	24	12.6	3	9.1	46	13.6
합계		8	100.0	107	100.0	190	100.0	33	100.0	338	100.0

(df=21) χ^2=43.158**
**p<.01

강력범죄 유형별로 범행 시간을 살펴본 강도와 강간, 방화의 경우는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이전'이 가장 많았으나 살인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 이전'이 가장 많다. 하지만 유형별 범행시간의 차이가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5-2-8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시간

		소년 강력범죄 유형								합계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범행 시간	0:00~3:00	45	(39.8)	57	(27.5)	6	(50.0)	2	(22.2)	110	(32.3)
	3:00~6:00	21	(18.6)	25	(12.1)	–	–	1	(11.1)	47	(13.8)
	6:00~9:00	2	(1.8)	7	(3.4)	–	–	–	–	9	(2.6)
	9:00~12:00	4	(3.5)	9	(4.3)	1	(8.3)	–	–	14	(4.1)
	12:00~15:00	10	(8.8)	14	(6.8)	–	–	–	–	24	(7.0)
	15:00~18:00	7	(6.2)	28	(13.5)	3	(25.0)	2	(22.2)	40	(11.7)
	18:00~21:00	9	(8.0)	40	(19.3)	1	(8.3)	1	(11.1)	51	(15.0)
	21:00~0:00	15	(13.3)	27	(13.0)	1	(8.3)	3	(33.3)	46	(13.5)
합계		113	(100.0)	207	(100.0)	12	(100.0)	9	(100.0)	341	(100.0)

(df=21) χ^2=29.101

다. 범행 발생 장소

소년 강력범의 범행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개인주거지'인 경우라고 응답한 강력범은 전체의 40.4%였고 그 다음이 '야외'(37.5%), '유흥 및 위락업소'(21.5%), '개인상점'(12.8%) 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년 절도범의 경우는 '개인주거지'가 39.7%, '야외'가 38.5%, '개인상점'이 31.7%, '유흥 및 위락업소'가 29.0% 등의 순이었다.

표 5-2-9 범행 장소(중복응답)

		구분				합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범행 장소	개인주거지	126	(40.4)	104	(39.7)	230	(40.1)
	개인 상점	40	(12.8)	83	(31.7)	123	(21.4)
	유흥 및 위락업소	67	(21.5)	76	(29.0)	143	(24.9)
	중, 대형 사업체	11	(3.5)	19	(7.3)	30	(5.2)
	공공기관	23	(7.4)	28	(10.7)	51	(8.9)
	야외	117	(37.5)	101	(38.5)	218	(38.0)
	대중교통	9	(2.9)	13	(5.0)	22	(3.8)
	기타 장소	15	(4.8)	8	(3.1)	23	(4.0)

강력범죄 유형별로 범행 장소를 살펴보면 강도는 야외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강간과 방화, 살인은 개인 주거지가 가장 많았다. 즉, 강도 범죄 가운데 '야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전체의 6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상점'(27.8%), '개인주거지'(21.3%)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강간의 경우는 '개인주거지'가 전체의 48.6%, '유흥 및 위락업소'(24.9%), '야외'(20.0%) 등의 순이었다. 방화는 '개인주거지'(60.0%), '공공기관'(40.0%), '야외'(40.0%)등의 순이었으며 살인은 '개인주거지'(77.8%), '야외'(33.3%), '개인상점'(22.2%)등의 순이었다.

표 5-2-10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장소(중복응답)

		소년 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범행 장소	개인주거지	23	(21.3)	90	(48.6)	6	(60.0)	7	(77.8)
	개인 상점	30	(27.8)	5	(2.7)	3	(30.0)	2	(22.2)
	유흥 및 위락업소	18	(16.7)	46	(24.9)	2	(20.0)	1	(11.1)
	중, 대형 사업체	7	(6.5)	1	(.5)	2	(20.0)	1	(11.1)
	공공기관	8	(7.4)	10	(5.4)	4	(40.0)	1	(11.1)
	야외	73	(67.6)	37	(20.0)	4	(40.0)	3	(33.3)
	대중교통	5	(4.6)	1	(.5)	2	(20.0)	1	(11.1)
	기타 장소	2	(1.9)	12	(6.5)	1	(10.0)	–	–

다음은 면접대상자 가운데 개인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사례들이다.

〈사례 살인2〉

(범행 장소는?) 제 여자 친구의 집에서. **(단독주택?)** 네.

(여자 친구 집에는 가끔 놀러갔나요?) 아니요 자주 갔습니다. **(피해자와 싸우는 소리가 밖에 안 들렸나요?)** 저희가 노래를 틀어놓고 해서 그리고 집이 외지기도 해서. **(오래된 주택가?)** 그 동네가 오래된 동네더라고요. 처음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계속 올라가서. 집 앞에서 나오면 바로 계단이. 차가 못 들어옵니다.

〈사례 강간4〉

(범행 장소는?) 친구 집. 일하는 친구라 걔도. 운동했던 친구가 있는데 운동 때려 치고... 학교 그만두고. 저 운동 끝나고 같이 놀았는데... 놀다보니까... 걔네 집하고 저희 집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걔랑 노니까 그쪽 친구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쪽 친구?)** 그 친구의 친구.

(가끔씩 가는지?) 그날 만나긴 만났는데 자주 안 가거든요... 가끔씩 가는데... 놀다가 가는데 지치면 쉬었다 가는데... 그날 마침 바람 쐬러 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방화1〉

중국집 배달하다가 배달을 갔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배달 가서 음식을 내리는데 어떤 중학생 꼬마애가 나와서 얼마에요 하는데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애 엄마가 나와서 예의 없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열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문 앞에

달려 있는 우유박스에 불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문이 탔어요. 불을 붙여본 건 처음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화나서요. 그 집 앞에 CCTV가 있어서 잡혔어요.

한편, 〈사례 강도5〉는 야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해당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사례 강도5〉

공원이니까. 남천 공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음.. 편의점도 있고 음식점이랑 벤치랑 모텔도 있었고 공원 정자랑 화장실도 있고 조경도 있었죠. 깨끗한 편이긴 했는데 노숙자가 좀 많았어요. 저 또래는 하나도 없었어요. **(피해자도 노숙자?)** 네네. 근데 그때는 보이기엔 노숙자 같아 보이지도 않고 모자도 쓰고 옷도 제대로 입고 있었고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노숙자래요. 한번인가 가다가 봤는데…. CCTV는. 있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경찰 와서 알았어요. 나무 뒤쪽에 있었더라구요. **(알았으면?)** (침묵) 아마 알았으면 그럼 .. 전 그래도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첫 범행이 아니었고, 그때 첫 범행에도 CCTV있어도 안 걸렸으니까. 안 걸리니까 어차피 있어도 안 걸리니까 이번에도 안 걸리겠지 하고 했겠죠.

라. 공범의 유무 및 공범과의 관계

범행당시 공범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모두 범행당시 '공범이 있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즉, 소년 강력범의 경우 전체 344명 가운데 248명이 '공범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72.1%를 차지하였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도 전체 308명 가운데 234명이 '공범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76.0%를 차지하여 소년 절도범의 경우 단독범의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5-2-11 공범 여부

		구분				합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빈도	%
		빈도	%	빈도	%		
공범여부	없다	96	(27.9)	74	(24.0)	170	(26.1)
	있다	248	(72.1)	234	(76.0)	482	(73.9)
합계		344	(100.0)	308	(100.0)	652	(100.0)

(df=1) χ^2=1.270

범행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소년 강력범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범행 당시 공범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14세 미만'인 경우 '공범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7.5%였고 '14세~15세'는 66.7%, '16세~17세'은 76.4%, '18세'는 66.7%로 차지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표 5-2-12 청소년 강력범의 연령별 공범여부

			강력범 내 연령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공범여부	없다	빈도	1	36	45	11
		%	12.5	33.3	23.6	33.3
	있다	빈도	7	72	146	22
		%	87.5%	66.7%	76.4%	66.7%
전체		빈도	8	108	191	33
		%	100.0%	100.0%	100.0%	100.0%

(df=3) χ^2=4.809

한편, 소년 강력범죄 유형별로 공범 여부를 살펴보면 '공범이 있었다'는 응답의 집단별 차이가 .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강도의 경우 범행 당시 '공범이 있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살인이 80.0%, 강간이 64.3%, 방화가 33.3%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강도의 경우 혼자 저지르기 보다는 친구나 선배와 어울려 저지르는 비율이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방화의 경우는 혼자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Chi-square=33.048***).

표 5-2-13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 공범 여부

		소년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공범여부	없다	12	(10.4)	74	(35.7)	8	(66.7)	2	(20.0)
	있다	103	(89.6)	133	(64.3)	4	(33.3)	8	(80.0)
합계		115	(100.0)	207	(100.0)	12	(100.0)	10	(100.0)

(df=3) χ^2=33.048***

***p<.001

유형별로 다시 연령을 구분하여 공범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강도만의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6.948*). 즉, '14~15세'의 경우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전체의 76.0%였으나 '16~17세'는 92.3%, '18세'는 100%로 연령이 높을수록 '공범이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5-2-14 청소년 강도범 집단 내 연령별 공범 여부

		강도범집단 내 연령 구분								합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공범 여부	없다	–	–	6	24.0	6	7.7	–	–	12	10.4
	있다	–	–	19	76.0	72	92.3	12	100.0	108	89.6
전체		–	–	25	100.0	78	100.0	12	100.0	115	100.0

(df=2) χ^2=6.948*
*p<.05

한편, '공범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운데 공범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강력범과 절도범 모두 동성 친구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소년 강력범의 경우 공범과의 관계에 대해 '동성 친구'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공범이 있다고 응답한 소년 강력범 가운데 89.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 · 후배'(43.3%), '모르는 사람'(6.5%), '이성 친구'(5.3%), '애인'(3.3%), '가족이나 친척'(2.4%)의 순이었다.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도 '동성 친구'가 전체의 8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 · 후배'가 48.0%, '이성 친구'는 6.1%, '애인'은 4.4%, '모르는 사람'은 1.7%, '가족이나 친척'은 0.4%의 순이었다.

표 5-2-15 공범과의 관계(중복응답)

		구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사례수	%	사례수	%
공범과의 관계	동성 친구	220	(89.8)	199	(86.9)
	이성 친구	13	(5.3)	14	(6.1)
	선후배	106	(43.3)	110	(48.0)
	애인	8	(3.3)	10	(4.4)

		구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사례수	%	사례수	%
	가족, 친척	6	(2.4)	1	(0.4)
	모르는 사람	16	(6.5)	4	(1.7)

강력범죄 유형별로 보더라도 강도, 강간, 방화 모두 동성 친구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더 많았고(강도:85.1%, 강간:95.5%, 방화:75.0%) 살인의 경우 8명 가운데 8명 모두 선·후배와 함께 저질렀다고 응답했다.

표 5-2-16 강력범죄 유형별 공범과의 관계(중복응답)

		소년 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공범과의 관계	동성 친구	86	(85.1)	126	(95.5)	3	(75.0)	5	(62.5)
	이성 친구	9	(8.9)	1	(.8)	2	(50.0)	1	(12.5)
	선후배	58	(57.4)	40	(30.3)	–	–	8	(100.0)
	애인	4	(4.0)	–	–	–	–	4	(50.0)
	가족, 친척	–	–	4	(3.0)	–	–	2	(25.0)
	모르는 사람	10	(9.9)	6	(4.5)	–	–	–	–

심층면접 내용에서도 동성 친구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 따르면, 평소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 같이 몰려다니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례 강도7〉

방에서 핸드폰 하고 있다가 친구는 알바 끝나고 한 11시쯤 끝났거든요. 친구가 심심하다고 담배나 피고 얘기하자고 해서 그러다 그렇게 됐죠. (침묵) 어디서 있었는지 잘... 어디서 술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편의점에서 술 사고 일인당 맥주 한 캔 정도 공원에서 먹다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마시지는 않았죠. 전 약간 어지러웠죠. 술을 못하다보니까.

〈사례 강간4〉

(공범은 누구?) 제 친구였어요... 제가 운동친구의 친구였는데... 운동부 친구랑 같이 놀다보니까 몇 년 동안 같이 놀게 됐어요...

처음에 네 명이 있다가 그 여자애 친구가 갔어요... 그러다 원래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제가 나갔다가 왔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모르고 여자애랑 관계를 했는데 일어나니까(아침에) 없어요... 전화를 했는데 친구랑 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좋게 끝났고...

다음날에 술 먹자고 연락 왔는데 거절하고... 이후에도 계속 술 먹자고 연락 왔는데 계속 거절하고... 일주일 후에 사귀자고 전화 왔는데... 거절을 잘 못하고... 그러다 거절했는데 그 여자애가 술 먹었는데 그 다음에 여자애 친구랑 신고했대요...

〈사례 방화6〉

다 학교 친구니까.. 매일 같이 놀고 하니까. 주말에는 그냥 12시 넘어서 점심 먹고 만나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도 그랬어요. 피시방 갔다가.. 그런 것 같은데...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는데요.. (중략). 호기심에 그런 거 같은데.. 친구들이랑 그때 그냥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있었는데...거기 앉아서 이야기 하다가 트럭에 기름통을 발견해서 장난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해서.. 땅바닥에 조금 부어서 불붙이고 끄고 그러고 놀다가..어떤 주민이 딴데 가라고 막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학교로 가서 놀다가 나무에 했어요.

마. 범행의 계획 시기 및 계획 내용

1) 범행 결정 시기

범행의 계획을 결정하게 된 시기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강력범의 경우 '범행 직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범행 몇 시간 전'이 19.8%, '범행 몇 일전'이 6.6%, '범행 일주일 전 이상'이 3.9%, '범행 한 달 전 이상'이 2.4%의 순이었다. 소년 절도범의 경우는 '범행 직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4%로 가장 많았고 '범행 몇 시간 전'이 20.5%, '범행 몇 일전'이 10.2%, '범행 한 달 전 이상'이 6.3%, '범행 일주일전 이상'이 3.6%의 순이었다. 즉, 청소년 강력범은 절도범에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범행 바로 직전에 행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9.700*).

표 5-2-17 범행 결심 시기

		집단비교				합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빈도	%
		빈도	%	빈도	%		
범행 결심 시기	범행 한 달 전 이상	8	(2.4)	19	(6.3)	27	(4.2)
	범행 일주일전 이상	13	(3.9)	11	(3.6)	24	(3.8)
	범행 몇 일전	22	(6.6)	31	(10.2)	53	(8.3)
	범행 몇 시간 전	66	(19.8)	62	(20.5)	128	(20.1)
	범행 직전	224	(67.3)	180	(59.4)	404	(63.5)
합계		333	(100.0)	303	(100.0)	636	(100.0)

(df=4) χ^2=9.700*
*p<.05

범행결심시기를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모두 '범행 직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강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범행을 사전에 이미 계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Chi-square=38.478***). 즉, 강도의 경우는 범행 결심 시기에 대해 '범행 직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0.9%이고 '범행 몇 시간 전'이라는 응답이 29.8%, '범행 몇 일전'이라는 응답은 10.5%, '범행 일주일 이전'은 6.1%, '범행 한 달 전 이상'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범행 직전'이 74.9%, '범행 몇 시간 전'이 16.1%, '범행 몇 일전'은 4.5%, '범행 일주일 전 이상'은 3.0%, '범행 한 달 전 이상'은 1.5%의 순이었다. 방화는 '범행 직전'이 전체 11건 가운데 8건으로 72.7%였고 '범행 한 달 전 이상'은 2건(18.2%), '범행 몇 일 전'은 1건(9.1%)의 순으로 나타났고 살인은 9건 모두 '범행 직전'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2-18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결심 시기

		소년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범행 결심 시기	범행 한 달 전 이상	3	(2.6)	3	(1.5)	2	(18.2)	–	–
	범행 일주일전 이상	7	(6.1)	6	(3.0)	–	–	–	–
	범행 몇일 전	12	(10.5)	9	(4.5)	1	(9.1)	–	–

		소년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범행 몇 시간 전	34	(29.8)	32	(16.1)	–	–	–	–
	범행 직전	58	(50.9)	149	(74.9)	8	(72.7)	9	(100.0)
합계		114	(100.0)	199	(100.0)	11	(100.0)	9	(100.0)

(df=12) χ^2=38.478***
***p<.001

2) 범행의 계획 내용

청소년 강력범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계획 내용들을 제시하고 실제로 범행 전에 계획을 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미리 범행대상을 선정하는 등의 계획을 가진 경우는 전체의 15.7%였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경우는 전체의 7.3%, 범행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9.9%, 도주방법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진 경우는 6.4%, 범행을 하기 전 예행연습까지 해본 경우는 2.1%로 '범행대상자 선정'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한편,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중심으로 강력범과 절도범을 비교하여 보면 도주방법과 관련한 계획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계획내용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도주하는 방법을 미리 짜놓았다는 응답이 강력범은 전체의 6.4%, 절도범은 14.4%로 살인과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에 비해 절도범의 경우 사전에 도주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5-2-19 범행 계획 내용

			구분				(df=1) χ^2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빈도	%	빈도	%	
범행 계획 내용	미리 범행대상 선정	계획세웠다	54	15.7	52	16.9	.169
		계획세우지않았다	289	84.3	255	63.1	
	범행 도구 준비	계획세웠다	25	7.3	32	10.5	2.032
		계획세우지않았다	317	92.7	273	98.5	

			구분				(df=1) χ^2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빈도	%	빈도	%	
	범행 절차 계획	계획세웠다	30	9.9	36	11.8	1.617
		계획세우지않았다	312	91.2	269	88.2	
	도주방법 예상	계획세웠다	22	6.4	44	14.4	11.246**
		계획세우지않았다	320	93.6	261	85.6	
	예행연습	계획세웠다	7	2.1	12	3.9	1.992
		계획세우지않았다	334	97.9	293	96.1	

**p<.01

강력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강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경우가 더 많았다. 즉, 강력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강도의 경우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미리 범행 대상(장소)를 선정하거나 범행에 쓰일 도구를 미리 준비하거나, 범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생각해두거나, 도주하는 방법을 미리 짜놓거나 전체적인 예행연습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 유형별로 범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둔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리 범행대상을 선정했다'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강도는 36건(31.9%), 강간은 18건(8.6%), 방화와 살인은 한 건도 없었다.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다'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강도의 경우는 15.9%, 강간은 2.4%, 방화는 8.3%, 살인은 11.1%였고 '범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강도의 경우 20.4%, 강간은 3.4%였고 살인과 방화에서는 없었다. 그리고 '도주 방법을 미리 짜두었다'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강도가 17.7%, 강간은 1.0%였고 살인과 방화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예행연습'을 하였다는 응답은 강도가 5.3%, 강간은 0.5%였고 방화와 살인은 없었다.

표 5-2-20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계획내용

		구분								(df=3) χ^2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미리 범행대상 선정	계획세웠다	36	31.9	18	8.6	–	–	–	–	34.058***
	계획세우지않았다	77	68.1	191	91.4	12	100.0	9	100.0	
범행 도구 준비	계획세웠다	19	15.9	5	2.4	1	8.3	1	11.1	19.990***
	계획세우지않았다	95	84.1	203	97.6	11	91.7	8	88.9	
범행 절차 계획	계획세웠다	23	20.4	7	3.4	–	–	–	–	28.559***
	계획세우지않았다	90	79.6	201	96.6	12	100.0	9	100.0	
도주방법 예상	계획세웠다	20	17.7	2	1.0	–	–	–	–	35.618***
	계획세우지않았다	93	82.3	206	99.0	12	100.0	9	100.0	
예행연습	계획세웠다	6	5.3	1	0.5	–	–	–	–	8.938*
	계획세우지않았다	107	94.7	206	99.5	12	100.0	9	100.0	

*p<.05, ***p<.001

바. 범행의 직접적 동기

소년범에서 범행을 저지른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결과 '성적 충동이나 흥분'이 전체의 2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호기심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로'가 22.1%, '술 취해서'는 18.5%, '유흥비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는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력범 가운데 '성적 충동이나 흥분'이라는 직접적인 동기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본 조사대상인 강력범 가운데 강간범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2-21 범행의 직접적 동기(중복응답)

		집단비교(소년 강력범·소년 절도범)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사례수	%	사례수	%
범행 동기	생활비나 빚을 갚기 위해서	28	8.4	62	20.9
	유흥비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43	12.8	65	22.0
	호기심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로	74	22.1	111	37.5
	술 취해서	62	18.5	11	3.7

		집단비교(소년 강력범·소년 절도범)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사례수	%	사례수	%
	부모와 가족에 대한 반발심	3	0.9	3	1.0
	사회에 대한 불만	3	0.9	2	0.7
	단순히 화가 나서	25	7.5	19	6.4
	친구나 선배의 권유나 부추김으로	21	6.3	17	5.7
	피해자에 대한 복수	11	3.3	5	1.7
	성적 충동이나 흥분	91	27.2	1	0.3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9	2.7	12	4.1
	소유욕때문에	1	0.3	4	1.4
	우발적으로	11	3.3	8	2.7
	그냥	1	0.3	6	2.0
	기타	3	0.9	6	2.0

한편, 강력범 내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강력범 집단에서 연령을 구분해서 범행의 직접적 동기를 살펴본 결과 '호기심이나 친구와 어울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응답자 수가 연령이 낮을수록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즉, '호기심에서 친구와 어울려'라는 응답의 비율인 '14세 미만'에서는 62.5%, '14세에서 15세'인 경우는 23.5%, '16세에서 17세'의 경우는 16.7%, '18세'인 경우는 11.8%였다. 다시 말해서, 연령이 어릴수록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호기심으로 인한 행동이 범죄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험성 인식을 통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

표 5-2-22 강력범 연령별 직접 동기(중복응답)

		강력집단 내 연령 구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범행동기	생활비나 빚을 갚기 위해서	–	–	6	5.0	20	9.0	2	5.9
	유흥비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	–	9	7.6	28	12.7	6	17.6
	호기심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로	5	62.5	28	23.5	37	16.7	4	11.8

		강력집단 내 연령 구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술 취해서	1	12.5	16	13.4	37	16.7	6	17.6
	부모와 가족에 대한 반발심	–	–	1	0.8	2	0.9	–	–
	사회에 대한 불만	–	–	1	0.8	2	0.9	–	–
	단순히 화가 나서	1	12.5	6	5.0	17	7.7	1	2.9
	친구나 선배의 권유나 부추김으로	–	–	3	2.5	16	7.2	2	5.9
	피해자에 대한 복수	–	–	4	3.4	5	2.3	1	2.9
	성적 충동이나 흥분	–	–	35	29.4	44	19.9	11	32.4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	–	4	3.4	5	2.3	–	–
	소유욕 때문에	–	–	1	0.8	–	–	–	–
	우발적으로	1	12.5	4	3.4	6	2.7	–	–
	그냥	–	–	–	–	1	0.5	–	–
	기타	–	–	1	0.8	1	0.5	1	2.9

강력범죄 유형별로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를 살펴본 결과, 강도의 경우는 '유흥비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았고(36.8%) 강간은 '성적 충동이나 흥분'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44.7%) 방화는 '단순히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고(25.0%) 살인 역시 '화가 나서'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60.0%).

표 5-2-23 강력범죄 유형별 직접 동기(중복응답)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범행동기	생활비나 빚을 갚기 위해서	25	(21.9)	3	(1.5)	–	–	–	–
	유흥비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42	(36.8)	1	(.5)	–	–	–	–
	호기심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로	22	(19.3)	51	(25.6)	1	(8.3)	–	–
	술 취해서	8	(7.0)	53	(26.6)	1	(8.3)	–	–
	부모와 가족에 대한 반발심	2	(1.8)	–	–	1	(8.3)	–	–
	사회에 대한 불만	2	(1.8)	1	(.5)	–	–	–	–
	단순히 화가 나서	11	(9.6)	5	(2.5)	3	(25.0)	6	(60.0)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친구나 선배의 권유나 부추김으로	13	11.4	7	(3.5)	–	–	1	(10.0)
	피해자에 대한 복수	2	(1.8)	5	(2.5)	1	(8.3)	3	(30.0)
	성적 충동이나 흥분	2	(1.8)	89	(44.7)	–	–	–	–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4	(3.5)	4	(2.0)	1	(8.3)	–	–
	소유욕 때문에	–	–	1	(0.5)	–	–	–	–
	우발적으로	1	(.9)	7	(3.5)	2	(16.7)	1	(10.0)
	그냥	1	(0.9)	–	–	–	–	–	–
	기타	–	–	1	(0.5)	2	(16.7)	–	–

면접내용 가운데 〈사례 살인1〉과 〈사례 방화1〉, 〈사례 방화7〉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례 강도5〉와 〈사례 강도7〉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사례 강간2〉는 성적 충동이나 흥분으로 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살인1〉

제가 주차장에서 제 여자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찔렀습니다.

〈사례 방화1〉

중국집 배달하다가 배달을 갔는데 비 오는 날 이었어요. 배달 가서 음식을 내리는데 어떤 중학생 꼬마애가 나와서 얼마에요 하는데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애 엄마가 나와서 예의 없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열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문 앞에 달려 있는 우유박스에 불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문이 탔어요. 불을 붙여본 건 처음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화나서요. 평소에는 화나면 때려요. 배달 간 입장이어서 때릴 수는 없고...

〈사례 방화7〉

주차장 담벼락에 주룩 앉아서 담배 피고 노는데 거기 아저씨가 할아버진가. 담배 피지 말라고 뭐라고 해서. '네'하긴 했는데 기분 완전 잡쳐서 나중에 아무도 안 볼 때 애들이랑 일부러 거기 페인트 통 빈 거 있는데. 밑에 안에 시멘트 들고 쓰레기통처럼 되가 있어서 거기 쓰레기도 좀 있고 해서 바닥에서 신문지 주워 거기 같이 넣고 라이터 불 붙여서....

〈사례 강도5〉

이제 돈 다 떨어지고요. 돈도 없고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새벽 돌아다니다가. 며칠 전부터 돈이 다 떨어져 가서 걱정하고, 막 어떻하지 어떻하지.. 하다가.

〈사례 강도7〉

(용돈은?) 한 달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주는데

(친구들과 비교해서) 적은 것도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갑 뺐을 생각을?) 돈이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례 강간2〉

(어쩌다 따라갈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왜 갑자기 호기심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충동적으로.

(어디 사는지 몰랐죠?) 네.

(그럼 따라가서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호기심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계단으로 갈 생각은 언제?)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보고 그때 계단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호기심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호기심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성적 충동. 그런 거 같습니다.

사. 흉기 사용 여부 및 종류

청소년 강력범의 흉기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나 범행을 당한 피해자 모두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85.8%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소년강력범이 흉기를 사용한 경우도 42건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하였다.

표 5-2-24 **흉기 사용 여부**

	빈도	%
나 혹은 우리만 흉기를 사용하였다	42	(13.6)
피해자만 흉기를 사용하였다	2	(0.6)
나 혹은 우리와 피해자 모두 흉기를 사용하였다	2	(0.6)

	빈도	%
흉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277	(85.8)
합계	323	(100.0)

범행에서 사용된 흉기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칼이나 낫'(47.8%)과 같은 흉기를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몽둥이나 둔기'(41.3%), '손발 등 신체 사용'(15.2%), '줄, 끈'(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25 흉기 유형(중복응답)

		사례수	%
흉기 유형	칼낫 등	22	(47.8)
	몽둥이둔기	19	(41.3)
	줄,끈	5	(10.9)
	손발등신체사용	7	(15.2)
	자동차등운송수단	1	(2.2)
	기타	2	(4.3)

흉기를 사용한 범행의 내용은 면접 내용 가운데 〈사례 살인1〉과 〈사례 살인2〉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사례 살인1〉

위협에 한 번만 찌르려고 했고..칼을 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칼 샀는지?) 과도..

(처음 살 때 의도는?) 처음에 살 때는 한번만 찌르려고 했는데...그냥 입원할 정도.

(위협도 하면서 살짝만 하려고?) 네.

〈사례 살인3〉

공범형이 칼을 줘갔고.. 전 그냥 몇 대때리고 위협용으로 쓸려고 했는데 사과하러 온 대놓고 시비를 먼저 걸어서 싸우다가 공범형이 피해자 목을 먼저 잡고 몇 대 때리러 가다가 피해자 한테 발로 배를 차이고 화가 나서 그냥 확 찔러버렸습니다.

〈사례 강도2〉의 경우는 범행을 사용할 흉기를 구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

〈사례 강도2〉

며칠 전에 칼도 구하고 4일전인가.**(어떤 용도로?)** 편의점 할 때 쓰려고.. **(어떻게?)** 교회 식당에 가서 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창문 따서 했습니다. **(혼자서?)** 예. 혼자서. **(왜 교회를?)** 식당 같은 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나마 교회가 가장 쉬운데 데가 교회니까.

아. 범행대상자의 연령 및 관계

1) 범행대상자의 연령

범행대상자의 연령을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많은지, 적은지, 동갑인지 정도를 통해 범행대상자의 연령을 파악하였다. 범행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가해자에 비해 어린 경우가 전체의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경우(32.6%), 동갑인 경우(19.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절도범의 경우는 가해자에 비해 연령이 많았다는 응답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절도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연령을 모르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처럼 소년강력범죄는 가해자보다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더 심할 수 있다.

표 5-2-26 범행대상자와의 연령차이

		소년 강력범과 소년절도범				합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빈도	%
		빈도	%	빈도	%		
사건 피해자 연령	나보다 나이가 많다	111	32.6	167	55.3	278	43.2
	나보다 어리다	139	40.8	22	7.3	161	25.0
	나와 동갑이다	66	19.4	27	8.9	93	14.5
	모르겠다	25	7.3	86	28.5	111	17.3
합계		341	100.0	302	100.0	643	100.0

(df=3) χ^2=144.348***

***p<.001

범행대상자의 연령을 교도소 수용 강력범과 비수용 강력범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도소수용 강력범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행대상자의 연령이 자신보다 어린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square =7.990*). 즉,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경우 '나보다 어리다'는 응답이 전체의 52.6%였고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23.1%, '나와 동갑이다'는 20.5% 등의 순이었고 비수용 강력범의 경우 '나보다 어리다'는 응답은 전체의 37.2%,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35.4%, '나와 동갑이다'는 19.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27 교도소 수용 소년강력범의 범행대상자와의 연령 차이

		구분				합계	
		교도소 수용 소년 강력범		비수용 소년 강력범		빈도	%
		빈도	%	빈도	%		
사건 피해자 연령	나보다 나이가 많다	18	(23.1)	93	(35.4)	111	32.6
	나보다 어리다	41	(52.6)	98	(37.2)	139	40.8
	나와 동갑이다	16	(20.5)	50	(19.0)	66	19.4
	모르겠다	3	(3.8)	22	(8.4)	25	7.3
합계		78	(100.0)	263	100.0	341	100.0

(df=3) χ^2=7.990*
*p<.05

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로 피해자의 연령이 자신과 비교해서 많은지 적은지 동갑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도와 방화는 가해자보다 연령이 많이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강간은 가해자보다 연령이 어린 경우, 살인은 동갑인 경우가 절반이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Chi-square=126.289***). 즉, 강도의 경우는 '나보다 나이 많다'(67.2%), '나보다 어리다'(14.7%) 등의 순이고 강간의 경우는 '나보다 어리다'(57.8%), '나와 동갑이다'(24.3%)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소년 강도범을 중심으로 피해자와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다는 연구와 상반된 것이다(Smith, 2003; Chesney-Lind & Paramore, 2001; Research & Statistics Branch. 1999; Miller, 1998). 하지만 강간의 경우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년강간범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Gibson & Vandiver, 2008).

표 5-2-28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대상자와의 연령차이

		소년강력범죄 유형								합계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사건 피해자 연령	나보다 나이 많다	78	(67.2)	26	(12.6)	5	(55.6)	2	(20.0)	111	(32.6)
	나보다 어리다	17	(14.7)	119	(57.8)	1	(11.1)	2	(20.0)	139	(40.8)
	나와 동갑이다	10	(8.6)	50	(24.3)	1	(11.1)	5	(50.0)	66	(19.4)
	모르겠다	11	(9.5)	11	(5.3)	2	(22.2)	1	(10.0)	25	(7.3)
합계		116	(100.0)	206	(100.0)	9	(100.0)	10	(100.0)	341	(100.0)

(df=9) χ^2=126.289***
***p<.001

2) 범행대상자와의 관계

이번 사건에서 범행대상자와는 어떠한 관계였는지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의 경우 '사건 바로 전까지도 몰랐던 사람'이 전체의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 선·후배'가 33.5%, '사건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사람'이 9.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년 절도범의 경우는 '사건 바로 전까지도 몰랐던 사람'이 전체의 7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가 13.4%, '동네 사람'이 6.5% 등의 순이었다.

표 5-2-29 범행대상자와의 관계(중복응답)

		집단비교(소년 강력범·소년 절도범)				합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피해자와의 관계	친구, 선후배	111	(33.5)	37	(13.4)	148	(24.3)
	친척	–	–	1	(0.4)	1	(0.2)
	부모나 형제자매	6	(1.8)	3	(1.1)	9	(1.5)
	애인	15	(4.5)	3	(1.1)	18	(3.0)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	13	(3.9)	3	(1.1)	16	(2.6)
	동네사람	12	(3.6)	18	(6.5)	30	(4.9)
	사건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사람	32	(9.7)	9	(3.2)	41	(6.7)

		집단비교(소년 강력범·소년 절도범)				합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건 바로 전까지도 몰랐던 사람	135	(40.8)	206	(74.4)	341	(56.1)
	기타	8	(2.4)	3	(1.1)	11	(1.8)

강력범죄 유형별로 범행대상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도와 방화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강간과 살인은 친구나 선·후배 등의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즉, 강도와 방화는 '사건이 있기 바로 전까지도 몰랐던 사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강도:80.0%, 방화:44.4%), 강간은 '친구나 선·후배'인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은 '친구나 선·후배', '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가 각 30.0%로 가장 많았다.

표 5-2-30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대상자와 관계(중복응답)

		소년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피해자와의 관계	친구, 선후배	11	(10.0)	96	(47.5)	1	(11.1)	3	(30.0)
	부모나 형제자매	–	–	2	(1.0)	1	(11.1)	3	(30.0)
	애인	–	–	15	(7.4)	–	–	–	–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	4	(3.6)	9	(4.5)	–	–	–	–
	동네사람	5	(4.5)	6	(3.0)	1	(11.1)	–	–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사람	2	(1.8)	28	(13.9)	1	(11.1)	1	(10.0)
	사건이 있기 바로 전까지도 몰랐던 사람	88	(80.0)	41	(20.3)	4	(44.4)	2	(20.0)
	기타	–	–	6	(3.0)	1	(11.1)	1	(10.0)

심층면접자 〈사례 강도2〉, 〈사례 강도8〉, 〈사례 강도9〉는 전혀 몰랐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는 경우로 구체적인 범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례 강도2〉

(피해자는?) 여자였는데. 여잔걸 알고는 있지는 않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본 건 아니라서. 길거리 사람만 체크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살려달라고 빌다가 주더라고요.

(나이는?) 한 40정도 되는데...

〈사례 강도8〉

피해자는 30대 후반 정도 보였어요...길거리에 그 사람 밖에 없었어요... 건너편에서 슬슬 건너왔어요... 마침 취했겠다...건너가는 걸 보고 골목길로 갔어요.

〈사례 강도9〉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때릴 생각이 없었어요... 새벽이라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피해자는 처음 봤어요...

범행 대상자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년범 가운데 평소 범행대상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물어본 결과, 소년 강력범의 경우 '평소 친하진 않지만 나쁜 관계는 아니었다'고 응답한 비율인 6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한 관계였다'가 28.6%,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4.8%의 순이었다. 한편, 소년 절도범의 경우는 '평소 친하진 않지만 나쁜 관계는 아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2%, '친한 관계였다'는 38.5%,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15.4%의 순이었다. 즉, 소년 강력범의 경우 평소 범행대상자와 친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한 비율이 소년 절도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는 평소 친한 관계였던 사람으로부터 물건이나 돈을 빼앗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소년범과 범행대상자간의 나쁜 관계로 인한 복수 등으로 인한 범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2-31 평소 범행대상자와의 관계

		집단비교(소년강력범·절도범)				합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빈도	%
		빈도	%	빈도	%		
평소 범행 대상자 와의 관계	친한 관계였다	54	(28.6)	25	(38.5)	79	(31.1)
	친하진 않지만 나쁜 관계 아님	126	(66.7)	30	(46.2)	156	(61.4)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9	(4.8)	10	(15.4)	19	(7.5)
합계		189	(100.0)	65	(100.0)	254	(100.0)

(df=2) χ^2=12.131**

**p<.01

강력범죄 유형별로 평소 범행대상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에서 '평소 친하진 않지만 나쁜 관계는 아니었다'는 응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강도의 경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응답이 15.8%로 평소 좋아하지 않는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돈을 빼앗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력범죄 유형별로 평소 범행대상자와의 관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5-2-32 강력범죄 유형별 평소 범행대상자와의 관계

	소년 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친한 관계였다	5	(26.3)	45	(28.5)	1	(20.0)	3	(42.9)
친하진 않지만 나쁜 관계 아님	11	(57.9)	108	(68.4)	4	(80.0)	3	(42.9)
평소 사이 좋지 않음	3	(15.8)	5	(3.2)	–	–	1	(14.3)
합계	19	(100.0)	158	(100.0)	5	(100.0)	7	(100.0)

(df=6) χ^2=8.948

면접대상자인 〈사례 강간1〉, 〈사례 강간3〉의 경우도 평소 친하지도 나쁜 관계는 아닌 친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사례 강간1〉

같은 반 여자애요. 지금 전학 갔어요. 걸레라고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선배한테 들었어요.

(어쩌다 그런 얘기가?) 그냥 하다보니까.. 그리고 걔도 예뻐서. 같은 반 여자애요. 지금 전학 갔어요. 그냥 가끔 다른 애들이랑 다 같이 어울릴 때 마주치던 사이. 평소에 별로 친하진 않고.

〈사례 강간3〉

(피해자는 누구?) 나이는 똑같고... 이름 알고...

(끝?) (끄덕끄덕)

처음은 아니었고... 전에 길가다가 마주친 적은 있는데...

자. 범행 당시 체포 및 처벌의 인지

소년범의 경우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문항을 통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소년 절도범이 '경찰에게 붙잡힐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경우와 '행동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범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력범과 절도범의 생각의 차이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문항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205*). 즉, 청소년 강력범의 경우 청소년 절도범에 비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경찰에 체포될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강력범 평균: 2.76점, 절도범 평균: 2.95점).

표 5-2-33 범행 당시 체포와 처벌의 인지

	집단비교				t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찰에게 분명히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	2.76 (n=344)	1.207	2.95 (n=309)	0.976	−2.250*
이번 행동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았다	2.54 (n=342)	1.278	2.71 (n=308)	1.069	−1.850

*p<.05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범행 당시 체포가 될 가능성과 처벌에 대한 인지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강도의 경우는 다른 유형에 비해 경찰에 의한 체포의 가능성을 가장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방화의 경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대한 인지가 가장 낮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5-2-34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체포와 처벌의 인지

	소년 강력범죄 유형								F
	강도		강간		방화		살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찰에게 분명히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	2.84 (n=114)	1.133	2.77 (n=208)	1.233	2.42 (n=12)	1.311	1.90 (n=10)	1.101	3.197
엄격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았다	2.47 (n=114)	1.214	2.62 (n=208)	1.300	2.67 (n=12)	1.557	1.60 (n=10)	0.843	3.629

심층면접자 가운데 대부분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행동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사례 강도4〉와 〈사례 강도7〉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강도를 저지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표 5-1-2, 표 5-2-24 참고).

〈사례 살인3〉

원래 밖에 있어도 애들이랑 싸워도 좀 경찰 까지 가는 일은 없었으니까. 그냥 심해지면 경찰서 갔다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재판 받을 것까지는 생각 안 했으니까..

〈사례 강도4〉

처벌이요? 원래 저 형사 재판 이번이 처음이라 가정재판만 받아가지고, 형사 재판은 솔직히.. 구속 안 되고 가정재판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좋됐다고 생각했죠.

그 때는 생각 안했죠. 그냥 처벌 받던 말던 될대로 되라. 처벌 생각 전혀 안 나고 이 상황을 빨리 끝내자 그런 생각만 했죠.

〈사례 강도5〉

처벌 받는 다는 건 아는데 어떤 처벌 받는지 자세하는 몰랐어요.

(걱정이?) 네. 아니요. 범행을 할 때는 안 되고 범행을 하고 나니까 걱정이. 모르겠어요. 막 후회되고 왜 그랬지 하고.

〈사례 강도7〉

아니요. 몰랐죠. 그게 좀 없진 않아 있긴 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을 못했어요. 이게 큰 범죄구나.

〈사례 강도8〉

안 엮일 줄 알았어요...

(처벌 받을 줄 몰랐다?) 예...

〈사례 강도9〉

전혀 **(처벌받을 줄?)** 몰랐어요... 장난보다 못하니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례 강간1〉

제가 하고 있는 짓이요. 강간이라는 걸 몰랐어요. 강간이란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벌 받을지 몰랐어요. 생각을 아예 못했죠.

〈사례 강간2〉

처벌 받을지 몰랐습니다. **(그럼 두려움도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례 강간3〉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다...

갑자기 신고할 거라고 생각 안했는데... 어느날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는데 모르는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친구가 번호 바꾼 줄 알고... (경찰이)노래방으로 와서...왜냐니까 강간이라고 해서... 그 여자애 이름 꺼내면서 알지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 강간4〉

상상도 못했어요...

(신고했다고 한 이후에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거든요... 경찰에 전화 왔는데 경찰서로 와야 된데요... 거리가 한 시간 되는데 가서... 처음에 했냐고 묻더라고요... 했다고 했는데... 자꾸대 같은데서... 경찰서로 넘어간다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심정?)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뭐지... 하고...

(처벌?) 그때도 몰랐어요...

〈사례 방화1〉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처벌 받는 다는 생각 같은 거 안 했는데요. 적발되고 나서도 없었어요.**(적발되고 나서는?)** 없었어요. 별 걱정 안됐는데요. 그냥 걸렸구나. 하고 생각한 거 그게 단대. 뭐 생각할 거 없었는데요.

〈사례 방화4〉

처벌을 받을 거 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희는 그냥 있으면 되는 거라고.. 너희는 아무 잘못 없고 나 혼자 하는 거라고 말하면 된다고 해서 당연히 저희는 처벌을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저희는 따라만 다닌 거고 무조건 그 사람이 다 한 거라고 자기가 책임 있다고 하니까 전 그 말만 믿고.. 있었으니까.. 자기 탓으로만 돌리면 된다고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사례 방화5〉

네. 잘은 모르고.. 그냥.. 걸리면.. 봉사 같은 거 받지 않을까하고..

2. 범행 후 행동

가. 범행 후 행동

소년 강력범의 범행을 저지른 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현장에서 바로 도망쳤다는 응답이 전체의 7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 혹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있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13.4%,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는 응답이 7.2%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년 절도범의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도망쳤다'는 응답이 전체의 7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 혹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있었다'는 응답이 9.9%,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는 응답은 6.8% 등의 순이었다. 즉, 소년강력범에 비해 소년절도범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도망쳤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는 했지만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5-2-35 범행 후 행동

		구분				합계	
		소년강력범		소년절도범		빈도	%
		빈도	%	빈도	%		
범행 후 행동	바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230	(71.4)	231	(78.8)	461	(75.1)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23	(7.2)	20	(6.8)	43	(7.0)
	다른 사람 혹은 경찰 현장에 올 때 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있었다	43	(13.4)	29	(9.9)	72	(11.7)
	경찰에 신고 후 도주했다	2	(0.6)	2	(0.7)	4	(0.7)
	피해자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불을 끄는 등 상황수습 후 도주	7	(2.2)	1	(0.3)	8	(1.3)
	범행현장에서 잡혔다	8	(2.5)	7	(2.4)	15	(2.4)
	기타	8	(2.5)	3	(1.0)	11	(1.8)
합계		321	(100.0)	293	(100.0)	614	(100.0)

(df=6) χ^2=8.514

강력범죄 유형별로 범행 후 행동을 살펴본 결과 강도와 강간, 방화의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살인은 '다른 사람 혹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 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 수준으로 유의미했다(Chi-square=41.130**). 즉, 유형별 범행 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도는 '바로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87.6%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 혹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7.1%,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는 3.5% 등의 순이었다. 강간은 '바로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64.2%, '다른 사람 혹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15.5%,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는 8.6% 등의 순이었다. 방화는 '바로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72.7%, '다른 사람 혹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18.2%등의 순이었다. 살인의 경우는 '다른 사람 혹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다'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에 바로 자수했다'와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각 3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36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후 행동

		소년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범행 후 행동	바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99	(87.6)	120	(64.2)	8	(72.7)	3	(30.0)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4	(3.5)	16	(8.6)	–	–	3	(30.0)
	다른 사람 혹은 경찰 현장에 올 때 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있었다	8	(7.1)	29	(15.5)	2	(18.2)	4	(40.0)
	경찰에 신고 후 도주했다	–	–	2	(1.1)	–	–	–	–
	피해자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불을 끄는 등 상황수습 후 도주	1	(.9)	6	(3.2)	–	–	–	–
	범행현장에서 잡혔다	–	–	8	(4.3)	–	–	–	–
	기타	1	(0.9)	6	(3.2)	1	(9.1)	–	–
합계		113	(100.0)	187	(100.0)	11	(100.0)	10	(100.0)

(df=18) χ^2=41.130**
**p<.01

나. 처분에 대한 생각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는지 무겁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강력범의 경우 '내가 저지른 죄에 적당한 처벌이다'는 응답이 전 체의 5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가볍다'는 응답이 26.3%,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무겁다'는 응답이 18.6%의 순이었다. 한편, 절도범의 경우는 '내가 저지른 죄에 적당한 처벌이다'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무겁다'는 응답이 24.5%,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가볍다'는 11.6%의 순이었다. 즉, 절도범의 경우 강력범에 비해 자신의 저지른 행동에 비해 자신이 받은 형량이나 처분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력범은 자신의 행동에 비해 자신이 받은 형량이나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정도가 더 클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Chi-square=20.247***).

표 5-2-37 처분에 대한 생각

		집단비교(소년 강력범·소년 절도범)				합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빈도	%
		빈도	%	빈도	%		
처분에 대한 생각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무겁다	62	(18.6)	61	(24.5)	123	(21.1)
	내가 저지른 죄에 적당한 처벌(처분)이다	178	(53.3)	156	(62.7)	334	(57.3)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가볍다	88	(26.3)	29	(11.6)	117	(20.1)
	기타	6	(1.8)	3	(1.2)	9	(1.5)
합계		334	(100.0)	249	(100.0)	583	(100.0)

(df=3)χ^2=20.247***
***p<.001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형량이나 처분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지 살펴본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즉, 강도의 경우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적당한 처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5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가볍다'가 25.9%,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무겁다'는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간 역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적당한 처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가볍다'가 24.8%,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무겁다'는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화는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무겁다'는 응답이 전체의 40.0%로 가장 많았고 살인은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가볍다'는 응답이 10명 가운데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5-2-38 강력범죄 유형별 처분에 대한 생각

		소년 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사건에 대한 처분에 대한 생각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무겁다	15	(13.9)	40	(19.4)	4	(40.0)	3	(30.0)
	내가 저지른 죄에 적당한 처벌(처분)이다	64	(59.3)	110	(53.4)	3	(30.0)	1	(10.0)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28	(25.9)	51	(24.8)	3	(30.0)	6	(60.0)

		소년 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볍다								
	기타	1	(.9)	5	(2.4)	–	–	–	–
합계		108	(100.0)	206	(100.0)	10	(100.0)	10	(100.0)

(df=9) χ^2=15.614

제3절 청소년 강력범의 동기적 요인의 특성

이 절에서는 범죄사회학적 논의에서 제시하는 자아통제력, 사회적 유대, 비행친구, 비공식적 낙인 등의 동기적 요인에서 나타난 청소년 강력범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아통제력

당장 즐겁고 재미있는 일부터 하거나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하거나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거나 하는 등의 자아통제력 수준을 살펴보면 소년강력범이 2.75점으로 절도범(2.83점)이나 비행청소년(3.10점), 비비행청소년(2.85점)에 비해 낮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다(F=9.091***). 즉, 살인과 강도, 강간 등의 청소년 강력범의 자아통제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행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이 비행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행의 또 다른 주요 동기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1 자아통제력

	소년 강력범 (n=345)		소년 절도범 (n=312)		비행청소년 (n=156)		비비행청소년 (n=277)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통제력	2.75	0.721	2.83	0.767	3.10	0.618	2.85	0.667	9.091***

***p<.001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자아통제력을 살펴본 결과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강간의 경우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가장 낮아서 앞서 살펴본 범행의 직접적 동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성적 충동이나 흥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표 5-2-23, 표 5-3-2 참고).

표 5-3-2 강력범죄 유형별 자아통제력

	강도(n=114)		강간(n=208)		방화(n=12)		살인(n=10)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통제력	2.82	0.732	2.69	0.721	2.87	0.686	2.85	0.636	0.897

실제 소년범 면접대상자 가운데 〈사례 살인1〉, 〈사례 강도2〉, 〈사례 강도6〉, 〈사례 강간1〉, 〈사례 방화1〉, 〈사례 방화7〉는 낮은 자아통제력을 보이고 있었다. 즉,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꺼라 예상할 수 있다.

〈사례 살인1〉

인내심?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교도소) 더 길러졌습니다.

〈사례 강도2〉

못 참죠. 하고 싶은 건 못 참죠. 시킨 거다 누가 시키고 내가 하기 싫음 안 해요. 내가 하고 싶던 것도 누가 시키면 안 하죠.

〈사례 강도6〉

못 참죠.. 일단 하고 봐야 하니까. 만약에 하고 싶으면 조절은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으면 일단 하고 봐야져. 해보고 결과는 나중에 따져야죠.

〈사례 강간1〉

자제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하고 보고, 하기 싫은 것 안 해요.

네. 많이 해요. 미래에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생각해요.

안 해요. 복잡하고 힘든 건 그냥 안해요.

〈사례 방화1〉

별로 안 참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중략) 생각 같은 거 별로 안하는데..

〈사례 방화7〉

하고 싶은 건 안 참고 다 합니다. 하기 싫은 건 안 하는데요. (중략) 복잡하면 생각 안하는데요.

2. 사회적 유대(부모·친구)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는 대상을 기준으로 부모와 친구로 구분하였고 부모의 경우는 정서적 차원을 구분하여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 감독을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충분한 대화시간을 가지거나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부모애착 수준이 소년 강력범은 3.27점으로 절도범에 비해 높기는 했지만 비행청소년이나 비비행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또한 소년 강력범의 경우 자신이 밖에 있을 때 부모님이 자신이 누구와 무엇을 하면 보내는지 알고 계시는 정도 역시 3.04점으로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았다. 이는 앞서 설문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소년범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부모에 대한 유대수준이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표 5-1-1 참고). 그리고 친구애착의 경우에도 강력범은 3.88점으로 비행청소년이나 비비행청소년에 낮게 나타나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거나 하는 등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깊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3-3 사회적 유대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애착	3.27 (n=343)	0.952	3.21 (n=310)	0.933	3.56 (n=156)	0.874	3.80 (n=279)	0.817	26.538***
부모감독	3.04 (n=343)	1.022	2.98 (n=310)	0.987	3.41 (n=155)	0.880	3.83 (n=281)	0.880	49.374***
친구애착	3.88 (n=344)	0.781	3.83 (n=309)	0.770	4.12 (n=156)	0.768	4.18 (n=280)	0.685	14.165***

***p<.001

심층면접대상자와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부모의 감독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례 살인1〉, 〈사례 강도2〉, 〈사례 강도5〉, 〈사례 강간1〉, 〈사례 강간6〉, 〈사례 방화4〉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은 대부분 부모와 가족 간의 서로 만날 시간도 부족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사례 살인1〉

(밖에 나가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부모님은 모르시나요?) 네... 누나들도 저녁에 일 나가시니까... 만날 시간도 거의 없어요...그냥... 별말 안하고...

〈사례 강도2〉

모르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전화하면.. 안 받았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새벽 5,6시 일 나가시고 한 9,8시쯤 오니까 얼굴볼 일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하시는데.. 그니까 원래는 그렇게 막 뭐지? 용역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일하고 퇴근하고 싶으면 퇴근하고 그런데 멀리 갔다가 멀리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 강도5〉

당연히 모르시죠.

〈사례 강간1〉

집에서는 잘 모르죠. 전화 와요. 좀 있으면 들어간다고 집 앞이라 그러죠. **(일찍 오라고 안 하세요?)** 해요. 그럼 알았다고.. 9시까지 오라고. 하는데..**(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놀면 가능한데.. 안 노는 거 가능 안 하죠.

〈사례 강간6〉

(부모님 아시는지?)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아십니다. 혼냅니다. 때릴 때도 있고

〈사례 방화4〉

부모님한테 가끔 거짓말하고.. 그냥 어디 간다고 **(어디?)** 한의원이나 뭐 서점이나 그런데 간다고 하고 돈 받아서 친구랑 그냥..수다. **(주로 뭐하는지?)** 주로 친구 집에 있을 때도 있고.

한편,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사회유대 정도가 비수용 강력범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감독'의 경우 교도소 수용 강력범이(2.80점) 비수용 강력범(3.11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t=-2.333*). 즉,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때 부모감독 요인이 범행의 심각성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3-4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사회적 유대

	교도소 수용 강력범		비수용 강력범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애착	3.12(n=79)	.937	3.31(n=262)	.954	−1.589
부모감독	2.80(n=79)	1.080	3.11(n=262)	.992	−2.333*
친구애착	3.91(n=79)	.790	3.87(n=262)	.780	.367

*p〈.05

강력범죄 유형별로 사회유대 수준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3-5 강력범죄 유형별 사회적 유대

	소년강력범죄 유형								F
	강도		강간		방화		살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오애착	3.20 (n=115)	1.019	3.34 (n=206)	0.905	3.19 (n=12)	0.741	2.66 (n=10)	1.175	2.017
부모감독	2.97 (n=115)	1.058	3.10 (n=206)	1.004	2.97 (n=12)	0.686	2.67 (n=10)	1.280	0.851
친구애착	3.92 (n=115)	0.753	3.87 (n=207)	0.786	3.68 (n=12)	1.039	3.75 (n=10)	0.726	0.440

3. 비행친구 여부 및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가. 비행친구 여부

음주나 흡연 등의 지위비행 수준에서부터 폭력 행위나 불 지르기 등의 범죄행위의 경험이 있는 비행친구나 선후배 가운데 동성친구나 선·후배의 유무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동성 비행친구나 선·후배가 있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Chi-square=211.715***). 즉, 주변에 동성 비행친구나 선·후배가 있는 비율은 소년 강력범은 59.9%, 소년 절도범은 53.0%, 비행청소년은 39.2%, 비행 경험이 없는 비비행청소년은 6.0%였다. 한편, 주변에 비행친구 뿐 아니라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이성 친구나 선배의 경우가 모든 집단에서 소년 강력범이 가장 많았다(Chi-square=131.119***). 즉, 주변에 이성 비행친구나 선후배가 있는 비율은 소년 강력범은 40.3%, 소년 절도범은 34.2%, 비행청소년은 18.6%, 지위비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2.8%였다.

표 5-3-6 비행친구나 선·후배 유무

		소년강력범		소년절도범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		(df)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동성 - 비행 친구나 선후배	예	208	59.9	166	53.0	62	39.2	17	6.0	(df=3) 211.715***
	아니오	139	40.1	147	47.0	94	60.3	264	94.0	
이성 - 비행 친구나 선후배	예	140	40.3	107	34.2	29	18.6	8	2.8	(df=3) 131.119***
	아니오	207	59.7	206	65.8	127	81.4	273	97.2	

***p<.001

한편,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경우 지위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비행친구나 선·후배가 이성인 경우는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도소 수용 강력범 집단은 '이성의 비행친구나 선·후배가 있다'는 응답이 50.6%였고 비수용 강력범 집단은 '이성의 비행친구나 선·후배가 없다'는 응답이 62.7%로 많았다(Chi-square=4.497*).

표 5-3-7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비행 친구나 선·후배

		교도소 수용 강력범		비수용 강력범		(df)χ^2
		빈도	%	빈도	%	
동성 – 비행 친구나 선후배	예	54	68.4	154	57.5	(df=1) 3.014
	아니오	25	31.6	114	42.5	
이성 – 비행 친구나 선후배	예	40	50.6	100	37.3	(df=1) 4.497*
	아니오	39	49.4	188	62.7	

*p<.05

강력범죄 유형별로 비행친구 여부를 살펴본 결과 동성인 경우 강도와 강간, 살인의 경우는 비행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방화의 경우는 비행친구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즉, 동성 비행친구나 선후배가 있는 경우는 강도는 62.9%, 강간은 59.8%, 방화는 33.3%, 살인은 60.0%였고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비행친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6절 사회연결망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3-8 강력범죄 유형별 비행친구나 선·후배 여부

		강도		강간		방화		살인		(df)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동성 – 비행 친구나 선후배	예	73	62.9	125	59.8	4	33.3	6	60.0	(df=3) 3.972
	아니오	43	37.1	84	40.2	8	66.7	4	40.0	
이성 – 비행 친구나 선후배	예	44	37.9	87	41.6	3	25.0	6	60.0	(df=3) 3.203
	아니오	72	62.1	122	58.4	9	75.0	4	40.0	

나.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면 소년 강력범이 2.90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였다($F=19.475^{***}$). 즉, 소년 강력범의 경우는 2.90점, 소년 절도범은 2.81점, 비행청소년은 2.93점, 비비행청소년은 2.55점이었다. 즉, 소년 강력범의 경우 평소 발각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야단을 맞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표 5-3-6〉에서 나타나듯이 소년 강력범 집단에서 비행친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함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비행친구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간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어서 비행친구를 사귐으로 인해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갖게 된 것인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높은 아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비행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인지 판단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행친구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간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9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소년강력범 (n=345)		소년절도범 (n=312)		비행청소년 (n=156)		비비행청소년 (n=277)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2.90	0.643	2.81	0.634	2.93	0.684	2.55	0.526	19.475***

***p<.001

한편, 강력범 가운데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02**). 즉,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평균 점수는 3.06점이고 비수용 강력범은 2.83점으로 나타나 교도소 수용 강력범이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더 나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범죄의 죄질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5-3-10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교도소 수용 강력범(n=77)		비수용 강력범(n=26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3.06	0.635	2.83	0.637	2.802**

**p<.01

강력범죄 유형별로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강도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의 아이들에 비해 다소 높았다. 즉, 강도는 2.96점, 강간은 2.85점, 방화는 2.79점, 살인은 2.90점이었다.

표 5-3-11 강력범죄 유형별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강도 (n=113)		강간 (n=205)		방화 (n=12)		살인 (n=10)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2.96	0.661	2.85	0.622	2.79	0.890	2.90	0.528	0.787

4. 비공식적 낙인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행청소년이나 문제아라고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소년 절도범이 가장 높았다. 즉, 비공식적 낙인 수준의 평균 점수가 소년 강력범의 경우는 2.70점, 소년 절도범은 2.75점, 비행청소년은 1.97점, 비비행청

소년은 1.43점이었다. 소년 강력범이 절도범에 비해 비공식적 낙인의 점수가 낮기는 하지만 일반청소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2 비공식적 낙인

	소년 강력범 (n=344)		소년 절도범 (n=312)		비행청소년 (n=156)		비비행청소년 (n=281)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공식적 낙인	2.70	1.052	2.75	1.057	1.97	0.893	1.43	0.580	132.521***

***p<.001

한편,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비공식적 낙인의 평균점수가 2.94점으로 비수용 강력범(2.6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비공식적 낙인은 죄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5-3-10, 표 5-3-13 참고).

표 5-3-13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비공식적 낙인

	교도소 수용 강력범(n=79)		비수용 강력범(n=265)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공식적 낙인	2.94	0.946	2.62	1.07	2.505*

*p<.05

강력범죄 유형별로 비공식적 낙인 수준을 살펴보면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방화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적 낙인 수준의 평균점수가 살인은 2.87점, 강도는 2.84점, 강간은 2.59점, 방화는 3.06점이었다.

표 5-3-14 강력범죄 유형별 비공식적 낙인

	소년강력범죄 유형								F
	강도 (n=113)		강간 (n=209)		방화 (n=12)		살인 (n=1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비공식적 낙인	2.84	1.016	2.59	1.053	3.06	1.045	2.87	1.286	1.961

5. 일상적 긴장(목표실패·부모·학업·친구)

소년범의 일상적 긴장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여건 상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일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목표실패 인지 수준, 부모와 학업, 친구와의 긴장 수준을 알아보았다. 먼저, 목표실패 인식 수준은 비행청소년이 2.8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년 절도범(2.60점), 소년 강력범(2.53점), 비비행청소년(2.44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5.576^{**}$). 두 번째, 부모와의 긴장을 경험하는 정도는 소년 절도범이 2.7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년 강력범이 2.70점, 비행청소년이 2.64점, 비비행청소년이 2.39점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F=9.119^{***}$). 세 번째, 학업성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부가 하기 싫어 짜증이 나는 증의 학업긴장의 정도는 비행청소년이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비행청소년이 3.21점, 소년 강력범이 2.58점, 소년 절도범이 2.5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집단 간 차이가 큰 편이었다($F=61.764^{***}$). 이는 소년범의 경우 이미 학업에 대한 기대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친구긴장의 경우 비행청소년이 2.03점으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처럼 소년 강력범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적 긴장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만은 아니었다. 즉, 범행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적 특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3-15 일상적 긴장

일상적 긴장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목표실패	2.53 (n=345)	1.113	2.60 (n=313)	1.094	2.88 (n=156)	1.103	2.44 (n=281)	1.081	5.576**
부모긴장	2.70 (n=343)	0.922	2.74 (n=312)	0.880	2.64 (n=156)	0.867	2.39 (n=280)	0.763	9.119***
학업긴장	2.58 (n=345)	0.918	2.52 (n=311)	1.021	3.53 (n=156)	0.960	3.21 (n=280)	0.923	61.764***
친구긴장	1.91 (n=344)	0.698	1.94 (n=311)	0.7445	2.03 (n=155)	0.789	1.94 (n=280)	0.699	0.975

**p<.01, ***p<.001

강력범죄 유형별로 일상적 긴장을 살펴본 결과, 목표실패와 부모긴장이라는 요인에서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여건상 자신의 목표나 일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방화가 평균 2.9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간이 2.39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부모와 갈등이 심하거나 부모님과 대화가 잘 안통하고 마음이 잘 맞지 않는 등의 부모긴장을 경험하는 정도는 방화가 3.0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도(2.88점), 살인(2.67점), 강간(2.5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16 강력범죄 유형별 일상적 긴장

일상적 긴장	강도		강간		방화		살인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목표실패	2.73 (n=114)	1.107	2.39 (n=209)	1.109	2.92 (n=12)	1.084	2.90 (n=10)	0.876	3.260*
부모긴장	2.88 (n=114)	0.983	2.59 (n=207)	0.892	3.06 (n=12)	0.798	2.67 (n=10)	0.514	3.379*
학업긴장	2.64 (n=114)	0.927	2.54 (n=209)	0.927	2.70 (n=12)	0.851	2.35 (n=10)	0.709	0.566
친구긴장	1.87 (n=113)	0.704	1.91 (n=209)	0.671	2.36 (n=12)	1.039	1.73 (n=10)	0.604	2.009

*p<.05

면접대상자와 가운데 다음의 〈사례 살인1〉, 〈사례 강도2〉, 〈사례 강도5〉, 〈사례 강간5〉, 〈사례 방화4〉, 〈사례 방화5〉, 〈사례 방화7〉에서 나타나듯이 부모와의 긴장상황으로 부모와의 갈등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 살인1〉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맨날 맞으니까.

(심하게 때리시나?) 당연하죠.

(약주는?) 네. 그랬는데. 아버지는 원래 일을 안했어요.

(어려서부터 누나들이 생계를?) 네.

〈사례 강도2〉

엄마 간호산데 막 집에 거의 없고 맞벌이니까. 다 집에 사람 없고 비오는 날도 우산 없고 열쇠도 없고..... 그래서 막 비다 맞고 동생이랑 집 앞에 서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엄마는 계속 나가서 일 한다 그러고. 그래서 아빠가 나가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그래서 홧김에 술 먹고, 때리고 뭐 막 던지고 그래서. 둘이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둘이 이혼하고 동생은 왕따도 많이 당하고 **(엄마가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나요?)** 네. 당연히 그렇죠. 있으면 안 그래요. 없으니까. 맞기도 많이 맞고, 당하고...그랬죠.

아빠도 원망하고 엄마도 원망하고 맨날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원망해보고. 그때 경험하고 나서 **(부모님 이혼?)** 네. 막 둘이 싸우고 이혼하고. 우리 버리고 갔으니까.

〈사례 강도5〉

엄마는 저 낳고 암으로 바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가요. 이제 저 유치원때 새엄마 처음으로 오시고 아빠랑 새엄마랑 살다가 막 부부싸움 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 헤어지고 두 번째 새엄마오고. 그것도 유치원 때. 두 번째 새엄마는 부부싸움 또 막하고 우리한테 관심 없고 돈 넘 헤프게 쓰고. 헤어지고 한동안 할아버지 오셔서 같이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세 번째 새엄마 지금 새엄마 오시고.

(새엄마와 사이는?) 안 좋죠. 그냥 제가 싫어요. 그냥 뭔가 다 싫어요.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아니 원래 처음에는 서로 말도 안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처음부터 싫어했거든요. 중1때 누나가 생일 때 새벽에 나갔다 왔는데 새엄마가 누나를 때리는 거 보고 더 싫어졌죠.

(아빠는?) 그냥 보고만 있던대요.

(아빠와 관계는?) 안 좋았죠. 거의 대화도 없고.

〈사례 강간5〉

중학교 3학년 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또 친구들이랑 밤늦게 까지 놀고..

〈사례 방화4〉

너무 강압적으로 부모님 하라는 대로 내가 해야 하는 그런게 갑갑해서 가기 싫었어요. 하기 싫은 건 억지로 하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대학은 꼭 가야한다하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강압적이어서..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계속 말하니까 스트레스 쌓여서..

〈사례 방화5〉

엄마 아빠 잔소리하고 이런 거 스트레스.. 부모님이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하도 잔소리를 잘 못한 것도 없는데 사소한 걸로 꾸중하니까..

〈사례 방화7〉

(스트레스?) 별로 없는데. 집에는 가기 싫어서.

(왜?) 자꾸 시비거니까. 짜증나게 해서 가기 싫고. (중략)

엄마랑 아빠랑은 집에나 가게 같이 있는데 난 나가니까. 같이 있으면 짜증납니다.

(혼은 주로 누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하고. 지금은 엄마가 잔소리 합니다. 때리는 건 이제 안 하니까. 무섭지는 않습니다. 맞을 만 해서 맞은 거니까.

(왜 집에 있기 싫은지?) 그냥 갑갑합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뭘 하고 싶은지?) 없습니다. 딱히. 애들이랑 노는 거 좋습니다.

다음은 학업과 관련된 긴장을 경험하고 있는 〈사례 강도3〉과 〈사례 방화7〉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더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례 강도3〉

(학교생활은?) 좋지는 않았어요. 하도 사고치고 다녀갖고... 친구랑 노는 거 제일 좋고, 힘든 건.. 학교 가는 거? 그게 좀 가기 싫어서 그게 좀 싫었어요. 억지로 가야 하니까. 공부 흥미도 없고. 왜 가나 싶고...

〈사례 방화7〉

학교도 싫고.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다 싫죠. 노는 거 빼고 다 싫어요.

(공부?) 그것도 싫죠.

제4절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기회 및 상황적 요인의 특성

1. 일상생활

가. 자유로운 시간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 평일 하루 평균시간과 주말 평균 시간에서는 소년 강력범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년 절도범,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의 순이었다. 즉, 평일하루 평균 시간이 소년 강력범의 경우가 12.21시간, 소년 절도범은 11.90시간, 비행청소년은 5.29시간, 비비행청소년은 4.18시간이었다7(F=118.047***).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시간을 주말 평균으로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은 13.87시간, 소년 절도범은 13.59시간, 비행청소년은 10.58시간, 비비행청소년은 7.56시간으로 나타났다(F=53.167***). 평일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와 주말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자유로운 시간의 경우 절도범이 강력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많기는 했지만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소년 강력범의 부모로부터의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 편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소년 강력범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표 5-4-1 부모(보호자)로부터의 자유로운 시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일하루 평균	12.21 (n=335)	7.648	11.90 (n=291)	7.918	5.29 (n=156)	4.172	4.18 (n=280)	3.296	118.047***
평일 20시~06시	6.61 (n=310)	6.631	7.23 (n=273)	6.953	3.24 (n=156)	2.817	2.87 (n=280)	2.590	43.785***
주말 평균	13.87 (n=333)	7.279	13.59 (n=292)	7.534	10.58 (n=156)	7.022	7.56 (n=281)	5.610	53.167***
주말 20시~06시	7.45 (n=309)	6.761	7.94 (n=272)	7.183	4.94 (n=156)	4.462	3.84 (n=279)	3.693	30.070***

***p<.001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자유로운 시간을 살펴본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모든 시간대에 있어서 살인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부모로부터의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강력범죄 유형별 자유로운 시간

	강도		강간		방화		살인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일하루 평균	12.13 (n=112)	7.448	12.25 (n=203)	7.758	10.10 (n=10)	7.738	14.30 (n=10)	8.125	0.506
평일 20시~06시	6.81 (n=103)	6.614	6.28 (n=188)	6.509	8.44 (n=9)	9.435	9.10 (n=10)	6.420	0.887
주말 평균	14.13 (n=112)	7.158	13.69 (n=201)	7.337	11.50 (n=10)	7.028	16.90 (n=10)	7.695	1.023
주말 20시~06시	7.90 (n=103)	6.808	6.99 (n=187)	6.645	9.00 (n=9)	9.069	10.00 (n=10)	6.092	1.076

늦은 밤 놀 때 누구와 함께인지 물어본 결과,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은 '동성동네 학원친구'가 가장 많았고 일반청소년은 '동성학교친구'가 가장 많았다. '가족 및 친척'과 함께 지낸다는 응답은 일반청소년의 경우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년범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표 5-4-3 늦은 밤 함께한 사람(중복응답)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동성학교친구	166	48.8	128	41.3	94	60.3	135	48.4
동성선후배	142	41.8	133	42.9	27	17.3	6	2.2
동성동네학원친구	189	55.6	170	54.8	66	42.3	50	17.9
이성선후배	98	28.8	69	22.3	30	19.2	12	4.3
이성동네,학교친구	114	33.5	71	22.9	37	23.7	27	9.7
가족 및 친척	30	8.8	10	3.2	49	31.4	95	34.1
애인	83	24.4	56	18.1	13	8.3	6	2.2
혼자	10	2.9	3	1.0	6	3.8	83	29.7
모르는 동성	12	3.5	7	2.3	4	2.6	3	1.1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모르는 이성	13	3.8	9	2.9	1	0.6	2	0.7
기타	3	0.9	–	–	1	0.6	4	1.4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의 경우 '동성 동네학원친구'라고 응답한 수가 전체의 5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성선후배'(46.9%), '동성학교친구'(40.7%), '이성선 · 후배'(35.4%), '애인'(24.8%)등의 순이었다.

표 5-4-4 강력범죄 유형별 늦은 밤 함께 한 사람(중복응답)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동성학교친구	46	40.7	109	53.2	6	50.0	5	50.0
동성선후배	53	46.9	79	38.5	3	25.0	7	70.0
동성동네학원친구	60	53.1	125	61.0	1	8.3	3	30.0
이성선후배	40	35.4	52	25.4	–	–	6	60.0
이성동네,학교친구	27	23.9	82	40.0	1	8.3	4	40.0
가족 및 친척	9	8.0	18	8.8	1	8.3	2	20.0
애인	28	24.8	48	23.4	1	8.3	6	60.0
혼자	2	1.8	4	2.0	3	25.0	1	10.0
모르는 동성	8	7.1	4	2.0	–	–	–	
모르는 이성	7	6.2	5	2.4	–	–	1	10.0
기타	–	–	3	1.5	–	–	–	–

늦은 밤 있었던 장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청소년 가운데 비행도 저지른 적이 없는 비비행청소년의 제외하고는 모두 '피씨방'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즉, 소년 강력범의 경우 늦은 밤 '피씨방'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60.2%, '술집이나 유흥가'가 46.8%, '집주변'이 17.4% 등의 순이었고 소년 절도범은 '피씨방'(54.5%), '술집이나 유흥가'(37.3%), '인적 드문 공터'(16.8%), '집주변'(13.2%)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늦은 밤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소년범과 일반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표 5-4-5 늦은 밤 있었던 장소(중복응답)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술집이나 유흥가	153	46.8	113	37.3	24	16.2	23	11.7
보호자가 없는 집안	40	12.2	32	10.6	7	4.7	13	6.6
피씨방	197	60.2	165	54.5	45	30.4	17	8.6
인적 드문 공터	43	13.1	51	16.8	16	10.8	7	3.6
우리집 주변	57	17.4	40	13.2	21	14.2	57	28.9
학교나 학교 주변	20	6.1	21	6.9	22	14.9	27	13.7
학원이나 학원주변	6	1.8	2	0.7	31	20.9	78	39.6
놀이터, 공원	6	1.8	8	2.6	10	6.8	11	5.6
기타	4	1.2	1	0.3	3	2.0	6	3.0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와 강간은 '피씨방'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고 방화와 살인은 '술집이나 유흥가'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즉, 강도는 '피씨방'(68.2%), '술집이나 유흥가'(51.8%), '집주변'(13.6%)등의 순이었고 강간은 '피씨방'(59.4%), '술집이나 유흥가'(43.7%), '집주변'(18.8%)등의 순이었다. 방화는 '술집이나 유흥가'가 전체 응답자 수 가운데 36.4%를 차지하였고 살인은 66.7%를 차지하였다.

표 5-4-6 강력범죄 유형별 늦은 밤 있었던 장소(중복응답)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술집이나 유흥가	57	51.8	86	43.7	4	36.4	6	66.7
보호자가 없는 집안	9	8.2	25	12.7	2	18.2	4	44.4
피씨방	75	68.2	117	59.4	2	18.2	3	33.3
인적 드문 공터	11	10.0	29	14.7	1	9.1	2	22.2
우리집 주변	15	13.6	37	18.8	3	27.3	2	22.2
학교나 학교 주변	6	5.5	12	6.1	1	9.1	1	11.1
학원이나 학원주변	–	–	6	3.0	–	–	–	–
놀이터, 공원	1	0.9	5	2.5	–	–	–	–
기타	–	–	2	1.0	1	9.1	1	11.1

나. 위험적 생활양식

소년 강력범이 평소 위험적 생활양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은 평균 3.11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F=133.402***). 즉, 소년 강력범은 3.11점, 소년 절도범은 3.05점, 비행청소년은 2.55점, 비비행청소년은 2.00점으로 나타나 소년강력범의 경우 늦은 밤 집 밖에서 주로 보내거나 친구들과 몰려다니거나 일상생활에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는 등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4-7 위험적 생활양식

	소년 강력범 (n=347)		소년 절도범 (n=311)		비행청소년 (n=153)		비비행청소년 (n=280)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위험적 생활양식	3.11	.912	3.05	.808	2.55	.693	2.00	.522	133.402***

***p<.001

한편, 강력범 집단 내에서도 위험적 생활양식이 다른지 살펴본 결과 죄질에 따른 교도소 수용 강력범과 비수용 강력범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도소 수용 소년강력범의 위험적 생활양식의 평균점수는 3.56점으로 비수용 소년 강력범(2.98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표 5-4-8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위험적 생활양식

	교도소 수용 소년 강력범 (n=79)		비수용 소년 강력범 (n=26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위험적 생활양식	3.56	.742	2.98	.917	5.131***

***p<.001

강력범죄유형별로 위험적 생활양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살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5-4-9 강력범죄 유형별 위험적 생활양식

	강도 (n=116)		강간 (n=209)		방화 (n=12)		살인 (n=10)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위험적 생활양식	3.15	.807	3.10	.958	2.85	1.099	3.30	.941	.561

심층면접자 가운데에서도 평소 위험적 생활양식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사례 살인1〉

맨날.. 밖에 나가면 14-15시간... 새벽2시... 3시...

(그 시간에 갈 데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사례 강도3〉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고, 학교는 갑니다. 학교 가서는 ..... 일단 자고, 그냥.... 학교 내에서 놀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그냥 놉니다. 학교 끝나고 나서는 노래방 가거나 피시방 갑니다. 그냥 술.... 다 술 먹고,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이야기 하거나. 많이는 마시는데.. 그렇다고 취해서 막.. 은 아닌데..

〈사례 강도4〉

술집에서요. 신분증 다 있어서. 다른 사람 꺼. 그리고 피시방 가요. 그리고서 집 가는 애들은 집 가고 모텔 가는 애들은 거기 가서 자고.

〈사례 강도5〉

노래방도 가고요, 피시방도 가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놀았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방가면 풀려요. 소리도 지를 수 있고 그래서.

〈사례 강도8〉

(혼자 지낸지는?) 1년이 채 안됐어요..

(어울리는 친구는?) 대략 7-8명...기술전문학교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학교 계속 다니고?) 때려치웠어요... 자취하면서 후에 계속 만났어요...피씨방가던가 노래방 가던가 술집...

(술집?) 갈 수 있는 데가 다 있거든요...

〈사례 강간1〉

학교 끝나면 애들끼리 모여서 뭐 사먹고 놀다가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또 밤에 한 8시쯤 나와 가지고 축구 한번하고 또 밑에 내려가서 **(밑에?)** 다른 동네 가서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그리고 집에 가요. 담배 피고, 술도 마시고 피시방이랑 당구장도 가고.

〈사례 강간3〉

학교 가는 날에는 밤 12시까지 놀고... 주말에는 새벽까지 놀고...

(뭐하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수다 떨고... 피씨방 가고... 게임방가고..

〈사례 강간5〉

집, 학교, 피씨방, 노래방, 친구집... 기타 등등...

집에 있는 시간은 자는 시간 빼면 없었고... 학교 수업시작하면 학교에 출석체크만 하고 피씨방 가서 있고... 종례시간에 학교 가서 가방 가져오라 하고... 학교 끝나면 집 가서 가방 놓고 다시 외출... 11시까지 놀다가.

〈사례 강간 7〉

출석만 하고 안 들어가고 같이 안 들어 간 친구들과 피씨방. 학교 내에서 이야기나 하고. 친구 집에서 간간히 술을 마시거나. 친하니까 자주 같이 다녔습니다.

〈사례 방화2〉

새벽까지 놀고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놀이터 같은데...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집에 갈 수 없어요...

(같이 노는 애들이요?) 10-13명...

(친하다 생각해요?) 네...

다. 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성

범죄 기회 및 상황의 요인 가운데 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 수준은 소년 강력범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평소 자주 가는 장소에 CCTV가 있거나 경찰차가 수시로 순찰하는 등의 감시통제 요인은 소년절도범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주변에 골목길이나 야산이 있어서 도주가 용이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등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요인에 있어서는

비행청소년 집단이 가장 높았다. 즉, 소년 강력범의 경우 평소 자주 가는 장소는 비행청소년이나 술 취한 사람이 많거나 주변에 유흥업소나 후미진 곳이 많은 등의 무질서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표 5-4-10 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성

장소 특성	집단비교								F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무질서	2.75 (n=344)	.814	2.65 (n=312)	.770	2.40 (n=155)	.728	2.04 (n=281)	.623	29.718***
물리적 무질서	2.76 (n=343)	.836	2.65 (n=311)	.796	2.46 (n=156)	.768	1.86 (n=281)	.763	47.363***
감시통제	2.79 (n=343)	.892	2.89 (n=312)	.858	2.23 (n=156)	.847	1.89 (n=281)	.682	64.582***
범죄유 발성	2.59 (n=343)	.811	2.54 (n=312)	.742	2.63 (n=155)	.790	2.17 (n=280)	.840	11.956***

***p<.001

평소 자주 가는 장소의 특성을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강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평소 자주 가는 장소가 술 취한 사람이나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았고 살인의 경우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주변에 유흥업소가 있거나 후미진 곳이 있는 등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았다.

표 5-4-11 강력범죄 유형별 평소 자주 가는 장소의 특성

장소의 특성	소년강력범죄 유형								F
	강도		강간		방화		살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무질서	2.93 (n=113)	.785	2.66 (n=206)	.801	2.80 (n=12)	1.095	2.63 (n=10)	.776	3.013*
물리적 무질서	2.94 (n=113)	.789	2.64 (n=208)	.831	2.75 (n=12)	.986	2.96 (n=10)	.974	3.471*
감시통제	2.89 (n=113)	.935	2.72 (n=208)	.866	3.20 (n=12)	.810	2.60 (n=10)	.875	1.983

장소의 특성	소년강력범죄 유형								F
	강도		강간		방화		살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범죄유발성	2.75 (n=114)	.755	2.50 (n=208)	.805	2.79 (n=12)	1.176	2.58 (n=9)	.892	2.483

*p<.05

2. 범행 당시 범죄발생 기회 및 상황적 특성

가. 범행 장소의 지역적 특성

범행 장소의 지역적 특성을 친근성,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감시통제, 범죄유발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소년 강력범의 경우 범행 장소가 평소 자주 가는 장소로의 친근성 수준은 2.52점, 비행청소년이나 술 취한 사람이 많은 등의 사회적 무질서 정도는 1.76점, 버려진 쓰레기가 많거나 어두운 곳 등이 많은 물리적 무질서 정도는 2.16점, 주변에 CCTV나 순찰차 등을 자주 볼 수 있는 감시통제는 2.66점,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골목이 많거나 주변에 야산이 있어서 도주에 용이한 특성을 지닌 범죄유발성은 2.47점으로 나타났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성과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감시통제, 범죄유발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한데 친근성의 경우 2.52점으로 평소 자주 가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예상할 수 있고 감시통제의 정도도 심하고 범죄유발성 수준도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도범의 범행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범행 당시 지역적 특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친근성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나(t=2.508**) 절도범에 비해 강력범의 경우 평소 자주 가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4-12 범행 장소의 지역적 특성

범행 장소	집단비교(소년강력범·절도범)				t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친근성	2.52 (n=342)	1.361	2.27 (n=313)	1.217	2.508**
사회적 무질서	1.76 (n=340)	0.867	1.85 (n=313)	0.907	−1.303
물리적 무질서	2.16 (n=337)	0.904	2.17 (n=311)	0.854	−0.183
감시통제	2.66 (n=339)	1.062	2.69 (n=312)	1.029	−0.443
범죄유발성	2.47 (n=334)	0.965	2.48 (n=310)	0.931	−0.257

**p<.01

친근성이나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등의 범행 장소의 특성을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 무질서와 감시통제 요인을 제외하고 친근성, 물리적 무질서, 범죄유발성에서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살인의 경우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범행 장소가 자주 가는 장소나 집 주변으로 친근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강도의 경우는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가 많거나 가로등이 없거나 하는 등의 물리적 무질서 정도와 주변이 작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거나 공원이나 야산이 있어서 도주 경로가 다양하거나 주변의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등 범죄친화적인 성격을 보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5-4-13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발생 장소의 지역적 특성

	소년강력범죄 유형								F
	강도		강간		방화		살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친근성	2.16 (n=114)	1.179	2.66 (n=206)	1.401	2.92 (n=12)	1.564	3.40 (n=10)	1.350	5.351**
사회적 무질서	1.79 (n=113)	0.958	1.74 (n=205)	0.828	1.55 (n=12)	0.640	2.00 (n=10)	0.860	0.551

	소년강력범죄 유형								F
	강도		강간		방화		살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물리적 무질서	2.39 (n=114)	0.922	2.03 (n=201)	0.877	1.91 (n=12)	0.854	2.20 (n=10)	0.863	4.217**
감시통제	2.79 (n=114)	1.051	2.60 (n=203)	1.064	2.29 (n=12)	0.721	2.75 (n=10)	1.399	1.325
범죄유발성	2.82 (n=112)	0.944	2.24 (n=201)	0.901	2.81 (n=12)	1.148	2.72 (n=9)	0.963	10.395***

**p<.01, ***p<.001

소년 강력범 대상 면접 가운데에서도 범행 장소가 평소 자주 가는 장소로 주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범행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범행 장소가 대부분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와 범행 유발성이 높은 편이었다. 범행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살인2〉

(여자 친구 집에는 가끔?) 아니요 자주 갔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틀어놓고 해서.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지?) 그리고 집이 외지기도 해서. 사망까지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그 동네가 오래된 동네더라고요. 처음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계속 올라가서. 집 앞에서 나오면 바로 계단이. 차가 못 들어옵니다...

〈사례 살인3〉

(범행 장소는?) 창천동에 근린 공원이라고 밤 8시 반 9시 사이. 에... 어릴 때부터 그 근처 유치원 다니고 저희 큰 엄마 집이 있어서. 잘 아는 동네라. (중략)

거기가 신촌 역 근천데 학교는 이대 역 근처 다니고 중학교도 이대 안에 있는데 다니고 고등학교도 홍대 쪽에 다녀서..... 원래 사람이 잘 안다니는 곳이라서.

〈사례 강도9〉

공원. 집에 가는 길에 있는 공원. 알바 끝나고 집을 가는 도중에 있는 공원.

(자주 갔는지?) 자주는 안 갔어요.

(공원 환경은?) 어두침침하진 않아요. 담배 피는 학생들은 많죠. 시내랑 떨어져 있으니깐 진짜 잘 노는 애들은 시내에 있죠. 어중간한 애들이 있죠. 쓰레기는 널부러져 있어요.

주택가고 음식점도 있고 어른들은 잘 안다니고 시간대가 다 잘 때라.

〈사례 강간1〉

(집과 가깝거나 친숙한 곳인지) 학교니까 뭐..네. 가깝죠... 거기 그 근처서 얘기하다 그런 거긴 해서.. (중략)

CCTV 학교에는 있어요. 체육관 안에는 없어요. 입구에 하나 있고 주변에도 있는데.

체육관 안에 거기 우리 있던 방 창고에는 없어요. 8시 반전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례 방화3〉

(불 지른 장소가 집 주변?) 네. 동네였어요.

(장소 묘사) 그냥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어두웠나요?)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니고... 그쪽에서 쪼금만 내려오면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골목길 좀.. 많았어요. 거기 주민들만..

〈사례 방화5〉

집하고도 가깝고 자주 지나다니고.. 잘 아니까. 사람도 없고.. 완전 없으니까 쓰레기장이니까 타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사례 방화7〉

(잘 아는 곳?) 잘 압니다. 자주 가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니까. 놀다보면 새벽까지 있고 그러다 보면 괜히 시비 걸기 싫으니까. 거기 모이기도 하고.

(무슨 뜻?) 큰 길이나 이런데 있으면 다른 형들이나 형님들이 이 시간에 뭐하냐고 막 하니까. 그런데 우리 끼리 있으면 시비 안 거니까.

어둡기도 하고 차도 많이 안 다니고 낮에는 많이 다니는데 거기 새벽에는 거의 차 안 다녀서 쭉 다 모텔이 쭉 서 있는 데라. 차선도 하나라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낮에 길 건너서 강둑 거기는 사람 많은데 밤에는 없어서.

경찰차는 가끔 다닌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카메라는 신경 안 써서 모르겠는데요. 차에 있긴 할 건데. 그 때 거기 주차장엔 차 별로 없고. 다 모텔 안에 있으니까. 거긴 밤에 거의 차 없는데요.

나. 가출 여부 및 가출 당시 머물렀던 장소

범죄 기회 및 상황적 요인으로 범행 당시 가출 여부와 당시 머물렀던 장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출 상태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년 강력범은 전체의 18.9%였고 소년 절도범은 40.1%로 나타났다. 즉, 절도범의 경우 가출 상황에서

생계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표 5-4-14 범행 당시 가출 여부

			집단 비교		전체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범행 당시 가출 여부	예	빈도	65	122	187
		%	18.9	40.1	28.9
	아니오	빈도	279	182	461
		%	81.1	59.9	71.7
전체		빈도	344	304	648
		%	100.0	100.0	100.0

(df=1) χ^2=35.450***
***p<.001

강력범죄 유형별로 범행 당시 가출한 정도를 살펴보면 강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Chi-square=51.146***).

표 5-4-15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가출 여부

			강력범죄 유형				전체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범행 당시 가출 여부	예	빈도	46	16	1	2	65
		%	40.0	7.7	8.3	20.0	18.9
	아니오	빈도	69	191	11	8	279
		%	60.0	92.3	91.7	80.0	81.1
전체		빈도	115	207	12	10	344
		%	100.0	100.0	100.0	100.0	100.0

(df=3) χ^2=51.146***
***p<.001

실제로 면접대상자 가운데 〈사례 강도2〉, 〈사례 강도5〉를 통해 가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사례 강도2〉

(왜 강도할 생각을?) 그건 그때 가출 중이었고, 칼만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가출해서 모텔해서 잤다가 찜질방에서 잤다가 피씨방 갔다..
돈이 뚝 떨어져서 굶다가 굶다가 학교 들어가서 도서관 같은데 돈 훔치고 다 막 돈 놓고 가거나 카드 놓고 가니까.
(아르바이트 해볼 생각은?) 나이가 안되요. 나이가 된다 해도, 최저임금이 옛날에 사천백 십 원이었는데 제가 하면 이천원 삼천원 더 낮춰주고, 안 주는데도 있고.
조금만 위험을 감수하면 수십 만원씩 제 손에. 막. 조금만 위험 감수하면 그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나죠. 아무래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도.....
돈 생각 계속 나고.

〈사례 강도5〉

가출 중이었어요.(중략)
돈 다 떨어지고요. 돈도 없고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새벽 돌아다니다가.
며칠 전부터 돈이 다 떨어져 가서 걱정하고,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사건 나서. 공범 한 친구랑 같이. 그냥 돌아 다니가.. 그냥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추워서 날씨가. 그래서 돌아다닌 것 같아요.
(목적지 없이?) 네. 막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다가. 막차 끊기고, 걸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술 취한 사람보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쫓아갔죠.
(누가 먼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이. 3명이서 저 해서 3명이서 누구 한 명이 그냥 따라가니까 그냥 다 말없이 다 같이 따라갔죠.
(말 안 해도 뭐 하려는 건지 알았어요?) 네. 다 같이 갔죠. 뒤따라. 그리고 친구가 먼저 때리길래 따라서 때렸죠.
(먼저 말하거나 하지 않고?) 뒤에서 때렸어요.
(반격은?) 아니요. 그냥 저희는 돈 만 챙겨서.
처음에 따라 간 친구가 시작하고 저희도 다 같이 때렸어요. 지갑을 뺐었어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카드에 있는 돈을 뺐어요.
(어떻게?) 지갑 안에 돈 없는 거보고 제가 비밀번호 물어봤어요. 오십 만원 빼서.
그걸로 생활비 썼죠. 먹고 자고.

이처럼 소년 강도범의 경우 피해자의 돈이 범행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가출로 인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출 시 머물렀던 곳을 살펴보면 강력범의 경우 여관이나 모텔, 숙박업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찜질방(31.3%), 피씨방(23.4%), 보호자가 없는 친구

나 선배집이 21.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절도범의 경우 전체의 절반이상이 여관이나 모텔 등의 숙박업소였고 그 다음으로 보호자가 없는 친구나 선배 집(29.8%), 찜질방(29.0%), 피씨방(15.3%)의 순이었다.

표 5-4-16 가출 시 머물렀던 곳

		집단비교(소년 강력범·소년 절도범)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사례수	%	사례수	%
가출시 머물렀던 곳	보호자가 없는 친구나 선배 집	14	21.9	37	29.8
	찜질방	20	31.3	36	29.0
	여관, 모델, 숙박업소	42	65.6	64	51.6
	피씨방	15	23.4	19	15.3
	쉼터	2	3.1	5	4.0
	독서실 혹은 고시원	1	1.6	4	3.2
	원룸	2	3.1	5	4.0
	노숙	6	9.4	9	7.3
	기타	1	1.6	1	0.8

강력범죄 유형별로 가출 당시 머물렀던 곳을 살펴보면 강도와 강간 모두 여관이나 모텔 등의 숙박업소가 가장 많았다. 즉, 강도에서 '여관이나 모텔 등의 숙박업소'라고 응답한 수가 전체의 71.1%였고 '찜질방'이 31.1%, '보호자가 없는 친구나 선배 집'과 '피씨방'이 각 24.4%등이었으며 강간에서는 '여관이나 모텔 등의 숙박업소'라고 응답한 수가 전체의 56.3%였고 '찜질방'이 37.5%, '피씨방'이 25.0%, '보호자가 없는 친구나 선배 집'은 12.5% 등의 순이었다.

표 5-4-17 강력범죄 유형별 가출 시 머물렀던 곳

		소년 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머물렀던 곳	보호자가 없는 친구나 선배 집	11	24.4	2	12.5	–	–	1	50.0
	찜질방	14	31.1	6	37.5	–	–	–	–
	여관, 모델, 숙박업소	32	71.1	9	56.3	–	–	1	50.0

		소년 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머물렀던 곳	피씨방	11	24.4	4	25.0	–	–	–	–
	쉼터	1	2.2	1	6.3	–	–	–	–
	독서실 혹은 고시원	1	2.2	–	–	–	–	–	–
	원룸	1	2.2	1	6.3	–	–	–	–
	노숙	1	2.2	3	18.8	1	100.0	–	–
	기타	–	–	1	6.3	–	–	–	–

다. 음주 상태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의 경우 '술을 전혀 먹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술을 마시고 취한 느낌이 들었다'의 응답이 21.4%,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의 응답은 12.9%,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취했다'의 응답은 7.6%순이었다. 한편, 소년 절도범의 경우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6.8%로 상당부분이 술을 마시지 않은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범행 당시 음주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소년 강력범죄의 경우 절도범죄에 비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Chi-square=67.133***).

표 5-4-18 범행 당시 음주 상태

		집단비교(소년 강력범·소년 절도범)				합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빈도	%
		빈도	%	빈도	%		
음주 상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198	(58.1)	250	(86.8)	448	(71.2)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44	(12.9)	20	(6.9)	64	(10.2)
	술을 마시고 취한 느낌이 들었다	73	(21.4)	13	(4.5)	86	(13.7)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취했다	26	(7.6)	5	(1.7)	31	(4.9)
합계		341	(100.0)	288	(100.0)	629	(100.0)

(df=3) χ^2=67.133***

***p<.001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범행 당시 음주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square=47.910***). 즉, 강도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응답이 8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술을 마시고 취한 느낌이 들었다'(9.6%),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5.3%),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취했다'(2.6%)의 순이었다. 다른 유형 역시 이러한 분포와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강도의 경우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5-4-19 강력범죄 유형별 음주상태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94	82.5	89	43.4	9	75.0	6	60.0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6	5.3	36	17.6	1	8.3	1	10.0
술을 마시고 취한 느낌이 들었다	11	9.6	59	28.8	1	8.3	2	20.0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취했다	3	2.6	21	10.2	1	8.3	1	10.0

(df=9) χ^2=47.910***
***p<.001

범행 당시 음주를 했다는 경우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지 살펴본 결과 강력범의 경우 '동성 친구'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 수 가운데 48.0%였고 그 다음이 '이성 선·후배'(16.3%), '동성 선·후배'(15.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절도범의 경우는 '동성 친구'가 40.0%였고 '동성 선·후배'가 27.3%, '이성 선·후배'는 18.2%, '이성 친구'는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20 범행 당시 함께 술 마신 사람(중복응답)

		집단비교(소년 강력범·소년 절도범)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사례수	%	사례수	%
음주함께 한 사람	동성 친구	106	48.0	22	40.0
	동성 선·후배	34	15.4	15	27.3
	이성 친구	25	11.3	6	10.9
	이성 선·후배	36	16.3	10	18.2

		집단비교(소년 강력범·소년 절도범)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사례수	%	사례수	%
음주함께 한 사람	모르는 동성	2	0.9	–	–
	모르는 이성	11	5.0	2	3.6
	혼자	1	0.5	–	–
	기타	6	2.7	–	–

강력범죄 유형별로 함께 술 마신사람을 보면 강도와 강간, 방화는 '동성친구'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5-4-21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함께 술 마신 사람(중복응답)

		소년 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음주 함께 한 사람	동성 친구	15	48.4	86	48.3	3	100.0	2	22.2
	동성 선·후배	6	19.4	26	14.6	–	–	2	22.2
	이성 친구	2	6.5	20	11.2	–	–	3	33.3
	이성 선·후배	5	16.1	29	16.3	–	–	2	22.2
	모르는 동성	1	3.2	1	0.6	–	–	–	–
	모르는 이성	2	6.5	9	5.1	–	–	–	–
	혼자	–	–	1	0.6	–	–	–	–
	기타	–	–	6	3.4	–	–	–	–

본 연구에서 진행한 면접 가운데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구체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사례 살인1〉

제 친구랑... 제 선배랑 모텔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여자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라하니까 여자 친구가 친구랑 있다고 못 온다고 해서 칼을 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은 얼마나?) 소주 두병이랑 맥주 반병.

〈사례 살인3〉

(술은 얼마나?) 평상시에는 소주 3병 아니면 맥주는 한계 없죠.

(그날은?) 그날 좀 먹긴 했는데 많이는 안 먹고.. 좀.. 피해자 여자친구 공범 누나랑 술 마시고 있다가

(왜 술을?) 그 누나가 피해자가 자기 남친이라 제정신에 만나기 싫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사와서 .. 그 누나가 마시다가 저도 좀 줘서 마시다가.. 공범누나는 맥주 두세 캔..한두 캔.. 평상시 보다 많이 마신 건 아니었고.

〈사례 강도7〉

처음에는 그냥 친구. 여기 공범이 한명 있는데 걔랑 같이 놀려고 나갔어요.

맥주도 마시고 놀려고 그렇게 할라 그랬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술 마시긴 했는데 많이 마시진 않아서 가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원래는 그냥 지갑만 빼서 도망갈라 그랬는데 왜 때렸는지 기억이 안나요.

왜 내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침묵)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때린 건 제가 먼저 때렸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나요.

〈사례 강간3〉

마침 방학이라 몇 일 쉬고 오겠다고 해서 친구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술을 마셨죠...

(네 명이서?) 처음에는 네 명이서...

(마신 시간은?) 11시부터 2시간 정도(마셨어요) 그냥 소주, 맥주... 양주는 비싸서...

(얼마나?) 살짝 취기가 돌 정도... 여자애가 얼마 안마셨는데 취한다고 눕더라고요... 취한 것 같지 않았는데...

〈사례 강간4〉

처음에 집에 있었는데 친구집, 일하는 친구... 혼자 살고 있고요... 집에서 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해서... 오피스텔이었어요... 심심해서 친구를 불렀어요... 술 좀 먹자고(공범)... 알았다고 하고 친구가 왔어요... 둘이 있다가 다른 친구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 남자끼리 마셔서 그렇다고 해서 여자애한테 전화하니까 바로 왔어요... 처음에 한 여자한테 전화하니까 친구랑 같이 가도 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하니까 같이 왔어요.

〈사례 방화7〉

그냥 아는 애들, 학교 애들. 섞여있어서. 여자애들은 없었고요. 남자애들끼리만 있다가 노래방에서 먹긴 했는데 한참 지나서..일부러 불 내려고 거기 간 건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냥 퉷 침 뱉고 가버렸으면 안할 수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라. 범행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행동

1)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상황이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욕설을 했다'는 경우가 전체의 10.8%,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협박했다'가 2.1%, '피해자가 먼저 나를 때렸다'는 5.1%,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는 12.3%,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했다'는 18.4%, '피해자를 먼저 때렸다'는 18.1%, '피해자를 끈이나 테잎 등으로 결박을 했다'는 3.9%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한 경우가 10%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협박을 하고 때린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5-4-22 범행 당시 상황

구분	범행 당시 상황			
	있었다		없었다	
	빈도	%	빈도	%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욕설	36	10.8	297	89.2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협박	7	2.1	326	97.9
피해자가 먼저 나를 때림	17	5.1	315	94.9
피해자에게 시비와 욕설	41	12.3	291	87.7
피해자에게 위협, 협박	61	18.4	271	81.6
피해자를 먼저 때림	60	18.1	272	81.9
피해자를 끈, 테잎 결박	13	3.9	319	96.1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범행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범죄의 특성상 강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거나 위협(협박)을 하고 때린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5-4-23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상황

		강력범죄 유형								$(df)x^2$
		강도		강간		방화		살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욕설	있었다	17	15.0	14	7.1	1	8.3	4	40.0	(df=3) 13.886**
	없었다	96	85.0	184	92.9	11	91.7	6	60.0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협박	있었다	2	1.8	3	1.5	–	–	2	20.0	(df=3) 16.216**
	없었다	111	98.2	195	98.5	12	100.0	8	80.0	
피해자가 먼저 나를 때림	있었다	11	9.7	3	1.5	–	–	3	30.0	(df=3) 23.589***
	없었다	102	90.3	194	98.5	12	100.0	7	70.0	
피해자에게 시비와 욕설	있었다	29	25.7	9	4.6	1	8.3	2	20.0	(df=3) 30.244***
	없었다	84	74.3	188	95.4	11	91.7	8	80.0	
피해자에게 위협, 협박	있었다	39	34.5	17	8.6	1	8.3	4	40.0	(df=3) 36.024***
	없었다	74	65.5	180	91.4	11	91.7	6	60.0	
피해자를 먼저 때림	있었다	51	45.1	6	3.0	–	–	3	30.0	(df=3) 89.537***
	없었다	62	54.9	191	97.0	12	100.0	7	70.0	
피해자를 끈, 테입 결박	있었다	2	1.8	8	4.1	–	–	3	30.0	(df=3) 19.967***
	없었다	111	98.2	189	95.9	12	100.0	7	70.0	

**p<01, ***p<.001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면접에서는 살인과 방화 사례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위협을 했다거나 때려서 등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

〈사례 살인1〉

제가 주차장에서 제 여자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찔렀습니다.

〈사례 살인3〉

사과하러 온 대놓고 시비를 먼저 걸어서 싸우다가 공범형이 피해자 목을 먼저 잡고 몇 대 때리러 가다가 피해자한테 발로 배를 차이고 화가 나서 그냥 확 찔러버렸습니다.

〈사례 방화1〉

중국집 배달하다가 배달을 갔는데 비오는 날 이었어요.

배달 가서 음식을 내리는데 어떤 중학생 꼬마애가 나와서 얼마에요 하는데 그냥 기분이 나

빴어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애 엄마가 나와서 예의 없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열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문 앞에 달려 있는 우유박스에 불을 질렀어요.

〈사례 방화3〉

(피해자는 누구?) 그 어떤 할머닌데.

(관계?) 처음엔 그 할머니 파지 주우고 있던 거 도와줘가지고 옷이나 먹을 거 얻어먹었는데 나중에 막 아는 척 안 해서. 그런데 좀 나중에 서운해 가지고.

〈사례 방화7〉

주차장 담벼락에 주룩 앉아서 담배 피고 노는데 거기 아저씨가 할아버진가. 담배 피지 말라고 뭐라 해서. '네' 하긴 했는데 기분 완전 잡쳐서 나중에 아무도 안 볼 때 애들이랑 일부러 거기 페인트 통 빈 거 있는데. 밑에 안에 시멘트 들고 쓰레기통처럼 되가 있어서 거기 쓰레기도 좀 있고 해서 바닥에서 신문지 주워다가 거기 같이 넣고 라이터 불 붙여서.

2)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걸어가는 중(21.5%), 그냥 있었음(11.9%), 취침 중(11.3%), 등의 순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우 술에 취해 있어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5-4-24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중복응답)

		사례수	%
피해자 상태	취침 중	35	11.3
	일하는 중	27	8.7
	걸어가는 중	67	21.5
	술(약물)에 취해 있었음	114	36.7
	비싼 옷. 가방 소지	5	1.6
	그냥 있었음	37	11.9
	나와 함께 얘기 중	32	10.3
	기타	9	2.9

심층면접 대상자 가운데에서도 범행대상자가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저지를 맘을 먹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범행 당시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술에 취해 있어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사례 강도7〉

처음에는 그냥 친구. 여기 공범이 한명 있는데 걔랑 같이 놀려고 나갔어요.
맥주도 마시고 놀려고 그렇게 할라 그랬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시내 쪽으로 나가서 공원 쪽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중략)..술 취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지갑 빼려고 했는데 이제 막 이렇게 뒷주머니 만지면서 움직이는 거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원래는 그냥 지갑만 빼서 도망 갈려 그랬는데 왜 때렸는지 기억이 안나요.
왜 내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례 강간4〉

(얼마나?) 살짝 취기가 돌 정도.. 여자애가 얼마 안마셨는데 취한다고 눕더라고요... 취한 것 같지 않았는데...

〈사례 강간6〉

모텔에서 다른 모텔에 있는 애가 술을 사들고 왔습니다. 살짝 취기가 있어서 여자애를 나머지 친구들이 관계를 가지려고 하니 저도 했습니다.

한편,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강도의 경우는 범행대상자가 '걸어가는 중'이 41.8%로 가장 많았고 강간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다'가 49.7%로 가장 많았다.

표 5-4-25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중복응답)

		소년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피해자의 상태	취침 중	13	11.8	20	10.8	–	–	2	20.0
	일하는 중	23	20.9	3	1.6	1	16.7	–	–

		소년강력범죄 유형							
		강도		강간		방화		살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피해자의 상태	걸어가는 중	46	41.8	19	10.3	1	16.7	1	10.0
	술(약물)에 취해 있었음	20	18.2	92	49.7	–	–	2	20.0
	비싼옷. 가방 소지	4	3.6	1	0.5	–	–	–	–
	그냥 있었음	13	11.8	22	11.9	–	–	2	20.0
	나와 함께 얘기중	–	–	30	16.2	–	–	2	20.0
	기타	3	2.7	5	2.7	4	66.7	1	10.0

제5절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과정의 특성

1. 청소년 강력범, 청소년 절도범, 그리고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특성 비교

가. 비행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

1) 비행경험에 따른 부모(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변화

비행경험에 따른 부모님(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1〉과 같다. 비행경험이 없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 48.3%,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2.2%, 그리고 소년 절도범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비행경험이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께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관계의 변화가 없는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94.0%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64.1%,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행에 대해서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이 알게 되어도 부정적으로 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적었다. 이에 비해 소년 강력범이나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비행에 대해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 부정적으로 관계가 변화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행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과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 =82.234***).

표 5-5-1 비행경험에 따른 부모님(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부모님 (길러주신 분)	비행 없음	빈도	266	8	8	282
		비율A	(48.3)	(2.2)	(2.7)	(23.3)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268	229	199	696
		비율A	(48.6)	(62.7)	(67.5)	(57.5)
		비율B	(94.0)	(64.1)	(69.3)	(74.9)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17	128	88	233
		비율A	(3.1)	(35.1)	(29.8)	(19.2)
		비율B	(6.0)	(35.9)	(30.7)	(25.1)
	합계	빈도	551	365	295	1,211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424.959***			
Chi-square B			82.234***			

* 비율A와 Chi-square A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01

2) 비행경험에 따른 학교 반 친구나 선, 후배와의 관계 변화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비행이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3.2%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11.7%,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7.9%로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자신의 비행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Chi-square B =9.791**). 그렇지만 자신의 비행이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에게 알려지면서 부정적 관계변화를 겪은 비율에 비해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5-2 비행경험에 따른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와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	비행없음	빈도	266	8	8	282
		비율A	(63.0)	(2.5)	(3.1)	(28.2)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151	272	234	657
		비율A	(35.8)	(86.1)	(89.3)	(65.7)
		비율B	(96.8)	(88.3)	(92.1)	(91.5)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5	36	20	61
		비율A	(1.2)	(11.4)	(7.6)	(6.1)
		비율B	(3.2)	(11.7)	(7.9)	(8.5)
	합계	빈도	422	316	262	1,000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446.083***			
Chi-square B			9.791**			

* 비율 A와 Chi-square A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 B와 Chi-square B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1, ***p<.001

3) 비행경험에 따른 친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

비행경험에 따른 친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3〉과 같다.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비행이 친한 친구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5.2%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8.7%,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8.8%로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비행경험으로 인한 친한 친구와의 부정적 관계변화를 더욱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의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 2.078).

표 5-5-3 비행경험에 따른 친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친한 친구	비행없음	빈도	266	8	8	282
		비율A	(63.3)	(2.5)	(3.1)	(28.3)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146	282	229	657
		비율A	(34.8)	(89.0)	(88.4)	(66.0)
		비율B	(94.8)	(91.3)	(91.2)	(92.0)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8	27	22	57
		비율A	(1.9)	(8.5)	(8.5)	(5.7)
		비율B	(5.2)	(8.7)	(8.8)	(8.0)
	합계	빈도	420	317	259	996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440.290***			
Chi-square B			2.078			

* 비율A와 Chi-square A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01

4) 비행경험에 따른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변화

비행경험에 따른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4〉와 같다.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비행이 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3.8%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31.6%,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26.8%로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자신의 비행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행경험으로 인한 학교 선생님과의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는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서 겪는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 비율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행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 선생님과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46.239***).

표 5-5-4 비행경험에 따른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학교 선생님	비행없음	빈도	266	8	8	282
		비율A	(62.9)	(2.5)	(3.1)	(28.0)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151	214	186	551
		비율A	(35.7)	(66.7)	(71.0)	(54.8)
		비율B	(96.2)	(68.4)	(73.2)	(76.1)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6	99	68	173
		비율A	(1.4)	(30.8)	(26.0)	(17.2)
		비율B	(3.8)	(31.6)	(26.8)	(23.9)
	합계	빈도	423	321	262	1.006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472.953***			
Chi-square B			46.239***			

* 비율A와 Chi-square A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01

5) 비행경험에 따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비행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0.6%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16.3%,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13.1%로 청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자신의 비행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square B=25.478***).

표 5-5-5 비행경험에 따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동네 사람들	비행없음	빈도	266	8	8	282
		비율A	(62.7)	(2.5)	(3.0)	(27.8)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157	262	226	645
		비율A	(37.0)	(81.6)	(84.3)	(63.7)
		비율B	(99.4)	(83.7)	(86.9)	(88.2)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1	51	34	86
		비율A	(0.2)	(15.9)	(12.7)	(8.5)
		비율B	(0.6)	(16.3)	(13.1)	(11.8)
	합계	빈도	424	321	268	1,013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460.782***			
Chi-square B			25.478***			

* 비율A와 Chi-square A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01

6) 비행경험에 따른 전반적인 관계 변화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비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6%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11.7%,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9.4%로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자신의 비행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square B=16.715***).

표 5-5-6 비행경험에 따른 전반적인 관계의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전반적인 관계	비행없음	빈도	266	8	8	282
		비율A	(63.0)	(2.5)	(3.0)	(28.1)
		비율B	–	–	–	–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155	272	232	659
		비율A	(36.7)	(86.1)	(87.9)	(65.8)
		비율B	(99.4)	(88.3)	(90.6)	(91.5)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1	36	24	61
		비율A	(0.2)	(11.4)	(9.1)	(6.1)
		비율B	(0.6)	(11.7)	(9.4)	(8.5)
	합계	빈도	422	316	264	1,002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451.129***			
Chi-square B			16.715***			

* 비율A와 Chi-square A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비행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01

7) 소년범과 일반청소년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

학교징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가 집단 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학교징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가 변화한 경우에 그 영향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가 되는 집단은 첫 번째로 일반청소년과 소년범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청소년 강력범과 절도범과 같은 소년범들 간의 차이만 살펴보게 된다면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혹은 강력범죄 혹은 절도를 저지르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 변화가 일반청소년과 소년범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 강력범죄나 절도와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강력범과 청소년 절도범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범죄의 발생여부와 범죄의 유형에 대해 사회적 관계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년범들 간에도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강력범과 청소년 절도범 간에도 사회적 관계의 변화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표 5-5-7〉과 같다[12]. 부모님 혹은 길러 주신분, 학교 선생님, 그리고 동

네 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 관계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은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신의 비행이 알려져서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 학교 선생님,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부정적 관계로 변화될수록 소년범에 속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7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

요인 (일반 청소년=0, 소년범=1)	B	S.E.	Exp(B)
부모님(길러주신 분)	2.035	.296	7.649***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	.204	.617	1.226
친한 친구	-.381	.532	.683
학교 선생님	2.188	.443	8.919***
동네 사람들	2.408	1.056	11.108*
전반적인 관계	1.193	1.133	3.298
Chi-square	259.319***		
-2 Log likelihood	1078.013		
Cox & Snell R2	.232		

* 각 요인은 부정적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1로, 비행경험이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비행 이후 부정적 관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재부호화 하였음.

*p<.05, ***p<.001

8)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의 영향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 친한 친구 등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가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2)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은 자신의 비행으로 인해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을 1로 재부호화하였다. 비행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비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신의 비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더라도 관계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재부호화하였다.

표 5-5-8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

요인 (소년 절도범=0, 소년 강력범=1)	B	S.E.	Exp(B)
부모님(길러주신 분)	-.229	.203	.795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	-.342	.369	.711
친한 친구	.277	.362	1.319
학교 선생님	-.053	.233	.949
동네 사람들	-.119	.311	.888
전반적인 관계	.067	.368	1.069
Chi-square	3.983		
-2 Log likelihood	769.118		
Cox & Snell R^2	.007		

* 각 요인은 부정적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1로, 비행경험이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비행 이후 부정적 관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재부호화 하였음.

나. 학교 징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

1) 학교징계 경험에 따른 부모(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변화

학교 징계 경험에 따른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과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9〉와 같다. 우선 학교 징계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87.7%가 학교 징계의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35.3%,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38.4%가 학교 징계의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학교 징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학교 징계가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16.4%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39.9%,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29.8%로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자신의 학교 징계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징계가 있는 청소년 중에서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과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square B=14.317**).

표 5-5-9 학교 징계에 따른 부모님(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부모님 (길러주신 분)	학교징계 없음	빈도	476	130	113	719
		비율A	(87.7)	(35.3)	(38.4)	(59.7)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56	143	127	326
		비율A	(10.3)	(38.9)	(43.2)	(27.1)
		비율B	(83.6)	(60.1)	(70.2)	(67.1)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11	95	54	160
		비율A	(2.0)	(25.8)	(18.4)	(13.3)
		비율B	(16.4)	(39.9)	(29.8)	(32.9)
	합계	빈도	543	368	294	1,205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334.671***			
Chi-square B			14.317**			

* 비율A와 Chi-square A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1, ***p<.001

2) 학교 징계 경험에 따른 학교 반 친구나 선, 후배와의 관계 변화

학교 징계 경험에 따른 학교 반 친구나 선, 후배와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10〉과 같다. 학교 징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학교 징계가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1.5%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12.1%,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8.7%로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자신의 학교 징계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징계가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와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6.935*)

표 5-5-10 학교 징계에 따른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와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	학교징계 없음	빈도	476	130	112	718
		비율A	(87.8)	(35.1)	(38.0)	(59.5)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65	211	167	443
		비율A	(12.0)	(57.0)	(56.6)	(36.7)
		비율B	(98.5)	(87.9)	(91.3)	(90.6)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1	29	16	46
		비율A	(.2)	(7.8)	(5.4)	(3.8)
		비율B	(1.5)	(12.1)	(8.7)	(9.4)
	합계	빈도	542	370	295	1,207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333.133***			
Chi-square B			6.935*			

* 비율A와 Chi-square A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5, ***p<.001

3) 학교 징계 경험에 따른 친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

학교 징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학교 징계가 친한 친구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1.5%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9.6%,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4.9%로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자신의 학교 징계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6.843*).

표 5-5-11 학교 징계에 따른 친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친한 친구	학교징계 없음	빈도	476	130	112	718
		비율A	(88.0)	(35.2)	(38.1)	(59.6)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64	216	173	453
		비율A	(11.8)	(58.5)	(58.8)	(37.6)
		비율B	(98.5)	(90.4)	(95.1)	(93.2)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1	23	9	33
		비율A	(.2)	(6.2)	(3.1)	(2.7)
		비율B	(1.5)	(9.6)	(4.9)	(6.8)
	합계	빈도	541	369	294	1,204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335.808***			
Chi-square B			6.843*			

* 비율A와 Chi-square A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5, ***p<.001

4) 학교 징계 경험에 따른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변화

학교 징계 경험에 따른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12〉와 같다. 학교 징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학교 징계가 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18.2%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38.8%,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31.3%로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자신의 학교 징계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징계가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 선생님과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10.337**).

표 5-5-12 학교 징계에 따른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학교 선생님	학교징계 없음	빈도	476	130	112	718
		비율A	(87.8)	(35.1)	(38.1)	(59.5)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54	147	125	326
		비율A	(10.0)	(39.7)	(42.5)	(27.0)
		비율B	(81.8)	(61.3)	(68.7)	(66.8)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12	93	57	162
		비율A	(2.2)	(25.1)	(19.4)	(13.4)
		비율B	(18.2)	(38.8)	(31.3)	(33.2)
	합계	빈도	542	370	294	1,206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335.379***			
Chi-square B			10.337**			

* 비율A와 Chi-square A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1, ***p<.001

5) 학교 징계 경험에 따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학교 징계 경험에 따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13〉과 같다. 학교 징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학교 징계가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없었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7.1%,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7.1%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징계가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동네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5.224).

표 5-5-13 학교 징계에 따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동네 사람들	학교징계 없음	빈도	476	130	113	719
		비율A	(87.3)	(35.2)	(38.2)	(59.4)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69	222	170	461
		비율A	(12.7)	(60.2)	(57.4)	(38.1)
		비율B	(100.0)	(92.9)	(92.9)	(93.9)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	17	13	30
		비율A	(.0)	(4.6)	(4.4)	(2.5)
		비율B	(.0)	(7.1)	(7.1)	(6.1)
	합계	빈도	545	369	296	1,210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323.685***			
Chi-square B			5.224			

* 비율A와 Chi-square A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01

6) 학교 징계 경험에 따른 전반적인 관계 변화

학교 징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학교 징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없었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9.5%,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7.0%로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자신의 학교 징계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7.078*).

표 5-5-14 학교 징계에 따른 전반적인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전반적인 관계	학교징계 없음	빈도	476	130	112	718
		비율A	(87.5)	(35.9)	(37.7)	(59.7)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68	210	172	450
		비율A	(12.5)	(58.0)	(57.9)	(37.4)
		비율B	(100.0)	(90.5)	(93.0)	(92.8)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	22	13	35
		비율A	(.0)	(6.1)	(4.4)	(2.9)
		비율B	(.0)	(9.5)	(7.0)	(7.2)
	합계	빈도	544	362	297	1,203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324.026***			
Chi-square B			7.078*			

* 비율A와 Chi-square A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학교징계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5, ***p<.001

7) 소년범과 일반청소년 간 학교징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의 영향[13]

소년범과 일반청소년 간 사회적 관계의 변화 요인 가운데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과 학교 선생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신의 학교징계로 인해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과 부정적 관계로 변할수록, 학교 선생님과 부정적 관계로 변할수록 소년범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학교징계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은 학교징계로 인해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을 1로 재부호화하였다. 학교징계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학교징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학교징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더라도 관계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재부호화하였다.

표 5-5-15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 간 학교징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

요인 (일반 청소년=0, 소년범=1)	B	S.E.	Exp(B)
부모님(길러주신 분)	1.477	.348	4.378***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	1.254	1.107	3.506
친한 친구	-.373	1.282	.689
학교 선생님	1.474	.353	4.368***
동네 사람들	.777	1.524	2.175
전반적인 관계	1.078	1.441	2.938
Chi-square	164.339***		
-2 Log likelihood	1471.534		
Cox & Snell R2	.129		

* 각 요인은 부정적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1로, 학교징계경험이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학교징계 이후 부정적 관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재부호화 하였음.

***p<.001

8) 청소년 강력범과 청소년 절도범 간 학교 징계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학교징계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표 5-5-16〉과 같다.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 등과의 사회적 관계변화는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16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학교징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

요인 (소년 절도범=0, 소년 강력범=1)	B	S.E.	Exp(B)
부모님(길러주신 분)	-.348	.267	.706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	.238	.530	1.269
친한 친구	-.812	.634	.444
학교 선생님	-.034	.268	.967

요인 (소년 절도범=0, 소년 강력범=1)	B	S.E.	Exp(B)
동네 사람들	.668	.529	1.950
전반적인 관계	-.376	.525	.686
Chi-square	7.875		
-2 Log likelihood	882.107		
Cox & Snell R2	.012		

* 각 요인은 부정적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1로, 학교징계경험이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학교징계 이후 부정적 관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재부호화 하였음.

다.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

1)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부모(길러주신분)와의 관계 변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과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17〉과 같다. 우선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97.1%가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29.5%,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22.7%가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6.2%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41.8%,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40.4%로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자신의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과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7.939*).

표 5-5-17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부모님(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부모님 (길러주신 분)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 없음	빈도	535	102	64	701
		비율A	(97.1)	(29.5)	(22.7)	(59.5)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15	142	130	287
		비율A	(2.7)	(41.0)	(46.1)	(24.3)
		비율B	(93.8)	(58.2)	(59.6)	(60.0)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1	102	88	191
		비율A	(0.2)	(29.5)	(31.2)	(16.2)
		비율B	(6.2)	(41.8)	(40.4)	(40.0)
	합계	빈도	551	346	282	1179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612.086***			
Chi-square B			7.939*			

* 비율A와 Chi-square A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5, ***p<.001

2)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와의 관계 변화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9.1%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17.7%,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17.3%로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부정적 관계변화의 비율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5-5-18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 없음	빈도	535	102	64	701
		비율A	(98.0)	(36.8)	(28.3)	(66.8)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10	144	134	288
		비율A	(1.8)	(52.0)	(59.3)	(27.5)
		비율B	(90.9)	(82.3)	(82.7)	(82.8)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1	31	28	60
		비율A	(.2)	(11.2)	(12.4)	(5.7)
		비율B	(9.1)	(17.7)	(17.3)	(17.2)
	합계	빈도	546	277	226	1,049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502.849***			
Chi-square B			.540			

* 비율A와 Chi-square A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01

3)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친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친한 친구와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19〉와 같다.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친한 친구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9.1%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13.9%,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12.3%로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자신의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부정적 관계변화의 비율 차이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친한 친구와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391).

표 5-5-19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친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친한 친구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 없음	빈도	535	102	64	701
		비율A	(98.0)	(32.9)	(25.5)	(63.3)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10	179	164	353
		비율A	(1.8)	(57.7)	(65.3)	(31.9)
		비율B	(90.9)	(86.1)	(87.7)	(86.9)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1	29	23	53
		비율A	(.2)	(9.4)	(9.2)	(4.8)
		비율B	(9.1)	(13.9)	(12.3)	(13.1)
	합계	빈도	546	310	251	1,107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561.068***			
Chi-square B			.391			

* 비율A와 Chi-square A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01

4)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변화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없었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37.1%,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41.4%로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 자신의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 선생님과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3.016).

표 5-5-20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학교 선생님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 없음	빈도	535	102	64	701
		비율A	(99.3)	(43.6)	(35.6)	(73.6)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4	83	68	155
		비율A	(.7)	(35.5)	(37.8)	(16.3)
		비율B	(100.0)	(62.9)	(58.6)	(61.5)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	49	8	97
		비율A	(.0)	(20.9)	(26.7)	(10.2)
		비율B	(.0)	(37.1)	(41.4)	(38.5)
	합계	빈도	539	234	180	953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426.011***			
Chi-square B			3.016			

* 비율A와 Chi-square A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01

5)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없었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40.9%,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40.3%로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부정적 관계변화의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21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동네 사람들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 없음	빈도	535	102	64	701
		비율A	(99.3)	(60.7)	(50.8)	(84.2)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4	39	37	80
		비율A	(.7)	(23.2)	(29.4)	(9.6)
		비율B	(100.0)	(59.1)	(59.7)	(60.6)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	27	25	52
		비율A	(.0)	(6.1)	(19.8)	(6.2)
		비율B	(.0)	(40.9)	(40.3)	(39.4)
	합계	빈도	539	168	126	833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266.928***			
Chi-square B			2.686			

* 비율A와 Chi-square A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01

6)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전반적인 관계 변화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전반적인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22〉과 같다.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없었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38.7%,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39.4%로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부정적 관계변화의 비율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전반적인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B=3.145).

표 5-5-22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전반적인 관계 변화

관계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전반적인 관계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 없음	빈도	535	102	64	701
		비율A	(99.1)	(57.6)	(47.4)	(82.3)
		비율B	–	–	–	–
	관계변화 없음, 인지하지 못함	빈도	5	46	43	94
		비율A	(.9)	(26.0)	(31.9)	(11.0)
		비율B	(100.0)	(61.3)	(60.6)	(62.3)
	부정적 관계변화	빈도	–	29	28	57
		비율A	(.0)	(16.4)	(20.7)	(6.7)
		비율B	(.0)	(38.7)	(39.4)	(37.7)
	합계	빈도	540	177	135	852
		비율A	(100.0)	(100.0)	(100.0)	(100.0)
		비율B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A			291.283***			
Chi-square B			3.145			

* 비율A와 Chi-square A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도 포함한 값임.
** 비율B와 Chi-square B는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는 사례는 제외한 값임.

***p<.001

7) 청소년 강력범과 청소년 절도범 간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14)15)]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 친한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은 자신의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관계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을 1로 재부호화하였다.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더라도 관계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재부호화하였다.

15)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 간의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들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다중공선성(mulicolinearity) 때문에 분석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표 5-5-23 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

요인 (소년 절도범=0, 소년 강력범=1)	B	S.E.	Exp(B)
부모님(길러주신 분)	.742	.642	2.101
학교 반친구나 선, 후배	-.431	.896	.650
친한 친구	-.757	.903	.469
학교 선생님	.642	.814	1.900
동네 사람들	.784	1.436	2.191
전반적인 관계	-.993	1.428	.370
Chi-square	5.709		
-2 Log likelihood	344.000		
Cox & Snell R2	.022		

* 각 요인은 부정적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1로,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이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이후 부정적 관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재부호화 하였음.

즉,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 학교 반 친구나 선, 후배, 친한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은 으로 이전에 자신이 저지른 비행이나 학교 징계에 따라 더 이상 부정적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사회적 관계가 충분히 부정적인 관계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범죄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생사건의 영향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정적 인생사건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정적 인생사건은 두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 번째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 남에게 맞거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 관련 피해로 일상생활상 경험할 수 있는 인생사건이다. 두 번째로는 부모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 이혼 혹은 별거, 사업실패나 실직, 오랜 병상생활, 그리고 부모의 사망과 같이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생사건이다.

가.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

일반 청소년, 소년 절도범, 그리고 소년 강력범에 따른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을 살펴보면 〈표 5-5-24〉과 같다. 일반 청소년 중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2.8%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22.2%, 소년 절도범은 19.5%로 집단 간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표 5-5-24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 비교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부정적 인생사건 없음	사례수	434	298	252	984
	%	(78.2)	(77.8)	(80.5)	(78.7)
부정적 인생사건 있음	사례수	121	85	61	267
	%	(21.8)	(22.2)	(19.5)	(21.3)
합계	사례수	555	383	313	1,251
	%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876			

한편,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인생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로부터의 괴롭힘', '남에게 맞거나 돈을 빼앗김'과 같은 경험의 정도는 소년범에 비해 일반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남에게 맞거나 돈을 빼앗김'과 같은 경험율은 비행청소년이 2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년강력범(18.4%), 소년절도범(14.5%), 비비행청소년(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이나 혹은 이성의 원치않은 임신이나 낙태', '애인과의 이별'등의 경험의 경우는 소년범의 경험율이 일반청소년의 경험율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5-5-25 구체적인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 경험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		(df)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친구 괴롭힘	예	31	9.1	29	9.4	33	21.2	29	10.3	(df=3) 18.280***
	아니오	311	90.9	279	90.6	123	78.8	252	89.7	
맞거나 돈 뺏김	예	63	18.4	45	14.5	39	25.0	16	5.7	(df=3) 34.578***
	아니오	279	81.6	265	85.5	117	75.0	265	94.3	
성추행, 성폭행	예	5	1.5	6	1.9	7	4.5	4	1.4	(df=3) 5.837
	아니오	336	98.5	304	98.1	149	95.5	277	98.6	
본인(이성) 원치않은 임신, 낙태	예	9	2.6	16	5.2	–	–	–	–	(df=3) 21.765***
	아니오	331	97.4	294	94.8	156	100.0	281	100.0	
애인과 이별	예	172	50.4	151	48.9	79	5.6	59	21.0	(df=3) 71.360***
	아니오	169	49.6	158	51.1	77	49.0	222	79.0	

***p<.001

그리고 강력범죄 유형별로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피해 경험율이 살인의 경우 20.0%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살인의 경우에 사례수가 크지 않아 이러한 통계적 유의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

표 5-5-26 강력범죄 유형별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 경험

		강도		강간		방화		살인		(df)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친구 괴롭힘	예	3	7.8	19	9.3	2	16.7	1	10.0	(df=3) 1.076
	아니오	106	92.2	186	90.7	10	83.3	9	90.0	
맞거나 돈 뺏김	예	18	15.7	41	20.0	3	25.0	1	10.0	(df=3) 1.744
	아니오	97	84.3	164	80.0	9	75.0	9	90.0	
성추행, 성폭행	예	1	0.9	2	1.0	–	–	2	20.0	(df=3) 24.571***
	아니오	114	99.1	202	99.0	12	100.0	8	80.0	
본인 혹은 이성의 원치 않은 임신, 낙태	예	4	3.5	4	2.0	–	–	1	10.0	(df=3) 3.093
	아니오	111	96.5	199	98.0	12	100.0	9	90.0	

		강도		강간		방화		살인		(df)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애인과 이별	예	52	45.2	110	53.9	4	33.3	6	60.0	(df=3) 4.014
	아니오	63	54.8	94	46.1	8	66.7	4	40.0	

***p〈.001

나.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부정적 인생사건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5-5-27〉과 같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한 비율은 20.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50.4%, 그리고 소년 절도범은 50.5%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5-27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 비교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부정적 인생사건 없음	사례수	442	190	155	787
	%	(79.6)	(49.6)	(49.5)	(62.9)
부정적 인생사건 있음	사례수	113	193	158	464
	%	(20.4)	(50.4)	(50.5)	(37.1)
합계	사례수	555	383	313	1,251
	%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119.662***			

***p〈.001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병상생활', '부모의 사망', '양육자로부터의 학대' 경험율의 경우 소년 강력범이 가장 높았고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인 수준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경험율의 경우 소년 강력범(38.4%)에 비해 소년절도범(42.4%)가 높기는 하지만 일반청소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비행청소년:12.2%, 비비행청소년:5.7%). '부모의 병상 생활'의 경험율은 소년 강력범은 5.3%, 소년 절도범은

3.5%, 비행청소년은 1.9%, 비비행청소년은 0.7%의 순이며 부모의 사망을 경험한 비율은 소년 강력범은 6.8%, 소년 절도범은 5.8%, 비행청소년은 4.5%, 비비행청소년은 1.4%의 순이었다. 그리고 양육자 학대의 경험율은 소년 강력범은 12.6%, 소년 절도범은 11.6%, 비행청소년은 4.5%, 비비행청소년은 1.1%였다. 이처럼 소년 강력범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인생사건에 노출된 정도가 큰 편이다.

표 5-5-28 구체적인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 경험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		(df)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부모이혼, 별거	예	131	38.4	131	42.4	19	12.2	16	5.7	(df=3) 140.697***
	아니오	210	61.6	178	57.6	137	87.8	265	94.3	
부모사업 실패, 실직	예	48	14.0	29	9.4	25	16.0	14	5.0	(df=3) 18.885***
	아니오	294	86.0	281	90.6	131	84.0	267	95.0	
부모의 병상생활	예	18	5.3	11	3.5	3	1.9	2	0.7	(df=3) 11.608**
	아니오	322	94.7	299	96.5	153	98.1	279	99.3	
부모의 사망	예	23	6.8	18	5.8	7	4.5	4	1.4	(df=3) 10.652*
	아니오	317	93.2	291	94.2	149	95.5	277	98.6	
양육자 학대	예	43	12.6	36	11.6	7	4.5	3	1.1	(df=3) 35.624***
	아니오	297	87.4	274	88.4	149	95.5	278	98.9	

*p<.05, **p<.01, ***p<.001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 가운데에서도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의 사망,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폭력과 같은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사례 살인1〉

(부모님은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는지?) 제가 7살 때 11년 전.

(그럼 기억 별로 없겠네요?) 네..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맨날 맞으니까.

(심하게 때리시나?) 당연하죠.

(약주도 많이?) 네. 그랬는데. 아버지는 원래 일을 안했어요.

〈사례 살인2〉

초등학교 때 부모님 별거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서.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포목집을 하시면서 초등학교 6학년때 부도가 나셔서...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아버지는 고시원에 계시고... 거기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부도가 나기 전에는 보통의 가정..

〈사례 강도2〉

엄마 간호산데 막 집에 거의 없고 맞벌이니까. 다 집에 사람 없고 비오는 날도 우산 없고 열쇠도 없고..... 그래서 막 비다 맞고 동생이랑 집 앞에 서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엄마는 계속 나가서 일 한다 그러고. 그래서 아빠가 나가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그래서 홧김에 술 먹고, 때리고 뭐 막 던지고 그래서. 둘이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둘이 이혼하고 9살? 동생이 7살 때 이혼했는데 그 때 충격 좀... 많이 받은 거 같고.... 그렇습니다.

〈사례 강도3〉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오랜 침묵).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겠어요.)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럼 생활은? 어머니가 일을 하셨나요?)** 그냥 원래 일하셔서. 회사. **(두분 다?)**네. 그냥 회사 다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활은...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엄마 일해서. 아빠 살아 있을 때도. 일했으니까.

〈사례 강도5〉

엄마는 저 낳고 암으로 바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가요. 이제 저 유치원때 새엄마 처음으로 오시고 아빠랑 새엄마랑 살다가 막 부부싸움 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 헤어지고 두 번째 새엄마오고. 그것도 유치원 때. 두 번째 새엄마는 부부싸움 또 막하고 우리한테 관심 없고 돈 넘 헤프게 쓰고. 헤어지고 한동안 할아버지 오셔서 같이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세 번째 새엄마 지금 새엄마 오시고. (중략)..

집에서 아빠가 그냥 많이 때렸어요. 그냥 아빠는 막 때리고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때리고 새엄마는 초등학교 때 많이 맞았거든요. 새엄마한테는 매로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때는 문구점 오락기 있잖아요. 구경하고 하다가 그런거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한 말 안들으면 무조건 때리고 그래요. 그냥 그런 거 때문에 사이가 완전 안 좋아졌죠. 도와줄 만한 사람 없었어요.

〈사례 강도8〉

어머니께서는 이혼하시고.. 기억에 없어요...아버지께서는 7살 때 한번 갔다 오신 것 같고... **(아버지는 어디?)** 감옥에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는 도박, 중학교 3학년 때는 폭력. 합의금이 너무 컸데요...(중략)..

아빠한테 죽을 듯이 맞았어요...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그래서 아빠랑 안있으려고 했어요...이유가 있었긴 있었는데... 이유는 가출... 절도... 그거인데 맞으면서 충격적인 말도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쭉... 아빠랑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례 강도10〉

5세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다 할머니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간 힘들어했죠..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착실히 살다가... 학교 친구들이 안 좋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게 되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바꿔야겠다했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사고를 치고...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가정 내의 부정적 인생사건 경험율을 살펴보면 '부모의 병상 생활'과 '부모의 사망'과 같은 사건 경험율이 강도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5-5-29 강력범죄 유형별 구체적인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 경험

		강도		강간		방화		살인		$(df)x^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부모이혼, 별거	예	50	43.5	77	37.7	1	8.3	3	30.0	(df=3) 6.174
	아니오	65	56.5	127	62.3	11	91.7	7	70.0	
부모사업 실패, 실직	예	15	13.0	29	14.1	2	16.7	2	20.0	(df=3) 0.460
	아니오	100	87.0	176	85.9	10	83.3	8	80.0	
부모의 병상생활	예	7	6.1	8	3.9	–	–	3	30.0	(df=3) 13.730**
	아니오	108	93.9	195	96.1	12	100.0	7	70.0	
부모의 사망	예	13	11.3	7	3.4	1	8.3	2	20.0	(df=3) 10.122*
	아니오	102	88.7	196	96.6	11	91.7	8	80.0	
양육자 학대	예	17	14.8	22	10.8	1	8.3	3	30.0	(df=3) 4.004
	아니오	98	85.2	181	89.2	11	91.7	7	70.0	

*p<.05, **p<.01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부정적 인생사건이 소년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부정적 인생사건이 실재 범죄나 비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위해서는 부정적 인생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시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 부정적 인생사건 및 비행(범죄) 발생 시기

부정적 인생사건과 범죄나 비행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각각의 발생 시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일상생활상 발생한 부정적 인생사건 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행이나 범죄사건의 발생 시기는 여러 비행행위와 범죄사건(경찰조사, 법정에 선 경험) 중에서 가장 일찍 발생한 시기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비행, 학교징계, 경찰조사, 법정에 선 경헌을 한 시기를 비교하여 일반 청소년, 소년 절도범, 그리고 소년 강력범 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표 5-5-30〉와 같다. 첫 비행이나 범죄사건이 발생하기 3년 이전에 일상생활상 인생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 43.8%, 소년 강력범은 57.8%, 그리고 소년 절도범은 63.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첫 번째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이 첫 비행이나 범죄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부터 당해년까지 발생한 경우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 25.0%이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22.3%,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이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이후에 첫 번째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된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생사건이 비행이나 범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5-30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비행, 학교징계, 경찰 조사, 법정에 선 경험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사건 비교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첫 사건 3년 이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35	933	86	214
	%	(43.8)	(57.8)	(63.7)	(56.9)
첫 사건 2년 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4	13	8	25
	%	(5.0)	(8.1)	(5.9)	(6.6)
첫 사건 1년 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5	7	12	24
	%	(6.2)	(4.3)	(8.9)	(6.4)
첫 사건 당해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11	16	10	37
	%	(13.8)	(9.9)	(7.4)	(9.8)
첫 사건 이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25	32	19	76
	%	(31.2)	(19.9)	(14.1)	(20.2)
합계	사례수	80	161	135	376
	%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16.254*			

*p<.05

다음으로 비행을 제외하고 첫 번째 학교징계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2년 전부터 발생 당해년까지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 33.4%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 강력범이나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각각 19.0%와 16.8%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첫 학교징계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3년 이전에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 61.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년 강력범이나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각각 71.5%와 74.4%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인생사건 이전에 이미 학교징계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정 내 인생사건이 학교징계나 범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31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학교징계, 경찰 조사, 법정에 선 경험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사건 비교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첫 사건 3년 이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11	98	93	202
	%	(61.1)	(71.5)	(74.4)	(72.1)
첫 사건 2년 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	10	6	16
	%	–	(7.3)	(4.8)	(5.7)
첫 사건 1년 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3	9	9	21
	%	(16.7)	(6.6)	(7.2)	(7.5)
첫 사건 당해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3	7	6	16
	%	(16.7)	(5.1)	(4.8)	(5.7)
첫 사건 이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1	13	11	25
	%	(5.6)	(9.5)	(8.8)	(8.9)
합계	사례수	18	137	125	280
	%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8.732			

일상생활상 발생하는 부정적 인생사건과 비행이나 범죄 간 관계를 살펴보면 〈표 5-5-32〉와 같다. 첫 번째 비행이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2년 전부터 발생 당해년까지 일상생활사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45.1%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 강력범이나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각각 39.5%와 43.3%로 집단 간에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첫 비행이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3년 이전에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 14.6%로 나타났다. 소년 강력범이나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각각 17.1%와 11.3%로 나타났다. 첫 번째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 40.2%였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43.4%, 그리고 소년 절도범은 45.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이나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일반 청소년이나 소년 강력범, 그리고 소년 절도범 모두 첫 번째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정적 인생사건이 원인으로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부정적 인생사건이 첫 번째 비행이나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라 비행이나 범죄를 지속 혹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표 5-5-32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비행, 학교징계, 경찰조사, 법정에 선 경험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사건 비교

구분		일반 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합계
첫 사건 3년 이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12	13	6	31
	%	(14.6)	(17.1)	(11.3)	(14.7)
첫 사건 2년 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7	5	4	16
	%	(8.5)	(6.6)	(7.5)	(7.6)
첫 사건 1년 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13	7	7	27
	%	(15.9)	(9.2)	(13.2)	(12.8)
첫 사건 당해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17	18	12	47
	%	(20.7)	(23.7)	(22.6)	(22.3)
첫 사건 이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33	33	24	90
	%	(40.2)	(43.4)	(45.3)	(42.7)
합계	사례수	82	76	53	211
	%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2.647			

일상생활상 발생하는 부정적 인생사건과 학교징계나 범죄 간 관계를 살펴보면 〈표 5-5-33〉와 같다. 첫 비행이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3년 이전에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 33.3%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27.9%, 소년 절도범은 20.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첫 번째 비행이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2년 전부터 발생 당해년까지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61.9%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64.7%, 그리고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65.2%로 집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 학교징계나 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이 학교징계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5-33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학교징계, 경찰조사, 법정에 선 경험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사건 비교

구분		일반청소년	소년강력범	소년절도범	합계
첫 사건 3년 이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7	19	10	36
	%	(33.3)	(27.9)	(20.4)	(26.1)
첫 사건 2년 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5	10	8	23
	%	(23.8)	(14.7)	(16.3)	(16.7)
첫 사건 1년 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2	12	11	25
	%	(9.5)	(17.6)	(22.4)	(18.1)
첫 사건 당해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6	22	13	41
	%	(28.6)	(32.4)	(26.5)	(29.7)
첫 사건 이후에 인생사건 발생	사례수	1	5	7	13
	%	(4.8)	(7.4)	(14.3)	(9.4)
합계	사례수	21	68	49	138
	%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		5.652			

3.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범죄 경력과 범행 내용 비교

가.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범죄 경력 비교[16)]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범죄경력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5-34〉와 같다. 전체 현재의 범죄 유형 중에서 현재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 폭행, 그리고 강도를 저지른 경우에 현재 사건이 강력범죄인 비율은 .026(지지도)이다. 그리고 이전에 도로교통법, 폭행, 그리고 강도를 저지른 경우 중에서

16) 앞서 소년 절도범 집단은 과거 경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 절도범만으로 제한하였지만 범죄경력 관련 연관성 분석에서는 소년 절도범의 과거 범죄경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으로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사건이 강력범죄인 비율은 1.000(신뢰도)로 나타났다.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현재 사건이 강력범죄인 경우에 비해, 이전의 범죄가 도로교통법, 폭행, 그리고 강도를 저지르고 현재 사건이 강력범죄인 비율은 2.051(향상도)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범죄 유형이 강력범죄이면서 향상도가 1.000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 사건 이전에 이미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범죄 유형이 비강력범죄인 경우에는 이전의 범죄가 절도, 방화, 도로교통법, 그리고 폭행과 같은 범죄인 경우에 향상도가 1.0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현재의 범죄 유형이 강력범죄이면서, 이전의 범죄가 도로교통법, 폭행, 그리고 절도인 경우에는 향상도가 1.00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전에 도로교통법, 폭행, 그리고 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사건이 강력범죄인 경우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이 강력범죄인 경우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이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이 절도인 경우에는 대체로 이전의 범죄 사건이 강력범죄보다는 비강력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34 소년 절도범과 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

범죄 경력		범죄 유형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도로교통법, 폭행, 강도	⇒	강력범죄	.026	1.000	2.051
도로교통법, 강도	⇒	강력범죄	.037	.923	1.893
폭행, 강간	⇒	강력범죄	.014	.900	1.846
도로교통법, 강간	⇒	강력범죄	.012	.889	1.823
절도, 폭행, 강도	⇒	강력범죄	.031	.870	1.783
폭행, 강도	⇒	강력범죄	.040	.867	1.777
절도, 강간	⇒	강력범죄	.019	.857	1.758
절도, 방화	⇒	비강력범죄	.014	.900	1.756
절도, 강도	⇒	강력범죄	.050	.842	1.727
절도, 폭행	⇒	비강력범죄	.106	.613	1.196
절도, 도로교통법	⇒	비강력범죄	.140	.608	1.187
도로교통법, 폭행	⇒	비강력범죄	.061	.520	1.015
도로교통법, 폭행	⇒	강력범죄	.056	.480	.984

범죄 경력		범죄 유형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절도, 도로교통법	⇒	강력범죄	.090	.392	.804
절도, 폭행	⇒	강력범죄	.067	.387	.795

위의 결과를 통해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과 관련된 이전의 범죄 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림 5-5-1〉과 같다. 우선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이 비강력범죄인 경우를 살펴보면, 이전의 범죄가 절도와 방화인 경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유형이 도로교통법이나 폭행의 경우에도 비강력범죄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도로교통법, 폭행, 그리고 절도와 같은 이전의 범죄 사건 유형은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이 강력범죄일 경우에는 연관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이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폭행, 그리고 절도와의 연관성이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더불어 연관성이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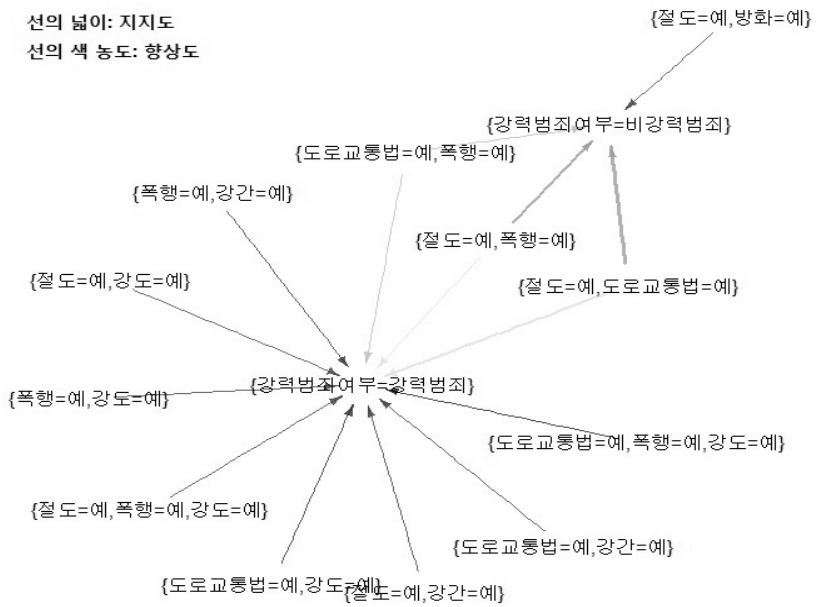


그림 5-5-1 소년 절도범과 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비교

나.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범행 내용 비교

소년 절도범과 소년 강력범의 범행 내용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5-35〉과 같다. 우선 향상도가 가장 큰 범행 내용과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현재의 범죄 유형 중에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구나 선후배이면서 범행 장소가 개인주거지인 경우에 현재 사건이 강력범죄인 비율은 .104이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구나 선후배이면서 범행 장소가 개인주거지인 경우 중에서 현재 사건이 강력범죄인 비율은 .779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 유형에서 강력범죄인 경우의 비율 중,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구나 선후배이면서 범행 장소가 개인주거지이면서 현재 사건이 강력범죄인 비율은 1.417로 나타났다.

현재의 범죄 유형이 강력 범죄이면서 향상도가 1.000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범행결정시기는 범행직전, 피해자와의 관계는 친구나 선후배,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절도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건 바로 전에 알게 된 사람이고 범행결정 시기는 범행 몇 시간 전인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이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건 바로 전에 알게 된 사람, 범행결정시기가 범행 몇 시간 전인 경우에 향상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절도범죄인 경우에는 범행결정시기가 범행직전인 경우에 향상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35 소년 절도범과 소년 강력범의 범행 내용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

범죄 당시의 상황		범죄 유형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피해자관계=친구나 선후배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강력범죄	.104	.779	1.417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피해자관계=친구나 선후배	⇒	강력범죄	.132	.779	1.416
피해자관계=사건 바로 전에 알게된 사람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비강력범죄	.106	.628	1.396
공범여부=있음 피해자관계=친구나 선후배	⇒	강력범죄	.130	.767	1.395
범행결정시기=범행 몇 시간 전 공범여부=있음 피해자관계=사건 바로 전에 알게 된 사람	⇒	비강력범죄	.124	.606	1.346

범죄 당시의 상황		범죄 유형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범행결정시기=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관계=사건 바로 전에 알게 된 사람	⇒	비강력범죄	.136	.590	1.311
공범여부=있음 피해자관계=사건 바로 전에 알게 된 사람	⇒	비강력범죄	.295	.579	1.287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피해자관계=사건 바로 전에 알게 된 사람	⇒	비강력범죄	.218	.552	1.227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공범여부=없음	⇒	강력범죄	.122	.653	1.186
공범여부=있음 범행장소=야외	⇒	강력범죄	.112	.640	1.164
범행결정시기=범행 몇 시간 전 공범여부=있음	⇒	비강력범죄	.147	.503	1.119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강력범죄	.155	.603	1.096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공범여부=있음	⇒	비강력범죄	.218	.464	1.032
공범여부=있음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비강력범죄	.118	.462	1.026
공범여부=있음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강력범죄	.138	.538	.979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공범여부=있음	⇒	강력범죄	.251	.536	.974
범행결정시기=범행 몇 시간 전 공범여부=있음	⇒	강력범죄	.145	.497	.903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비강력범죄	.102	.397	.882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피해자관계=사건 바로 전에 알게 된 사람	⇒	강력범죄	.177	.448	.814
공범여부=있음 피해자관계=사건 바로 전에 알게 된 사람	⇒	강력범죄	.214	.421	.765

위의 결과에서 살펴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의 범행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5-5-2〉와 같다. 우선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이 강력범죄인 경우를 살펴보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구나 선·후배인 경우에는 범행 장소(개인주거지),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공범여부(있음)과 같이 다른 상황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범행결정시기는 범행직전으로 범행 장소(개인주거지), 공범여부(없음) 등과 같은 상황과 연관되어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

재 사건의 범죄 유형이 절도범죄인 경우에는 범행결정시기가 범행 몇 시간 전으로 공범여부(있음), 피해자관계(사건 바로 전에 알게 된 사람), 범행 장소(개인주거지)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면,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이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나 선·후배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행결정 시기는 범행직전으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나 선·후배에 대한 충동적 범죄로 강력범죄 유형 중에서 강간 사건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절도범죄는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범행을 결정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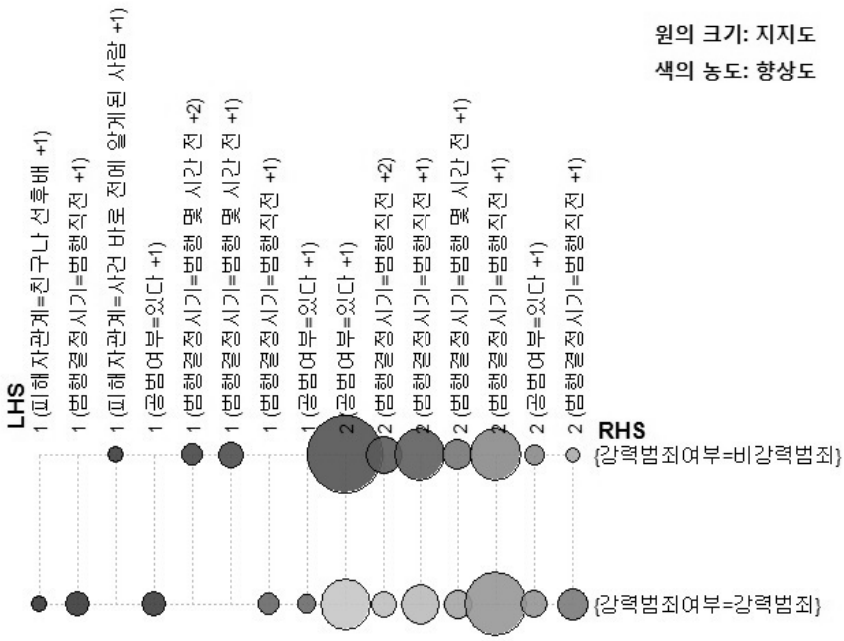


그림 5-5-2 청소년 강력범과 청소년 절도범의 범행 내용 비교

다.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내용 비교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내용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5-36〉와 같다. 우선 향상도가 가장 큰 범죄 당시의 상황과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강력범죄 유형 중에서 범행결정시기가 범행 몇 시간 전이고, 공범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는 동네사람인 경우에 강력범죄 유형이 강도범죄인 비율은 .121이다. 그리고 범행결정시기가 범행 몇 시간 전이고, 공범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는 동네사람인 경우에 강력범죄 유형이 강도 범죄인 비율은 .829로 나타났다. 전체 강력범죄에서 강도범죄의 비율 중, 범행결정시기가 범행 몇 시간 전이고, 공범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는 동네사람인 경우인 사건이 강도범죄인 비율은 2.394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유형 중에서 살인과 방화는 사례수가 적은데 비해 많은 범죄 당시의 상황 항목들의 조합이 나타나고 있어 지지도, 신뢰도, 그리고 향상도가 기준 이상인 조합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5-5-36 소년 절도범과 소년 강력범의 범행 내용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

범죄 당시의 상황		범죄 유형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범행결정시기=범행 몇 시간 전 공범여부=있음 피해자관계=동네사람	⇒	강도	.121	.829	2.394
범행결정시기=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관계=동네사람	⇒	강도	.136	.792	2.285
공범여부=있음 피해자관계=동네사람 범행장소=개인상점	⇒	강도	.129	.766	2.211
피해자관계=동네사람 범행장소=개인상점	⇒	강도	.139	.672	1.941
공범여부=있음 피해자관계=동네사람	⇒	강도	.254	.651	1.880
공범여부=있음 범행장소=개인상전	⇒	강도	.157	.611	1.764
범행결정시기=범행 몇 시간 전 공범여부=있음	⇒	강도	.161	.608	1.755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피해자관계=친구나 선후배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강간	.154	.896	1.484

범죄 당시의 상황		범죄 유형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피해자관계=친구나 선후배	⇒	강간	.211	.881	1.459
피해자관계=동네사람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강도	.143	.500	1.443
피해자관계=친구나 선후배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강간	.211	.855	1.417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공범여부=없음	⇒	강간	.182	.823	1.363
공범여부=있음 피해자관계=친구나 선후배	⇒	강간	.189	.803	1.330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피해자관계=동네사람	⇒	강도	.146	.456	1.315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범행장소=개인주저지	⇒	강간	.339	.766	1.269
공범여부=없음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강간	.150	.764	1.265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공범여부=있음	⇒	강간	.282	.617	1.023
공범여부=있음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강간	.286	.615	1.020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범행장소=개인상점	⇒	강간	.121	.523	.867
범행결정시기=범행직전 피해자관계=동네사람	⇒	강간	.168	.522	.865
피해자관계=동네사람 범행장소=개인주거지	⇒	강간	.132	.462	.766

향상도가 1.000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력범죄유형 중에서 강도는 대체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동네사람이었고, 범행결정 시기는 범행 몇 시간 전이었으며, 범행장소는 개인상점이었고,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강간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구나 선후배인 경우가 많았고, 범행결정시기는 범행직전이었으며, 범행장소는 개인주거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5-5-3〉과 같다. 강력범죄 유형 중에서 강도의 경우에는 범행결정시기(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의 관계(동네사람)가 강간의 범행 내용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도는 범행결정시기가 적어도 범행 몇 시간 전이므로 충동적으로 발생되기 보다는 사전에 범행을 결정한 후에 발생이 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동네사람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되기 보다는 강도 범죄자가 익숙한 지역인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강간은 피해자와의 관계(친구나 선후배)와 범행결정 시기(범행 직전)가 강도의 상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범행결정 시기가 범행 직전으로 주로 충동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구나 선후배로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력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행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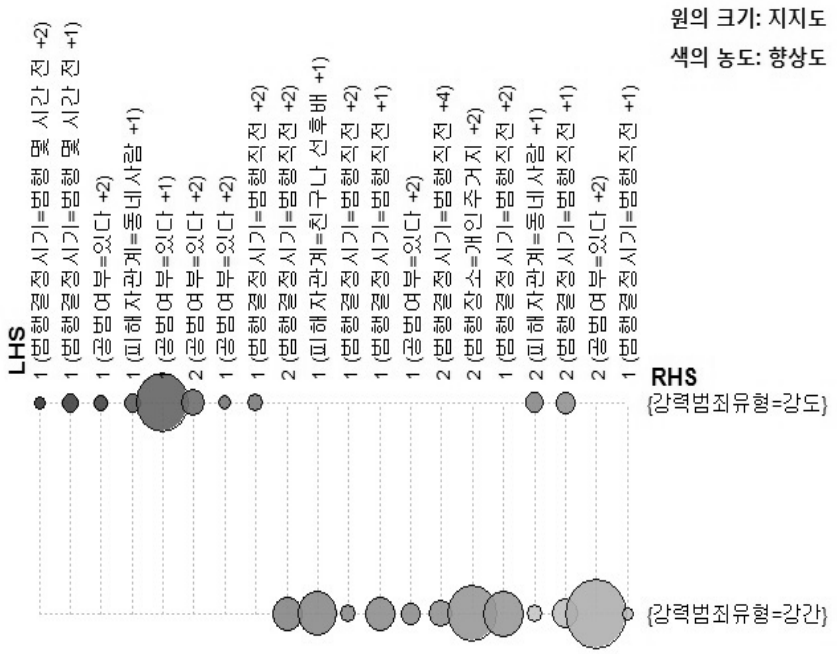


그림 5-5-3 강력범죄 유형별 범행 내용 비교

제6절 청소년 강력범의 사회연결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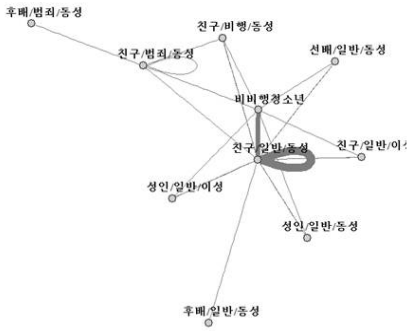
1.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그리고 일반청소년의 사회연결망 특성

일반 청소년, 소년 절도범 그리고 소년 강력범의 사회연결망 특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가 발생되는 원인은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상황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도 있으나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과 친밀한 사람들 간의 관계와 그 사람들 내에서의 관계를 통해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간 사회연결망 분석에 있어서 성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조사대상 가운데 남자 청소년만을 분석하였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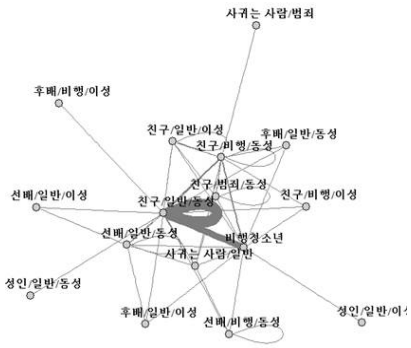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일반 청소년(비행청소년 · 비비행청소년), 소년 절도범, 그리고 소년 강력범을 대상으로 개인중심적 연결망(egocentric network) 분석을 시행하였다. 개인중심적 연결망에 적용된 특성 범주는 관계에 따라 친구, 후배, 선배, 성인, 사귀는 사람, 그리고 기타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행위 특성과 관련된 범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일반 청소년,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비행을 저지른 비행 청소년,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혹은 성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성별로 이성과 동성으로 나누어 범주를 정하였다. 따라서 최대 연결망의 범주는 29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연결망의 시작인 조사응답자는 일반 청소년(비행청소년 · 비비행청소년), 소년 절도범, 그리고 소년 강력범으로 범주를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범주를 통해 사회연결망을 살펴보면 〈그림 5-6-1〉과 같다[18].

17) <표 5-1-1>에서 나타나듯이 소년강력범과 소년절도범, 일반청소년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달랐다. 그 가운데 성별 비율의 차이로 인한 성별 효과가 사회연결망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18) 사회연결망의 그래프를 단순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연결빈도가 1%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비비행 청소년 연결망>



<비행 청소년 연결망>



<소년 비강력범 연결망>



<소년 강력범 연결망>

그림 5-6-1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의 사회연결망

우선 일반 청소년 연결망을 살펴보면, 비비행 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일반 동성 친구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반 동성 친구들 간에서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배나 후배와의 관계는 비비행 청소년에 비해 비행 청소년인 경우에 더욱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비행 청소년에 비해 비행을 저지른 사람과는 상대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대체로 동성과 관계가 있었다.

소년 절도범의 연결망을 살펴보면, 세 범주의 사람들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었다. 가장 두드러지게 관계를 보인 범주의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이다. 그리고 동일한 범주 내의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관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행을 저지른 동성 친구이다. 이들의 경우에도 주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끼리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반 동성 친구와도 많은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소년 절도범의 연결망에서 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세 범주들은 같은 범주 내에 있는 다른 사람과 또 다시 관련이 되어 있지만, 다른 범주에 있는 사람과는 그리 큰 관계가 없었다.

다음으로 소년 강력범의 연결망을 살펴보면, 소년 절도범과 유사한 형태로 주로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 비행을 저지른 동성 친구, 그리고 일반 동성 친구와 매우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세 범주들 간에는 그리 많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 청소년, 소년 절도범, 그리고 소년 강력범에 대한 사회연결망의 분석 결과는 〈표 5-6-1〉과 같다. 우선 집단별로 효과성을 비교하면, 비행 청소년은 3.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비비행 청소년이 2.97, 소년 강력범이 2.66, 소년 절도범이 2.55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비행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일수록 응답자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년 절도범이나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응답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에 대해서는 소년 절도범과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 각각 .90과 .92로 비비행 청소년(.87)이나 비행 청소년(.8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소년 절도범이나 소년 강력범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간에는 서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강도를 비교해 보면, 비비행 청소년인 경우에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비행 청소년(3.38), 소년 강력범(3.17), 소년 절도범(2.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1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의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집단 유형	효과성(Effsize)	밀도	강도[19]
비비행 청소년	2.97	.87	3.41
비행 청소년	3.16	.85	3.38
소년 절도범	2.55	.90	2.92
소년 강력범	2.66	.92	3.17

비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 소년 절도범, 그리고 소년 강력범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소년 절도범과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간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도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표 5-6-2〉에서와 같이 비비행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과 알게 된 계기는 주로 학교(83.9%와 80.8%)로 나타나고 있고 소년 절도범이나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동네에서 알게 되었거나 친구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학교에서 계속 볼 수 있는 사람이므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소년 강력범이나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면서 지낸 친구들이므로 밀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자주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6-2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과 알게 된 계기(중복응답)

구분		비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	소년 절도범	소년 강력범	합계
학교에서	사례수	983	1,003	495	653	3,134
	%	(83.9)	(80.8)	(46.7)	(48.6)	(65.1)
동네에서	사례수	67	103	279	401	850
	%	(5.7)	(8.3)	(26.3)	(29.8)	(17.7)
친구소개로	사례수	34	38	237	228	537
	%	(2.9)	(3.1)	(224)	(17.0)	(11.2)

19) 연결망의 강도는 한 달 평균 만나는 정도로 산출하였다.

구분		비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	소년 절도범	소년 강력범	합계
일하면서	사례수	–	2	19	19	40
	%	–	(.2)	(1.8)	(1.4)	(.8)
학원에서	사례수	67	57	7	8	139
	%	(5.7)	(4.6)	(.7)	(.6)	(2.9)
종교시설	사례수	8	20	–	–	28
	%	(.7)	(1.6)	–	–	(.6)
기타	사례수	12	18	22	35	87
	%	(1.0)	(1.5)	(2.1)	(2.6)	(1.8)
합계	사례수	1,171	1,241	1,059	1,344	4,815
	%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으로는 소년범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은 서로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관계가 높지 않아서일 수 있다. 친구들과의 유대관계가 높다면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년강력범의 동기적 차원의 특성 가운데 사회적 유대 수준을 살펴본 〈표 5-3-3〉에서 나타나듯이 평소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거나 고민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등의 친구와의 애착 수준이 비비행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행청소년, 소년강력범, 소년절도범의 순으로 소년범 집단에서 친구와의 유대정도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즉, 자신과 비슷한 경험과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는 하지만 그 친구들과 강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는 형태로 굳이 잦은 만남을 가지려고 하지 않은 결과로도 보인다.

비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 소년 강력범, 그리고 소년 절도범에 대해 평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과 알게 된 기간을 살펴보면 〈표 5-6-3〉와 같다. 비비행 청소년의 경우에는 알게 된 기간이 2.83년이고, 비행 청소년의 경우에는 3.23년이었다. 이에 비해 소년 강력범(4.55년)과 소년 절도범(3.96년)의 경우에는 비비행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에 비해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5-6-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

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주로 학교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소년 강력범이나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동네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오랫동안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5-6-3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과 알게 된 기간

(단위: 년)

구분	사례수	평균	F 값
비비행 청소년	303	2.83	31.046***
비행 청소년	567	3.23	
소년 절도범	329	3.96	
소년 강력범	538	4.55	

***p<.001

면접대상자 〈사례 강도1〉과 〈사례 방화1〉에서 나타나듯이 친한 친구가 동네 친구였으며 특히, 〈사례 방화1〉은 연결망분석 결과에서처럼 동네 친구로 몰려다니면서 서로 아는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강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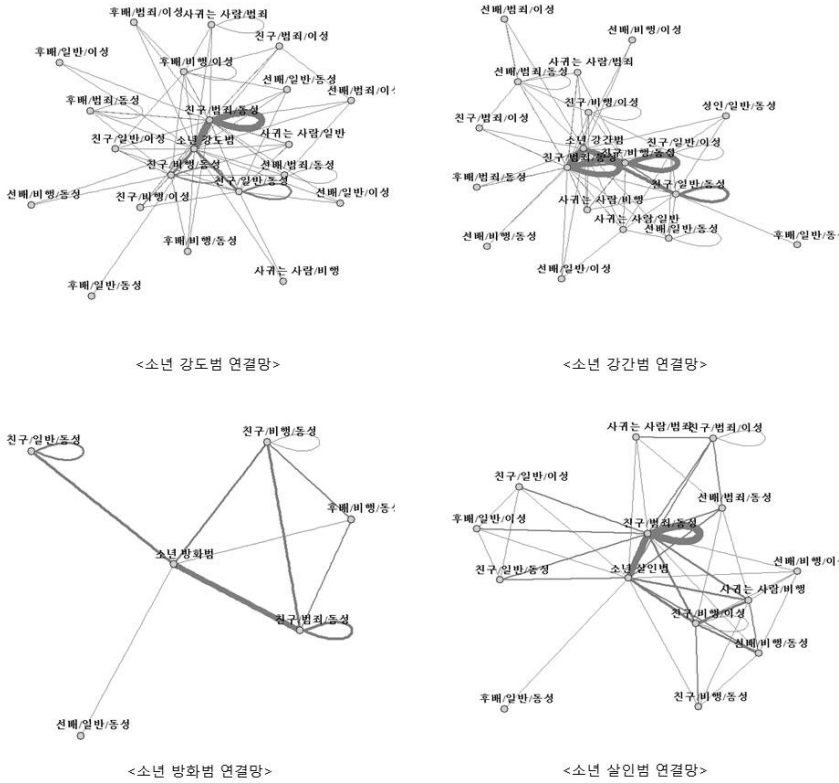
동네 친군데 중학교 1학년 때 같이 어울려 놀고 사고 치던 친군데. 고민도 다 말해도 되고 막 힘들면 도와주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안 만난답니다. 만나지는 말고 연락만 하자고 하는데 .... 여자친구한테 그랬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옳은 거 같습니다. 저도 그럴려고 합니다.

〈사례 방화1〉

특별히 친한 애 없고. 다 같이 놀아서.... 그냥 동네서 놀다가 ..초등학교 같이 나온 애들. 걔네랑 놀다가 중학교 가서는 또 형들하고 놀고 가면 그때 다른 애들 나와 있으면 또 친구트고 그래서.

2. 강력범죄 유형별 사회연결망 특성

강력범죄 유형별로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5-6-2〉와 같다.



<소년 강도범 연결망> <소년 강간범 연결망>

<소년 방화범 연결망> <소년 살인범 연결망>

그림 5-6-2 강력범죄 유형별 사회연결망

즉, 청소년 강도범의 연결망을 살펴보면,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비행을 저지른 동성 친구, 그리고 일반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세 범주 내에 있는 다른 사람과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범주의 사람과는 그리 큰 관계가 있지 않았다. 소년 강간범의 연결망에 대해서는 소년 강도범의 연결망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 비행

을 저지른 동성 친구, 그리고 일반 동성 친구와 가장 관계가 많았다. 또한 이 세 범주 내에 있는 다른 사람과 서로 관계가 있었으나, 다른 범주의 사람과는 큰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소년 강도범의 연결망에 비해 비행을 저지른 동성 친구나 일반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방화범의 연결망은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나 일반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비행을 저지른 동성 친구로 나타나고 있다. 소년 방화범의 연결망은 소년 강도범이나 소년 강간범의 연결망과는 다르게 다른 범주의 사람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년 살인범의 연결망은 주로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와 가장 많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력범죄 유형별 사회연결망의 분석 결과는 〈표 5-6-4〉과 같다. 우선 효과성은 소년 살인범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소년 강간범(2.73), 그리고 소년 강도범(2.56)과 소년 방화범(2.34)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소년 살인범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응답자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년 강도범의 경우에는 응답자 자신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와 관련해서는 소년 강간범의 밀도(.92)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년 강간범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른 사람들 간에는 서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도에 대해서는 소년 살인범의 경우에 4.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소년 방화범의 경우에는 2.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 유형별로 한 달 동안 만나는 정도를 통해 살펴본 강도의 수준이 살인범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 5-6-4 강력범죄 유형별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집단 유형	효과성(Effsize)	밀도	강도
소년 강도범	2.56	.91	2.90
소년 강간범	2.73	.92	3.29
소년 방화범	2.34	.89	2.57
소년 살인범	3.26	.87	4.29

제7절 요약 및 함의

5장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다양한 차원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청소년강력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다. 소년 강력범은 남자가 대부분이었고 양육자는 '친부모'인 경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가정 형편에 있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간 못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한 달 용돈 수준에 있어서는 '한 달 용돈이 없다'는 응답이 25.6%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소년 강력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절도범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청소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친부모에 의해 길러진 비율이 일반청소년(94.4%)에 비해 소년 강력범은 64.8%로 적었고 부모님의 학력도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대졸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아 소년 강력범 집단의 부모님 학력이 일반청소년 집단의 부모님 학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형편의 경우 일반청소년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잘사는 편'이었고 한 달 용돈의 경우도 '한 달 용돈 없다'는 응답 비율이 일반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이처럼 소년 강력범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발생 및 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을 크게 범행 내용과 범행 후 행동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범행 내용 관련 특성이다. ①범행 당시 연령을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의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15.9세였고 소년 절도범은 15.7세로 소년 강력범이 절도범에 비해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의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범행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가장 많았고 이는 소년 절도범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소년 강력범의 연령별로 범행 시간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새벽에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범행시간이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③소년 강

력범의 범행 발생장소를 보면 '개인주거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야외', '유흥 및 위락업소' 등의 순이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야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강간과 방화, 살인은 '개인 주거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④소년 강력범의 공범의 유무 및 공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행을 혼자 저지르기 보다는 동성친구와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절도범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앞서 살펴본 공식통계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단독범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⑤소년 강력범의 범행 결정 시기는 '범행 직전'이라는 응답이 절도범에 비해서도 높아 소년 강력범은 절도범에 비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범행 바로 직전에 행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범행을 결심하는 시기가 빨라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계획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⑥범행의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강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미리 범행 대상을 선정하거나 범행에 쓰일 도구를 미리 준비하거나 범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생각해두거나 도주하는 방법을 미리 짜놓거나 전체적인 예행연습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⑦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결과, 강도는 '유흥비나 술값 마련', 강간은 '성적 충동이나 흥분', 방화와 살인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⑧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전체의 14.2%였고 그 가운데 소년강력범이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13.6%였으며 흉기의 종류는 '칼'이나 '몽둥이나 둔기'가 대부분이었다. ⑨범행대상자와 소년범간의 연령 차이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은 자신보다 어린 경우가 더 많았고 소년 절도범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더 많았다.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나 후배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⑩범행 당시 체포 및 처벌의 인지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강력범과 절도범을 비교해보면 청소년 강력범의 경우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경찰에 체포될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발생 및 양상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으로 범

행 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행 후 현장에서 바로 도망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소년 절도범과 차이가 없었다.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현장에서 바로 도망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형량이나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은 소년 절도범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나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강력범은 경찰 조사와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행동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동기적 요인의 특징이다. ①소년 강력범의 경우 절도범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당장 즐겁고 재미있는 일부터 하고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하는 등의 낮은 자아통제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자아통제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사회적 유대 수준을 살펴보면 '부모애착', '부모감독', '친구애착' 모두 소년 절도범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비행청소년이나 비비행청소년인 일반청소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이는 소년범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교도소 수용 강력범과 비수용 강력범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감독의 수준이 비수용 강력범이 높게 나타났다. 즉,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교도소 수용 강력범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때 부모 감독 요인이 범행의 심각성 수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비행친구 여부 및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경우 소년 강력범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행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역시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비행친구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간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어서 비행친구를 사귐으로 인해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갖게 된 것인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높은 아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비행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인지는 판단 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비행친구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간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예상 할 수는 있다. ④주변사람들로부터 문제아나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소년 강력범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년 강력범 집단 내에서도 교도소 수용 강력범이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비공식적 낙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소년강력범의 경우 일상적 긴장 가운데 자신이 처한 여건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일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목표 실패 인지 수준과 부모와의 갈등상황으로 인한 긴장수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긴장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 동기적 차원의 이론적 변수를 소년강력범과 비강력범, 일반청소년(비행청소년 · 비비행청소년)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행의 경험이 없는 비비행청소년의 동기적 차원의 모든 변수가 다 낮은 것은 아니었다. 가령, 자아통제력의 경우 일반청소년이 소년범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일반청소년 가운데 비행청소년이 비비행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적 긴장 가운데 학업긴장은 일반청소년이 높은 편이었고 친구와의 긴장 요인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범죄학적 논의에서 제시하는 동기적 차원의 변수의 영향이 청소년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일상적 긴장을 살펴본 결과, '부모 긴장'과 '목표 실패'에 대한 긴장수준은 방화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높았다.

네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기회 및 상황 요인에 대한 특징으로 일상생활과 범행당시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일상생활이다. ①소년 강력범의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평일과 주말 평균 시간이 각 12.21시간, 13.87시간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소년 강력범의 감독부재 시간이 긴 것으로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소년 강력범의 경우 늦은 시간에 동성 동네친구들과 피씨방이나 술집, 유흥지역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평소 위험적 생활양식은 소년 강력범이 절도범과 비행청소년, 비비행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력범 가운데에서도 교도소 수용 강력범집단이 비수용 강력범에 비해 높았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평소 위험적 생활양식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③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징을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술 취한 사람이나 비행청소년이 많은 등의 사회적 무질서 정도가 높고 후미진 곳이나 유흥업소가 많은 등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은 장소에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죄 유형별로 평소 자주

가는 장소적 특징을 살펴보면 강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지역에, 살인은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지역에 자주 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죄 기회 및 상황 요인에 대한 특징의 두 번째로 범행 당시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범행 장소의 지역적 특성 가운데 평소 자주 가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정도가 소년 강력범이 절도범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살인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범행 장소가 평소 자주 가는 장소로 범행 장소와의 친근한 정도가 가장 높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경우 가출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은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았다(절도범:40.1%). 하지만 강도의 경우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가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③범행 당시 음주 상태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술에 취한 수준은 다르지만 동성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응답이 절도범에 비해 높았고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더 높았다. ④범행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한 경우도 10% 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협박을 하고 때린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⑤소년 강력범죄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청소년 강력범의 경우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범죄에 취약한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먼저, 범죄경력에 따른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분,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와,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 등과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이다. ①비행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소년 절도범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 경험으로 인한 부모님,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 학교선생님, 동네 사람들과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년범과 일반청소년 간 비행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 가운데 부모님, 학교선생님, 동네 사람들과의 부정적 관계의 경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비행이 알려져서 부

모님, 학교 선생님, 동네 사람들과 부정적 관계로 변화될수록 소년범에 속할 가능성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학교 징계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님, 학교 반 친구나 선·후배,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과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일반청소년과 소년범 간 학교징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과 부정적 관계로 변할수록 소년범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 간 학교징계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③경찰 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으로 인해 부모님과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경찰조사나 법정에 선 경험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과정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으로 범행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율과 부정적 인생사건의 영향이다. ①소년 강력범의 친구들로부터의 괴롭힘, 남에게 맞거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애인과의 이별 등의 일상생활상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율은 소년 절도범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소년 강력범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학대등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험율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부모사업의 실패나 실직, 부모의 병상생활, 부모의 사망, 양육자 학대와 같은 사건의 경험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②소년 강력범의 부정적 인생사건과 실제 비행 및 범죄 발생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정 내 부정적 사건이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된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고 비행을 제외한 학교징계나 경찰조사, 법정에 선 경험도 마찬 가지였다. 한편, 일생상활 상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우 비행을 제외한 학교징계나 경찰조사와 법정에 선 경험이 2년 이내에 발생한 비율이 소년강력범 집단에서 높기는 했지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비행이나 범죄를 지속 혹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 과정에서 나타난 세 번째 특징으로 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과 범행 내용 관련이다. ①연관성 분석을 통해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범죄경력을 비교한 결과 소년 절도범의 경우에는 이전에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소년 절도범과 같이 절도, 폭행,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른 경험이 있었지만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소년 강력범의 범행내용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행결정시기는 '범행 직전', 피해자와의 관계는 '친구나 선·후배', 공범여부에 있어서는 '공범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강도의 경우는 범행결정시기(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의 관계(동네사람)가 강간의 범행내용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강간의 경우는 범행 결정시기가 범행 직전으로 주로 충동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구나 선후배로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의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개인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통해 소년 강력범의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①소년 강력범의 연결망을 보면 일반청소년에 비해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 비행을 저지른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별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우선 효과성을 비교해보면 비비행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일수록 응답자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년 절도범이나 소년 강력범의 경우에는 응답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간에 서로 잘 알 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밀도의 경우는 소년 강력범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년

절도범, 비비행청소년, 비행청소년의 순이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만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한 강도를 비교해 보면 비비행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행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의 순으로 소년범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이는 정서적인 애착관계가 높지 않아서일 수 있다. 친구들과의 유대가 강하면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평소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거나 고민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등의 친구와의 애착 수준이 비비행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행청소년,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의 순으로 소년범의 친구와의 유대정도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즉, 자신과 비슷한 경험과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는 하지만 그 친구들과 강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는 형태로 굳이 만남을 자주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알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소년범의 경우 동네에서 알게 되었거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알게 된 기간을 살펴보면 소년 강력범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오래 되었으며 이들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는 소년범의 경우 일반청소년과는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비행이나 범죄)을 가진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들만의 집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강력범죄 유형별로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 강도범과 강간범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범죄를 저지른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를 저지른 동성친구, 비행을 저지른 동성친구, 일반 동성 친구 간의 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 방화범의 경우는 강도범이나 강간범과는 달리 다른 범주의 사람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효과성과 밀도, 강도를 중심으로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소년 살인범이 응답자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많았고 소년 강간범은 밀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한 달 평균 만나는 횟수를

통해 측정된 강도는 소년 살인범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평소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장에서는 소년 강력범의 범행 내용과 동기적 차원의 요인, 범죄 기회 및 상황적 요인, 범죄경력, 사회연결망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서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년간의 차이와 공통성도 찾아보았다. 소년 강력범죄는 절도범죄에 비해 범행을 저지른 연령이 높았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기 보다는 범행 직전에 범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발생 양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강력범죄 유형별로도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이나 범행대상자와의 연령 차이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 강력범은 소년 절도범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고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도 높은 편이었다. 한편, 소년 강력범의 범죄 기회 및 상황 요인에 있어서는 부모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 평소 위험적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었으며 범죄 경력과정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소년 강력범의 연결망분석 결과, 다른 집단에 비해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살인이나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에서 자라나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과 같은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지속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을 통제 할 수 없게 되면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비행과 범죄의 경험은 부모님이나 주변사람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늦은 밤까지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무질서한 장소에 몰려다니는 등의 생활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강력범죄는 청소년 개인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제6장
결론

최 수 형

06 결론

범죄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 강력범죄 현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강력범죄에 대한 일관된 개념과 범주가 없어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불가능하고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부족하였으며 제한적인 연구방법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논의에서 부족했던 범죄사회학적 관점의 논의와 관련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다양한 발생 양상과 함께 범죄사회학적 논의에서 제기하는 이론적 변수를 통해 청소년 강력범죄의 동기적 차원의 요인과 범죄 기회 및 상황 요인의 특징, 범죄 경력, 청소년 강력범의 연결망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대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교차분석이나 분산분석 이외에도 연관성 분석이나 사회연결망 분석과 같은 다양한 양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내용과 청소년 강력범의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양적 분석방법과 질적 분석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제한적인 사례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통해 청소년 강력범의 생활과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청소년 강력범죄 내·외적인 차이와 공통성을 찾아보았다. 즉, 비강력범죄인 절도범과 일반청소년(비행청소년 · 비비행청소년)을 비교 집단으로 두어 청소년 강력범죄와의 비교 분석 뿐 아니라 강력범죄 내 범죄유형별이나 연령별 구분 등으로 청소년 강력범죄 내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강력범죄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즉, 청소년 강력범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에서 자라나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과 같은 가정 내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지속적이고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을 통제 할 수 없게 되면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비행과 범죄의 경험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서 이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무질서한 장소에 몰려다니는 등의 생활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다양한 양상과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진행 된 것으로 탐색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강력범죄 유형별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살인과 방화의 경우 강도와 강간에 비해 표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청소년 살인과 청소년 방화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시작으로 강력범죄의 각 유형별 심층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소년 강력범의 비교집단인 소년 절도범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연구결과가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효과 일 수 있다. 물론, 일반청소년을 비행청소년과 비행을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비비행청소년으로 구분해 기초분석을 했고 사회연결망분석에서는 남자청소년만을 분석하여 최소한 성별 효과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이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

변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청소년 강력범과 일반청소년간의 차이에 비해 청소년 강력범과 청소년 절도범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 절도범 집단 내에서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가 포함되어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집단의 영향일 수도 있다. 즉, 강력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처럼 범죄 유형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상습적인 범죄 경력과 같은 질적 개념의 강력범죄로의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청소년 강력범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많은 변수를 포함시킨 본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를 위한 시발점이다. 또한, 일반 비행이나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내용에 있어 심각성을 보이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특징 분석 내용은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성 및 청소년 강력범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청소년 강력범이 직접 적어준 자신들의 장래희망들이다[20]. 어린 나이에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들 역시 일반 청소년들처럼 요리사, 회사원, 사업가, 공무원, 미용사, 제과제빵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을 가진 미래의 자신 모습에 대해 꿈을 꾸고 있다. 즉,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나 통제, 처벌보다는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관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강력범죄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0) Word Cloud는 R의 패키지 중 'wordcloud'라는 패키지로 분석했다.



그림 6-1-1 소년 강력범의 장래 희망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경찰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범죄통계』.

김상원(2007), “아동과 청소년 비행의 원인비교: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 18(2): 325-362.

노성호(2007),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형사정책연구』, 18(4): 243-275.

대검찰청 (2012),『범죄분석』.

박원배 (2009), 강력범죄에 대한 지역경찰의 초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11 (4): 164-194.

박철현(2012), “사회적 무질서, 범죄피해경험, 학교에서의 폭력범죄피해의 두려움: 학교와 이웃의 두려움에 대한 사회적 무질서의 차별적 효과”, 피해자학 연구 20(2):143-166.

박행렬 (2010), 경찰 강력범죄의 수사체계의 개선방안,『한국공안행정학회지』, 39: 51-75.

박형민 (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동원(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형사정책』, 15(2): 335-367.

이성식(199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성식(2001), “청소년 비행에 있어 내적 성향론과 생애과정론의 논쟁에 관한 경험연구”.『형사정책』, 13(2): 243-270.

이순래 · 이경상(2010), “생활긴장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 환경에 대한 위계적 선형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4):5-32.

전영실 (2001), 『청소년성범죄자의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수형(2008),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정에 나타난 비공식적 낙인의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9(3):33-55.

최수형(2009),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성별 차이를 중심으로”,『한국청소년연구』 20(1):339-363.

2. 국외문헌

Adams, M. S.(1996). Labeling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Towards a General Social Learning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149-64.

Adams, M. S., Robertson, C. T., Gray-Ray, P., and Ray, M.C.(2003). Labeling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8:171-86.

Agnew, Robert(2010), “Refection on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91(1):33-38.

Akers, R. L. and C. S. Sellers,(2004).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민수홍 외 역. 2005. 『범죄학 이론』. 나남출판).

Anne, M., Vries, M., Marieke, L.(2011) “Recidivism of Juvenile Homicide Offender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9(4) p483-498.

Barnes, G. M., Hoffman, H., Welte, J., Farrell, M. and Dintcheff, B.(2006).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Deviance on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4): 1084-1104.

Baron, S. W.,(2009). "Differential Coercion, Street Youth, and Violent Crime", *Criminology* 47(1). p239-268.

Bauman, S.,(2002). "Types of juvenile sex offender", *The Prevention Research* 9(4).:11-13.

Beauregard, E., Leclerc, B., (2007). "An Application of the Rational Choice Approach to the Offending Process of Sex Offenders: A Closer Look at the Decision-making", *Sex Abuse,* 19:115-133.

Bernberg, J.G., Krohn, M.D,, Rivera, C.J.(2006). Official Labeling, Criminal Embeddedness, and Subsequent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of Labeling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3(1):67-88.

Chapple, C. L.(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1) : 89-106.

Chesney-Lind, M., Paramore, V. V.,(2001). "Are girls getting more violent?: Exploring robbery trend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7(2):142-166.

Corbitt, William Andrew,(2000), "Violent Crimes Among Juvenile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69. 618-21.

Cornell, D. G., Benedek, E. P. and Benedek, D. M. (1987), "Juvenile Homicide: Prior Adjustment and a Proposed Typolog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83 - 393.

DiCataldo, F., Everett, M., (2008). "Distinguishing Juvenile Homicide From Violent Juvenile Offen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 Comparative Criminology.* 52(2). p158-174.

Dolan, M., Smith, C.,(2001). "Juvenile homicide offenders: 10 years experience of an adolescent forensic psychiatry service",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2(2). 313 - 329.

Dolan, Mairead., McEwan, Troy E., Doley, Rebekah. and Fritzon, Katarina, (2011). "Risk Factors and Risk Assessment in Juvenile Fire-Setting",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8(3).: 378-394.

Ewing, Charles Patrick, Rowley, John C. and Singer, Simon I.,(1987), "Juvenile Homicide: The Need for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Winter87, 5 (1). p3-10.

Fagan, J., Piquero, A. R.,(2007). "Rational Choice and Developmental Influences on Recidivism Among Adolescent Felony Offenders",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4(4).:715-748.

Farrington, David P., Loeber, Rolf,(1999).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Gaynor, J., (2002) Juvenile Firesetter Intervention Handbook, SocioTechnical Research Applications, U.S. Fire Administration.

Gibbs, J. J. and D. Giever.(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12: 231-255.

Gibbs, J. J., D. Giever, and J. S. Martin.(1998), Parental Management and Self-Control: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40-70.

Gibson, C., and Vandiver, Donna M.,(2008), Juvenile Sex Offenders: What the Public Need to Know,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Goodwill, A. M., Stephens, S., Oziel, S., Yapp, J., and Bowes, N.(2012). "Multidimensional latent classification of street robbery offences", *Journal Investigation Psychology* 9:93-109.

Gottfredson, M., and T. Hirschi, (2003). Self-control and Opporutiny. In Contro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Chester L. Britt and Michael R. Gottfredson(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Gottfredson, Michael and Hirschi, Travis.(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Gottfredson, Michael, and Travis Hirschi.(2003). Self-control and Opporutiny. In ontro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Chester L. Britt and Michael R. Gottfredson(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Grasmick, H. G., Tittle, C. R., Burski, R. J. and B. K. Arneklev.(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Hagan, Michael P.,(1997). "An Analysis of Adolescent Perpetrators of Homicide and Attempted Homicide Upon Return to the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1(3).:250-259.

Hawkins, J. D., Herrenkohl, T., Farrington, D.P., Brewer, D., Catalano, R.E. and Harachi, T.W.,(1999). "Chapter 7 A review of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in Farrington, David P., and Loeber, Rolf,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106-146.

Heide, K.M., Solomon, E.P., Sellers, B.G. and Chan, H.,(2011). "Male and Female Juvenile Homicide Offenders: An Empirical Analysis of U.S.Arrests by Offender Age", *Feminist Criminology*. 6(1). 3-31.

Heide, Kathleen M. (1998), Young Killers : the challenge of Juvenile Homicide, Calif : Sage Publications.

Heide, Kathleen M.,(2003). "Youth Homicid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Blueprint for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7(6).:6-36.

Hirschi, Travis(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lif.: Free Press.

Huizinga, D., Jakob-chien, C.,(1999). "Chapter 4 The Contemporaneous co-occurrence of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ing and other

problem behaviors". in Farrington, David P., and Loeber, Rolf,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Ikomi, P. A.,(2010). "Juvenile Violent Felony Referrals and High School Dropouts: Is there a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2(4).: 379-384.

Katz, Jack,(1991). "The Motivation of the Persistent Robber", *Crime and Justi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4:277-306.

Kaufman, Joanne M., Hall, Jeffrey E. and Zagura, Michelle,(2012). "Sex, Race/Ethnicity and Context in School-Associated Student Homicid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2). 2373 - 2390.

Keelan, Colleen M., Fremouw, William J.,(2013). "Child versus peer/adult offenders: A critical review of the juvenile sex offender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13.

Kelly, Katharine D., Totten, Mark,(2002). When Children Kill: a Social-psychological study of Youth Homicide, Toronto: Broad view Press Ltd.

Kleemans, E. R., Soudijn, M.R.J., and Weenink, A.W.(2012) "Organized crime, stuational crime prevention and routine activity theory", *Trendes Organ Crime* 15:87-92.

Kolko, David J., Kazdin, Alan E. and Meyer, Elaine C.,(1985). "Agg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Chlidhood Firesetters: Parent and Child Repor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3):377-385.

Lauikkaka, M. K.,(2011), Juvenile Homicides: A Social Disorganization Perspective.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Lemert, Edwin M.(1951), Social Pathodology. New York: McGraw Hill.

Loeber, R., Farrington, D.P. and Waschbush, D.A.,(1998) "Chapter 2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in Farrington, David P., and Loeber,

Rolf,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Loeber, R., Farrington, D.P.,(2001). "The significance of child delinquency" in edited by Loeber, R., and Farrington, D.P. Child Delinquents:Developlment, intervention, and service needs Sage Publication:1-22.

Loeber, Rolf, Slot, Wim,(2007).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Delinquency: An Update" *Crime and Justice* 35: 503-585.

MacDonald, J. M., Haviland, A., Morral, A. R.,(2009).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and Nonviolent Criminal Activity among Serious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6(4). 553-580.

Mackay, S., Paglia-Boak, A., Henderson, J., Marton, P., and Adlaf, E.,(2009). "Epidemiology of firesetting in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correlate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1): 1282-1290.

Matueda, Ross L.(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cican Journal of Sociology 97: 1577-1611.

McCardle, S., Lambie, I. and Barker-Collo, S.,(2004). Adolescent firesetting: A NZ case-controlled study of risk factors for adolescent firesetters, Psychology Department University of Auckland.

McGloin, Jean M.(2009). Delinquency balance: Revisiting peer influence. Criminology 47:439 - 77.

McNamara, Robert Hartmann, Bucher, Carrie Coward,(2012). Problem Children: Special Populations in Delinquency, North Carolina: Carolina Academic Press.

Miller, J.,(1998). "Up it up: Gender and the accomplishment of street robbery".

Criminology, 1(36). 37-65.

Moffitt, T. E.(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 674-701

Nagin, D. S. and R. Paternoster(1993). Enduring Individual Differences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of Crime. Law and Society Review. 3, 467-496.

Ousey, G. C., Campbell, Augustine, M.,(2001). "Young Guns: Examining alternative explanations of juvenile firearm homicide rates", *Criminology*, 39. 933-969.

Ousey, G. C.,(2000), "Deindustrialization, Female-Headed Families, and Black and White Juvenile Homicide Rates, 1970-1990", *Sociologicalv Inquiry*, 70(4).:391-419.

Piquero, A. R. and J. A. Bouffard(2007), "Something old, something new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Hirschi's redefined self-control," Justice Quarterly 24(1) : 1-27

Piquero, A. R. and J. A. Bouffard.(2007), "Something old, something new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Hirschi's redefined self-control," Justice Quarterly 24(1) : 1-27

Pratt, T.C. and Cullen, F.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64.

Raines, J. C., Weigel Foy, C.,(1994). "Extinguishing the Fires Within: Treating Juvenile Firesetters," *Fsmil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vices* 75(10);1433.

Reingle, J. M., Jennings, W. G. and Maldonado-Molina, M. M.,(201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Trajectories of Violent Delinquency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Early Adolescent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0(3). 261-277.

Reitz, E., Dekovic, M., Meijer. A. M., and Engels, R. M. (2006).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ing, Bes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esting Bidirectional Effec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6(3): 272-295.

Research and Statistics Branch. (1999). Juvenile Robbery arrest in Honolulu an Overview, HI: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Root, C., MacKay, S., Henderson, J., Bove, G. D., and Warling, D.(2008). "The link between maltreatment and juvenile firesetting: Correlates and underlying mechanisms", *Child Abuse & Neglect* 32:161 - 176.

Sampson, R. J. and J. H. Laub(1993), Crime in the Making :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Sampson, R. J.,(1987). "Urban Black Violence: The Effect of male Joblessness and Family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2):348-382.

Seto, M.C. , Lalumiere, M. L., (2010). "What Is So Special About Male Adolescent Sexual Offending? A Review and Test of Explanations Through Meta-Analysi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36(4). : 526-575.

Sheley, Joseph F., Wright, James D.,(1993). "Motivation for Gun Possession and Carrying Amo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1: 375-388.

Shumaker, David M., Mckee, G. R., (2001). "Characteristics of Homicidal and Violent Juvenile", *Violence and Victims* 16(4).:401-409.

Shumaker, David M., Prinz, Ronald J.,(2000). "Children Who Murder: A Review". *Clinical Child & Family Psychology Review.* 3(2).:97-115.

Smith, Douglas A. and R. Brame. (1994). On the Initiation and Continuation of Delinquency. Criminology 32(4): 607-629.

Smith, J.,(2003). The nature of personal robbery(Report no.254). London, UK: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Snyder, H. N.,(1999).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an assessment of the exent of and trends in officially recognized serious criminal behavior in a delinquent population" in Farrington, David P., and Loeber, Rolf,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428-444.

Sommers, I., Baskin, D. R.,(1993). "The Situational Context of violent female offender", *Journal of Research on Crime and Delinquency,* 30(2). 136-162.

Stadolnik, R. F.,(2000). Drawn to the flam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Juvenile Firesetting Behavior.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Steffensmeier, D., Haynie, D. L.,(2000). "The Structural Sources of Urban Female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A Macrosocial Gender-Disaggregated Analysis of Adult and Juvenile Homicide Offending Rates", *Homicide Studies.* 4 (2). p107-134.

Sutherland, Edwin H. and Cressey, Donald R.(1974). Criminology. Lippincott.

Tolan, P. H., and Gorman-Smith, D.,(1999). " Chapter5 Development of serious and violent offending careers", in Farrington, David P., and Loeber, Rolf,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68-85.

van der Put, C. E., van Vugt, Eveline S., Stams, Geert Jan J.M., Dekovic, M. and van der Laan, P. H.,(2012).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and Impact of Risk Factors for General Recidivism Between Diff

erent Types of Juveniles Who Have Committed Sexual Offenses (JSOs) and

Juveniles Who Have Committed Nonsexual Offenses (NSOs)". *Sex Abuse* 25(1).: 41-68.

Vries, A. M., Liem, M.,(2011), "Recidivism of Juvenile Homicide Offender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9(4). 483 - 498.

Wanklyn, Sonya G., Ward, Ashley K., Cormier, Nicole S., Day, David M. and Newman, Jennifer E.,(2012). "Can We Distinguish Juvenile Violent Sex Offenders, Violent Non-sex Offenders, and Versatile Violent Sex Offenders Based on Childhood Risk Fact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1). 2128 - 2143.

Worling, J. R., (2001). "Personality-Based Typology of Adolescent Male Sexual Offenders: Differences in Recidivism Rates, Victim-Selection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Victimization Historie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3(3).: 149-166,

website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사이트(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http://crimestats.or.kr/hpweb/main/index.k2?cmd=main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13, FBI Arrest Statistics: 1994-2010 from http://ojjdp.gov/ojstatbb/ezaucr/asp/ucr_display.asp

Putnam, C. T. and Kirkpatrick, J. T.(2005). "Juvenile fire setting : a research overview"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https://www.ncjrs.gov/pdffiles1/ojjdp/207606.pdf.

U. S. Fire Administration. (1998). "Technical Report Series, Special Report: Arson and Juveniles: Responding to the Violence", USFA-TR-095, January, http://www.usfa.fema.gov/downloads/pdf/publications/tr-095.pdf.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Center for Sex Offender Management. (2007). Female Sex Offender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csom.org/pubs/female_sex_offenders_brief.pdf.

Abstract

A study on Juvenile felony crime

Choi Soohyeong* · Park Hyeonsoo**

Juvenile criminal offenses have long been a significant societal problem in modern society. In order to take affirmative steps toward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root causes and the reasons underlying the problem, rather than accusing and imposing punishment.

To prevent the youth from committing crimes, actively generating theories and examining, developing theoretical explanations of juvenile delinquency is crucial. However, the inquiry on juvenile delinquency has not been extensively studied either in quantity or quali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felony crimes such as homicide, robbery, rape and arson.

In order to capture the blueprints of juvenile delinquency, the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 crimes which have varied according to social changes over time and places must be followed.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h. D. in Sociology

For this purpose, we must conduct an research based on experiences utilizing various approaches and methods toward the juvenile felony crimes. The purpose of this inquiry is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juvenile felony and the juvenile felony offenders in Korea by not only examining each type of juvenile felony crimes but also tak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into account, coupled with the felony offender's life experience, attitude towards life, bonds with close people around the juvenile felony offenders such as family.

The way that the prior researchers established in this field of study was neither taking intensive efforts to shape the scientific study of juvenile delinquency nor examining every type of various approaches, while as it is hard to explai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juvenile felony crimes in general relying on limited methods. Accord,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describe, explain, and respond to juvenile felony offenses supplementing the criminal sociological approach which have not fully been inquired so far.

In detail, this study will not only examine the basic characteristics as to the reasons why the juvenile felony offenses are committed, but also address the issue of why the felons resort to acts of felony at such young age in terms of criminology, the sources of motivation such as crime opportunity or situation, or how the criminal record changes the social bonds of the offender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we tried to gather as many as specimens to raise the accuracy of this research and put my best effort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analysis by optimizing both methods of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as well.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every species of juvenile felony offenses with the ages taken into consideration, coupled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felons who served their sentences and who did not serve.

Also,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method of comparative research design sampling theft offenders, in order to distinguish misdemeanors. Also, the study sampled non-criminal juveniles, in order to figure out the differences between juvenile felony offenders and non-offenders of such crimes.

Throughout this study, the way in which this study defines felony is "a crime that has an element of the use, attempted use, threatened use, or substantial risk of use of physical force against the person, underlying substantial degree of violence arousing serious social harm that causing either physical, proprietary, or emotional damage of a person" and it includes murder, robbery, rape, and arson. In other words, the juvenile felony of this study encompasses murder, robbery, rape and arson committed by young people between the ages of 10 and 18.

The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i) older offenders were more likely to commit felony compared to younger offenders who committed robbery; ii) the offenders were more likely to commit felony impulsively rather than deliberately; iii) the offenders were more likely to commit felony against the younger victims than the theft. The average age of the felons at the time of the felony or the age difference between the felon and the victim was varied according to the species of the felony. Also, the juvenile felons were less likely to exercise self-control on themselves, and more likely having deviant peers or acquaintances that had been in trouble, being susceptible to developing and maintaining delinquent behavior.

In terms of the likely factors are to intensify the probabilities of youths becoming involved in felony offenses, young people who were less disciplined or supervised by their parents, being taken less care of and thus have feelings of being neglected, tend to be hostile towards the

society and more likely to become felony offenders. Also the offenders were likely to have negative experience of social bonds and undergone negative life events.

The juvenile felonies such as murder, rape, or arson are fostered by a wide range of factors, especially by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economic crises such as poverty of the family. The juvenile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a poor family, who went through death, divorce of his parents, or physical abuse, disaffected from parents, are more likely to lose their ability to self-control and get into committing crime that they otherwise would not normally commit.

Juvenile who were disaffected from parents or school, having incidents of committing delinquency and rejected by the family and peers, have a higher risk of serious or persistent offending, in the course of hanging around in public places with the peers having similar experiences where . The problem of delinquency is not a superficial blemish which can be removed as a personal matter with ease. Rather, it is an indication of weakness and maladjustment in the whole social organism.

This study took wide range of factors which foster the consequent perpetuation of delinquency but not have been observed in prior domestic researches into account will shed some light on the problems relating to behaviors such as juvenile homicide, sex offender, robber, arson. Also, the analysis o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 felony offenses, which are distinguished by its substantial severity from other deviate behavior or criminal offenses, will urge local authorities to become actively involved in preventing juvenile felony crime and reintegrating young felony offenders into society with the practical support.

부록

부록 1. 소년범용(교도소 수용자용)

ID	5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청소년 생활 및 의식에 대한 조사

◈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연구, 형사사법제도 연구 등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경험 및 의식에 대해 조사하여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 장 김 일 수

연구수행기관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수형 부연구위원 이애경 인턴연구원

이번에 저지른 행동이

① 절도 ②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③ 강도 ④ 강제추행
⑤ 강간 ⑥ 방화 ⑦ 살인

에 해당하는 경우만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 일반적 사항

A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A2. 현재 몇 살입니까? (**만_____세)**

A3.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① 친부모 ② 친부 나 친모(편부모인 경우)
③ 조부모, 조부나 조모 ④ 계부+친모, 친부+계모
⑤ 친척 ⑥ 시설
⑦ 기타(_____)

A4. 부모님(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의 학력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A4-1. 아버지 (_____)
A4-2. 어머니 (_____)

① 중졸이하 ② 고졸 이하 ③ 대졸 이하 ④ 대학원 이상

A5. 부모님(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A5-1. 아버지 (_____)
A5-2. 어머니 (_____)

①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② 일반 사무직
③ 서비스 및 판매직(가이드, 미용사, 영업, 노점상 등)
④ 기능 및 기술직(제빵원, 컴퓨터 및 전기 수리, 자동차 조립, 버스운전원 등)
⑤ 단순 노무 종사자(공사장인부, 청소원, 경비원등)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직업 없음

A6. 자신의 집안(지금까지 자라온 곳)형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못사는 편이다 ② 약간 못 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사는 편이다

A7. 한 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① 용돈 없다 ② 1-5만원 미만 ③ 5-10만원 미만
④ 10-20만원 미만 ⑤ 20-30만원 미만 ⑥ 30만원 이상

A8. 다음 문항은 평소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재미있는 일을 하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여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일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무리 신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 **위험**이 따른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면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A9. 당신의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_____)

B. 다음은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B1. 이번 사건을 언제 저지르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경

B2.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여러분의 평소 생활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밤에 주로 **집밖**에 많이 있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구들**과 자주 몰려 다니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일상생활과 내 주위를 보면 **나쁜 일**을 할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술** 마시고 많이 취한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B2-1.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부모님(혹은 보호자)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됩니까?

	평일	**주말**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시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_____시간	_____시간

B3.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늦은 밤 집밖에서 주로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 **모두**를 선택해 주세요.

① 동성 학교친구 ② 동성 선배 ③ 동성 후배
④ 동성 동네친구 ⑤ 이성 선배 ⑥ 이성 후배
⑦ 이성 학교친구 ⑧ 이성 동네친구 ⑨ 가족, 친척
⑩ 애인 ⑪ 모르는 동성 ⑫ 모르는 이성
⑬ 기타(_____)

B3-1. 위에 응답한 사람과 주로 함께 있던 장소는?

① 술집이나 노래방이 많은 유흥가 ② 보호자가 없는 집
③ PC방 ④ 인적이 드문 공터나 야산 등
⑤ 우리 집 ⑥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
⑦ 학원 안이나 학원주변 ⑧ 기타(_____)

B4.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여러분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비행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2) **취한** 사람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로등이 없거나 햇빛이 들지 않아 항상 **어두웠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이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7) 가까운 곳에 **공원**이나 **야산**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작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근처에는 CCTV나 **경찰지구대(파출소), 경찰서**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전자오락실, PC방, 노래방, 당구장, 술집, 나이트클럽, 여관, 모텔 등이 많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주변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나 경찰차가 자주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B5. 다음 중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규범이나 법은 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야단을 맞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급한 경우에는 **새치기**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와의 **의리**를 지기키 위해서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발각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B6.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각 문항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기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부모님과 **갈등**이 심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과 나는 **마음**이 잘 맞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대학입시 또는 **취업,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8) 공부가 하기 싫어서 **짜증**났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9)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했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멋있거나 예쁜 **옷**을 입지 못해서 짜증났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지금 받는 **용돈**에 만족 했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여건상 내가 추구하는 **목표**나 일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B7.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부모님과 친구와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나는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셨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길러주신 분)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외출했을 때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외출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9)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외출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외출했을 때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B8.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까?

①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②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았다(☞**C1번으로**).

B8-1.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면 성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최하위권 ② 하위권 ③ 중위권

④ 상위권 ⑤ 최상위권

C. 다음은 여러분의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C1.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경험		경험 정도					최초 경험 시기
	없다	있다	한번도 한적 없다	한두번	가끔씩	자주 하는 편	매일 하는 편	
1) 음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2) 흡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3) 무단결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4) 술집 출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5) 가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6) 심하게 때리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7) 패싸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8) 위협이나 협박하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9) 친구 따돌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0) 돈이나 물건 뺏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1) 불 지르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2)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3) 성인용 음란물이나 포르노물 시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4) 채팅과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5)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6)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더듬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7) 강제적인 성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 **C1-5) 가출의 경험이 ②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하세요. (※문 C1-5)가출 경험이 ①없다면 C2로)**

C1-5-1. 만일 가출의 경험이 있다면 지금까지 몇 번 하였습니까?

(_____)번

C1-5-2. 처음으로 가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부모님의 학대 때문에
②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③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④ 가정형편이 어려워 답답해서
⑤ 학교에 가기 싫어서
⑥ 공부하기 싫어서
⑦ 학교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아서
⑧ 친구나 선배의 권유나 부추김으로
⑨ 기타(직접 쓰시오:_____)

C1-5-3.가출한 후에 주로 어디서 숙식을 해결했습니까?

① 보호자가 안 계시는 친구나 선후배 집
② 찜질방
③ (여관, 모텔 등의) 숙박업소
④ PC방
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나 공사장
⑥ 쉼터
⑦ 독서실 혹은 고시원
⑧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숙식 제공자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C2. 주변에 음주나 흡연, 때리기, 패싸움, 돈이나 물건 뺏기, 훔치기 등 **1번 문항에 있는 행동**을 하는 **친구나 선배가 있었습니까?**

① 동성 - a. 친구: _____, b. 선배:_____명, c. 후배:_____명 □ 없다
② 이성 - a. 친구: _____명, b. 선배:_____명, c. 후배:_____명 □ 없다

C3. **음주나 흡연, 때리기, 패싸움, 돈이나 물건 뺏기, 훔치기 등의 1번 문항에 있는 행동의 경험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그 행위가 **맨 처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행동에 대해,		매우 많이 나빠졌다	조금 나빠졌다	달라진 것이 없다	더 좋아진 편이다	매우 좋아졌다
	안다	모른다					
1) 부모님(길러주신 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반 친구나 선, 후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평소 친한 친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선생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사람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전반적인 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4. **음주나 흡연, 때리기, 패싸움, 돈이나 물건 뺏기, 훔치기 등의 1번 문항에 있는 행동의 경험이 하나라도 있다면,** 위와 같은 행동으로 맨 처음 했을 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5.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 다음과 같은 경험이 없다면 문항 C6으로)

나는	경험 여부		있다면 _번	최초 경험시기
	없다	있다		
1) 내가 한 나쁜 행동으로 학교에서 징계 (근신, 정학 등)나 교내/교외 봉사나 벌점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_____번	___살 때, __월
2) 내가 한 나쁜 행동으로 경찰에 잡힌 적 있다	①	②	_____번	___살 때, __월
3) 내가 한 나쁜 행동으로 법정에 선 경험이 있다	①	②	_____번	___살 때, __월

C5-1.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만일 나쁜 행동을 저질러 **학교 징계나 교내·교외 봉사나 벌점**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V표** 해주세요

① 음주 ② 흡연 ③ 무단결석
④ 술집 출입 ⑤ 가출 ⑥ 심하게 때리기
⑦ 패싸움 ⑧ 위협이나 협박
⑨ 친구 따돌림 ⑩ 돈이나 물건 뺏기 ⑪ 불 지르기
⑫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⑬ 성인용 음란물이나 포르노물 시청
⑭ 채팅과 메일을 통한 음란 대화
⑮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⑯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더듬기
⑰ 강제적인 성관계 ⑱ 기타(구체적으로:_____)
☐ 경험 없다

C5-1-1.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학교 징계나 교내·교외 봉사나 벌점** 경험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학교 징계나 교내·교외 봉사나 벌점** 경험이 **맨 처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행동에 대해, 안다/모른다		매우 많이 나빠졌다	조금 나빠졌다	달라진 것이 없다	더 좋아진 편이다	매우 좋아졌다
	안다	모른다					
1) 부모님(길러주신 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반 친구나 선, 후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평소 친한 친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선생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사람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전반적인 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5-1-2.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학교 징계나 교내·교외 봉사나 벌점** 경험이 **처음이었을 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5-2.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만일 나쁜 행동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경험이 있다면, 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V표 해주세요.

① 절도 ②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③ 폭행 ④ 강도 ⑤ 강제추행 ⑥ 강간
⑦ 방화 ⑧ 살인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 경험 없다

C5-3.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만일 나쁜 행동을 저질러 **법정**에 선 경험이 있다면, 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V표 해주세요.

① 절도 ②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③ 폭행 ④ 강도 ⑤ 강제추행
⑥ 강간 ⑦ 방화
⑧ 살인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 경험 없다

C5-3-1.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만일 나쁜 행동을 저질러 법정에 선 경험이 있다면 그 당시 받은 처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V표 하고 몇 건인지 직접 써 주세요.

① 기소유예(_____건) ② 소년부송치(_____건)
③ 벌금(_____건) ④ 단기소년원(_____건)
⑤ 일반소년원(_____건) ⑥ 징역형(_____건)
☐ 경험 없다

C5-4. **이번 사건이 있기 전** 까지 **나쁜 행동으로 경찰에 붙잡혔거나 법정에 선 경험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이러한 경험이 **맨 처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행동에 대해		매우 많이 나빠졌다	조금 나빠졌다	달라진 것이 없다	더 좋아진 편이다	매우 좋아졌다
	안다	모른다					
1) 부모님(길러주신 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반 친구나 선, 후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평소 친한 친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선생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사람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전반적인 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5-5.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나쁜 행동으로 경찰에 붙잡혔거나 법정에 선 경험이 처음이었을 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6.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경험했었습니까? 경험했었다면 언제입니까?

항목	경험 여부		최초 경험시기
1)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함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2) 남에게 맞거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3) 성추행, 성폭행 관련 피해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4) 부모(길러주신 분)로부터의 폭력 및 학대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5) 부모(길러주신 분)의 이혼 혹은 별거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6) 부모(길러주신 분)의 사업실패 혹은 실직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7) 부모(길러주신 분)의 오랜 병상생활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8) 부모(길러주신 분)의 사망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9) 본인 혹은 이성친구의 원치 않는 임신 혹은 낙태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10) 사귀는 사람과 이별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D. 다음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상황 1. 어떤 가게에서 평소 갖고 싶었지만 사지 못했던 물건이 눈에 띄었다. 상당히 값나가는 물건이었다. 가게는 전체적으로 어두웠고 주위에는 보는 사람들도 없었다.

D1. 여러분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① 절대로 훔치지 않을 것이다 ② 훔칠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훔칠 것 같다
⑤ 확실히 훔칠 것이다

D1-1. 만약 평소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었다면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① 절대로 훔치지 않을 것이다 ② 훔칠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훔칠 것 같다
⑤ 확실히 훔칠 것이다

D1-2. 만약 물건을 훔치러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이나 직원이 있었다면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① 절대로 훔치지 않을 것이다 ② 훔칠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훔칠 것 같다
⑤ 확실히 훔칠 것이다

상황 2. 나는 돈이 필요했다. 길을 걸어가다가 가방을 든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밤이라서 주위는 어두웠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D2. 귀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돈을 빼앗겠습니까?

①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② 빼앗을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빼앗을 것 같다
⑤ 확실히 빼앗을 것이다

D2-1. 만약 돈이 필요 없었다면 돈을 빼앗겠습니까?

①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② 빼앗을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빼앗을 것 같다
⑤ 확실히 빼앗을 것이다

D2-2. 만약 위의 상황에서 가방을 든 어떤 여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다면 돈을 빼앗겠습니까?

①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② 빼앗을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빼앗을 것 같다
⑤ 확실히 빼앗을 것이다

D2-3. 만약 위의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끔씩 다니고 있다면 돈을 빼앗겠습니까?

①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② 빼앗을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빼앗을 것 같다
⑤ 확실히 빼앗을 것이다

D2-4. 만약 위의 상황에서 가방을 든 여자가 심하게 저항을 한다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빼앗겠습니까?

① 절대로 폭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② 폭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③ 반반이다
④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⑤ 확실히 폭력을 사용할 것이다.

상황 3.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늦은 밤 친구들과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골목길에 냄새나는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화가 났다. 그 때 호주머니에 있는 라이터가 만져졌다.

D3. 귀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쓰레기에 불을 지르겠습니까?

① 절대로 불을 지르지 않을 것 같다 ② 불을 지를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불을 지를 것 같다
⑤ 확실히 불을 지를 것 같다

D3-1. 만약 기분 나쁜 일이 없었다면 불을 지르겠습니까?

① 절대로 불을 지르지 않을 것 같다 ② 불을 지를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불을 지를 것 같다
⑤ 확실히 불을 지를 것 같다

D3-2. 만약 위의 상황에서 호주머니에 라이터가 없었다면 불을 지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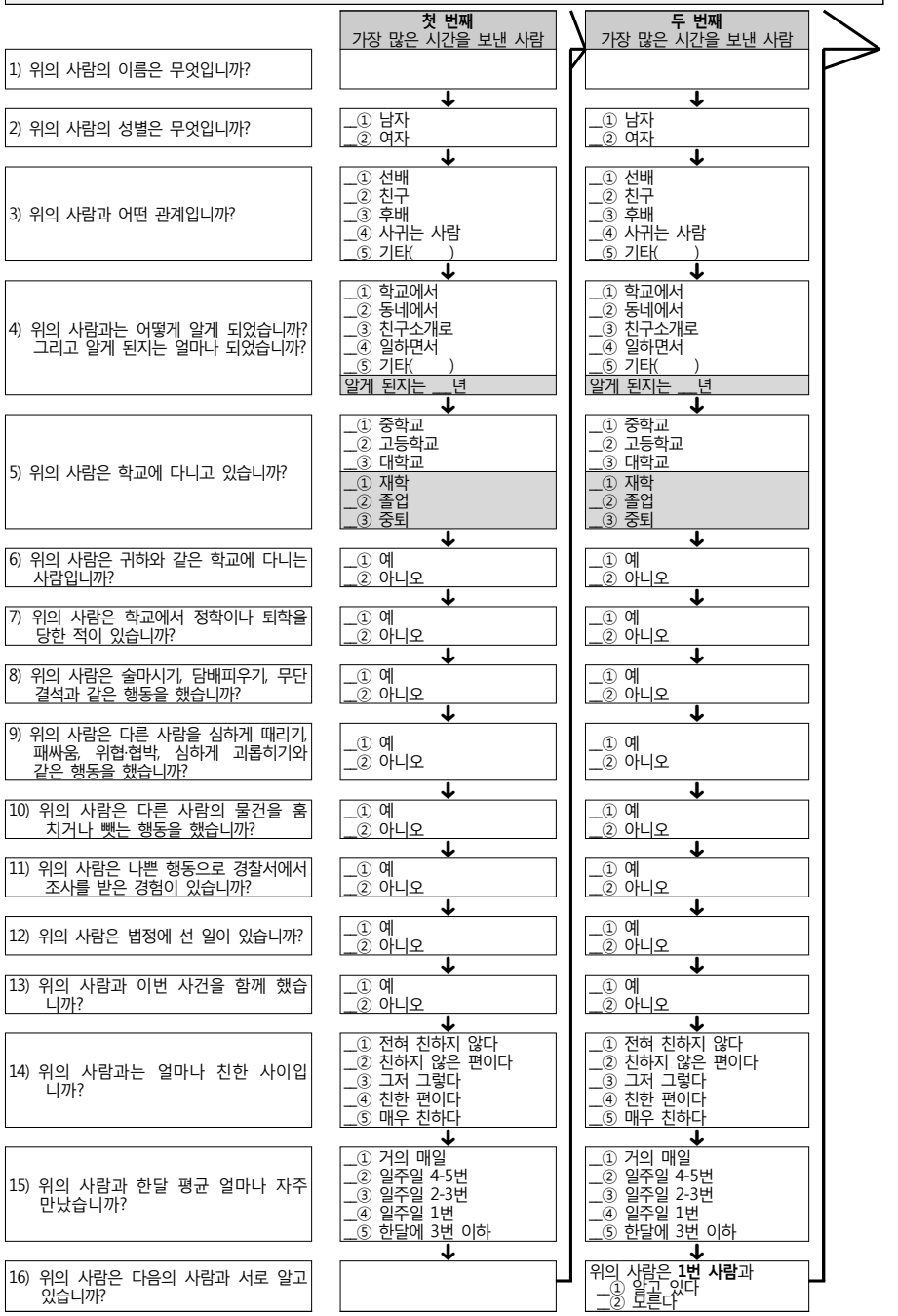
① 절대로 불을 지르지 않을 것 같다 ② 불을 지를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불을 지를 것 같다
⑤ 확실히 불을 지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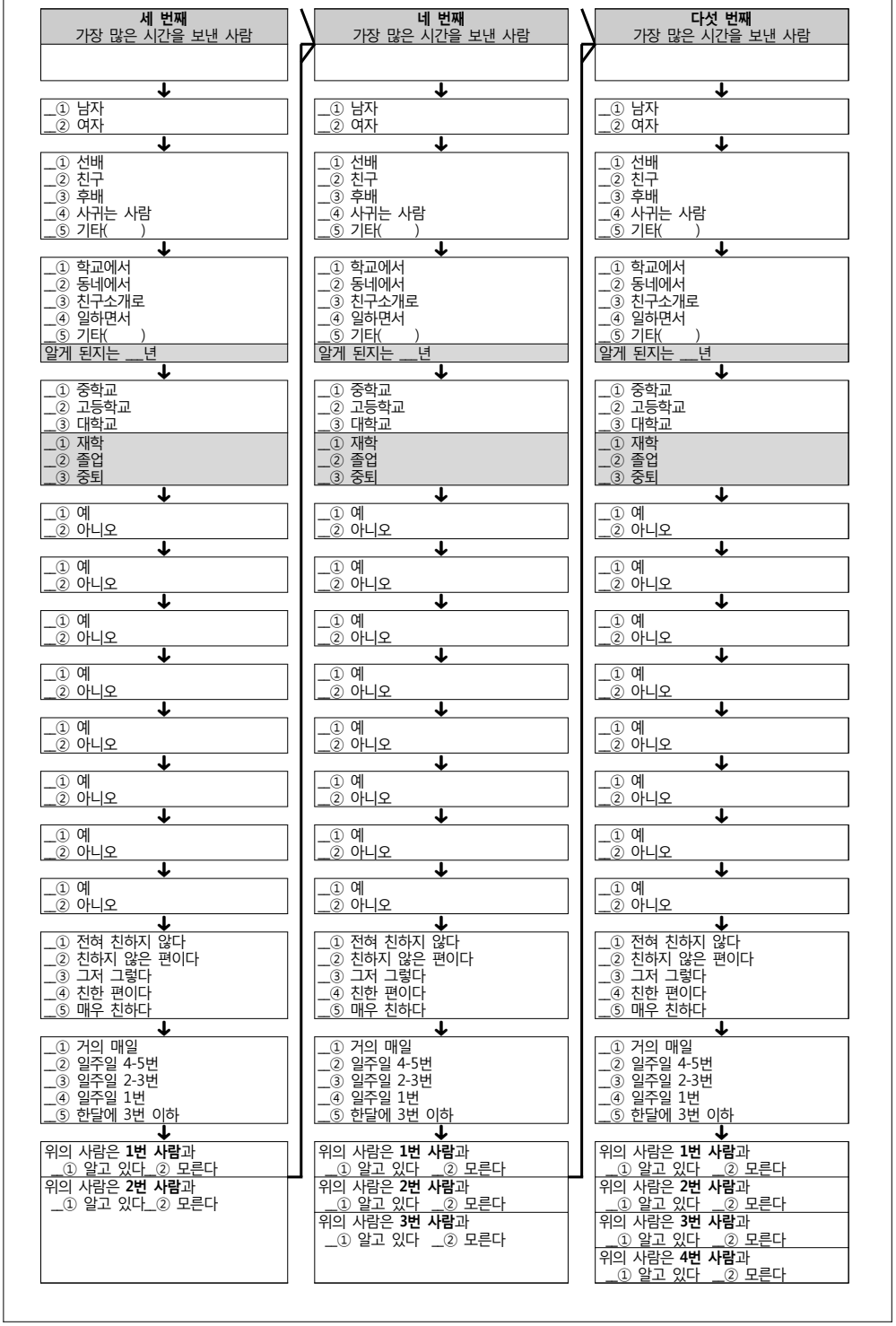
D3-3. 만약 위의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끔씩 다니고 있다면 불을 지르겠습니까?

① 절대로 불을 지르지 않을 것 같다 ② 불을 지를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불을 지를 것 같다
⑤ 확실히 불을 지를 것 같다

E.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이 가족을 제외하고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살표를 따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SN-1. 다음 문항은 **귀하가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가족을 제외**하고,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에 대해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세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네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다섯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_① 남자
_② 여자
_① 선배
_② 친구
_③ 후배
_④ 사귀는 사람
_⑤ 기타(　　)
_① 학교에서
_② 동네에서
_③ 친구소개로
_④ 일하면서
_⑤ 기타(　　)
알게 된지는 __년
_① 중학교
_② 고등학교
_③ 대학교
_① 재학
_② 졸업
_③ 중퇴
_① 예
_② 아니오
_① 전혀 친하지 않다
_② 친하지 않은 편이다
_③ 그저 그렇다
_④ 친한 편이다
_⑤ 매우 친하다
_① 거의 매일
_② 일주일 4-5번
_③ 일주일 2-3번
_④ 일주일 1번
_⑤ 한달에 3번 이하
위의 사람은 1번 사람과
_① 알고 있다 _② 모른다
위의 사람은 2번 사람과
_① 알고 있다 _② 모른다
위의 사람은 3번 사람과
_① 알고 있다 _② 모른다
위의 사람은 4번 사람과
_① 알고 있다 _② 모른다

F. 마지막으로 다음은 이번 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F1. 이번 사건의 죄명(미수포함)은 무엇입니까?
① 절도 ②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③ 강도
④ 강제추행 ⑤ 강간 ⑥ 방화 ⑦ 살인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

F2. 이번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센 저항이나 경찰출동 등의 이유로 범행을 미처 끝내지 못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F3.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동일한 사건을 몇 번이나 저질렀습니까?
① 저지른 적 없다 ② 있다 총(_____)번

F4. 이번 사건을 했던 당시 나이가 만으로 몇 살 이었습니까? 만(_____)세

F5. 이번 사건을 했었던 당시 같이 참여한 사람(공범)이 있습니까?
① 없다**(☞ F6번으로)**
② 있다. a.동성(_____)명 / b.이성: (_____)명/ **(☞ F5-1번으로)**

F5-1. 이번 사건을 같이 한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모두 적어주세요)**
① 동성학교친구 ② 동성선배 ③ 동성 후배
④ 동성 동네친구 ⑤ 이성선배 ⑥ 이성후배
⑦ 이성 학교친구 ⑧ 이성 동네친구 ⑨ 가족, 친척
⑩ 애인 ⑪ 모르는 동성 ⑫ 모르는 이성
⑬ 기타(_____)

F5-2. 이번 사건을 같이 한 사람들에서 귀하의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주도적 역할 ② 보조적 역할 ③ 단순가담

F6. 이번 사건을 하려고 결정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범행 한 달 전 이상 ② 범행 일주일전 이상
③ 범행 몇일 전 ④ 범행 몇 시간 전
⑤ 범행 직전

F7. 귀하가 범행을 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① 밤 12시(00:00)부터 새벽 3시 이전 ②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전
③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 이전 ④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 이전
⑤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 이전 ⑥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이전
⑦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 이전 ⑧ 저녁 9시부터 밤 12시 이전

F8.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	개인 주거지	_1) 단독주택 _2) 연립 혹은 다세대 주택 _3) 저층(5층 이하) 아파트 _4) 고층(6층 이상) 아파트 8-1. 만일 이번 사건을 개인주거지에서 저질렀다면 그 장소는? ① 피해자의 집 ② 나의 집 ③ 나와 피해자가 함께 사는 집
□	개인 상점	_5) 편의점/동네슈퍼/주유소 _6) 전자제품 대리점 _7) 보석상/금은방/전당포 _8) 기타 나머지 대리점/상점
□	유흥 및 위락업소	_9) 오락실/ PC방/ 당구장 _10) 숙박/안마/비디오/휴게방 _11) 목욕탕/이발소/미용실 _12) 음식점/술집/노래방
□	중·대형 사업체	_13) 은행/금융기관 _14) 사무실 _15) 공장/창고 _16) 백화점/대형마트
□	공공기관	_17) 관공서 _18) 학교/학원 _19) 종교기관 _20) 병원
□	야외	_21) 길거리 _22) 공원 _23) 야산 _24) 놀이터 _25) 공터
□	대중교통	_26) 지하철 _27) 버스 _28) 택시
□	기타 장소	_29) 기타 나머지 장소(구체적으로_____)

F8-1. **이번**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이번 사건 발생 장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건발생 장소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사건발생 장소는 평소 **자주 가는** 장소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사건발생 장소나 대상이 **문이 열려있는** 등의 이유로 **접근**이 쉬웠다	①	②	③	④	⑤
4) 비행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취한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가 널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이번 사건 발생 장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8) 가로등이 없거나 햇빛이 들지 않아 항상 어둡다	①	②	③	④	⑤
9) 밤이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까운 곳에 공원이나 야산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작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3) 근처에는 CCTV나 경찰지구대(파출소), 경찰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전자오락실, PC방, 노래방, 당구장, 술집, 나이트클럽, 여관, 모텔 등이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주변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나 경찰차가 자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F9. 이번 사건에 (몽둥이, 칼, 줄 등)흉기가 사용되었습니까?

① 나 혹은 우리만 흉기를 사용하였다**(☞ F9-1번으로)**

② 피해자만 흉기를 사용하였다**(☞ F9-1번으로)**

③ 나 혹은 우리와 피해자 모두 흉기를 사용하였다**(☞ F9-1번으로)**

④ 흉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F10번으로)**

F9-1. 이번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무엇입니까?

① 칼, 낫 등 ② 몽둥이, 둔기 ③ 줄, 끈

④ 총기(장남감 총 포함) ⑤ 독극물, 약물 ⑥ 손, 발 등 신체를 사용하여

⑦ 자동차 등 운송수단 ⑧ 기타(_____)

F9-2. 이번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① 이번 범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였다

② 이번 범행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였다

③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있는 물건이었다

④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것이었다

⑤ 기타(_____)

F10. **범행을 할 당시** 다음과 상황이 있었습니까?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피해자가** 나에게 시비(욕설)를 먼저 걸었다	①	②
2) **피해자가** 나에게 먼저 협박을 했다	①	②
3) **피해자가** 나를 먼저 때렸다	①	②
4) **피해자에게** 시비와 욕설을 먼저 했다	①	②
5) **피해자에게** 먼저 위협이나 협박을 했다	①	②
6) **피해자를** 먼저 때렸다	①	②
7) **피해자를** 끈이나 테이프로 묶거나 감금했다	①	②

F11. 범행을 할 당시의 피해자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 표시 해 주세요

① 피해자는 취침 중이었다
② 피해자는 일하는 중이었다
③ 피해자는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④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
⑤ 피해자(물건의 주인이나 집 주인)가 사건 장소에 없었다
⑥ 피해자는 비싼 옷이나 가방 등을 가지고 있었다.
⑦ 기타(_____)

F12.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a.남자(_____)명, b.여자(_____)명, □ 모르겠다

F13.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연령은 자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 피해자가 2명 이상이라면, 피해자 중 가장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기 바랍니다)

① 나보다 나이가 많다 ② 나보다 어리다
③ 나와 동갑이다 ④ 모르겠다

F14.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물질적 피해 및 신체적 피해 모두 없었다
② 물질적 피해만 있었다
③ 신체적 피해만 있었다
④ 물질적 신체적 피해 모두 있었다
⑤ 모르겠다

F15.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입니까?

① 친구, 선후배**(☞ F15-1번으로)** ② 친척**(☞ F15-1번으로)**
③ 부모나 형제자매 **(☞ F15-1번으로)** ④ 애인**(☞ F15-1번으로)**
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 F15-1번으로)**
⑥ 동네사람**(☞ F15-1번으로)**
⑦ 사건 있기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 **(☞ F15-1번으로)**

⑧ 사건이 있기 바로 전까지도 몰랐던 사람**(☞ F16번으로)**
⑨ 기타(_____)**(☞ F15-1번으로)**

F15-1. 평소 피해자와 어떻게 지냈습니까?
① 친한 관계였다**(☞F16번으로)**
② 친하진 않지만 나쁜 관계도 아니었다**(☞ F16번으로)**
③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F15-2번으로)**

F15-2.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_____)

F16.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활비나 빚을 갚기 위해서 ② 유흥비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③ 호기심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로 ④ 친구나 선배에게 자랑하려고
⑤ 술 취해서 ⑥ 부모와 가족에 대한 반발심
⑦ 사회에 대한 불만 ⑧ 단순히 화가 나서
⑨ 친구나 선배의 권유나 부추김으로 ⑩ 피해자에 대한 복수
⑪ 성적 충동이나 흥분 ⑫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⑬ 기타(구체적으로:_____)

F17. 이번 사건을 저지를 때에는 가출한 상태였습니까?
① 예**(☞ F17-1번으로)** ② 아니오**(☞ F18번으로)**

F17-1. 그 당시 머물렀던 곳은 어디입니까?
① 보호자가 안계시는 친구나 선배 집 ② 찜질방
③ (여관, 모텔 등) 숙박업소 ④ PC방
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나 공사장 ⑥ 쉼터

⑦ 독서실 혹은 고시원
⑧ 인터넷에서 알게 된 숙식제공자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F18.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항목	했다	하지 않았다
1) 미리 범행 대상(장소)를 선정하였다	①	②
2) 범행에 쓰일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①	②
3) 범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생각해두었다	①	②
4) 도주하는 방법을 미리 짜놓았다	①	②
5) 전체적인 예행연습을 해보았다	①	②

F19. **이번 사건**을 저지를 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그저 그랬다	그런 편이었다	매우 그랬다
1) 경찰에게 분명히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이번 행동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F20. **이번** 사건을 저지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① 바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②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③ 다른 사람 혹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 까지 현장에 계속 남아있었다
④ 경찰에 신고 후 도주 했다
⑤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 데려다 주었거나 불을 끄는 등 상황수습 하고 도주 했다
⑥ 기타(_____)

F21. 귀하는 범행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습니까?

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F22번으로)**
②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F21-1번으로)**
③ 술을 마시고 취한 느낌이 들었다**(☞ F21-1번으로)**
④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취했다**(☞ F21-1번으로)**

F21-1. 이번 사건 당시 술을 마셨다면 누구와 함께였습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동성친구 ② 동성 선·후배 ③ 이성 친구
④ 이성 선·후배 ⑤ 모르는 동성 ⑥ 모르는 이성
⑦ 기타 (구체적으로_____)

F22. 이번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① 본인의 자수 ② 사건에 함께 가담한 다른 사람의 자수
③ 사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됨 ④ 신고(고소, 고발)에 의해
⑤ 기타 (구체적으로_____)

F23. 경찰조사를 받을 그 당시 어떤 생각이 하셨습니까?

① 다른 사람들은 적발되지 않는데 왜 나만 걸렸나 라는 억울한 생각
② 담당 경찰관에게 사정을 해야겠다는 생각
③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스러웠다
④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F24.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다음의 각 사항이 어떠했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담당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담당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로 무서웠다	①	②	③	④	⑤
3) 담당 **경찰**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담당 **경찰**은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낮춰주기 위해 힘껏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F25.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다음의 각 사항이 어떠했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담당 **검사**로부터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담당 **검사**의 강압적인 태도로 무서웠다	①	②	③	④	⑤
3) 담당 **검사**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담당 **검사는**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낮춰주기 위해 힘껏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F26.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다음의 각 사항이 어떠했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담당 **변호사**로부터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담당 **판사**의 강압적인 태도로 무서웠다	①	②	③	④	⑤
3) 담당 **변호사**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담당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낮춰주기 위해 힘껏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F27. 귀하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무겁다
② 내가 저지른 죄에 적당한 처벌(처분)이다
③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가볍다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F27-1 이번 사건으로 받은 형량은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F27-2 이번 사건으로 이곳에서 생활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F28. 이번 사건을 저지를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번과 같은 행동을 할 겁니까?

① **절대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②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③ 반반이다
④ 같은 행동을 할 것 같다
⑤ 같은 행동을 **반드시** 할 것이다

F29.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모님이나 친구 등 주변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행동에 대해		매우 많이 나빠졌다	조금 나빠졌다	달라진 것이 없다	더 좋아진 편이다	매우 좋아졌다
	안다	모른다					
1) 부모님(길러주신 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반 친구나 선, 후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평소 친한 친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선생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사람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전반적인 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일반 청소년용

ID	1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청소년 생활 및 의식에 대한 조사

-일반청소년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연구, 형사사법제도 연구 등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경험 및 의식에 대해 조사하여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귀하께서는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을 대표하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 장 김 일 수

연구수행기관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수형 부연구위원 이애경 인턴연구원
조사 대행기관	미디어 리서치 MillwardBrown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최정호 차장 (☎02-3488-2782) 황지영 과장 송정련 연구원

학교명	고등학교	**학년**	학년

A. 일반적 사항

A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A2. 현재 몇 살입니까? (만_____세)

A3.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① 친부모 ② 친부 나 친모(편부모인 경우)
③ 조부모, 조부나 조모 ④ 계부+친모, 친부+계모
⑤ 친척 ⑥ 시설
⑦ 기타(_____)

A4. 부모님(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의 학력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A4-1. 아버지 (_____)
A4-2. 어머니 (_____)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대졸 이하 ④ 대학원 이상

A5. 부모님(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A5-1. 아버지 (_____)
A5-2. 어머니 (_____)

①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② 일반 사무직
③ 서비스 및 판매직(가이드, 미용사, 영업, 노점상 등)
④ 기능 및 기술직(제빵원, 컴퓨터 및 전기 수리, 자동차 조립, 버스운전원 등)
⑤ 단순 노무 종사자(공사장인부, 청소원, 경비원등)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직업 없음

A6. 자신의 집안(지금까지 자라온 곳)형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못사는 편이다 ② 약간 못 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사는 편이다

A7. 한 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① 용돈 없다 ② 1-5만원 미만 ③ 5-10만원 미만
④ 10-20만원 미만 ⑤ 20-30만원 미만 ⑥ 30만원 이상

A8. 다음 문항은 평소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재미있는 일을 하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여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일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무리 신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 위험이 따른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면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A9. 당신의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_____)

B. 다음은 여러분의 최근 6개월 동안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B1. **최근 6개월 동안**의 평소 생활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밤에 주로 집밖에 많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구들과 자주 몰려 다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일상생활과 내 주위를 보면 나쁜 일을 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술 마시고 많이 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_1. **최근 6개월 간** 부모님(혹은 보호자)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됩니까?

	평일	주말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시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_____시간	_____시간

B2. **최근 6개월 간** 늦은 **밤** 집밖에서 주로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 **모두**를 선택해 주세요.

① 동성 학교친구 ② 동성 선배 ③ 동성 후배
④ 동성 동네친구 ⑤ 이성 선배 ⑥ 이성 후배
⑦ 이성 학교친구 ⑧ 이성 동네친구 ⑨ 가족, 친척
⑩ 애인 ⑪ 모르는 동성 ⑫ 모르는 이성
⑬ 기타(_____)

B2-1. 위에 응답한 사람과 주로 함께 있던 장소는?

① 술집이나 노래방이 많은 유흥가 ② 보호자가 없는 집
③ PC방 ④ 인적이 드문 공터나 야산 등
⑤ 우리 집 ⑥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
⑦ 학원 안이나 학원주변 ⑧ 기타(_____)

B3. 최근 6개월 간 여러분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비행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취한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가 널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로등이 없거나 햇빛이 들지 않아 항상 어둡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이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가까운 곳에 공원이나 야산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작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근처에는 CCTV나 경찰지구대(파출소), 경찰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전자오락실, PC방, 노래방, 당구장, 술집, 나이트클럽, 여관, 모텔 등이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주변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나 경찰차가 자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B4. **최근 6개월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규범이나 법은 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야단을 맞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급한 경우에는 새치기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와의 의리를 지기키 위해서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발각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B5. **최근 6개월 동안** 각 문항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기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과 나는 **마음**이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6)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대학입시 또는 **취업,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8) 공부가 하기 싫어서 **짜증**난다	①	②	③	④	⑤
9)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멋있거나 예쁜 **옷**을 입지 못해서 짜증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지금 받는 **용돈**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여건상 내가 추구하는 **목표**나 일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B6. 최근 6개월 동안의 부모님과 친구와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셨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길러주신 분)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길러주신 분)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길러주신 분)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C. 다음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C1.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지금까지의 경험		최근 6개월 간 경험 정도					최초 경험 시기
	없다	있다	한번도 한적 없다	한두번	가끔씩	자주 하는 편	매일 하는 편	
1) 음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2) 흡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3) 무단결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4) 술집 출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5) 가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6) 심하게 때리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7) 패싸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8) 위협이나 협박하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9) 친구 따돌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0) 돈이나 물건 뺏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1) 불 지르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2)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3) 성인용 음란물이나 포르노물 시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4) 채팅과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5)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6)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더듬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17) 강제적인 성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___살 때 ___월

▶ **C1-5) 가출의 경험이 ②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하세요.**

(※문C1-5)가출 경험이 ①없다면 C2로)

C1-5-1. 만일 가출의 경험이 있다면 지금까지 몇 번 하였습니까?

(_____)번

C1-5-2. 처음으로 가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부모님의 학대 때문에
②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③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④ 가정형편이 어려워 답답해서
⑤ 학교에 가기 싫어서
⑥ 공부하기 싫어서
⑦ 학교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아서
⑧ 친구나 선배의 권유나 부추김으로
⑨ 기타(직접 써주세요:_____)

C1-5-3.가출한 후에 주로 어디서 숙식을 해결했습니까?

① 보호자가 안 계시는 친구나 선후배 집
② 찜질방
③ (여관, 모텔 등의) 숙박업소
④ PC방
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나 공사장 ⑥ 쉼터
⑦ 독서실 혹은 고시원
⑧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숙식 제공자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C2. 주변에 음주나 흡연, 때리기, 패싸움, 돈이나 물건 뺏기, 훔치기 등 **1번 문항에 있는 행동**을 하는 **친구나 선배가** 있었습니까?

① 동성 - a. 친구: _____명, b. 선배:_____명, c. 후배:_____명 □ 없다

② 이성 - a. 친구: _____명, b. 선배:_____명, c. 후배:_____명 □ 없다

C3. **음주나 흡연, 때리기, 패싸움, 돈이나 물건 뺏기, 훔치기 등의 1번 문항에 있는 행동의 경험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그 행위가 **맨 처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행동에 대해,		매우 많이 나빠졌다	조금 나빠졌다	달라진 것이 없다	더 좋아진 편이다	매우 좋아졌다
	안다	모른다					
1) 부모님(길러주신 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반 친구나 선, 후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평소 친한 친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선생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사람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전반적인 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4. **음주나 흡연, 때리기, 패싸움, 돈이나 물건 뺏기, 훔치기 등의 1번 문항에 있는 행동의 경험이 하나라도 있다면,** 위와 같은 행동으로 맨 처음 했을 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5.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 **다음과 같은 경험이 없다면 문항 C6으로)**

나는	경험 여부		있다면 _번	최초 경험시기
	없다	있다		
1) 내가 한 나쁜 행동으로 학교에서 징계(근신, 정학 등)나 교내/교외 봉사나 벌점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_번_	___살 때, __월
2) 내가 한 나쁜 행동으로 경찰에 잡힌 적 있다	①	②	_번_	___살 때, __월
3) 내가 한 나쁜 행동으로 법정에 선 경험이 있다	①	②	_번_	___살 때, __월

C5-1. 만일 나쁜 행동을 저질러 **학교 징계나 교내·교외 봉사나 벌점**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경험이 있는 것 **모두** V표 해주세요.

① 음주 ② 흡연 ③ 무단결석 ④ 술집 출입
⑤ 가출 ⑥ 심하게 때리기 ⑦ 패싸움 ⑧ 위협이나 협박
⑨ 친구 따돌림 ⑩ 돈이나 물건 뺏기 ⑪ 불 지르기
⑫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⑬ 성인용 음란물이나 포르노물 시청 ⑭ 채팅과 메일을 통한 음란 대화
⑮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⑯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더듬기
⑰ 강제적인 성관계 ⑱ 기타(구체적으로:_____)
□ 경험 없다

C5-1-1. **학교 징계나 교내·교외 봉사나 벌점** 경험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학교 징계나 교내·교외 봉사나 벌점** 경험이 **맨 처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행동에 대해,		매우 많이 나빠졌다	조금 나빠졌다	달라진 것이 없다	더 좋아진 편이다	매우 좋아졌다
	안다	모른다					
1) 부모님(길러주신 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반 친구나 선, 후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평소 친한 친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선생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사람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전반적인 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5-1-2. **학교 징계나 교내·교외 봉사나 벌점** 경험이 **처음이었을 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5-2. 만일 나쁜 행동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경험이 있다면, 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V표 해주세요.

① 절도 ②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③ 폭행
④ 강도 ⑤ 강제추행 ⑥ 강간
⑦ 방화 ⑧ 살인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 경험 없다

C5-3. 만일 나쁜 행동을 저질러 **법정**에 선 경험이 있다면, 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V표 해주세요.

① 절도 ②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③ 폭행
④ 강도 ⑤ 강제추행 ⑥ 강간
⑦ 방화 ⑧ 살인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 경험 없다

C5-3-1.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만일 나쁜 행동을 저질러 법정에 선 경험이 있다면 그 당시 받은 처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V표 하고 몇 건인지 직접 써 주세요.

① 기소유예(_____건) ② 소년부송치(_____건) ③ 벌금(_____건)
④ 단기소년원(_____건) ⑤ 일반소년원(_____건) ⑥ 징역형(_____건)
☐ 경험 없다

C5-4. 지금까지 **나쁜 행동으로 경찰에 붙잡혔거나 법정에 선 경험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이러한 경험이 **맨 처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행동에 대해,		매우 많이 나빠졌다	조금 나빠졌다	달라진 것이 없다	더 좋아진 편이다	매우 좋아졌다
	안다	모른다					
1) 부모님(길러주신 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반 친구나 선, 후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평소 친한 친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선생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사람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전반적인 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5-5. **지금까지 나쁜 행동으로 경찰에 붙잡혔거나 법정에 선 경험이 처음이었을 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 경험 없다

C6. 지금까지 다음의 사건들을 경험했었습니까? 경험했었다면 언제입니까?

항목	경험 여부		최초 경험시기
1)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함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2) 남에게 맞거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3) 성추행, 성폭행 관련 피해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4) 부모(길러주신 분)로부터의 폭력 및 학대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5) 부모(길러주신 분)의 이혼 혹은 별거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6) 부모(길러주신 분)의 사업실패 혹은 실직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7) 부모(길러주신 분)의 오랜 병상생활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8) 부모(길러주신 분)의 사망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9) 본인 혹은 이성친구의 원치 않는 임신 혹은 낙태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10) 사귀는 사람과 이별	①예	②아니오	_____살 때

D. 다음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상황 1. 어떤 가게에서 평소 갖고 싶었지만 사지 못했던 물건이 눈에 띄었다. 상당히 값나가는 물건이었다. 가게는 전체적으로 어두웠고 주위에는 보는 사람들도 없었다.

D1. 여러분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① 절대로 훔치지 않을 것이다 ② 훔칠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훔칠 것 같다
⑤ 확실히 훔칠 것이다

D1-1. 만약 평소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었다면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① 절대로 훔치지 않을 것이다 ② 훔칠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훔칠 것 같다
⑤ 확실히 훔칠 것이다

D1-2. 만약 물건을 훔치러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이나 직원이 있었다면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① 절대로 훔치지 않을 것이다 ② 훔칠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훔칠 것 같다
⑤ 확실히 훔칠 것이다

상황 2. 나는 돈이 필요했다. 길을 걸어가다가 가방을 든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밤이라서 주위는 어두웠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D2. 귀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돈을 빼앗겠습니까?

①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② 빼앗을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빼앗을 것 같다
⑤ 확실히 빼앗을 것이다

D2-1. 만약 돈이 필요 없었다면 돈을 빼앗겠습니까?

①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② 빼앗을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빼앗을 것 같다
⑤ 확실히 빼앗을 것이다

D2-2. 만약 위의 상황에서 가방을 든 어떤 여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다면 돈을 빼앗겠습니까?

①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② 빼앗을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빼앗을 것 같다
⑤ 확실히 빼앗을 것이다

D2-3. 만약 위의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끔씩 다니고 있다면 돈을 빼앗겠습니까?

①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② 빼앗을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빼앗을 것 같다
⑤ 확실히 빼앗을 것이다

D2-4. 만약 위의 상황에서 가방을 든 여자가 심하게 저항을 한다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빼앗겠습니까?

① 절대로 폭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② 폭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③ 반반이다
④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⑤ 확실히 폭력을 사용할 것이다.

상황 3.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늦은 밤 친구들과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골목길에 냄새나는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화가 났다. 그 때 호주머니에 있는 라이터가 만져졌다.

D3. 귀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쓰레기에 불을 지르겠습니까?

① 절대로 불을 지르지 않을 것 같다　② 불을 지를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불을 지를 것 같다
⑤ 확실히 불을 지를 것 같다

D3-1. 만약 기분 나쁜 일이 없었다면 불을 지르겠습니까?

① 절대로 불을 지르지 않을 것 같다　② 불을 지를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불을 지를 것 같다
⑤ 확실히 불을 지를 것 같다

D3-2. 만약 위의 상황에서 호주머니에 라이터가 없었다면 불을 지르겠습니까?

① 절대로 불을 지르지 않을 것 같다　② 불을 지를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불을 지를 것 같다
⑤ 확실히 불을 지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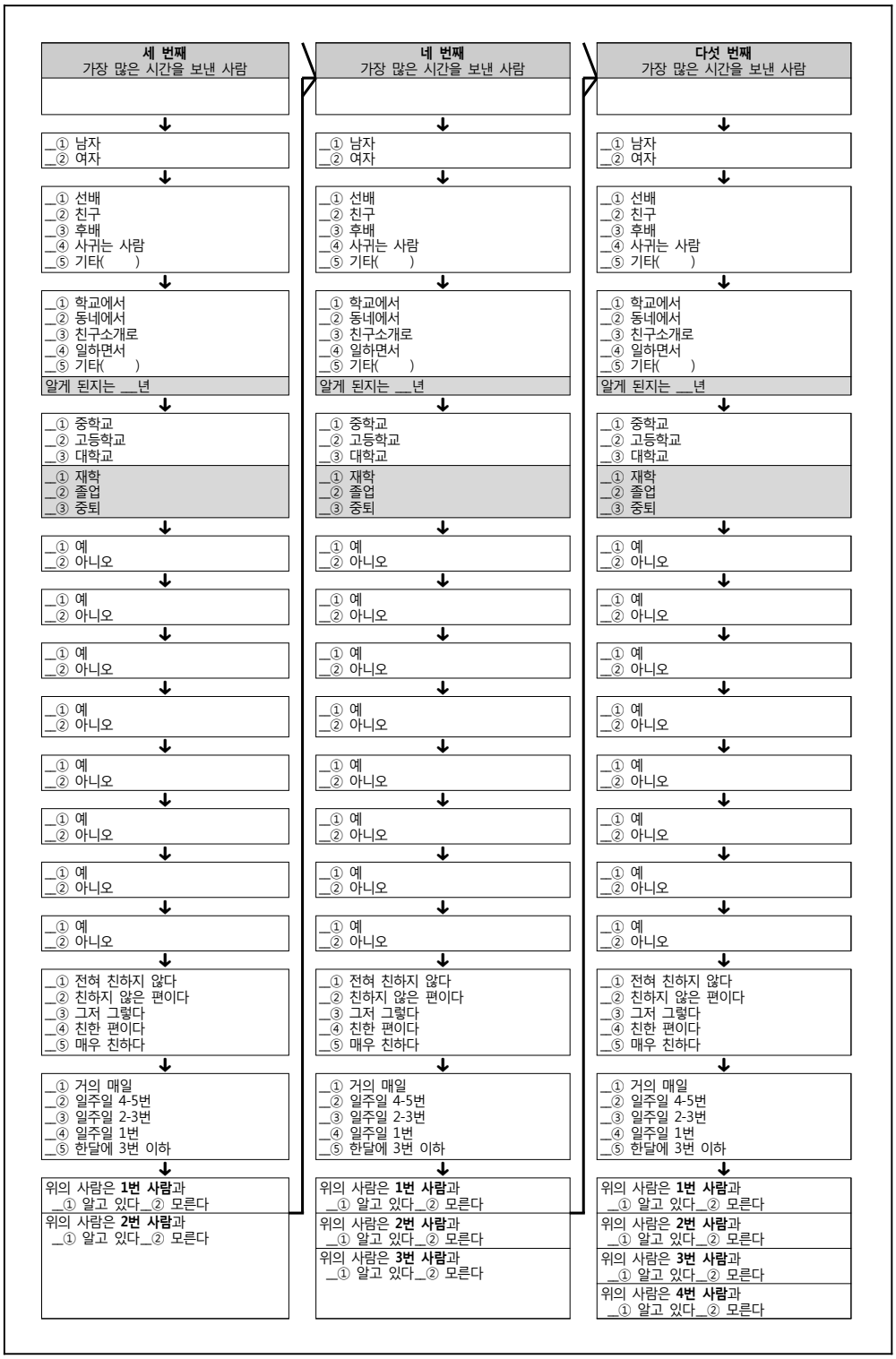
D3-3. 만약 위의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끔씩 다니고 있다면 불을 지르겠습니까?

① 절대로 불을 지르지 않을 것 같다　② 불을 지를 것 같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불을 지를 것 같다
⑤ 확실히 불을 지를 것 같다

E.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이 가족을 제외하고.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살표를 따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SN-1. 다음 문항은 귀하가 지금까지 **가족을 제외**하고,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에 대해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첫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두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1) 위의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위의 사람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① 남자 _② 여자	_① 남자 _② 여자
3) 위의 사람과 어떤 관계입니까?	_① 선배 _② 친구 _③ 후배 _④ 사귀는 사람 _⑤ 기타( )	_① 선배 _② 친구 _③ 후배 _④ 사귀는 사람 _⑤ 기타( )
4) 위의 사람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알게 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_① 학교에서 _② 동네에서 _③ 친구소개로 _④ 일하면서 _⑤ 기타( ) 알게 된지는 __년	_① 학교에서 _② 동네에서 _③ 친구소개로 _④ 일하면서 _⑤ 기타( ) 알게 된지는 __년
5) 위의 사람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_① 중학교 _② 고등학교 _③ 대학교 _① 재학 _② 졸업 _③ 중퇴	_① 중학교 _② 고등학교 _③ 대학교 _① 재학 _② 졸업 _③ 중퇴
6) 위의 사람은 귀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_① 예 _② 아니오	_① 예 _② 아니오
7) 위의 사람은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_① 예 _② 아니오	_① 예 _② 아니오
8) 위의 사람은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무단결석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_① 예 _② 아니오	_① 예 _② 아니오
9) 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위협·협박, 심하게 괴롭히기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_① 예 _② 아니오	_① 예 _② 아니오
10) 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행동을 했습니까?	_① 예 _② 아니오	_① 예 _② 아니오
11) 위의 사람은 나쁜 행동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_① 예 _② 아니오	_① 예 _② 아니오
12) 위의 사람은 법정에 선 일이 있습니까?	_① 예 _② 아니오	_① 예 _② 아니오
13) 위의 사람과 이번 사건을 함께 했습니까?	_① 예 _② 아니오	_① 예 _② 아니오
14) 위의 사람과는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_① 전혀 친하지 않다 _② 친하지 않은 편이다 _③ 그저 그렇다 _④ 친한 편이다 _⑤ 매우 친하다	_① 전혀 친하지 않다 _② 친하지 않은 편이다 _③ 그저 그렇다 _④ 친한 편이다 _⑤ 매우 친하다
15) 위의 사람과 한달 평균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_① 거의 매일 _② 일주일 4-5번 _③ 일주일 2-3번 _④ 일주일 1번 _⑤ 한달에 3번 이하	_① 거의 매일 _② 일주일 4-5번 _③ 일주일 2-3번 _④ 일주일 1번 _⑤ 한달에 3번 이하
16) 위의 사람은 다음의 사람과 서로 알고 있습니까?		위의 사람은 **1번 사람**과 _① 알고 있다 _② 모른다


세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네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다섯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_① 남자
_② 여자
_① 선배
_② 친구
_③ 후배
_④ 사귀는 사람
_⑤ 기타( )
_① 학교에서
_② 동네에서
_③ 친구소개로
_④ 일하면서
_⑤ 기타( )
알게 된지는 __년
_① 중학교
_② 고등학교
_③ 대학교
_① 재학
_② 졸업
_③ 중퇴
_① 예
_② 아니오
_① 전혀 친하지 않다
_② 친하지 않은 편이다
_③ 그저 그렇다
_④ 친한 편이다
_⑤ 매우 친하다
_① 거의 매일
_② 일주일 4-5번
_③ 일주일 2-3번
_④ 일주일 1번
_⑤ 한달에 3번 이하
위의 사람은 1번 사람과
_① 알고 있다_② 모른다
위의 사람은 2번 사람과
_① 알고 있다_② 모른다
위의 사람은 3번 사람과
_① 알고 있다_② 모른다
위의 사람은 4번 사람과
_① 알고 있다_② 모른다

연구총서 13-AA-06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발 행 / 2014년 2월
발행인 / 박상옥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2/5283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삼양애드
(02)3474-3646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10,000원
ISBN 978-89-7366-008-7 93330